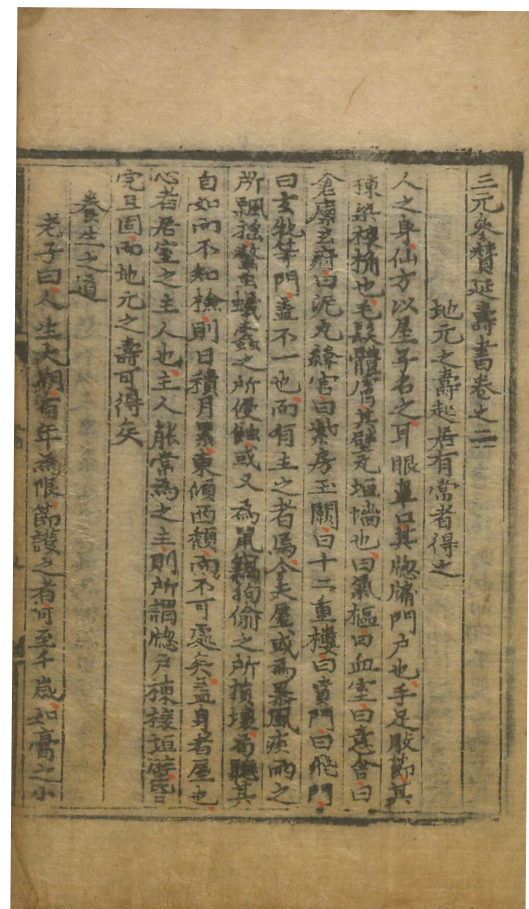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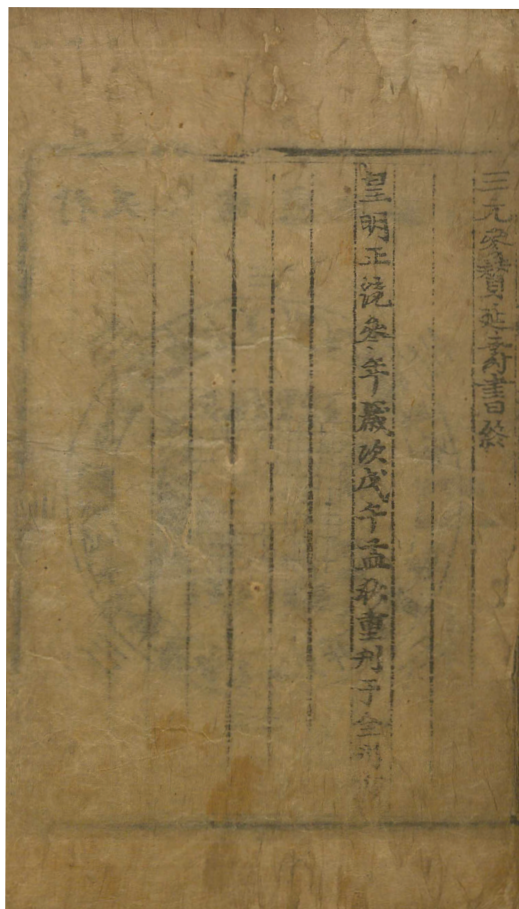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해제집 (202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해제집(2023)

연구기간 : 2022년 3월 28일 ~ 9월 24일

수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연구소

연구책임자 : 옥영정(고문헌관리학 교수)

- 목 차 -

범례	1
해제 목록	3
해제	9
부록1. 장서인 목록	317

범례

I. 수록범위

본 해제는 2023년 고문헌 정리·해제 연구용역 사업의 하나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중 미해제 고문헌 140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해제 작성 방식

1. 해제는 한글과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2. 해제수록 순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목록의 순서를 따랐다.
3. 해제의 체제는 개요,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구성 및 내용, 서지적 특성, 종합 평가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해제의 상단에는 형태서지를 포함한 기본사항을 하단에는 핵심어·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4. 해제 작성에 기본적으로 참고한 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료와 해제 DB이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DB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rcis/index.do>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s://jsg.aks.ac.kr/>

- 해제 목록 -

1. 가례보의(家禮補疑)	9
2. 가례혹문(家禮或問)	11
3. 감지금니상진황촉객서(紺紙金泥上秦皇逐客書)	13
4. 경국대전(經國大典)	15
5.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17
6. 경서의오강해(經書疑誤講解)	19
7. 고론(古論)	21
8. 구암유고(久菴遺稿)	23
9. 구양문충공오대사초(歐陽文忠公五代史抄)	25
10. 국포선생집(菊圃先生集)	28
11. 권자락집위증변파록(權自樂集僞證辨破錄)	30
12. 근암선생문집(近庵先生文集)	32
13.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34
14. 금낭경(錦囊經)	36
15. 기묘록(己卯錄)	38
16. 농옹유고(聾翁遺稿)	40
17.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	42
18. 도원유적(桃源遺蹟)	44
19. 독례수초(讀禮隨鈔)	46
20. 독서록(讀書錄)	48
21. 동상선생문집(東湘先生文集)	51
22. 동파문수(東坡文粹)	53
23. 만국략사(萬國略史)	55
24. 만회집참의(晩悔集僭疑)	57
25. 매산선생예설(梅山先生禮說)	59
26. 모양지(牟陽誌)	61
27. 몽관집(夢關集)	63

28.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65
29.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67
30. 묵암집(默庵集)	69
31. 문사저영(文史咀英)	71
32. 문선(文選)	73
33.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75
34. 방산집(方山集)	78
35. 백석유고(白石遺稿)	80
36. 번천집(樊川集)	82
37.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本大歲經)	84
38. 사례편람(四禮便覽)	86
39. 사의(士儀)	88
40. 사찬초선(史纂抄選)	90
41. 사칠속편(四七續編)	93
42. 사한일통(史漢一統)	95
43. 사한일통(史漢一統)	97
44. 산보문원사굴(刪補文苑植橘)	99
45. 삼원기사(三寃記事)	101
46. 삼원참찬연수서(三元參贊延壽書)	103
47. 삼현실기(三賢實紀)	106
48. 상례비요(喪禮備要)	108
49. 상변통고(常變通攷)	110
50. 상제의집록(喪祭儀輯錄)	112
51. 상제집략(喪祭輯略)	114
52. 석씨원류(釋氏源流)	116
53. 석전선생유고(石田先生遺稿)	118
54. 석탄선생문집(石灘先生文集)	120
55. 선교석(禪敎釋)	122
56. 선부초평주해산보(選賦抄評註解刪補)	124

57. 성리관규(性理管窺)	126
58. 성명오대가율시초(盛明五大家律詩抄)	128
59. 성학집요(聖學輯要)	131
60. 소석유고(小石遺稿)	133
61. 소정시고(邵亭詩稿)	135
62.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137
63. 송파유고(松坡遺稿)	139
64.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142
65.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	144
66.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46
67.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間答)	149
68. 수촌집(水村集)	152
69. 송효록(崇孝錄)	154
70. 시선(詩選)	157
71. 시수(詩藪)	159
72. 시종(詩宗)	161
73.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	164
74.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新刊官板批評正百將傳)	166
75. 신수자경편(新修自警編)	169
76. 신편기묘유적(新編己卯遺蹟)	172
77. 악건집(嶽堅集)	174
78. 야곡선생집(冶谷先生集)	176
79.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	178
80. 양산세고(楊山世稿)	181
81. 양양기구록(襄陽耆舊錄)	183
82. 양자법언(楊子法言)	186
83. 여문정선(儷文程選)	188
84. 역대군감(歷代君鑒)	191
85. 역대신감(歷代臣鑒)	193

86. 역산집(櫟山集)	196
87. 영가삼이집(永嘉三怡集)	198
88. 오자근사록(五子近思錄)	200
89. 오자직해(吳子直解)	202
90.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	204
91. 운곡집(雲谷集)	206
92. 월사선생집변무주(月沙先生集辨誣奏)	208
93. 위료자직해(尉繚子直解)	210
94. 을묘동경첩(乙卯同庚帖)	212
95. 의례통고(疑禮通攷)	214
96. 의와졸변(疑訛拙辨)	216
97. 이언(易言)	218
98.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221
99. 일암선생문집(一庵先生文集)	223
100. 일죽유고(一竹遺稿)	225
101. 작성록(作成錄)	227
102. 정수록(正粹錄)	230
103. 정축록(丁丑錄)	232
104. 정현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234
105. 제반문(諸般文)	236
106. 제범(帝範)	238
107. 존화록(尊華錄)	240
108. 종덕신편(種德新編)	242
109. 주문작해(朱文酌海)	244
110. 주문초선(朱文抄選)	247
111. 주서요류(朱書要類)	249
112.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	252
113. 중향집(衆香集)	254
114. 창녕조씨 족보별록(昌寧曹氏族譜別錄)	257

115. 천원발미(天原發微)	260
116.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262
117. 청문(請文)	264
118. 청송시집(靑松詩集)	266
119. 초사변증(楚辭辨證)	268
120. 초학자훈증집	270
121. 충렬록(忠烈錄)	272
122. 치군요의(治郡要義)	274
123. 파주염씨족보(坡州廉氏族譜)	276
124. 팔천군일기(八川君日記)	279
125. 팔현행록(八賢行錄)	282
126. 팔효집(八孝集)	284
127. 풍거유고(楓渠遺稿)	286
128. 학천선생집(鶴泉先生集)	288
129. 한서찬(漢書纂)	290
130. 한준(漢雋)	293
131. 한초(漢草)	295
132. 함벽당선생문집(涵碧堂先生文集)	297
133. 항해조천록(航海朝天錄)	299
134.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301
135.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304
136. 현현선생화도시(玄軒先生和陶詩)	306
137. 협길통의(協吉通義)	308
138. 훈계선생언행록(渾溪先生言行錄)	310
139. 화동효열록(華東孝烈錄)	312
140. 황명조령(皇明詔令)	314

가례보의(家禮補疑)

KOL000015767

古5213-57

家禮補疑 / 張福樞(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907年跋]

6卷6冊 : 四周雙邊 半郭 21.8 × 18.4 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일부 無魚尾) ; 33.6 × 22.2 cm

序: 丁卯(1867)...張福樞

跋: 丁未(1907)...孫昌鉉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 학자인 장복추(張福樞, 1815~1900)가 쓴 『가례(家禮)』의 상례(喪禮)를 근본으로 하여 변례(變禮)에 대한 여러 학설을 모아 편찬한 주석서(注釋書)이다. 1907년 손창현(孫昌鉉, 1844~1920)의 발문을 받아 목판(木板)으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장복추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재야 학자로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경하(景遐), 호는 사미헌(四未軒)이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8대손으로 아버지는 장굉(張泓), 어머니는 동래정씨(東萊鄭氏)이다. 3세 때 큰아버지 장관(張寬)에게 입양되었으며 황호선(黃浩善)의 딸 장수황씨(長水黃氏)와 혼인하였으나 그가 죽자 채국표(蔡國標)의 딸 인천채씨(仁川蔡氏)와 재혼하였다. 과거를 치르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에 정진하면서 1881년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있으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는 철종 14(1863)년 49세로 생모인 동래정씨의 상을 당한 후 상변례(常變禮)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4년 동안의 편찬 과정을 거쳐 고종 4(1867)년 서문을 짓고 본서를 완성하였다. 장복추가 본서를 완성한 후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던 김진학(金鎭學, 1866~?)과 이탁균(李拓均, 1855~?)이 교감을 도왔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인 1907년에야 비로소 문인(門人)인 손창현에 의하여 6권(卷) 6책(冊)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장복추가 남긴 저서로는 문집인 『사미헌문집(四未軒文集)』을 비롯하여 『훈몽구잡(訓蒙九箴)』, 『금오산유록(金烏山遊錄)』, 『숙흥야매잠집설(夙興夜寐箴集說)』 등이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주자 『가례』를 일상적인 의례로 보고 『가례』에 수록되지 않은 변례(變禮)에 대한 여러 견해와 학설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가례』의 본문에 따라 항목을 배열하고 그 아래 여러 학설을 수록한 후 변례를 수록하였다. 주요한 특징으로 흘기(笏記)를 수록하여 실제 의례를 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총 6권 6책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책1에 「서(序)」·「범례(凡例)」·「예총론(禮總論)」·「가례서(家禮序)」·「인용서목(引用書目)」·「선유성씨(先儒姓氏)」·「목록(目錄)」, 책2~책5에는 각각 권1~권

4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1은 「통례(通禮)」 권2~권4는 「상례(喪禮)」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책6은 별집(別集)으로 「국휼례(國恤禮)」, 「학례(學禮)」, 「향례(鄉禮)」에 이어 흘기와 「발(跋)」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도식(圖式)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별집의 경우 편차 상으로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서문은 장복추가 직접 작성하였고 발문은 1907년 본서를 간행한 손창현이 쓴 것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6권 6책으로 책의 순서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로 구분하고 있다. 경북 성주의 인동장씨 사우당종택(四友堂宗宅)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180.42-가례보) 등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저자인 장복추가 모친의 상을 당한 후 주자 『가례』를 근본으로 상례와 변례에 대한 여러 학설을 모아 정리한 주석서이다. 주로 상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흘기를 기재하고 도식을 삽입하여 실제 예를 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19세기 초에 『상변통고(常變通攷)』가 간행된 이후 영남 지역에서는 『상변통고』의 체제를 따른 예서가 다수 편찬되었으며 본서도 또한 그러한 경향 속에 편찬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임영현)

핵심어 장복추(張福樞), 사미헌(四未軒), 손창현(孫昌鉉), 가례(家禮)

참고문헌

장복추, 『사미헌집(四未軒集)』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예학총서』, 민족문화사, 2018.

정경주, 「四未軒 張福樞 禮說의 論禮 경향- 『家禮補疑』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가례혹문(家禮或問)

KOL000055157

古5213-116

家禮或問 / 鄭時諶(朝鮮) 撰 ; 鄭碩達(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705 序

10卷5冊 : 四周單邊 半郭 21.8 × 16.4 cm,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4 × 22.0 cm

序: 旃蒙作噩(乙酉, 1705)...鄭碩達

印: 鄭致述藏, 松臯居士

1. 개요

조선 중기의 무관인 정시심(鄭時諶, 1641~1690)이 『가례(家禮)』에 대한 의문점을 풀이한 책으로, 아들 정석달(鄭碩達, 1660~1720)이 혹자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편차하여 간행한 책이다. 본서는 1705년에 정석달이 쓴 서문이 수록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정시심(鄭時諶)의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노경(老卿)이다. 조부는 증(贈) 호조정랑(戶曹正郎) 정의번(鄭宜藩), 부친은 해남현감(海南縣監) 정호례(鄭好禮), 모친은 순천박씨(順天朴氏) 박팽년(朴彭年)의 6세손 박종우(朴宗祐)의 딸이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정석달(鄭碩達)과 정석진(鄭碩進), 사위는 이덕기(李德祺)이다. 숙종 2(1676)년 무과에 급제하여 1679년에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1680년에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에 올라 성(城)을 쌓은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나 회수되고, 방답첨사(防踏僉使)에 제수되어 병기를 수선하고 사졸을 훈련시키니 암행어사의 장계로 나라로부터 표창이 있었다. 훈련장(訓練將), 부호군(副護軍), 전주영장(全州營將)을 역임하고 대호군(大護軍)이 되었다. 숙종 16(1690)년 금위장(禁衛將)과 겸하여 사복장(司僕將)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여, 50세에 세상을 떠났다.

본서를 편찬하는데에 큰 역할을 한 정석달의 자는 가행(可行), 호는 함계(涵溪)로, 경상북도 영천(永川)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정시심, 모친은 야로송씨(冶爐宋氏) 송시철(宋時哲)의 딸이다. 정시연(鄭時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기론(理氣論)을 탐구하여 이현일(李玄逸)·조선장(曹善長) 등과 서신으로 토론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 권수에는 정석달이 1715년에 쓴 서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는 대체로 『가례』를 따르고 있다. 권1-2에는 권수도(卷首圖)와 부주(附註)·통례(通禮)·관례·혼례가 수록되어 있다. 권수도에는 『가례』의 도설에 수록된 사당지도(祠堂之圖), 오복도(五服圖)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주석을 부록하였다. 통례는 사당·사감(四龕) 등의 항목, 관례는 관(冠)·택일 등, 혼례는 의혼(議昏)·납폐(納幣) 등의 항목에 대한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제2-4책 권3-8은 상례(喪禮)로, 3책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종(初終)·복(復) 등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제5책 권9에는 제례, 권10에는 잡례가 수록되어 있다. 제례는 시제(時祭)·복일(卜日) 등, 잡례는 국휼(國恤)·복색(服色)·사복(私服)·국휼중제전(國恤中祭奠)·순친(順親)·모선(慕先)·부부(夫婦)·적서(嫡庶)·장유(長幼)·손항위후(孫行爲後)·여서봉사(女壻奉祀)·이성계후(異姓繼後)·휘법(諱法)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각 항목마다 ‘혹문(或問)’으로 시작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왈(曰)’로 대답하며 제가의 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의문과 답변 사이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 기술한다. 인용한 조선 학자는 이황(李滉)·이이(李珣)·정구(鄭逵)·김장생(金長生)·정경세(鄭經世) 등으로, 예설에 있어서 전문적인 학설을 제시한 적 있는 학자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학자는 정현(鄭玄)·주희(朱熹)·구준(丘濬) 등의 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편자의 견해를 밝힐 때는 ‘비의(鄙意)’를 붙여 밝히고 있다. 각책 권수 우측하단에는 ‘송고거사(松臯居士)’, ‘정치술장(鄭致述藏)’이 찍혀 있어, 영천에 거주하고 있던 송고(松臯) 정치술(鄭致述)이 소장한 것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무관이었던 정시심이 『가례』에 대한 의문점과 그 해답을 선유의 학설에서 찾아 편찬한 책이다. 퇴계 이황의 이기론을 공부하여 사숙(私淑)한 그 아들 정석달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편차하여 간행하였다. 본서를 통해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저자가 예학 분야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가례혹문(家禮或問), 정시심(鄭時諶), 정석달(鄭碩達)

감지금니상진황촉객서(紺紙金泥上秦皇逐客書)

KOL202200003

古貴4460-41

紺紙金泥上秦皇逐客書 / 李斯(秦) 撰 ; [宋軼(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516(中宗 11)]

不分卷1帖(8面); 30.7 × 21.2 cm

筆寫記: 丙子(1516)陽月之望六十三歲…

表紙墨書: 礪原公遺品

1. 개요

진(秦)의 이사(李斯)가 찬술한 「상진황촉객서(上秦皇逐客書)」를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쓴 서첩으로, 조선 전기의 문신인 송질(宋軼, 1454~1520)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상진황촉객서」를 찬술한 이사는 대표적인 법가(法家)의 정치가이다. 초(楚) 상채(上蔡, 지금의 하남성 상채현) 출신이다. 진(秦) 승상(丞相) 여불위(呂不韋)에게 발탁되어 객경(客卿)이 되었다. 시황제(始皇帝)를 도와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하는 등, 왕권 강화와 세력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

본 서첩을 쓴 송질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가중(可仲)이다. 조부는 송만달(宋萬達)이고, 부친은 도정(都正) 송공손(宋恭孫), 모친은 박겸형(朴謙亨)의 딸이다. 1477년(성종 8)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82년에는 진현시(進賢試)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 홍문관정자에 발탁되었고, 1485년에는 사헌부지평에 올랐다. 외직으로는 평안도관찰사, 경기도관찰사, 함경도체찰사를 역임하였다. 내직으로는 형조참판에 이어 공조·호조·이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1513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며, 여원부원군(礪原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그러나 대간들로부터 탐오(貪汚)하다는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이사(李斯)가 객경(客卿)으로 있을 때 진(秦) 조정에서 타국 출신의 유세객들을 추방할 것을 논의하였다. 「상진황촉객서」는 이사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시황에게 올린 글로, 진시황은 결국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촉객령(逐客令)을 취소하였다. 『사기(史記)』의 「이사열전(李斯列傳)」 및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에 수록되어 있다.

본 서첩에는 제목이 쓰여 있지 않지만 「상진황촉객서」의 내용을 모두 필사하였다.

4. 서지적 특성

표지에는 ‘여원공유품 금세자(礪原公遺品 金細字)’라는 목서가 있고, 앞표지 면지(面紙) 우측에는 ‘선대자화 조여원공군유적(先代字畵 祖礪原公君遺跡)’이라는 기록이 주서(朱書)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방초(芳草) 문양의 시전지(詩箋紙)가 찍혀 있다. 제목은 적지 않고, 감지(紺紙)에

세필 금니(金泥)를 사용하여 단정한 해서로 필사하였다. 본문에는 필사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으며, 앞면지의 기록을 통하여 여원공 송질이 썼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말미에는 ‘병자양월지망육십삼세…(丙子(1516)陽月之望六十三歲…)’라는 기록이 있어 1516년에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진나라의 법가 정치가 이사가 찬술한 논설문으로, 진시황이 이 글을 읽고 축객령을 거둔 일화가 있다. 송질이 이 글을 감지에 금니로 정성껏 필사한 시기는 아마도 말년에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이사의 심리에 동화되어 쓴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전기의 인물이 필사한 유묵으로서의 희소한 가치가 있다. (김은슬)

핵심어 이사(李斯),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 송질(宋軼)

경국대전(經國大典)

KOL000030925

古0236-6

經國大典 / 崔恒(朝鮮)...等受命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3卷2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x 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일부 無魚尾) ;
28.7 × 20.3 cm

序: 成化五年己丑(1469)...徐居正

印: 恩津宋時烈印, 蘇湖莊

所藏本: 卷1(冊1), 卷5-6(冊2)

1. 개요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으로 조선의 7대 왕인 세조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8대 왕인 성종대인 1485년(성종 16)에 최종본을 완성·반포하였다. 본서는 16세기~17세기 초·중반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명인 ‘경국대전’은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조선을 건국한 태조(太祖)는 즉위하면서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을 선포하면서 통일적 법률을 정립하여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394년 5월 정도전(鄭道傳)은 종합적인 법규집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저술하여 바쳤고 2년 6개월 후 때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규집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하였다. 이들 법규집의 편찬과 더불어 조선 건국 초기 국가 통치를 위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 지고 개정되면서 성문법(成文法,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포된 법)의 제작이 시도되었다. 1397년 12월 당시까지 정비된 법령을 모아 조준(趙浚)의 주도로 『경제육전』을 공포(公布)하여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경제육전』은 법전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정종(正宗)·태종(太宗)은 당시까지 제정되고 시행된 법률을 정비하였다. 세종은 1422년 완벽한 법전의 편찬 필요성에 따라 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구(機構)인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여 법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에 법전 편찬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조(世祖)가 즉위한 1455년 양성지(梁誠之)의 건의로 법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렇지만 세조대에 완벽한 편찬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종(成宗)이 즉위한 1470년 11월 『신정경국대전(新定經國大典)』을 편찬하여 1471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신정경국대전』에도 빠지거나 불완전한 법조문(法條文)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증보(增補, 출판된 책이나 글 따위에서 모자란 내용을 더 보태고 기움)·개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고 1484년 12월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으며 1485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전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국대전』이다.

3. 구성 및 내용

『경국대전』은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은 통치의 기본이 되는 관제(官制), 관리의 종류, 관리의 임명 등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호전」은 재정과 경제 그리고 이에 관계되는 법령이 수록되어 있는데, 호적(戶籍)·토지(土地)·조세(租稅)·급료(給料)·환곡(還穀)·어장(漁場) 등에 대한 규정이다. 「예전」에는 과거시험, 외교·제례(祭禮) 및 각종 공문서식 등, 「병전」에는 군사제도, 「형전」에는 형벌·재판 등에 관한 규정, 「공전」에는 교통·도량형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본 해제서는 안타깝게도 권1의 「이전」이 수록된 1책과 권5의 「형전」, 권6의 「공전」이 수록된 1책의 총 2책만이 전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편찬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유학자인 송시열(1607~1689)의 인장인 ‘송시열인(宋時烈印)’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하여 16세기~17세기 초·중반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송시열인’과 함께 은진송씨 문중의 장서인인 ‘소호장(蘇湖莊)’도 확인할 수 있다. 책의 형태를 살펴보면 인쇄 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책을 간행한 목판의 형태도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서가 최초로 간행된 이후 필요에 따라 내용 일부를 새로 찍어 교체하였을 것이다.

5. 종합 평가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을 지탱하는 법전으로서 영조대 『속대전(續大典)』, 정조대 『대전통편(大全通編)』이 편찬되었음에도 수정 없이 적용된 법률서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성문법이자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적용된 법전으로서 조선의 법제(法制) 및 제도(制度)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유학자인 송시열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정치가가 법률을 대하는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임영현)

핵심어 경국대전(經國大典), 법전(法典), 성문법(成文法), 송시열(宋時烈)

참고문헌

- 양혜원, 「『經國大典』 판본 연구」, 『규장각』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박병호,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국사편찬위원회, 2002.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KOL000015903

古貴6020-3

經國大典註解 / 明宗(朝鮮) 命編

木板本(飜刻)

耽羅[濟州] : [濟州牧], [肅宗 32(1706)]

1冊(21張): 四周雙邊 半郭 25.0 × 17.0 cm,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1~2葉魚尾(黑魚尾混入); 35.0 × 21.5 cm

版心題: 大典註解

序: 嘉靖三十四年(1555)...鄭士龍(1491~1570)謹序

墨書: 開刊於耽羅丙戌冬(1706)余[李奎成]在海營時宋文卿自銀□奇惠

印: 文若, 完山, 李顯謨印

1. 개요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의 어려운 법조문의 가려 뽑아 해설한 책이다. 명종 10(1555)년에 명종의 명에 의하여 안위(安瑋, 1491~1563), 민전(閔筌, 1499~?) 등이 주해하여 1555년 금속활자인 갑인자(甲寅字)로 간행하였다. 본서는 1706년 제주목에서 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간행한 1책(冊)의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주해를 담당한 대전주해관은 안위와 민전 두 사람이다. 안위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백진(伯珍)이며 부친은 안순필(安順弼), 모친은 조강문(趙康門)의 딸 평양조씨(平壤趙氏)이다. 1521년(중종16) 별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전라도 관찰사, 병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민전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정방(廷芳)이며 부친은 민송지(閔崇祉), 모친은 신숙거(辛叔据)의 딸 영월신씨(寧越辛氏)이다. 중종 30(1553)년 별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선위사(宣慰使),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전기 세조 대에 편찬의 시작하여 성종 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법조문의 내용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었기 때문에 실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1550년(명종 5) 명종은 예조에 명하여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의 법조문을 해석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위와 민전을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하여 주석을 달도록 하였고, 정사룡(鄭士龍, 1491~1570)과 심통원(沈通源, 1499~?)의 교정을 거쳐 초고를 완성하였다. 이후 심연원(沈連源, 1491~1558), 상진(尙震, 1493~1564), 윤개(尹漑, 1494~1566)의 최종 검토를 거쳐 1555년부터 시행되었다.

뒤표지의 안쪽 면에 ‘병술년 겨울 탐라에서 간행하였다(開刊於耽羅丙戌冬)’는 붓으로 쓴 기록을 통하여 1706년(병술) 겨울 제주에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서문, 본문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1555년에 간행된 『경국대전주해』는 마지막에 발

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본서에는 생략되었다. 서문은 본서가 처음 간행될 때인 1555년 정사룡이 작성한 것이다.

본문은 『경국대전』의 체제에 따라 이전, 예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주해한 항목은 이전은 경관직·외관직·천거·취재·포폄·고과·향리의 7항목 16조문, 호전은 양전·제전·전택·비황·진현의 5항목 11조문, 예전은 제과·봉사·입후·상제의 4항목 7조문, 병전은 외관직·번차도목·군사급사·입직·복호·면역·병선·구목(廢牧)의 8항목 8조문, 형전은 적도·천첩·천처첩자녀·사천의 4항목 18조문, 공전은 선거 1항목 2조문이다. 본서는 『경국대전』의 어려운 법조문을 해석한 것이지만 그마저도 간략하여 실정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는 1555년 간행한 금속활자본 『경국대전주해』를 뒤집어 붙여 목판에 새긴 후 인쇄한 것이다. 본문의 수록 방식을 살펴보면, 본문은 각 법전을 각 면의 첫 번째 행에 한 글자 공백을 두고 기재한 후 다음 행부터는 항목의 명칭을 적었다. 항목은 음각으로 새겨 찾기 쉽게 하였고, 『경국대전』 원문은 항목의 아래에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백 없이 기재하였고, 주해한 내용은 『경국대전』 원문의 다음 행에 기재하되 한 글자씩 낮추어 수록하여 원문과 주해의 구분을 쉽게 하였다.

서문의 하단에 ‘문약(文若)’, 본문의 첫 면 하단에 ‘완산(完山)’, ‘이현모인(李顯謨印)’의 인장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약은 이현모(1685~1731)의 자이며 완산은 이현모의 본관인 전주(全州)의 다른 이름으로 이현모가 본서를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현모는 이제(李濟)와 정식(鄭弼)의 딸 해주정씨(海州鄭氏)의 사이에서 태어나 음직(蔭職,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 조부, 부친의 공로에 의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교리,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5. 종합평가

『경국대전주해』를 편찬할 때 『경국대전』의 용어를 해석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고 법조문을 해석한 것을 전집, 용어를 해석한 것을 후집으로 하여 1555년 10월 청주에서 함께 간행되었다. 1555년에 간행된 『경국대전주해』의 전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나, 후집은 일본에 유일본이 전하고 있다. 본서는 1706년 제주목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1706년 간행본으로서는 유일본으로 그 가치를 지닌다. (임영현)

핵심어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법전(法典), 안위(安瑋), 민전(閔釜), 이현모(李顯謨), 제주목(濟州牧)

참고문헌

정공식, 「자료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서울대학교법학』,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08.

정진웅, 『아! 조선 법전의 놀라운 세계! : 경국대전 보물 지정 특별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2022.

경서의오강해(經書疑誤講解)

KOL000017831

한古朝01-3

經書疑誤講解 / 洪觀(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 20(1694)

2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2.7 × 15.4 cm, 10行22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一部分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 31.7 × 19.8 cm

序: 癸丑(1673)...宋時烈

跋: 癸丑(1673)...洪觀

跋: 甲戌(1694)...李豪南

所藏本: 冊上, 序, 凡例, 周易, 周易補遺, 詩傳, 詩傳補遺, 書傳, 書傳補遺. -- 冊下, 論語, 論語補遺, 孟子, 孟子補遺, 中庸, 大學, 論語或問, 論語或問補遺, 尤齋先生所校, 孟子或問, 跋

1. 개요

『경서의오강해』는 숙종 때의 대사헌(大司憲)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의 건의에 따라 조선 후기 학자 홍기(洪觀, 1634~?)가 왕명으로 사서삼경(四書三經)과 『논어혹문(論語或問)』, 『맹자혹문(孟子或問)』 등 유학서의 교정을 맡아 편찬한 책이다. 숙종 20(1694)년 이호남(李豪男), 민진후(閔鎭厚, 1659~1720)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찬 배경 및 과정은 송시열이 지은 서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초 교서관에서는 여러 문신들이 교서를 전담하였으나, 갖가지 오류로 인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세가 쇠퇴함에 따라 경적에 오류가 속출하게 되었는데, 특히 사판(私板, 민간에서 발행한 판본)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였다. 이는 유학자들이 배우는데 지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재 등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종 9(1668, 무신)년 당시 대사헌이었던 민정중의 건의에 따라 교정청이 설치되었고, 원외랑(員外郎) 홍기가 경적 교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홍기는 경학에 관심을 두고 백가서(百家書)를 섭렵하여 박학다식할 뿐 아니라 자학(字學)에 밝았기 때문에 제공(諸公)의 추천을 받았다. 『경서의오강해』는 홍기의 주관하에 사서삼경 및 『논어혹문(論語或問)』, 『맹자혹문(孟子或問)』에서 보이는 오자(誤字), 낙자(落字), 상사(相似), 전도(顛倒)된 부분에 대한 교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민정중이 1차 교정본을 보관해 오다가 훗날 이호남, 민진후 등의 추가 교정을 거쳐 간행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서문, 범례, 본문,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은 서문이 있다. 본문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권에는 삼경(三經)에 해당되는 『주역』 52개 항목과 『주역』에 대한 보유(補遺) 8개 항목, 『시전』 17개 항목과 보유 5개 항목, 『서전』 31개 항목과 보유 7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하권에는 『논어』 9개 항목과

보유 9개 항목, 『맹자』 14개 항목과 보유 7개 항목, 『중용』 5개 항목, 『대학』 7개 항목, 『논어혹문』 16개 항목과 보유 4개 항목 및 송시열이 교열한 6개 항목, 그리고 『맹자혹문』 15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저자 홍기와 2차 교정자 이호남의 발문이 붙어있다.

본서의 범례에 따르면, 의자(疑字)·질의(質義)는 모두 송시열에게 물어서 하였으며, 타인의 의견일 경우 관명(官名)을 별도로 적었다. 최초 교정시 미처 바로잡지 못한 오류를 이호남·민진후의 2차 교정을 통해 고치고 이를 ‘보유(補遺)’라고 하여 각 항목 뒤에 붙였다. 발문에는 이호남과 민진후의 2차 교정 당시 노봉(老峯) 민정중이 증정(證訂)을 위탁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경서의 교정은 국본(國本)과 당본(唐本)에 근거하고 송원대(宋元代)의 제설(諸說)을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2권 2책의 목판본으로, 표지서명과 권수제, 판심제는 모두 ‘經書疑誤講解’이다. 판심(版心)의 어미(魚尾) 아래로 서명과 권차(卷次)가 기입되어 있으며 하단에 장차(張次)가 새겨져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전한다.

5. 종합 평가

조선시대 경판은 정부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되면서 오자, 낙자 등 판각 오류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 본서는 왕명에 의해 경서의 오류를 개정하여 간행한 사례로, 당시 유학서의 위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서의 교열과 편찬, 간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특히 송시열의 서문에 본서의 편찬 배경 및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서지학적·역사학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백성원)

핵심어 경서(經書), 사서삼경(四書三經), 송시열(宋時烈), 홍기(洪覲)

고론(古論)

KOL202200002

古3743-2

古論 / [編著者不明]

木板本

[平安道 中和] : [中和郡], [16世紀]

1冊 : 四周單變 半郭 22.2 × 16.7 cm, 有界, 10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 × 21.0 cm

識(本文末尾): (著者不明)

卷末附錄: 通鑑總論.

1. 개요

본서는 미상의 편자가 고문(古文)의 문체 중 논(論)을 쓸 때 필요한 방법을 정리하고, 고문 작품 중 좋다고 판단되는 글을 수록하여 알기 쉽게 주석을 달고 분석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고론의 본문 말미(末尾)에 저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지문(識文)이 있어, 본서의 편찬 목적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작문을 배우는 자가 이 책을 능숙하게 익히면 마치 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듯 문장을 잘 전환하여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응용의 오묘함은 격동하고 발양하는 데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서는 과거시험에서 논(論)을 능숙하게 쓰고자 저술한 과거시험 수험서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명대(明代)에는 본서와 비슷한 제목의 과거 수험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명의 부진상(傅振商)이 편찬한 『고론현저(古論玄箸)』나, 진계유(陳繼儒)가 선집(選輯)하고 오진원(吳震元)이 편찬한 『신간진미공선생정선고론대관(新刊陳眉公先生精選古論大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수험서에는 여러 유형의 문체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모두 참고하기에는 번다하므로, 조선에서는 이를 초략하여 재간행한 책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卷首)에는 서발문이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작논요법(作論要法)」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논을 쓸 때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 내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파제(破題), 승제(承題), 원제(原題), 강제(講題), 속제(束題), 결제(結題)의 순서로 논문을 쓰고, 각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를 기술한다. 그 뒤에 수록된 「전편총론(全篇總論)」은 16조로 이루어져 있다. 논의 세 가지 등급과 논을 잘 쓰기 위해 논제를 먼저 잘 파악할 것, 논제를 파악한 후 입의(立意)하고 조어(造語)할 것, 글쓰기에 익숙해지면 상투적이지 않은 신의(新意)를 적을 것, 글감의 종류 선택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작논요법」 뒤에는 논 중에서도 명문(名文)을 뽑아 수록하였다. 한유(韓愈)가 쓴 「쟁신론(爭臣論)」과 구양수(歐陽脩)가 쓴 「붕당론(朋黨論)」·「종수론(縱囚論)」·「춘추론(春秋論)」, 소순(蘇洵)이 쓴 「관중론(管仲論)」·「고조론(高祖論)」·「춘추론」, 소식(蘇軾)이 쓴 「범증론(范增論)」·「조착론(晁

錯論)·「유후론(留侯論)」·「진시황부소론(秦始皇扶蘇論)」·「왕자불치이적론(王者不治夷狄論)」·「순경론(荀卿論)」이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유의 「원도(原道)」가 수록되어 있다.

단순히 작품만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사용한 어조사나 조어(造語)에 대하여 주석을 달고 있다. 예를 들어 「쟁신론」 중 ‘가이위유도지사호재(可以爲有道之士乎哉)’라는 구절의 ‘호재(乎哉)’에는 ‘호재 2자는 아래와 연결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이다(乎哉二字 連下乃疑辭)’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원도(原道)」 뒤에는 편찬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지문(識文)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는 부록으로 원대(元代)의 학자 반영(潘榮)이 쓴 「통감총론(通鑑總論)」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에는 서발문(序跋文) 혹은 간기(刊記)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간행 연대나 간행지역, 간행자 등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본서의 제목이 1585(선조 18)년에 간행된 『고사촬요(攷事撮要)』의 중화군(中和郡) 목판본에 수록되어 있어, 적어도 1585년 이전에 평안도(平安道) 중화(中和)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논을 쓰기 위한 방법을 정리한 책으로, 미상의 인물이 편찬하였다. 조선 중기에 유행한 고문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에서 간행된 서적으로,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고문의 유형을 유추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김은슬)

핵심어 고론(古論), 작논요법(作論要法), 통감총론(通鑑總論)

참고문헌

『고사촬요(攷事撮要)』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구암유고(久菴遺稿)

KOL000026293

古朝44-가87

久菴遺稿 / 韓百謙(朝鮮) 著 ; 韓興一(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640 序

2卷1冊 : 插圖, 四周雙邊 半郭 19.0 × 15.0 cm,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0 × 19.5 cm

序: 庚辰(1640)...李植

1. 개요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학자인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의 문집이다. 아들 한흥일(韓興一, 1587~1651)이 유문을 수집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한백겸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菴)이다. 부친은 한효윤(韓孝胤), 모친은 평산(平山) 신씨 신건(申健)의 딸이다. 민순(閔純)의 문인으로, 선조 12(1579)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585년에 신설된 교정청(校正廳)의 교정낭청에 임명되어 경서(經書)를 교감하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686년 천거로 중부참봉(中部參奉)에 임명되었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낸 것으로 유배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석방되었고, 적군에게 아부한 인물을 참살한 공로로 관직에 재임용되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당상(堂上)이 되었다.

편자인 한흥일의 자는 진보(振甫), 호는 유시(柳市)이다. 조부는 한효윤(韓孝胤), 부친은 한백겸, 모친은 교위(校尉) 김정준(金廷俊)의 딸이다.

문집에 수록된 저작은 그의 말년인 1600년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한흥일이 이를 수집하고, 인조 18(1640)년 이식(李植)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간행하였다. 이식은 이 서문에서 한백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백겸의 이기성정(理氣性情)·상수지변(象數之變)·제도지의(制度之宜)에 대한 의론을 보면 정주(程朱)의 학설을 이어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옹호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 이식(李植)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상에는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과 「기전도(箕田圖)」, 「부기전도설발(附箕田圖說跋)」, 「부기전도설후어(附箕田圖說後語)」와 심의설(深衣說), 심의도(深衣圖),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 사단칠정도(四端七情圖), 계몽설시변(啓蒙揲蓍辨), 빈풍금등설(鬲風金滕說), 독다방해(讀多方解) 등의 설(說)과 도설(圖說), 회재논태극도설발(晦齋論太極圖說跋), 동사찬요후서(東史纂要後敘), 제음부경후(題陰符經後), 조석변(潮汐辨), 접목설(接木說), 물이촌구암기(勿移村久菴記), 비단입의서(碑壇立議序), 송지봉이윤경영공조경서(送芝峯李潤卿令公朝京序), 반시당기(返始堂記), 계몽괘변도발(啓蒙卦變圖跋) 등 서(序)·제·발·변해(辨解)·기(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하에는 소 3편과 행장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제 및 권수제는 ‘구암유고(久菴遺稿)’, 판심제는 ‘구암집(久菴集)’이다. 서체가 유려한 필서체이고 16세기의 판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선본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한백겸의 저술은 한흥일이 본서를 간행할 당시 이미 임진왜란을 겪으며 상당수 소실한 상태였다. 본서는 자칫하면 민멸될 수 있었던 한백겸의 유문을 보존한 책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구암유고(久菴遺稿), 한백겸(韓百謙), 한흥일(韓興一)

구양문충공오대사초(歐陽文忠公五代史抄)

KOL000022854

한古朝50-102

歐陽文忠公五代史抄 / 歐陽修(北宋) 著 ; 茅坤(明) 批評 ; 茅著(明) 重訂

木板本

[大邱] : [慶尙監營], [憲宗 4(1838)]

五代史抄20卷, 新唐書抄2卷, 共22卷5冊 : 四周雙邊 半郭 24.1 × 16.6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6 × 21.9 cm

表題: 歐史

小引: 茅坤

唐宋八大家文鈔의 일부임

1. 개요

본서는 명나라의 문인인 모곤(茅坤, 1512~1601)과 그의 손자 모저(茅著)가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가운데 『신오대사(新五代史)』와 『신당서(新唐書)』를 수록한 부분이다. 『당송팔대가문초』는 중국 당송시대의 유명한 문장가 8명의 글을 뽑은 문선집(文選集)이다. 서명인 『구양문충공오대사초』는 문충공(文忠公) 구양수(歐陽修, 1007~1072)가 지은 『신오대사』의 수록 내용 중 요점만을 뽑은 책을 뜻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구양문충공오대사초』의 바탕인 『신오대사』를 지은 구양수는 북송의 문신으로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또는 육일거사(六一居士)이며 시호(諡號) 문충(文忠)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에 합격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후에는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고위 관직에도 올랐다.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송나라 문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직에 있으면서 당나라의 역사를 다룬 『구당서(舊唐書)』와 북송 이전 오대십국(五代十國)의 역사를 다룬 『구오대사(舊五代史)』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서 『신당서』와 『신오대사』를 지었다. 구양수의 『신오대사』 내용을 간추려 『구양문충공오대사초』를 편찬한 모곤은 명나라 후기의 문인으로 자는 순보(順甫), 호는 녹문(鹿門)이다. 문인으로써는 특이하게 병법(兵法)에 능해서 관직에 있으면서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모곤은 문학적으로 복고주의를 주창한 소위 당송파(唐宋派)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구양문충공오대사초』를 포함한 『당송팔대가문초』를 편찬하였다.

조선에서 본서를 간행한 배경은 정조(正祖, 1752~1800)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를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다. 『홍재전서』에 의하면, 『당송팔대가문초』는 마치 과녁처럼 글을 씬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당송팔대가의 글을 작문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구양문충공오대사초』를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구양문충공오대사초』 20권으로 이뤄져 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모

권이 지은 소인(小引, 서문)을 수록하였고, 소인의 뒤에는 목록(目錄)을 수록하였다. 본문 권 1에는 본기(本紀)에 해당하는 「양태조기(梁太祖紀)」를 수록하였으며, 권 2에는 「당장종기(唐莊宗紀)」, 「당명종기(唐明宗紀)」를 수록하였다. 권 3에는 열전(列傳) 가운데 황실의 가족에 대한 열전인 가인전(家人傳)을 수록하였는데, 수록한 내용은 「당유후전(唐劉后傳)」을 포함한 6편이다. 권 4에는 후량(後梁)의 신하들에 대한 열전인 양신전(梁臣傳)을 수록하였는데, 수록한 내용은 「경상전(敬翔傳)」을 포함한 7편이다. 권 5~7에는 후당(後唐)의 신하들에 대한 열전인 당신전(唐臣傳)을 수록하였는데, 수록한 내용은 「곽송도전(郭崇韜傳)」을 포함한 12편이다. 권 8에는 후당, 후진(後晉), 후주(後周)의 신하들에 대한 열전인 당신전, 진신전(晉臣傳), 주신전(周臣傳)을 수록하였는데, 수록한 내용은 「두로혁전(豆盧革傳)」을 포함한 6편이다. 권 9에는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인물들의 열전인 「사절전(死節傳)」과 죽음으로 황제를 섬긴 인물들의 열전인 「(死事傳)」을 수록하였다. 권 10에는 덕행을 보여줬던 인물들의 열전인 「일행전(一行傳)」, 주전충(朱全忠, 852~912)이 후량(後梁)을 건국할 때, 끝까지 당나라에 충성을 지키다가 죽은 6명의 인물에 대한 열전인 「당육신전(唐六臣傳)」, 능력이 있어 황제의 양자가 된 의아(義兒)들에 대한 열전인 「의아전(義兒傳)」을 수록하였다. 권 11에는 음악 등을 연주하는 신하인 영관(伶官) 특히 후당의 장종(莊宗, 885~926) 때에 나라를 망친 영관들의 열전인 「영관전(伶官傳)」, 환관(宦官)들의 열전인 「환자전(宦者傳)」을 수록하였다. 권 12~16까지는 열전 가운데 위에서 이야기한 인물 외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열전인 잡전(雜傳)을 수록하였는데, 수록한 내용은 「왕용전(王鎔傳)」을 포함한 총 26편이다. 권 17에는 논(論)에 해당하는 「사천고론(司天考論)」, 「직방고론(職方考論)」을 수록하였다. 권 18~19까지는 세가(世家) 5편을 수록하였으며, 권 20에는 부록(附錄)인 「사이(四夷)」를 수록하였다. 『구양문충공오대사초』의 뒷부분에는 『구양문충공신당서초(歐陽文忠公新唐書抄)』 2권을 수록하였다. 『구양문충공신당서초』에 수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권 상에는 지(志)에 해당하는 「병지(兵志)」와 「형법지(刑法志)」를 수록하였고, 권 하에는 논(論)에 해당하는 「예악지론(禮樂志論)」을 포함한 7편을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당송팔대가문초』 가운데 『구양문충공오대사초』와 『구양문충공신당서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표지에 ‘구사(歐史)’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이미 간행한 『당송팔대가문초』 가운데 필요에 의하여 『구양문충공오대사초』와 『구양문충공신당서초』 만을 선택하여 책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금속활자인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로 간행한 『당송팔대가문초』를 저본으로 현종(憲宗) 4(1838)년에 대구(大邱)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판각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양(靑陽) 모덕사(慕德祠)에 소장된 경상감영 간행 『당송팔대가문초』와 비교해볼 때, 목판의 균열 흔적 및 여러 형태적인 사항들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책을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판본으로 조선시대 서적 수입 및 유통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 문장의 모범으로 삼았던 당송팔대가 가운데 구양수의 글을 선집한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문학 사조를 엿볼 수 있다. 한편 『당송팔대가문초』 가운데 『구양문충공오대사초』와 『구양문충공신당서초』을 별도로 뽑아서 책을 제작한 점을 통해서 서적의 유통 과정에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옥영정)

핵심어 구양문충공오대사초(歐陽文忠公五代史抄), 구양수(歐陽修),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문선집(文選集)

참고문헌

당윤희, 「明代 唐宋派 문인 茅坤의 생평과 문학 사상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논총』 제41권 3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당윤희·오수형, 「唐宋八大家文選集의 조선에서의 수용과 유통」, 『中國文學』 제6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오유경, 「운각필서체자본 『四大家文抄』의 편성체계와 영향관계에 관한 검토」, 『書誌學研究』 제89집, 한국서지학회, 2022.

국포선생집(菊圃先生集)

KOL000027189

古朝46-가1390

菊圃先生集 / 姜樸(朝鮮) 撰 ; 姜必岳(朝鮮) 編校

木板本

平壤 : 平安道監營(箕營), 英祖 51(1775)序

12卷6冊 : 四周雙邊 半郭 19.2 × 14.4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7 × 18.8 cm

序: 濟恭適按關西節 痛斯文之墜地 慨型範之無所 遂與公之胤子必岳甫 商訂攷校 錄諸文梓 念昔公不知濟恭魯劣 嘗以國士見待...特劄劄一事耳...聖上五十一年乙未(1775)...蔡濟恭
印: 孫秉周字穉□

1. 개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강박(姜樸, 1690~1742)의 시문집이다. 본서는 아들인 강필악(姜必岳)이 편집하고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간행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강박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순(子淳), 호는 혜포(惠圃)·국포(菊圃)이다. 부친은 진사 강석훈(姜碩勛), 모친은 병조참의와 황해도관찰사 등을 지낸 이서우(李瑞雨)의 딸이다. 강박은 숙종 41(1715)년 3월 절일제(節日製)에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그 해 5월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716년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었지만 윤증(尹拯)을 옹호하고 송시열(宋時烈)을 비판한 편지를 보낸 일로 탄핵을 받아 평안남도 안주(安州)에 유배되었다. 숙종 45(1719)년 8월에 해배(解配)되었고 경종 2(1722)년에 예조좌랑, 병조좌랑, 영양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검토관으로 참여한 경연에서 신임옥사(辛壬獄事) 때 사형 당한 윤지술(尹志述)을 비판하고 파직되었다. 당색은 대북(大北)의 후손으로 남인(南人)에 속하여 노론과 대립했다. 시사(詩社) 활동으로 남인 문인뿐 아니라 소론 계열의 문인들과도 교유한 인물이다. 채제공은 권수에 수록된 서문에서, 강박의 시문이 옛 도와 육경(六經)에 바탕을 두어 미수 허목 이후 최고의 문장가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강박이 생전에 자신을 국사(國士)로 대우했으므로 강박의 맏아들인 강필악이 교정한 『국포선생집』을 평안도 감영인 평양에서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2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채제공이 1775년에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총목은 없이 권1의 목록이 있으며, 각 권 첫머리에 권별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6에는 시(詩), 권7에는 소차(疏筭), 권8에는 서(書), 서(序), 기(記), 설(說), 권9에는 묘지명, 묘갈명, 행장, 유사, 권10에는 제문, 권11에는 애사, 발, 잡저, 권12에는 책문(策文), 만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 권1에는 「청동만록(晴東漫錄)」(1716년), 「귀원록(歸園錄)」(1719년), 「백련록(白蓮錄)」

(1721년) 등의 편명 아래 시 78제(題), 권2에는 「남은록(南隱錄)」(1722년), 「은사록(隱社錄)」(1724년), 「은사속록(隱社續錄)」 아래 시 150제를 수록하였다. 제2책 권3에서는 「비관록(鼻觀錄)」, 「동호록(東湖錄)」(1725년), 「운포소록(雲浦小錄)」, 「검남소록(黔南小錄)」아래 시 117제, 권4에는 시 98제를 수록하였다. 제3책 권5에는 시 107제, 권6에는 시 135제를 수록하였다. 제4책 권7에는 소(疏)·차(筭), 권8에는 서(書)·서(序)·기(記)·설(說)을 수록하였다. 제5책 권9에는 묘지명(墓誌銘)·갈명(碣銘)·행장(行狀)·유사(遺事) 1편을, 권10에는 제문(祭文)을 수록하였다. 제6책 권11에는 애사(哀辭)·발(跋)·잡저(雜著)를, 권12에는 책문(策問) 두 편과 조선 후기 문인들의 시(詩)·서(書)·화(畫)에 대한 저자의 평론인 「한묵만희(翰墨漫戲)」와, 저자가 보거나 들은 것 중 특기할만한 것을 모은 「총명쇄록(聰明瑣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권수제는 ‘국포선생집(菊圃先生集)’, 표제 및 판심제는 ‘국포집(菊圃集)’이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우측하단에는 총책수가 ‘공육(共六)’으로 표기되어 있어 본서가 모두 6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임을 알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및 일본 동양문고에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각 권수에는 정방형의 인장 ‘손병주자치□(孫秉周字穉□)’가 답인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후기 문신인 강박의 문집으로, 강박의 아들 강필악이 편교를 담당하고 채제공의 부임지인 기영(箕營)에서 간행한 책이다. 시재(詩才)로 이름을 알렸던 강박의 시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12에 수록된 「총명쇄록」의 내용에는 당색(黨色)을 같이 하는 유성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도남서원(道南書院)의 유생들이 그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간행한 종이를 잘라 내고 판목(板木)을 깎아 버리라는 내용의 통문을 보내온 일이 있었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이 그 통문에 대답한 기록이 이상정의 문집인 『대산선생문집(大山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같은 당파임에도 문장의 내용을 문제 삼고 수정을 요구했던 일화를 살필 수 있는 대목으로, 그 내용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또한 조선 기영의 목판 인쇄문화를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슬)

핵심어 국포선생집(菊圃先生集), 강박(姜樸), 강필악(姜必岳), 채제공(蔡濟恭), 기영(箕營)

권자락집위증변파록(權自樂集僞證辨破錄)

KOL000009221

古3649-107

權自樂集僞證辨破錄 / 權守經(朝鮮) 著

木活字本

[刊寫地不明] : [刊寫者不明], [19世紀]

2卷1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19.7 × 16.1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 27.7 × 19.2cm

表題: 權自樂集 單

版心題: 權自樂集僞證辨破錄

權自樂集僞證辨破事實: 有國危難之際爲臣子倡義敵愾無代無之而…茲敢歷陳諸條於彼錄之左冀使覽者洞曉焉

1. 개요

본서는 조선 중기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권수경(權守經, 1584~1659)이 병자호란에 활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후대에 권수경의 사적(事績)과 권수경이 작성한 서원·향교의 공사문서(公私文書) 등을 모아 간행한 목활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저자는 조선 후기 의성(義城) 출신의 의병장 권수경(權守經, 1584~1659)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정(子正), 호는 자락당(自樂堂), 사재당(思齋堂)이다. 예학에 정통한 한강(寒岡) 정구(鄭述, 1543~1620)의 문인이다.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의성 수성장(守正堂)으로 활약한 권희순(權希舜, 1548~1598)이다. 1627(인조 5)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발하자 향인(鄉人)의 추대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천거로 의성의병장(義城義兵將) 겸 좌도의병도유사(兼左道義兵都有司)로 활약하였다. 이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표(表)를 올려 조정으로부터 공적을 치하 받았다. 1636(인조 14)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도 역시 의병장으로 참여하였다가 청나라와 강화가 맺어지자 은거하였다. 이때 활약한 공에 대해 송시열이 특계(特啓)를 올려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서 고향이 같은 단구신씨(丹邱申氏) 집안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은 자신들의 선조인 호계(虎溪) 신적도(申適道)였으며, 권수경(權守經)은 단지 곡물 수집에 임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권씨 문중에서는 병자호란 당시 권수경의 활약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적과 서원·향교의 공사문서 등을 모아 『권자락집위증변파록(權自樂集僞證辨破錄)』을 편찬하여 단구신씨 집안의 주장을 변증(辨證)하였다. 유고로 『자락당선생유집(自樂堂先生遺集)』이 전해진다.

3. 구성 및 내용

『권자락집위증변파록(權自樂集僞證辨破錄)』은 2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서발문(序跋文)이 없어 간행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800년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目次)가 따로 기재되어있

지 않다. 권1에는 권수경의 사적 위주로 기록하였고, 권2에서는 각처통문(各處通文)을 등사하였다. 의성향교에서 보낸 통문인 「의성향교회문통내문(義城鄉校會中通內文)」, 「예안향교답통(禮安鄉校答通)」, 「상주도남서원답통(尙州道南書院答通)」, 「안동여강서원답통(安東廬江書院答通)」, 「성주회연서원답통(星州檜淵書院答通)」, 「인동동락서원답통(仁同東洛書院答通)」, 「선산낙봉서원답통(善山洛峰書院答通)」, 「향회중답영귀당문(鄉會中答詠歸堂文)」 등이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의 표지 서명은 ‘권자락집(權自樂集)’이며 서명 옆에 ‘부향도통문(附鄉道通文)’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서에는 서발문(序跋文) 혹은 간행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간행 시기와 간행 지역, 간행자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부향도통문(附鄉道通文)’에 기재된 통문 작성일자인 무진(戊辰, 1808), 을축(乙丑, 1805)과 내용 등을 통해 간행 시기를 19세기초로 추정할 수 있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19세기에 권씨 문중에서 병자호란 당시 권수경의 활약을 증명하기 위해 권수경의 사적을 적고, 권수경이 생전에 향교, 서원등과 주고 받은 통문 등을 모은 것이다. 당시 주목된 인물의 사적을 일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전쟁 시 행했던 의병장의 활약들이 수록되어 있어 의병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다희)

핵심어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 자락당선생유집(自樂堂先生遺集)

근암선생문집(近庵先生文集)

KOL000027610

古朝46-가2108

近庵先生文集 / 朴載佑(朝鮮) 著 ; 朴載祺(朝鮮) 編

木板本

[發行情地不明] : [發行者不明], 1909

6卷3冊 : 四周雙邊 半郭 19.0 × 15.7 cm, 10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1.5 × 20.7 cm

表題: 近庵集

版心題: 近庵先生文集

[跋]: 聞韶金興洛書

跋: 朴載萬

1. 개요

조선 후기 학자인 근암(近庵) 박재우(朴載佑, 1829~1870)의 시문집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박재우는 본관이 무안(務安)으로, 자는 성우(聖佑), 초자(初字)는 성우(聖于), 초명은 재화(載華), 호는 근암(近庵)이다. 본서의 편자인 박재기(朴載祺)는 그의 동생이다.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경서와 사서 및 성리서를 깊게 연구하였다.

편찬경위에 관해서는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과 박재만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서는 저자의 부친 형려공(衡廬公) 박희찬(朴晦燦)이 편찬한 것으로, 그는 아들이 평소 에 수창한 시들과 사우간에 주고받은 편지들을 수습하고 선사(善寫)해서 몇 권의 고본(稿本)으로 만들었다. 이를 아우 박재기와 사운(嗣胤) 우종(禹鍾) 등이 김흥락에게 발문을 받고 1908년에 간행을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간역을 완료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6권 3책의 완질본으로, 권두에는 총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권1은 시(詩), 권2는 서(書), 권3은 서·잡저(雜著), 권4는 잡저·잠(箴)·제문(祭文), 권5는 애사(哀辭)·유사(遺事), 권6은 부록이며, 권말에는 박재만(朴載萬)의 발문이 있다. 세부내용은 권1은 「경렴정차상련운(景濂亭次賞蓮韻)」 등 시 32수, 권2는 1849년에 정재 유치명에게 보낸 편지 등 서 33편, 권3은 조병시(趙秉時)에게 답한 편지 등 서 8편과 「대평기문(大坪奇聞)」·「만록(漫錄)」·「독중용(讀中庸)」·「한서답임안서해(漢書答任安書解)」 등 잡저 6편이다. 이 중 「대평기문」은 『맹자』와 『중용』에서 난해한 부분을 스승 유치명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만록」은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인심도심(人心道心) 등에 관한 기록이다. 권4는 「기주월행법해(碁註月行法解)」·「제례오조(祭禮五條)」·「지회(志悔)」·「지감(志感)」 등의 잡저 4편과 「입지잠(立志箴)」·「독지(篤志箴)」·「양기잠(養氣箴)」 등 잠 3편 및 「선사유선생제문(祭先師柳先生文)」 등 제문 9편이 있다. 「기주월행법해」를 통해 저자가 성리학 이외에도 음양(陰陽)·산수(算數) 등에도 관

심이 있고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권5는 「이군중면애사(李君中勉哀辭)」 등 애사 1편, 「족속 처사단영공유사(族叔處事丹瀛公遺事)」 등 유사 1편이 있다. 권6은 부록으로 저자 박재우와 관련된 「유사(遺事)」, 「서유사후(書遺事後)」, 「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 만사(輓詞), 퇴문(誄文) 및 제문이 있다. 유사는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면서 생전에 있었던 자식의 행적을 더듬어 부친이 직접 찬술하였고, 유사 뒤에는 족속 인찬(仁燦)이 「서유사후」를 남겼다.

4. 서지적 특성

본서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는 古3648-25-272의 1종이 더 소장되어 있는데, 본서와 동일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후기 유학자의 삶과 사상 및 교유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소희)

핵심어 근암집(近庵集), 박재우(朴載佑), 박재기(朴載祺), 유치명(柳致明), 김흥락(金興洛), 박재만(朴載萬)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KOL000057265

古1743-99

金剛般若波羅密經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木板本(覆刻)

高山[完州] : 花岩寺, 成宗 19(1488)

不分卷1冊(25張) : 四周單邊 半郭 18.9 × 12.9 cm, 無界, 8行17字, 白口, 無魚尾 ; 28.0 × 16.3 cm

表題: 金剛般若波羅密經

版心題: 金

刊記: 弘治九年戊申(1488)四月日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

施主秩: 敏珠, 敏罔 外 69名

裝幀: 表紙改裝

六經合部の 일부이며, 1424년 安心寺本을 바탕으로 한 花岩寺 翻刻本임

本文衔接

1. 개요

본서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서역 출신 승려인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문으로 번역한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불교의 종파 중 하나인 선종(禪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 불교 종파에서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는 경전) 중 하나로, 성종 19(1488)년 고산(高山) 화암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명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석(金剛石, 다이아몬드)과 같은 견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본래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불교 경전으로 406년에 서역 쿠차 왕국 출신의 승려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구마라집은 본래 쿠차 왕국 출신으로 382년에 쿠차 왕국이 전진(前秦)에 정복당하자 사로잡혀 중국의 장안(長安)으로 가던 중 전진이 멸망하여 후량(後涼)에 의해 양주(涼州)로 끌려갔다. 후에 후진(後秦) 즉, 요진(姚秦)이 후량을 정벌하고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데리고 갔다. 구마라집은 쿠차가 멸망한 이후 중국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기록된 많은 불교 경전들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는데, 『금강반야바라밀경』 이외의 대표적인 경전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등이 있다. 본서는 본래 단독으로 간행한 판본이 아닌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대불정수릉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을 합부한 『육경합부』에 포함된 책이다. 『육경합부』는 세종 6(1424)년에 성달생이 승려 신현(信玄)의 요청으로 쓴 6가지 경전을 바탕으로 편찬한 책이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에는 불교경전의 독경 의식과 관련한 진언(眞言, 불교에서 사용하는 주문) 및 청문(淸文, 부처 및 보살 등을 부르는 의례문) 등을 수록하였다. 각각 「금강경계청(金剛經啓淸)」,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청팔금강(淸八金剛)」, 「청사보살(淸四菩薩)」, 「발원문(發願文)」, 「운하범(云何梵)」의 순서로 수록하고 있다. 본문은 전체 32분(分, 불경에서 장을 지칭하는 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선현기청분(善現起淸分)」,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무위복승분(無爲福勝分)」, 「존중정교분(尊重正教分)」,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지경공덕분(持經功德分)」,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 「법계통화분(法界通化分)」, 「이색리상분(離色離相分)」,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무법가득분(無法可得分)」,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복지무비분(福智無比分)」, 「화무소화분(化無所化分)」,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무단무멸분(無斷無滅分)」, 「불수불담분(不受不貪分)」,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일합상리분(一合相理分)」, 「지견불생분(知見不生分)」,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이다. 본문의 뒷부분에도 독경 의식과 관련한 진언(眞言)인 「반야무진장진언(般若無盡藏眞言)」, 「금강심진언(金剛心眞言)」, 「보결진언(補闕眞言)」을 수록하였다.

내용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인 공(空)사상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와 편견의 근본이 되는 애착을 없애고, 교리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마저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홍치원년무신사월일전라도고산지화암사개판(弘治元年戊申四月日奎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이라는 간행기록을 통해 성종 19(1488)년에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적 특징을 통해서 세종 6(1424)년에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서사(書寫)한 『육경합부(六經合部)』를 고산(高山) 안심사(安心寺)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성종 19(1488)년에 고산 화암사에서 번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 뒷부분에 시주자(施主者)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화암사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본래 『육경합부』에 포함된 경전 중 하나로 『육경합부』의 유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불교 경전의 유통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수록하고 있는 청문 및 진언 등을 통해서 조선시대 불교 경전의 독경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화암사(花岩寺), 성달생(成達生), 육경합부(六經合部)

참고문헌

불광교학부, 『經典의 世界』, 불광출판부, 1998.

송일기·김유리, 「『六經合部』의 板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52집, 한국서지학회, 2012.

금낭경(錦囊經)

KOL000021681

한古朝19-48

錦囊經 / 郭璞(晉) 撰:張說(唐)·泓師(唐)·一行(唐) 註

金屬活字本(整理字體鐵活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3(1866)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2.1 × 16.0 cm, 10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2 × 21.5 cm

序: 開元十六年(728)...張說

刊記: 丙寅(1866)重刊

총서사항: 新刊地理全書

1. 개요

진(晉)의 곽박(郭璞)이 한(漢) 청오(靑烏)의 풍수지리학 서적 『청오경(靑烏經)』에 내용을 추가하여 편찬한 책이다. 본서는 조선에서 1866년에 정리자체철활자(整理字體鐵活字)로 중간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는 당(唐)의 장설(張說)과 승려 홍사(泓師)·일행(一行)이 주석을 단 『신간지리전서(新刊地理全書)』에 수록된 『금낭경』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에서 중간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이 확실히 어느 시대의 총서 중 하나인지는 알기 어렵다. ‘신간(新刊)’과 ‘지리(地理)’가 들어가는 풍수지리 관련 총서는 중국 원대(元代) 간행본이 존재할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원대 간행본 『신간명가지리대전(新刊名家地理大全)』에 수록된 『금낭경』은 송대(宋代)의 채성우(蔡成禹)가 주석을 달았고, 명간본인 『신간지리오경사서해의(新刊地理五經四書解義)』 중 『장경(葬經)』은 원(元)의 오징(吳澄)이 산정(刪定)하고 명(明) 정익(鄭諡)이 주석을 단 판본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된 풍수지리서 총서 중 어떤 책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에서 중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선에서 이 책이 음양과(陰陽科)의 취재(取才) 교재 중 하나였으므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상하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장설이 728년(개원 16)에 쓴 서문과 총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상권에는 기감편(氣感篇), 인세편(因勢篇), 간지편(干支篇) 산세편(山勢篇), 사세편(四勢篇)이 수록되어 있다. 하권에는 귀혈편(貴穴篇), 형세편(形勢篇), 취류편(取類篇)이 수록되어 있다. 산세와 혈맥을 보아 좋은 묘혈을 택하고, 길일을 택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 및 권수제·판심제는 ‘금낭경(金囊經)’이고, 권미제(卷尾題)는 ‘신간지리대전곽박금낭경(新

刊地理大全郭璞金囊經)이다. 권수제 다음 행에는 '당연국공장설주(唐燕國公張說註), 승홍사주(僧泓師註), 승일행주(僧一行註)'라는 주석자명이 명기되어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을 먼저 제시하고, 장설의 주석은 '장왈(張曰)', 승려 일행(一行)의 주석은 '일행왈(一行曰)' 등으로 주석자를 명기하였다. '청낭경왈(靑囊經曰)' 등으로 전거를 표기하기도 한다.

권말에는 '병인중간(丙寅(1866)重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어 그 간행 연대를 알 수 있다. 본서와 동일한 인본이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본서와 같은 간기가 있고 희현당철활자로 간행한 『지리전서청오선생장경(地理全書靑烏先生葬經)』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풍수지리학 관련 총서인 『신간지리전서』 수록서 중 하나이다. 『명산론(明山論)』·『청오경(靑烏經)』·『호순신(胡舜申)』 등과 함께 지리과(地理科)의 취재(取才) 과목 중 하나였으므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고,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지리전서청오선생장경』 또한 지리과 취재시험을 볼 때 많이 참고하던 책이므로, 이 두 서적을 함께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풍수지리학의 학문적 계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금낭경(錦囊經), 곽박(郭璞), 장설(張說), 홍사(泓師), 일행(一行)

기묘록(己卯錄)

KOL200700763

古2153-40

己卯錄 / 金堉(朝鮮) 撰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 : 四周單邊 半郭 18.5 × 15.8 cm, 有界, 10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一部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混入) ; 25.3 × 18.9 cm

附: 魯山君事跡聞見錄(筆寫) 外

目錄 및 첫 면은 筆寫로 補寫

1. 개요

본서는 1631(인조 9)년에 김육(金堉)이 기묘사화(己卯士禍)에 관한 사실을 인물을 중심의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서명인 『기묘록』은 책의 내용이 기묘사화에 관련된 사실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기묘제현전(己卯諸賢傳)』이라고도 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김육의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자(字)는 백후(伯厚), 호(號)는 잠곡(潛谷)·회정당(晦靜堂)이다. 할아버지는 김비(金斐), 아버지는 김흥우(金興宇)이며, 어머니는 임천조씨(林川趙氏) 조희맹(趙希孟)의 딸이다.

기묘사화 당시 화를 당한 여덟 명의 인물인 정광필(鄭光弼)·안당(安瑯)·이장곤(李長坤)·김정(金淨)·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기준(奇遵)·신명인(申命仁)을 기묘팔현(己卯八賢)이라 하는데 김육은 김식의 현손(玄孫, 고손)이다. 그는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재직 중이던 1639년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김정국(金正國)의 『기묘당적(己卯黨籍)』과 안로(安瑠)의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를 바탕으로 이 책을 서술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김정국의 『기묘당적』, 안로의 『기묘록보유』를 바탕으로 기묘팔현에 대한 사실을 보충하는 한편 총 218명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책의 구성은 목록(目錄), 본문(本文), 부록(附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목록은 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차례로 나열하고 있다. 책의 본문은 크게 「팔현전(八賢傳)」, 「일시명현(一時名賢)」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현전」에는 기묘팔현인 정광필·안당·이장곤·김정·조광조·김식·기준·신명인의 전기(傳記)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일시명현」은 다시 혁과(革科), 유찬(流竄), 삭파(削罷, 삭직 및 파직), 별과파천(別科被薦), 유사(儒士), 산반(散班), 의사(醫師), 방리인등(坊里人等), 종실(宗室)로 나뉜다. 혁과는 박세훈(朴世勳) 1명, 유배형(流配刑)인 유찬은 이연경, 우필순, 김구 등 29명, 삭직(削職, 관직을 말소함) 및 파직(罷職)된 인물은 신잠(申潛), 윤헌(尹[王+獻]) 등 21명, 별과파천(別科被薦)에는 박덕손, 이성동, 서경덕, 성수침 등 72명,

유사(儒士)에는 하정, 유맹달 등 6명, 산반(散班)에는 윤수, 성세창 등 37명, 의사(醫師)에는 안찬, 채세영 등 6명, 방리인등(坊里人等)에는 정원, 이약수, 이준경 등 12명, 종실(宗室)에는 이자경, 백인걸 등 7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외에 피장(皮匠), 강녕부정(江寧副正), 산곡구(山谷嫗) 등 무명의 인물도 수록되어 있다.

부록은 「노산군사적문견록(魯山君事蹟聞見錄)」, 「보토제문(補土祭文)」, 「육신전(六臣傳)」, 「별전(別傳)」 등이 별도의 체계 없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이 책의 소장자가 목록을 작성하면서 함께 적어 책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목판으로 인쇄 부분과 직접 수기로 직접 적은 필사(筆寫) 부분이 있다. 책의 형태로 보아 원래 목판으로 인쇄한 완전한 형태의 책이었지만 후대로 오면서 책이 훼손되었고 당시의 소장자가 직접 필사하여 목록과 부록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와 동일본으로 추정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2-393)과 비교해 보면, 본서에는 목록 앞에 수록된 서문(序文)이 생략되어 있으며 목록 및 「기묘팔현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면이 필사되어 있다. 이 책의 서문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신익성(申翊聖)이 작성하였다.

5. 종합 평가

본서가 편찬된 17세기 초는 사림파가 정치의 중심으로 진입하던 시기로 이들은 김종직의 학맥을 이어받아 성리학적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기묘록』에 수록된 인물들의 전기는 기묘사림(己卯士林)의 행적과 후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김육은 자신의 선조가 포함된 인물의 전기를 서술하여 사림파의 정통성(正統性)을 재정립하는 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임영현)

핵심어 김육(金堉), 기묘사화(己卯士禍), 사림(士林), 기묘명현(己卯名賢), 기묘제현전(己卯諸賢傳)

참고문헌

장영희, 「『己卯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신편 한국사』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농옹유고(農翁遺稿)

KOL000008075

일산古3648-63-2

農翁遺稿 / 任泰春(朝鮮) 著

木活字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憲宗 10(1844)序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1.5 × 15.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30.9 × 19.9 cm

序: 崇禎四甲辰(1844)...孟鳳淳

跋: 崇禎四甲辰(1844)...任憲晦

卷末附: 醉菊稿 / 任天模(朝鮮) 著

印: 龍湖藏書

1. 개요

『농옹유고(農翁遺稿)』는 조선 후기의 문인인 임태춘(任泰春, 1751~1811)이 지은 시문(詩文), 제문(祭文) 등의 여러 글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文集)이다. 본문 뒷부분에는 임천모(任天模, ?~?)의 문집인 『취국고(醉菊稿)』를 수록하였다. 본서는 목활자(木活字)로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에서 보이는 연도를 통해서 19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명인 『농옹유고』에서 ‘농옹’은 임태춘의 호이고, ‘유고’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농옹유고』라는 서명은 농옹 임태춘이 생전 지은 글을 정리한 문집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농옹유고』는 조선 후기의 문인인 임태춘이 지은 63편의 글을 포함한 69편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 저자인 임태춘은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호자로 이름이 높았다. 자는 자인(子仁)이며, 호는 농옹이다. 본관은 풍천(豊川)으로 임신백(任信白)과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임태춘의 집안은 본래 명문가였으나, 증조부인 임징하(任徵夏, 1687~1730)가 신임사화(辛壬士禍, 1721년부터 1722년까지 일어난 사화로 노론과 소론 사이에 당쟁 과정에서 소론이 노론을 밀어내고 실권을 잡은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귀양을 갔고, 이로 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였다. 임태춘도 스스로 귀머거리라는 농옹이라는 호를 짓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채 평생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평소 부모를 극진히 섬겼는데, 부모의 병이 위중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부모에게 주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3년상을 지냈으며, 계모 또한 극진히 섬겨서 계모가 진정 효자라는 말을 하였다. 나이가 61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였는데 당시 병에 걸렸던 임태춘은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나와서 곡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다. 후에 그의 효행이 조두순(趙斗淳, 1796~1870)에 의해 조정에 알려져서 효자정려(旌閭,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문을 세워 칭송하는 것)를 받았다.

『농옹유고』의 서문 및 발문에는 『농옹유고』 편찬 배경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다. 서문과 발문에 의하면 임태춘의 손자인 임헌회(任憲晦, 1811~1876)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숙원인 선조들의 문집 간행을 위해 남아있는 초고본(草稿本,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원고)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때 『농옹유고』 뒷부분에 자신의 아버지인 임천모의 글을 정리한 『취국고』를 붙여서 함께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 총목(總目), 권 1 목록(目錄), 권 1, 권 2 목록, 권 2, 『취국고』, 발문으로 구분하였다. 서문은 헌종(憲宗) 10(1844)년에 맹봉순(孟鳳淳, 1788~?)이 작성하였다. 총목에는 각 권 수록한 글의 권차와 종류를 구분하였다. 권 1 목록에는 권 1에 수록한 글의 종류 및 제목을 수록하였다. 권 1에는 각각 시(詩) 57편, 제문(祭文) 5편, 묘지(墓誌) 1편 총 63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권 2 목록에는 권 2에 수록한 글의 종류 및 제목을 수록하였다. 권 2는 일종의 부록(附錄)으로 다른 인물들이 임태춘을 위해 지은 글을 수록하였는데, 각각 행장(行狀) 1편, 묘갈명(墓碣銘) 1편, 행장유사발(行狀遺事跋) 1편, 제문 1편, 정려기(旌閭記) 1편, 정려시(旌閭詩) 1편 총 6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권 2의 뒷부분에는 임천모의 문집인 『취국고』를 수록하였는데, 『취국고』에는 임천모가 지은 시 24편과 임천모의 묘지명(墓誌銘) 1편, 만사(輓詞) 3편 총 28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발문은 헌종 10(1844)년에 임헌회가 작성하였다. 수록한 글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권 1에 수록한 「제망녀정씨부문(祭亡女鄭氏婦文)」은 임태춘이 죽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지은 제문이고, 「황고부군묘지(皇考府君墓誌)」는 임태춘이 자신의 아버지인 임신백을 위하여 직접 지은 묘지이다. 권 2에 수록한 「묘지명」은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지은 임태춘의 묘지명이고, 「정려기」는 임태춘이 정려를 받은 경위 등을 밝힌 글로 조두순이 지었다. 현재 이 정려기를 기록한 현판(懸板)이 남아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농옹유고(龔翁遺稿)’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책의 첫머리에 찍혀 있는 ‘용호장서(龍湖藏書)’라는 장서인을 통하여 송근수(宋近洙, 1818~1903)가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간기(刊記) 등의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한 간행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서문 및 발문의 작성 시기를 통해서 헌종 10(1844)년 이후인 19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임태춘이 지은 여러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임태춘의 학문과 행적을 알 수 있는 작품이며, 임태춘의 효자 정려와 관련한 각종 글들이 등장함으로 조선 후기 효자 정려 수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서문과 발문에 문집의 간행과 관련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 문집 간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농옹유고(龔翁遺稿), 임태춘(任泰春), 문집(文集), 효자(孝子)

참고문헌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기증·기탁 유물 정기특별전 도록』,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2.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

KOL000055533

古3747-298

唐陸宣公奏議 / 陸贄(唐) 撰

金屬活字本(戊申字)

[漢陽] : [校書館], [1732(英祖 9)]

12卷4冊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3.9 × 16.8 cm,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序題: 重刊陸宣公奏議

表題: 陸宣公奏議

版心題: 陸宣公奏議

序: 大明宣德三年龍集戊申(1428)...金寔

1. 개요

당(唐)의 육지(陸贄, 754~805)가 덕종(德宗) 시기 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의 관직에 재임할 때 쓴 제고(制誥), 주의(奏議)와 주초(奏草)를 모아 놓은 책이다. 본서는 교서관에서 무신자로 인출한 조선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육지의 자는 경여(敬輿), 시호는 선공(宣公)이다. 오군(吳郡) 가흥(嘉興) 사람이다. 18세에 진사에 등제했고 덕종(德宗) 때에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당시 그가 지은 제고(制誥) 주의(奏議), 주초(奏草) 등이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육선공주의』는 ‘육선공한원집(陸宣公翰苑集)’ 혹은 ‘육선공전집(陸宣公全集)’이라고도 한다. 권수에 명대(明代) 인물인 김식(金寔)의 「중간육선공주의서(重刊陸宣公奏議序)」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명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에는 김식의 「중간육선공주의서」와 소식(蘇軾) 등이 올린 「송조명신진주의차자(宋朝名臣進奏議筭子)」, 소수(蕭燧) 등이 올린 「순희강연차자(淳熙講筭筭子)」와 총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권별(卷別)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내용
권1	2편(論兩河及淮西利害狀, 論關中事宜狀)
권2	3편(論敍遷辛之由狀, 奉天論奏當今所切務狀, 奉天論前所答奉未施行狀)
권3	4편(奉天請數對群臣兼許令論事狀 등)
권4	8편(奉天論擬與翰林學士改轉狀 등)
권5	6편(興元論解姜公輔狀 등)
권6	9편(興元賀吐蕃尙結贊抽軍迴歸狀 등)
권7	4편(請許臺省長官舉薦屬吏狀 등)
권8	4편(論嶺南請於安南置市舶中使狀 등)
권9	4편(論緣邊守備事宜狀 등)

권10	7편(請還田緒所寄撰碑文馬絹狀 등)
권11	2편(論裒延齡姦蠹書一首, 論朝官闕員及刺史等改轉倫序狀 등)
권12	1편(均節賦稅恤百姓六條)

모두 육지의 정치·경제사상 및 당 중기의 사회·경제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류의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명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발문이나 간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간행사항을 알기 어렵다.

4. 서지적 특성

중국 간본으로는 원(元) 1354(지정 14)년 취암정사간본(翠岩精舍刊本) 15권이 있고, 명(明)나라 1494(홍치 7)년의 15권본, 1508(정덕 3)년에 간행된 16권본, 가정(嘉靖) 왕씨간본(汪氏刊本) 15권 등이 있다. 원나라 지정 연간의 간본에 기초하여 청말 유철랭(劉鐵冷)이 보정하여 1960년에 간행한 『평주육선공집(評註陸宣公集)』 등이 있다.

무신자본인 본서에는 서발문이나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대를 알기 어려우나, 『영조실록』 1731(영조 7)년 5월 14일 기사에, ‘소대(召對)에서 『성학집요(聖學輯要)』의 뒤를 이어 강(講)할 자료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운각(芸閣)에게 간행해 바치도록 명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승정원일기』 1732(영조 8)년 4월 13일 기사에도 『육선공주의』를 『울곡속집(栗谷續集)』, 『울곡별집(栗谷別集)』보다 먼저 인출하도록 분부하였고, 1733(영조 9)년 12월 9일에는 오원, 윤득화, 홍경보, 김석일, 이종연, 박치문이 번갈아 가며 『육선공주의』 제1권부터 제2권의 끝까지 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 육선공주의를 1732년 말에 간행하여 1733년에는 경연에서 읽기 시작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당나라 중기 덕종조의 정치·경제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료이다. 찬자가 대력(大曆) 14(779)년 덕종의 즉위와 함께 한림학사가 되었고, 정원 8(792)년 4월부터 10(794)년 11월까지 재상을 지내면서 작성한 제고, 주초, 주의를 모아놓은 것이므로 덕종시기 통치와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의 재정, 사회, 군사정황, 번진할거(藩鎮割據)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회흠(回紇), 토번(吐蕃)과의 관계도 서술되어 있어 당시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조선에서 사료문이 포함된 주의류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 『당육선공주의』를 많이 탐독하였으며, 특히 중앙 관서인 교서관에서 이 책을 간행하여 왕세자 및 관원을 교육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 육지(陸贄), 덕종(德宗), 제고(制誥), 주의(奏議), 주초(奏草)

참고문헌

『중국고적선본서목(中國古籍善本書目)』

도원유적(桃源遺蹟)

KOL000011018

일산古2511-68

桃源遺蹟 / 全廷壽(朝鮮) 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哲宗 10(1859)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2.9 × 15.4 cm, 9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32.4 × 21.0 cm

表題: 桃源遺蹟

版心題: 全氏遺蹟

刊記: 己未(1859)十一月日重刊後孫[全]胤昉[全]有大

全氏遺蹟序: 崇禎後四己未(1859)仲冬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原任奎章閣直閣經筵日講官韓山李景在識

序: 崇禎二百二年上章攝提格(1830)復月下弦不肖後孫[全]廷壽謹序

跋: 崇禎紀元後四己未(1859)復月日通訓大夫行安州牧使兼安州鎮管兵馬僉節制使延日鄭文昇跋

附: 忠康公

1. 개요

본서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도와 건국에 공을 세운 도원공(桃源公) 전이갑(全以甲)과 그의 후손 채미공(採薇公) 전오륜(全五倫)의 사적과 유문을 모아 철종 10(1859)년에 목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전이갑의 자는 자경(子經), 호는 도원(桃源), 본관은 정선(旌善)이다. 도원은 정선의 옛 이름으로 고려 태조가 호를 하사했다고 한다. 강원도 삼척군 정선현의 인물로 고려시대의 개국공신으로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승겸(申崇謙) 등과 함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927년에 후백제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구원하고자 왕건과 함께 출전했다가, 동생 전의갑(全義甲), 신승겸 등과 함께 포위된 왕건을 구출하고 결사적으로 싸우다 전사하였다. 정선군(旌善君)에 추봉(追封)되고, 충렬(忠烈)의 시호를 하사받았다.

전이갑의 후손인 전오륜의 자는 중지(仲至), 호는 채미헌(採薇軒)이다. 대제학 전분(全賁)의 아들로, 137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우상시(右常侍)·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이색, 정몽주 등과 교유하였고,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간 72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었다.

본서는 바로 고려시대 충절을 대표하는 이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전씨의 가성(家聲)을 드높이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는데, 구체적인 편찬과정과 간행은 1830년의 전정수의 서문과 1859년의 정문승의 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830년 당시 선조의 유집은 간행된 지 오래된 데다가 병란을 거치면서 1757년의 구본(舊本)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에 전정수는 집안의 가승(家乘)을 기본으로 하되 국승(國乘), 야사(野史), 선현의 유집(遺集) 및 여러 학자들이 남긴

기록 등을 참고하여 선조 관련 기사를 수습하고 2권으로 편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종숙 세각(世覺)과 족형 일수(一壽)가 간행을 권유하고 여러 종인들이 힘을 합쳐 간행하게 되었다. 이후 1859년에 다시금 한차례의 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간행된 판본이 본서와 동일본이다. 당시 후손 전윤방(全胤昉)과 전유대(全有大)는 세월이 흘러 글자가 이지러지게 되자 중간(重刊)할 계획으로 선조의 유고를 가지고 안주목사(安州牧使) 정문승(鄭文昇)을 찾아가 발문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후 1865년(고종 2)에는 전종(全琮)이 기존 판본에 없던 두문동비문(杜門洞碑文), 공훈록(功勳錄), 문근공목민유사(文謹公牧民遺事) 등을 추가하면서 1859년과 같은 목활자로 다시 인출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권두에 목차는 보이지 않고, 이경재가 1859년에 작성한 서문이 있다. 본문은 상·하 2권으로 구성하여, 상권에는 전이갑의 유적을, 하권에는 전오륜의 유적을 배치하였다. 상권은 전이갑의 전기인 「충렬공본전(忠烈公本傳)」을 기술한 후 전기 말미에 ‘근안(謹按)’이라고 적어 본전의 작성동기와 작성과정을 적었다. 아울러 참고자료로 열성조의 수교(受敎)와 전이갑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시를 적은 「기유(記遺)」를 첨부하였다. 하권에는 전오륜의 전기인 「채미선생본전(採薇先生本傳)」, 선생과 관련된 내용을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유향(柳巷) 한수(韓脩) 등의 글에서 뽑아 놓은 「자설(字說)」 및 「자설후시(字說後詩)」, 두문동에 들어가 절개를 지킨 구충정(九貞忠)에 대한 기록인 『구정충록(九貞忠錄)』, 고려에 충절을 지키기 위해 부조현 고개에서 조복을 벗어던지고 두문동에 들어와 출사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부조현언지록(不朝峴言志錄)」이 실렸다. 권말에는 1830년에 후손 전정수(全廷壽)가 쓴 서문과 1859년에 간행된 사실을 보여주는 간기 및 같은 해 정문승(鄭文昇)이 적은 발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한 『도원공유적』(K2-401)와 같은 정리자를 닮은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서문의 필체, 권수제, 어미(魚尾)의 형태가 전혀 다르고, 수록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장서각본은 본서보다 늦은 시기인 1865년에 인출한 판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고려시대 인물의 행적 및 유문을 통해 나말여초(羅末麗初)와 여말선초의 정치적 병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도원유적(桃源遺蹟), 도원공유적(桃源公遺蹟), 全廷壽(전정수), 부조현(不朝峴), 두문동(杜門洞)

독례수초(讀禮隨鈔)

KOL000028803

古159-3

讀禮隨鈔 金尙憲(朝鮮) 撰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618序]

4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0.2 × 15.6 cm, 10行20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29.6 × 20.1 cm

序: 萬曆戊午(1618)...金尙憲

印: 世仙, 志孝家法, 安東, 金炳日, □明遺

1. 개요

본서는 조선 중기 문신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중국의 의례서(儀禮書)인 『예기(禮記)』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가려 뽑아 해석을 붙인 예서(禮書)이다. 서명인 ‘독례수초’는 『예기』를 읽고 따라야 할 내용을 가려 뽑았다는 뜻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김상헌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字)는 숙도(叔度)이며 호(號)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澗老人)이다. 시호(諡號, 제왕·재상·유현 등이 사망 후 공덕을 칭송하여 임금이 붙여 준 이름)는 문정(文正)이다. 석실산인은 중년 이후 양주의 석실에 머무를 때 사용하였고 서간노인은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은거하면서 사용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가 인조가 항복하자 안동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그가 머물렀던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안동의 서간사(西澗祠) 등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저서로 『청음집(淸陰集)』 40권이 전한다.

본서의 서문에 김상헌은 이 책의 저술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평소에 『소학(小學)』에 수록된 『예기』의 내용만을 외우고 있다가 부친의 상(喪)을 치른 후 비로소 『예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스스로 상사를 치르는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여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었다. 평소에 제대로 강습하지 않아서 이러한 후회가 든 것이라고 하며 쇠약한 몸으로 다시 읽어보려 하였지만 진척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만둘 수 없었으므로 『소학』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의례만을 뽑아서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명인 ‘독례수초’는 밤중에 깜깜한 길을 가면서 스스로 촛불을 잡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예기』에 수록된 엄중한 예법(禮法)을 간략하게 줄인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예를 알지 못하여 행하지 않는 것보다 소략하게나마 알고서 행하는 것이 낫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가장 먼저 김상헌이 직접 쓴 서문이 있으며 목록 없이 본문이 시작된다. 본서의 서문은 김상헌의 문집 『청음집』에는 발문(跋文)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만력 무오년 안동 김상헌 서(萬曆戊午年金尙憲序)’라는 문구는 삭제되어 있다. 본문은 권1에 곡례(曲禮) 상·하, 단궁(檀弓) 상·하,

권2에 왕제(王制), 증자문(曾子問), 예운(禮運), 예기(禮器), 옥조(玉藻), 명당위(明堂位), 상복소기(喪服小記), 대전(大傳), 출의(出儀), 학기(學記)가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악기(樂記), 잡기(雜記) 상·하, 상대기(喪大記), 제법(製法), 제의(祭義), 권4에는 제통(祭統), 경해(經解), 중니연거(仲尼燕居), 중니한거(仲尼閒居), 방기(坊記), 표기(表記), 치의(緇衣), 분상(奔喪), 문상(問喪), 간전(問傳), 삼년문(三年問), 심의(深衣), 유대(儒待), 혼의(昏義), 향음주(鄉飲酒), 사의(射義), 상복사제(喪服四制)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예기』 49편의 순서를 따라 수록하였으며 주소(注疏, 자세한 설명)를 인용·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4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은 『독례수초』이다. 원(元)·형(亨)·리(利)·정(貞)으로 책의 순서를 표지 서명 아래 기재하였다.

5종의 장서인(藏書印)을 확인할 수 있다. ‘세선(世仙)’, ‘지효가법(志孝家法)’, ‘안동(安東)’, ‘김병일(金炳日)’, ‘□명유(□明遺)’가 그것인데, ‘안동’과 ‘김병일’은 모두 김병일의 것으로 그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은 김병일의 본관으로 온릉 참봉(溫陵參奉)을 지낸 김정근(金靖根)의 아들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김상헌이 안동으로 은거한 후 저술한 책으로 정치에서 물러난 이후 유학자로서의 그의 행적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4265-v.1-4)과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고서(I) 390.9 김상헌 독-판 -1~4)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임영현)

핵심어 김상헌(金尙憲), 예기(禮器), 소학(小學), 김병일(金炳日)

독서록(讀書錄)

KOL000021360

한古朝16-33

讀書錄 : 并讀書續錄 / 薛瑄(明) 著 ; 洪柱世(朝鮮) 校

木板本

公州 : 忠淸監營, 孝宗 7(1656)

原錄8卷4冊, 續錄6卷3冊, 共14卷7冊 : 四周雙邊 半郭 18.3 × 13.0 cm, 10行20字, 上下內向1~3葉花紋魚尾(一部 上下內向有紋魚尾) ; 27.2 × 17.8 cm

表題: 讀書錄

版心題: 讀書錄

刊序讀書錄: 歲丙申(1656, 孝宗 7)月正元日豐山洪柱世(1612~1661)謹序

重刻讀書錄序: 正德庚辰(1520, 正德 15)九月癸未歸善鄭維新序

重刻讀書錄後序: 正德十五年(1520)冬十一月四日弘農後學許讚敬識

印: 臨瀛李尙奎章

1. 개요

본서는 명나라 설선(薛瑄, 1394~1464)이 독서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수시로 기록해 둔 『독서록(讀書錄)』을 조선의 홍주세(洪柱世, 1612~1661)가 교정하여 간행한 성리서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 홍주세는 인조~효종 연간에 활약한 문인으로, 본관이 풍산(豊山), 자는 숙진(叔鎭), 호는 정허당(靜虛堂)·수암(守菴)이다. 당대에 문학적 재능이 특출하여 절친이었던 춘소(春沼) 신최(申最, 1619-1658)와 함께 문명(文名)으로 이름났다. 부친은 좌참찬을 역임한 풍령군(豊寧君) 홍보(洪寶, 1585~1643)이며, 아들은 소화시평(小華詩評) 『순오지(旬五志)』 『시평보유(詩評補遺)』 『동국역대총목』을 저술하고 시평가로 이름을 날린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다. 1633년에 생원에 입격하였고, 1649년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으며, 1650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전적, 예조좌랑, 직강(直講), 충청도사를 거쳐 영천군수(榮川郡守)로 재직하던 중 사망했다. 관료 생활 도중에 탄핵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는 순조롭지 못했지만, 당대 저명한 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예컨대 신흠(申欽)의 손자이자 선조의 부마 신익성의 아들이었던 신경(申晷), 신최(申最)와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고, 이 외에도 정두경(鄭斗卿),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홍명하(洪命夏, 1607~1667),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을 들 수 있다. 학문적으로 율곡의 사상을 수용하여 성리학 자체의 이론적 실천을 강조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시무(時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학적으로는 창작에 있어서는 당송고문을 학습하여 주제가 잘 전달되는 창작 태도를 창작 태도를 강조하였다. 저서로 『정허당집』 등이 있다.

편자 홍주세는 어린 시절 집에 소장되어 있던 『독서록요어(讀書錄要語)』를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책인지 잘 알지 못하였고, 성장하면서는 과거 준비에 열매어 미쳐 읽을 겨를이 없었다. 이후 몇 년간 병으로 몸을 돌면서 『독서록요해』를 침잠하고 탐색할 기회를 얻게 되었

는데, 요약본이 아닌 전서(全書)를 보고자 중국본 『독서전록(讀書全錄)』을 빌려와 살펴보고는 이 책이 성리학의 부고(府庫)가 되며 성문(聖門)의 정수가 된다고 감탄하게 되었다. 하지만 빌려보는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동지(同志)들과 함께 간행을 도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다가 1654에 충청 도사로 재직하면서 충청감사 강백년(姜栢年)과 뜻이 합치되면서 『독서록』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본(原本) 다시 구해와서 별도로 선사(善寫)한 후에 간행을 시작했는데, 공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감사와 자신이 연이어 파직을 당하게 되면서 미처 교수하고 인출할 겨를이 없었다. 그 이듬해 을미년(1655) 가을에 권우(權堧)가 충청감사로 부임하면서 『독서록』 인본 하나를 홍주세에게 보내와 오탈자를 교정해줄기를 요청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본서가 간행되게 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원록 8권 4책, 속록 6권 3책으로 총 14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명대 인물인 정유신(鄭維新)과 허찬(許讚)이 1520년에 중각(重刻)하면서 쓴 서문과 이 명간본을 토대로 조선에서 교열하고 간행하면서 1656년에 작성한 홍주세의 서문이 있다. 『독서록』은 설선이 독서하다가 깨달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즉각즉각 적는 비망록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록 권1의 서두와 속록 권1의 서두에 있는 저자의 지어(識語)를 통해 알 수 있다. 설선이 이 책을 편찬한 이유는 장횡거가 말한 “마음속에 깨달은 바 있으면 곧바로 기록해야 하니,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막힐 것이다.”라는 말을 단초로 독서할 때마다 적은 기록을 모아 만들어진 책이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목차를 설정하지 않은 형태로 편찬되었다. 책의 내용은 주역·시경·서경·춘추·예기 등 오경(五經), 논어·맹자·대학·중용 등 사서(四書), 『태극도설(太極圖說)』, 『근사록(近思錄)』 등 송대의 성리서, 왕통(王通)의 『중설(中說)』, 노자와 장자 등 제자서, 석씨(釋氏), 인성물성, 예악 등 성리학적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판심 형태는 상하내향1~3엽화문어미를 비롯해서 초승달 문양의 도상(圖像)이 새겨지는 등 다양한 어미(魚尾)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본 『독서록』은 1466년에 설선의 제자 염우석(閻禹錫)이 24권본의 형태로 처음 간행한 이후로 명·청대에 걸쳐 권차를 달리하며 십여차례가 넘는 간행이 있었다. 그 중 홍주세가 본서를 간행하기 위해 참고했던 중국본으로 추정되는 간본은 1520년에 정유신이 간행한 정덕본과 1555년에 진비(陳斐)가 간행한 심유번본(沈維藩本) 두 종을 들 수 있다. 단, 정덕본은 정유신과 허찬의 서문이 있고 『독서속록』이 없이 『독서록』 10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심유번본은 『독서록』 10권·『독서속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유신의 서문과 허찬의 후서를 비롯해 진비의 서문까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홍주세본과 차이를 보인다.

5. 종합 평가

명대 초기 성리학을 대표하는 저서로, 명대의 사상과 이학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독서록』의 조선 유입과 수용이 새로운 독서기록 양식을 출현시켰고, 저자에 대한 평가가 사상사적 변모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문학사, 사상사, 경학사적으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독서록(讀書錄), 설선(薛瑄), 홍주세(洪柱世), 강백년(姜栢年), 정유신(鄭維新), 허찬(許

讚), 충청감영(忠淸監營), 명대이학(明代理學)

참고문헌

이연순, 「조선시대 독서기록의 흐름과 변천에 관한 試考 - 薛瑄의 『讀書錄』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8, 동양고전학회, 2020.

김광년, 「靜虛堂 洪柱世의 文學 初探」, 『고전과 해석』 27,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19.

동상선생문집(東湘先生文集)

KOL000018137

古朝46-가201

東湘先生文集 : 并附錄 / 許震東(朝鮮) 著 ; 許澳(朝鮮), 許民植(朝鮮) 共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高宗 7(1870)

7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3.2 × 16.8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 ; 32.6 × 21.0 cm

表題: 東湘集

版心題: 東湘集

東湘先生文集序: 崇禎四己巳(1809)孟夏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吏曹判書致仕奉朝賀尹致義序

東湘先生文集跋: 崇禎後四庚午(1870)孟春幸州奇正鎮謹書, 隆慶壬申後二百九十九年庚午(1870)上元中原朴頤休再拜書于素山梅下室

1. 개요

본서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외조카이자 문인인 동상 허진동(許震童, 1525~1610)의 시문집으로, 고종 7(1870)년에 목활자로 간행한 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허진동의 자는 백기(伯起), 호는 동상(東湘),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1525년에 전북 부안(扶安) 성산(城山)에서 부친 허강(許剛)과 모친 중원박씨(中原朴氏)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외삼촌인 박순(朴淳)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우계(牛溪) 성훈(成渾), 송강(松江) 정철(鄭澈), 옥계(玉溪) 노진(盧禎, 1518~1578),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 1537~1582) 등과 교류하였다. 1572년에 향시에 합격했다. 동년 8월에 신종(神宗)의 등극하사(登極賀使)로 가는 박순을 따라 북경에 갔다. 1574년 50세의 나이로 사산감역(四山監役)이 되었고, 삼례 찰방 및 수운판관의 관직을 지냈다. 박순을 배행하여 명나라에 갔을 때 작성한 『조천록(朝天錄)』이 있다.

본서의 편찬경위는 알기 어려우며, 김원행(金元行)이 1762년에 지은 신도비명을 통해 볼 때 이 무렵 이미 유고가 수습되어 있었으며, 1820년대에 8대손 허질(許瓚)이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1823년에 홍희준(洪羲俊)과 1824년에 박기수(朴綺壽)에게 서문을 받았으나 간행여부는 알 수 없다. 이후 허오(許澳)와 족질 허민식(許民植)이 유고를 2책으로 재편·교정하고 윤치희(尹致羲)의 서문, 기정진(奇正鎭)과 박이휴(朴頤休)의 발문을 받아 1870년에 목활자본 인출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7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 1869년에 지은 윤치희의 서문과 책별 목차(제1책은 권1~3의 목차, 제2책은 권4~7의 목차)가 있고, 권말에는 1870년에 지은 기정진과 박이휴의 발문이 있다. 권별 구성을 살펴보면 권1~4는 시(詩) 38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형태에 따라 오언절구(148수), 오언율시(61수), 육언(1수), 장단구(1수), 칠언절구(156수), 칠언율시(18

수), 고시(2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권5는 명(銘) 1편과 문(文) 4편이, 권6은 부록이며, 권7은 조천록(朝天錄)이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는 소회를 담은 시, 경관을 읊은 시 및 다른 사람의 시에 차운한 시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권1의 「조황극전(朝皇極殿)」은 1572년에 외삼촌 박순을 모시고 명나라에 갔을 때 지은 시로, 시제(詩題) 하단에 작성시기와 상황을 알려주는 “隆慶壬申陪舅氏思菴相公赴朝天時作”의 주석을 달아두었다. 「차울곡제신우시축운(次栗谷題信牛詩軸韻)」은 율곡이 자신보다 12세가 적은데도 서로 도의로 사귄 사실을 밝히고 원운(元韻)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외에도 수록한 차운시의 경우 대부분 운자(韻字)를 받은 원래의 시인 원운시(原韻詩)를 같이 실어두었다. 권3에서는 국내 경관을 읊은 시를 비롯해서 명나라 도성에 입성할 때 지은 「알이제묘(謁夷齊廟)」, 북경의 문묘에서 지은 「석고(石鼓)」, 회통관에서 상마연(上馬宴)에 참석한 것에 대한 「회동관참상마연(會同館參上馬宴)」 등 사행길에서 읊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권7의 임신년 8월~계유년 2월에 사행길에서 지은 일기인 『조천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천록』 1572년 12월 23일의 일기에서 회동관에 나아가 상마연에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권3의 「회동관참상마연」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권4의 「옹정촌수신회(翁井村守申會)」는 남원 옹정촌에서 경신일(庚申日)에 자지 않고 다음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행사를 읊은 것으로 당시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시도 보인다. 권6의 부록으로는 박순이 저자에게 보낸 부안 우반동의 십경에 대한 칠언절구 시인 「기제허참봉우반십경(寄題許參奉愚磻十景)」, 우계 성훈이 보낸 송별시인 「송허동상남귀(送許東湘南歸)」를 비롯하여 저자의 생애와 업적을 알 수 있는 김명석(金命碩)이 지은 행장(行狀), 김원행(金元行)이 쓴 신도비명(神道碑銘) 등이 있다. 권7은 조천록(朝天錄)은 1572년 8월부터 1573년 2월까지의 사행갔던 기록으로 조천일기(朝天日記), 북경 갈 때의 거리와 관참(館站), 문묘위차(文廟位次), 함께 간 사람의 이름인 동행록(同行錄) 등이 실려 있다.

4. 서지적 특성

1870년에 목활자로 인출한 초간본으로,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이다. 일부 장차(張次) 및 권차가 누락 또는 오각된 판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권1의 제9판의 장차가 누락되었고, 권2의 제4판은 장차가 ‘二四’로, 권3의 제2판은 권차가 ‘二’로 장차는 ‘三’으로 잘못 새겨져 있다. 이 외에도 권7은 권수제가 누락된 채로 바로 ‘조천록’이라고 판각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개인의 일상생활, 학문과 사상, 교유관계 및 당대의 풍속 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차운시의 경우 원운시를 함께 첨부하여 작성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조천록」 및 사행시(使行詩)를 통해 명나라의 문물과 제도 및 한중 외교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동상집(東湘集), 허진동(許震東), 박순(朴淳), 조천록(朝天錄), 사행시(使行詩), 부안(扶安)

동파문수(東坡文粹)

KOL000026383

한古朝44-나25

東坡文粹 / 蘇軾 原著

木板本(後刷)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8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2.5 × 17.0 cm, 12行24字, 上下內向黑魚尾(일부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 ; 31.5 × 21.0 cm

表題: 東坡文粹

版心題: 蘇文

改裝記: 歲在甲寅菊月日改衣補闕

1. 개요

본서는 북송(北宋)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식(蘇軾, 1037~1101)의 작품 가운데 70여편을 선별하여 주제별로 엮은 선집본(選集本)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소식(蘇軾, 1037~1101)은 자가 자첨(子瞻),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로, 현 쓰촨성(四川省) 미산(眉山)현에서 태어났다. 소식은 시는 물론 산문, 서예, 회화 등에 모두 능했으며, 부친은 소순(蘇洵)과 아우는 소철(蘇轍) 소식과 함께 삼소(三蘇)라고 불렸다. 이들 삼부자는 당·송을 대표하는 8인의 문장가인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의 한명이기도 하다. 왕안석이 주장한 신법(新法)에 비판적이었고, 신법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실상을 시로 묘사했다가 황주의 부사로 좌천되었다. 그곳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땅의 이름을 동쪽언덕을 뜻하는 ‘동파’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다. 소동파는 자유분방하고 호방한 시문을 지으며 중국 문학사는 물론 조선과 일본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서의 편찬 배경과 과정에 관해서는 서문이나 발문 및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8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으로, 약 70여편의 글을 문체에 따라 분류하였다. 제1책은 권1~4까지로 상서(上書), 차자(劄子), 장(狀), 서(書), 논(論), 시론(試論) 등 35편이, 제2책은 제2책은 권5~8로까지로 책(策), 서(序), 기(記), 명(銘), 설(說), 찬(贊), 제문(祭文), 비명(碑銘), 제책(制策) 등 37편이다. 권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상신종황제서(上神宗皇帝書)」 등 상서 2편, 권2에 「서주상황제서(徐州上皇帝書)」, 「대장방평간용병서(代張方平諫用兵書)」 등 상서 4편, 「의학교공거차자(議學校貢舉劄子)」 등 차자 2편, 조사부정주논사장(朝辭赴定州論事狀) 장 1편, 「황주상문로공서(黃州上文潞公書)」, 「상한태위서(上韓太尉書)」 등 서 2편이 있다. 권3은 「대신론상(大臣論上)」, 「대신론하(大臣論下)」 등 논 12편, 권4는 「가의론(賈誼論)」 등 논 7편 및 「형상충후지지(刑賞忠厚之至)」 등 시론(試論) 5편이 있다. 권5는 「책

략(策略) 등 책 9편, 권6은 「무책난(無責難) 등 책 10편, 권7은 「책단(策斷) 등 책 3편, 「육일거사집서(六一居士集序) 등 서 3편, 「취백당기(醉白堂記) 등 기 3편, 「삼괴당명(三槐堂銘) 등 명 1편, 「가설(稼說) 등 설 1편이다. 권8은 「왕원지화상찬(王元之畫像贊) 등 찬 2편, 「제구양문충공문」 등 제문 1편, 「표충관비(表忠觀碑) 등 비명 3편, 「의진사대어시책일도(擬進士對御試策一道) 등 제책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동파의 작품 중 서정성이 강하고 문예적 가치를 지니는 기(記)와 서(序)가 각 3편인데 비해, 역사 인물에 대한 논평인 논(論)이 19편과 국정운영과 관련한 책(策)이 22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판심 형태는 상하내향흑어미를 비롯하여 상하내향2~3엽화문어미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제1책 권1의 제1장은 결락되어 필사본으로 보사하였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뒷면지 안쪽에 ‘갑인년’에 표지를 개장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했다는 기록이 필사되어 있다. 아울러 본문에는 비점(批點) 등 소장자가 독서한 흔적이 보인다.

본서와 같은 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古3432-3), 미국 하버드대학연칭도서관(TK 5345 4953.1), 일본 동양문고(VII-4-353) 등에도 완질로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古3717-197), 계명대 동산도서관(812.081-소식동표), 연세대 도서관(고서 812.08 소식 동판) 등에 권5~8(1책)의 결본 형태로 남아있다.

5. 종합 평가

조선시대에 간행한 다양한 소식 시문집의 선집본과 함께 조선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중국서적의 조선 유입과 활용 등 서적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동파문수(東坡文粹), 소식(蘇軾), 선집본(選集本), 중국서(中國書), 서적교류(書籍交流)
참고문헌

당윤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 『增刊校正王壯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를 중심으로」, 『중국중문학』 45, 2009.

만국략사(萬國略史)

KOL000022752

한古朝50-3

萬國略史 / 學部(朝鮮) 編

木活字本(學部印書體字)

[漢城] : [學部編輯局], 高宗 33(1896)跋

2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0.9 × 14.3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 28.1 × 18.5 cm

國漢文 混用本임

刊記: 大韓朝鮮開國五百四年(1895)...學部編輯局新刊

卷2는 金屬活字本(再鑄整理字)임

卷2의 板式은 四周單邊 9行20字 上下向黑魚尾임

印: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1. 개요

본서는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을 위하여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국한문을 혼용한 세계사 교과서이다. 『만국략사』라는 서명은 만국의 간략한 역사라는 뜻으로 서명을 통해서도 세계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만국략사』는 학부에서 편찬한 세계사 교과서로 고종 33(1896)년에 학부편집국장 이경직(李庚植)이 지은 발문에 책의 편찬 의도를 자세히 수록하였다. 발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데,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서구의 역사 및 사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국략사』를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서의 편찬자에 대해서도 발문에 간략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발문에 의하면 서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편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학부편집국장 이경직 및 그 보좌관들 외에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중 서구의 역사에 밝은 인물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본문을 2권의 체제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6편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편 안에는 다시 장으로 구분하였다. 각 권의 앞부분에는 각 권의 목차(目次)를 배치하였다. 본문의 권 1에는 제1편 총론(總論), 제2편 아세아주(亞細亞洲), 제3편 아비리가주(亞非利加洲)로 세분하였다. 권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총론에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대양(大洋)과 대륙 같은 세계지리, 각 대륙의 인종 및 문화 등 세계사를 배우기 전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수록하였다. 제2편 아세아주는 아시아대륙의 역사를 수록하였는데, 고대 아시리아 및 바빌로니아, 페니키아 등의 서아시아부터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남아시아, 조선,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까지 아시아 대륙에 존재하거나 존

재했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제3편 아비리가주는 아프리카대륙의 역사를 수록하였는데, 주로 이집트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권 2에는 제4편 구라파주(歐羅巴洲), 제5편 아미리가주(亞米利加洲), 제6편 아서아니아주(阿西亞亞洲)로 세분하였다. 권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4편 구라파주는 유럽 대륙의 역사를 수록하였는데, 그리스 및 이탈리아, 터키, 에스파냐,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제5편 아미리가주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수록하였는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미국, 멕시코의 역사를 주로 수록하였다. 제6편 아서아니아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의 전반적인 역사를 수록하였다. 『만국략사』의 구성 및 체계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편찬한 세계사 교과서인 『만국사략(萬國史略)』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시대순으로 목차를 편성한 것이 아닌 대륙별로 목차를 편성한 부분이 유사하다. 이러한 구성은 『만국략사』 편찬에 일본인들이 참여하였던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경우, 권차에 따라서 판종이 다른데 권1은 목활자인 학부인서체자(學部印書體字)로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이고 권2는 금속활자인 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로 간행한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다. 권1과 권2를 다르게 간행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권1의 편제면(編題面)에서는 ‘대한조선개국오백사년중추학부편집국신간(大韓朝鮮開國五百四年中秋學部編輯局新刊)’ 즉 조선 고종 32(1895)년에 간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권2의 발문은 고종 33(1896)년에 지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권1을 먼저 간행하고, 1년 뒤에 권2를 마저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권1과 권2의 목차 및 권수면(卷首面)에 ‘학부도서(學部圖書)’, ‘편집국보관(編輯局保管)’과 같은 학부 관련 인장이 있다. 따라서 본서를 학부에서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을 위하여 학부에서 편찬한 세계사 교과서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만국략사(萬國略史), 학부편집국(學部編輯局), 세계사(世界史), 교과서(教科書)

참고문헌

정종원, 『『만국략사(萬國略史)』에 나타난 일본의존적 세계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만회집참의(晩悔集僭疑)

KOL000009251

古3649-138

晩悔集僭疑 / 權得己(朝鮮) 編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木板本

5卷5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1.3 × 16.0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0 × 19.5cm

表題: 晩悔集僭疑

目錄題: 晩悔集僭疑

版心題: 晩悔集僭疑

所藏本: 冊1(卷1), 論語.-- 冊2(卷2), 論語.-- 冊3(卷3), 近思錄.-- 冊4(卷4), 孟子.-- 冊5(卷5), 家禮.

1. 개요

『만회집참의(晩悔集僭疑)』는 권득기(權得己, 1570~1622)가 『논어(論語)』, 『맹자(孟子)』,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등을 읽던 도중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것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권득기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지(重之), 호는 만회(晩悔), 거원자(居元子)이다. 생부(生父)는 권극례(權克禮, 1531~1590)이며, 계부(繼父)는 권극관(權克寬)이다. 권득기는 1570(선조 3)년 출생하여, 1589(선조 22)년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이후 1610(광해군 2)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이후 광해군 시기에 예조좌랑(禮曹佐郎),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死後) 대전에 소재한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만회집(晩悔集)』 별도의 장을 구성한 서문은 없으나, 권1 제1장에 수록된 저자의 인(引)을 통해, 자신이 독서를 하던 중 매번 이해하기 어려운 곳을 만나면 기록을 해두어 후일 살펴보거나 친우들과 강론하기 위한 용도로 기록해두었음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만회집참의』는 5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과 권2는 『논어』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둔 것이며, 권3은 『근사록』, 권4는 『맹자』, 권5는 『가례』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정리해둔 것이다. 제1책에는 전체 목록이 수록되어 있어, 색인에 편의를 두었다. 각 권의 제1편에는 『논어』, 『맹자』 등의 서명을 두었으며, 편명과 장명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장명 하단에는 결자(闕字)를 두어 장명(章名)과 서술하는 내용의 구분을 해두었다. 예를 들어 『논어』의 첫 번째 편은 「학이편(學而篇)」이라 표현하고, 「학이편」의 첫 번째 장을 학이장(學而章)으로 표현하여 동일한 표현이라도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조치를 둔 것이다. 이외에도 내용을 서술할 때, 문단이 달라지면 ‘○’ 표기를 해두어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두었으

며, 각 편의 서두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둘 경우 평행보다 2자를 낮추어 기술해두었다.

권1에는 『논어』의 「학이편」, 「위정편(爲政篇)」, 「팔일편(八佾篇)」, 「이인편(里人篇)」, 「공야장편(公冶長篇)」, 「옹야편(雍也篇)」, 「술이편(述而篇)」, 「태백편(泰伯篇)」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2에는 『논어』의 「자한편(子罕篇)」, 「향당편(鄉黨篇)」, 「선진편(先進篇)」, 「안연편(顏淵篇)」, 「자로편(子路篇)」, 「헌문편(憲問篇)」, 「위영공편(衛靈公篇)」, 「계씨편(季氏篇)」, 「양화편(陽貨篇)」, 「미자편(微子篇)」, 「자장편(子張篇)」, 「요왈편(堯曰篇)」이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근사록』의 「논도체(論道體)」, 「논위학대요(論爲學大要)」, 「논치지(論致知)」, 「논존양(論存養)」, 「논역행(論力行)」, 「논제가(論齊家)」, 「논출처(論出處)」, 「논치도(論治道)」, 「논치법(論治法)」, 「논임정처사(論臨政處事)」, 「논교인(論教人)」, 「논계근(論戒謹)」, 「변이단(辨異端)」, 「관성현(觀聖賢)」이 수록되어 있다. 권4의 경우 『맹자』의 「양혜왕(梁惠王)」, 「공손추(公孫丑)」, 「등문공(滕文公)」, 「이루(離婁)」, 「만장(萬章)」, 「고자(告子)」, 「진심(盡心)」이 각각 상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권5에는 『가례』의 「상례(喪禮)」, 「통례(通禮)」, 「관례(冠禮)」, 「혼례(婚禮)」가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에는 간행 기록과 발문(跋文) 등 간행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동일한 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 대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각 책의 표지(表紙)에는 ‘만회집 참의’라는 표지 서명이 묵서로 기술되어 있으며, 표제 하단에는 권지일(卷之一), 권지이(卷之二)와 같은 형식으로 책의 순서를 매겨두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논어, 맹자, 근사록 등 각 책에 수록된 편명을 기술해두었으며, 서뇌(書腦, 책을 철한 부분)에는 공오(共五)를 기술하여, 전체 5책임을 표시해두었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조선 중기 활동한 유학자 권득기가 각 문헌을 읽으며 의심스러운 부분을 기술하고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기술해둔 것이다. 해당 문헌은 권득기의 학문적 수준과 전통시대 유학자들이 학문을 대하는 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다희)

핵심어 문집(文集), 권득기(權得己), 논어(論語), 맹자(孟子),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참고문헌

전재동, 「권득기의 「論語僭疑」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매산선생예설(梅山先生禮說)

KOL000025566

한古朝29-38

梅山先生禮說 / 洪直弼(朝鮮) 編 ; 李鎮玉(朝鮮)·…等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30(1893)

7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1.4 × 14.9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 31.0 × 19.9 cm

표제: 梅山禮說

관심제: 梅山先生禮說

梅山先生禮說序: 辛卯(1891)三月下浣後學光山金洛鉉謹敘

梅山先生禮凡例, 梅山先生禮總目

跋: 癸巳(1893)五月初吉門人全義李鎮玉謹識

1. 개요

본서는 조선후기 노론(老論) 낙론(洛論)의 핵심 인물이었던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예설(禮說)을 모아 1893년(고종 30)에 목활자로 인출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홍직필은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응(伯應), 호는 매산(梅山)으로, 한성 주자동(鑄字洞)에서 태어났다.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의 문인이며, 오희상(吳熙常)과 교분이 두터웠다. 평생 출사하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힘써 기호학맥의 낙론을 계승하였고, 임헌회(任憲晦)·조병덕(趙秉德)·소휘면(蘇輝冕) 등 기호학계의 비중있는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경학과 성리학은 물론 제자백가의 사상까지 두루 섭렵했고 예(禮)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매산집』 52권이 전해진다.

본서의 편찬은 저자가 사망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자 임헌회가 스승의 예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을 사문의 전장(典章)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여겨 직접 매산의 유집(遺集) 가운데 예설과 관련된 부분만을 초록(抄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이로부터 15년이 지나 이진옥이 매산의 사손(嗣孫) 홍용관(洪用觀)과 함께 임헌회의 원고를 교정하고 속집(續集)을 추가하여 5책으로 구성하였다. 1899년 봄부터 1892년 가을까지 다시금 이진옥과 전우가 여러 차례 교수(校讎)하여 4책으로 산삭하였고, 1893년에 이 정고본을 토대로 가산을 털어 목활자를 사용해서 100여부를 인출하여 동지들과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7권 4책으로, 권두에는 홍직필의 문인인 김낙현(金洛鉉)이 쓴 서문을 비롯해 범례와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범례에는 본서의 편찬방식과 체제 및 편찬과정 등을 기술하였다. 예컨대 본서가 김장생의 『의례문해』와 송시열의 『경례문답』의 체제를 모방하였으며, 1866년에 인

출한 인본 27책과 1858년에 이진옥이 편집한 속집 5책에 있는 서간의 문답 및 제자들과 문답한 어록(語錄)을 모아 76개의 강(綱)과 939개의 목(目)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각 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권1은 관혼례(冠昏禮) 4조, 통례(通禮) 5조, 권2는 통례 9조, 권3은 상례(喪禮) 22조, 권4는 상례 17조, 권5는 상례 5조, 권6은 상례 7조, 제례 5조, 권7은 국례(國禮) 1조와 국애(國哀) 1조로 되어 있다. 상례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관혼례 4조, 통례 14조, 상례 51조, 제례 5조, 국례 1조, 국애 1조 총 76조 즉 76개의 강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관혼례는 관례 6조·혼례 16조·복중관혼(服中冠婚) 11조를 설정하고 액혼례(厄婚禮) 1조를 추가적으로 실었다. 통례는 사당(祠堂) 14조, 종법(宗法) 5조, 출후(出後) 24조, 차양(次養) 1조, 시양(侍養) 2조, 섭사(攝祀) 27조, 반부(班祔) 8조, 신알(晨謁) 5조, 삭망참(朔望參) 9조 등이다. 상례는 역복(易服) 2조, 입상주(立喪主) 9조, 부고(訃告) 1조, 습(襲) 7조, 반함(飯舍) 5조, 혼백(魂帛) 3조 등이다. 제례는 시제(時祭) 37조, 기제(忌祭) 35조 등이다. 각 조목아래에는 세주로 질문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했다. 권말에는 이진옥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매산선생경예설(梅山先生經禮說)』(한고00-8)은 매산의 『경설』과 『예설』을 함께 묶어서 필사한 책이다. 후반부인 권8~19가 『예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예설』에서는 국례가 사라지고, 방례(邦禮) 1권이 추가되었으며, 수록순서에 있어서도 통례, 관례, 상례 등으로 본서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예설서와 함께 우리나라의 예제 및 사례의 해석과 적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박윤원의 『근재선생예설』, 『간재선생예설』 등 낙론의 정통학맥에서 이루어진 예설서 편찬의 흐름과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매산선생예설(梅山先生禮說), 홍직필(洪直弼), 이진옥(李鎭玉), 임헌희(任憲暉), 전우(田愚), 박윤원(朴胤源), 예설서(禮說書)

참고문헌

이영준, 「梅山 禮說에 대한 一考察-『梅山先生禮說』 「通禮」를 통해 본 梅山의 宗統 傳承에 관한 인식」,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모양지(牟陽誌)

KOL201100171

古2744-38

牟陽誌 / 柳永履 등편

木活字本

[高敞] : [發行處不明], 正祖 17(1793)

不分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2.7 × 16.5 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1葉花紋魚尾(一部無魚尾混入) ; 30.5 × 20.0cm

刊記: 崇禎一百六十六年癸丑(1793)四月日開刊

1. 개요

『모양지(牟陽誌)』는 1793(정조 17)년 간행된 고창(高敞)의 읍지(邑誌)로 불분권 1책의 목활자본(木活字本)이다. 서명인 ‘모양’은 전북 고창의 다른 이름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 문헌의 편찬경위에 관한 정보는 마지막 면에 기재되어있다. 조정의 명을 받아 수정도유사찰방공의 5세손 류영리(柳永履)에게 명령하고(奉朝令修正都有司察訪公五世孫柳永履) 별유사찰방공의 6세손인 류격(柳格)과 노계공의 8세손 김조율(金肇律)에게 간행하도록 하였다(開刊別有司察訪公六世孫柳格 蘆溪公八世孫金肇律)는 기록이 있다. 읍지는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전국적인 관찬 지지(地志)의 편찬을 위한 1차 자료로서 작성되었으나, 조선 후기 들어 지방 각 읍의 현황 파악 및 각종 행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에 본서는 전라도에서 1793년 편찬한 『호남읍지(湖南邑誌)』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수정도유사 류영리는 본서 외에도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양호거의록(兩湖擧義錄)』, 『정묘거의록(丁卯擧義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목록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건치연혁(建置沿革), 현명(縣名), 관직(官職), 방리(坊里), 도로(道路), 성지(城池), 산천(山川), 성씨(姓氏), 풍속(風俗), 학교(學校), 서원(書院), 단묘(壇廟), 공해(公廩), 관액(關陔), 봉수(烽燧), 제언(堤堰), 장시(場市), 교량(橋梁), 사찰(寺刹), 누정(樓亭), 물산(物産), 진공(進貢), 상납(上納), 호구(戶口), 전총(田摠), 전세(田稅), 대동(大同), 봉름(俸廩), 요역(徭役), 창고(倉庫), 조적(糶糶), 군기(軍器), 군액(軍額), 노비(奴婢), 선생안(先生案), 인물(人物), 고적(古蹟)의 순서이다.

본문의 건치연혁에서는 고창의 역사가 기록되어있는데, ‘고창은 본래 마한(馬韓)의 모이부곡(牟伊部曲)에 속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때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으로 개명되었고, 통일신라 때 지금의 고창으로 바뀌었다.’고 기재하였다. 현명에는 ‘모이부곡(牟伊部曲)’, ‘모량부리(毛良夫里)’, ‘모양고창(牟陽高敞)’을 기재하였다. 관직은 현감(縣監) 1명,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1793년에 편찬된 『호남읍지』의 목록과 비교해 보면, 『모양지』에는 ‘누정’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호남읍지』에는 ‘부제영(付題詠)’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인물’에서는 『모양지』에는 ‘충신·효자·효녀·열녀·절부(節婦)·의사(義士)·행의(行義)·과환(科宦)·음사(蔭仕)·생진(生進)’이 하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호남읍지』에서는 충신·효자·열녀·의사·과환만이 기재되어 있다. 『호남읍지』에는 ‘고적’ 다음에 ‘책판(冊板)’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의 내용이 없을 경우 ‘무(無)’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내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제(表題) 옆에 계축사월(癸丑四月)이라는 기록과 발문의 ‘승정일백육십육년계축사월 개간(崇禎一百六十六年癸丑四月開刊)’의 기록을 통해 1793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793년 간행 이후 1963년에 2권 1책의 연활자(鉛活字)로 간행한 판본(古2744-13)이 소장되어 있다. 서문과 발문에 ‘융희후계모(隆熙後癸卯)’라고 기록되어 있어 1963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읍지는 지리지(地理志)로서 부(府)·목(牧)·군(郡)·현(縣) 등 지방의 역사·지리·인물·재정 등의 현황을 수록하였다. 『모양지(牟陽誌)』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비교하여 체제가 거의 같다. 본서는 조선후기 고창현의 정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어 지방사, 지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서적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다희)

핵심어 모양(牟陽), 고창(高敞), 호남읍지(湖南邑誌), 고창현읍지(高敞縣邑誌)

몽관집(夢關集)

KOL000022435

한古朝46-가1051

夢關集 / 崔惟允(朝鮮) 著; 崔鏞翰 編

木活字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39(1902)

本集3卷, 附錄4卷, 共7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2.2 × 15.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8 × 20.9 cm

刊記: 歲壬寅(1902)仲春新刊

序: 崇禎後五甲上章執徐(1880)...崔益鉉

跋: 上之三十九年著雍攝提格(1902)[실은 壬寅]...權鳳熙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최유운(崔惟允, 1809~1877)이 지은 131편의 글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으로, 고종 39(1902)년에 인출한 목활자본이다. 서명의 ‘몽관’은 최유운의 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최유운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로 자는 성진(誠進)이며, 호는 몽관이다. 본관은 경주(慶州)로 순조 9(1809)년에 최경태(崔擎泰)와 성주도씨(星州都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과거를 준비하였으나, 30살 즈음에 과거의 뜻을 버리고 성리학을 독학하였다. 그 후에 송내희(宋來熙, 1791~1867), 송달수(宋達洙, 1808~1858),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을 찾아다니며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 이후 철저히 성리학적 관점에 따라서 불교 등을 배척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처음에는 덕유산(德裕山)으로 들어가서 학문에 매진하다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들을 교육하였다. 고종 14(1877)년에 세상을 떠났다. 최유운의 사상은 개항기의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발문(跋文)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최유운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인 최장한(崔鏞翰, 1843~1923)이 아버지의 유고를 수집하고, 기정진의 제자인 정재규(鄭載圭, 1843~1911)가 유고를 교감한 후에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서문(序文)과 권봉희(權鳳熙)의 발문을 붙여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7권 2책으로, 본집 3권, 부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책1은 서문, 본집 권1~2가 있고, 책2는 본집 권3과 부록 권1~4, 발문이 있다. 서문은 고종 17(1897)년에 최익현이 지었다. 본집은 최유운이 지은 글을 수록한 부분으로 본집 각 권의 앞부분에는 해당 권의 목록을 각각 수록 하였다. 본집 권1에는 최유운이 지은 시 67편을 수록하였다. 본집 권2에는 최유운이 여러 친우 및 학자들에게 보낸 서간문(書簡文) 41편을 수록하였다. 본집 권3에는 최유운이 지은 서문 1편, 기문(記文) 4편, 잡저(雜著) 18편을 수록하였다. 부록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최유운을 위해 지은 글로 부록의 앞부분에 부록 전체에 대한 목록

을 수록하였다. 부록 권1에는 최유윤의 집안내력인 「세계(世系)」를 수록하였으며, 부록 권2에는 최유윤의 행적인 담긴 「행장(行狀)」을 수록하였다. 부록 권 3에는 최유윤의 죽음을 애도하면 지은 만장(輓章)들을 수록하였으며, 부록 권 4에는 최유윤을 위해서 지은 각종 제문(祭文)들과 「가정문견록(家庭聞見錄)」, 「서권단(書卷端)」을 수록하였다. 발문은 고종 39년(1902)에 권봉희가 지은 발문을 수록하였다.

수록한 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들은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간문의 경우, 「의상금곡송선생(擬上錦谷宋先生)」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이자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후손인 송내희에게 의문점을 물어보는 간찰이며, 「상노사기선생(上蘆沙奇先生)」은 근대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한 기정진과 교유한 간찰이다. 『몽관집』에 수록한 여러 서간문을 통해서 최유윤의 사상 및 교유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잡저 가운데 「통사우문(通士友文)」은 당대 해인사(海印寺) 승려가 도량(道場)을 설치하고 불서의 간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비판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다. 이를 통해서 성리학을 사상적 정통으로 삼아 불교와 같은 다른 사상을 배척하고자 한 최유윤의 사상을 알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책2의 마지막에 ‘세임인중춘신간(歲壬寅仲春新刊)’의 간기를 수록하고 있어서 본서를 고종 39(1902)년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재규가 지은 발문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발문을 지은 연도를 ‘상지삼십구년저용섭제격(上之三十九年著雍攝提格)’이라고 수록하였으나, 정재규의 생몰년 등을 고려하면 ‘상지삼십구년(上之三十九年)’인 고종 39(1902)년의 간지, 임인(壬寅)과 발문에 있는 고갑자(古甲子) 저용섭제격(著雍攝提格) 즉 무진(戊辰)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발문을 짓는 과정이나 활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갑자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후기의 학자 최유윤이 지은 글을 모은 문집으로 그의 행적과 교유관계 및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서적이다. 특히 저자와 교유했던 기정진 등은 후대에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몽관집』의 여러 글들은 근대 위정척사파들의 사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몽관집(夢關集), 최유윤(羅珪), 문집(文集), 목활자(木活字)

참고문헌

기정진, 『노사집(蘆沙集)』

정재규, 『노백헌집(老柏軒集)』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KOL000028736

古貴0236-3

妙法蓮華經 / 戒環(宋) 解 ; 一如(明) 集註 ; 世祖(朝鮮) 口訣 ; 韓繼禧(朝鮮) 等諺解

木板本(刊經都監覆刻本)

[羅州] : [雙溪寺], [明宗即位年(1545)]

6卷6冊(全7卷7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9 × 17.9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9 × 22.3 cm

諺解本

表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妙法蓮華經

寄贈者: 韓龍雲

刊記: 天順七年(1463)·尹師路等奉教雕造

1. 개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서역 출신 승려인 구마라집(鳩摩羅什, 334~413)이 한문으로 번역한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묘법연화경』에 송나라 승려 계환(戒環)과 명나라 승려 일여(一如)가 경전의 해석을 주석(註釋)으로 덧붙인 소위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 또는 『계환해(戒環解)』를 우리말로 번역한 언해본(諺解本, 한문으로 된 내용을 한글로 풀어서 쓴 책)이다. 본서는 세조 9(1463)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다. 서명인 『묘법연화경』은 흰 연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을 뜻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는 본래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불교 경전으로 406년에 서역 쿠차 왕국 출신의 승려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묘법연화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후 많은 승려들이 다양한 주석서들을 편찬하였지만,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묘법연화경』을 언해할 때 바탕으로 삼은 주석서는 송나라 승려 계환과 명나라 승려 일여가 편찬한 주석서이다. 『묘법연화경』의 언해는 세조(世祖) 시기 간경도감에서 진행하였는데, 세조가 직접 구결(口訣, 한문의 독송 및 해석을 위해서 각 구절 아래 우리말 조사 등을 달아 주는 것)을 달고 한계희(韓繼禧, 1423~1482) 등이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에는 『묘법연화경』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변상도(變相圖), 간경도감에서 『묘법연화경』 언해본을 간행할 때 윤사로(尹師路, 1423~1463)가 지은 「진묘법연화경전(進妙法蓮華經箋)」, 명나라의 요광효(姚廣孝, 1335~1418)가 지은 「신주법화경서(新註法華經序)」, 일여가 쓴 서문(序文), 당나라 승려인 도선(道宣, 596~667)이 지은 「묘법연화경홍전서(妙法蓮華經弘傳序)」, 송나라 승려인 급남(及南)이 지은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

序)를 수록하였다. 본문은 『묘법연화경』의 원문을 가장 큰 글씨, 계환의 주석은 중간 글씨, 일여의 주석은 가장 작은 글씨로 구분하여 수록하였고, 『묘법연화경』의 원문과 계환의 주석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내용은 모든 사람이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묘법연화경』은 악인 등도 평등하게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세조 9(1463)년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판본으로 2가지 이상의 판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1의 경우는 광곽(匡郭) 바깥쪽에 기록한 시주자(施主者)의 이름을 통해서 명종 즉위년(1545)에 나주(羅州) 쌍계사(雙溪寺)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책2부터 책6의 경우 시주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중종 18(1523)년에 간행한 간행지가 알려지지 않은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책1에는 『묘법연화경』의 설법장면 즉 영산회상(靈山會上)을 묘사한 변상도를 수록하고 있다. 변상도의 경우, 간경도감에서 처음 『묘법연화경』의 언해본을 간행하였을 때 수록한 것으로 본서가 간경도감의 번각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책의 첫머리에 ‘한용운기증본(韓龍雲寄贈本)’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근대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이 소장하였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대표적인 불교 경전으로, 조선 초기 불경 언해 사업 및 불경 언해본의 유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 초기 한글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세조(世祖), 간경도감(刊經都監), 언해본(諺解本)

참고문헌

정왕근, 『朝鮮時代〈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박광현, 『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박광연, 「고려후기 ‘法華經 戒環解’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 『佛敎研究』 제38집, 한국불교연구원, 2013.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KOL200200635

古1743-122

妙法蓮華經. 卷1, 5-7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木板本(覆刻)

安東 下柯山 : 廣興寺, 中宗 22(1527)

4卷2冊(缺本, 全7卷7冊):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 × 16.2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3.7 × 20.6 cm

表題: 法華經

版心題: 法華經

序題: 妙法蓮華經弘傳

刊記: 嘉靖六年丁亥(1527)九月日慶尙道安東府地下柯山廣興寺開板

墨書: 豐樂山 望仙寺

1. 개요

본서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서역 출신 승려인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문으로 번역한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불교의 종파 중 하나인 천태종(天台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 불교 종파에서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는 경전)으로, 중종 22(1527)년에 안동(安東) 하가산(下柯山, 학가산의 다른 이름)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명인 『묘법연화경』은 흰 연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묘법연화경』은 본래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불교 경전으로 406년에 서역 쿠차 왕국 출신의 승려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구마라집은 본래 쿠차 왕국 출신으로 382년에 쿠차 왕국이 전진(前秦)에 정복당하자 사로잡혀 중국의 장안(長安)으로 가던 중 전진이 멸망하여 후량(後涼)에 의해 양주(涼州)로 끌려갔다. 후에 후진(後秦) 즉, 요진(姚秦)이 후량을 정벌하고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데리고 갔다. 구마라집은 중국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기록된 많은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는데, 『묘법연화경』 이외의 대표적인 경전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등이 있다. 구마라집이 『묘법연화경』을 번역한 이후, 다양한 『묘법연화경』 판본이 유통되었는데 본서는 중종 22(1527)년에 안동 하가산 광흥사에서 정희왕후가 발원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에는 『묘법연화경』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변상도(變相圖), 당나라 승려인 도선(道宣, 596~667)이 지은 「묘법연화경홍전서(妙法蓮華經弘傳序)」를 수록하였다. 본문은 본래 전체 7권 28품(品, 불경에서 장을 지칭하는 말) 체제이나, 본서는 권2부터 권4까지 총 3권이 빠져있다. 각각 권1은 「서품(序品)」, 「방편품(方便品)」을 수록하고 있고, 권5는

「안락행품(安樂行品)」,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을 수록하고 있다. 권6은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촉루품(觸累品)」,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을 수록하고 있고, 권7은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다라니품(陀羅尼品)」,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모든 사람이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부처의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묘법연화경』은 악인 등도 평등하게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성종 1(1470)년에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가 발원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판본이다. 책7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정육년정해구월일경상도안동부지하가산광흥사개판(嘉靖六年丁亥九月日慶尙道安東府地下柯山廣興寺開板)’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을 통해 중종 22(1527)년에 안동 하가산 광흥사에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 뒷부분에 시주자(施主者), 각수(刻手), 간행 불사의 책임자인 화주(化主) 등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광흥사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책1에는 『묘법연화경』의 설법 장면 즉 영산회상(靈山會上)을 묘사한 변상도를 수록하고 있으며, 「묘법연화경홍전서」 첫부분에 ‘풍락산 망선사(豐樂山 望仙寺)’라는 묵서(墨書)가 남아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대표적인 불교 경전으로 조선 초기 불경의 유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찰의 목판 인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서의 간행 목적이 승려의 수행 및 교육보다는 신앙적 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선시대 불교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광흥사(廣興寺), 정희왕후(貞熹王后), 언해본(諺解本)

참고문헌

-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 인도 불경의 번역과 두 문화의 만남』, (주)창비, 2008.
 정왕근, 『朝鮮時代〈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곽동화·강순애,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교전적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74집, 한국서지학회, 2018.

묵암집(默庵集)

KOL000009903

일산古3648-40-17

默庵集 / 申球(朝鮮) 著

木活字本(全史字體木活字)

[漢城] : [發行處不明], [純祖 16(1816) 以後]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1.5 × 14.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 32.1 × 20.5 cm

序: 崇禎紀元後百六十三年庚戌(1790)...金履安

跋: 歲辛亥(1791)...李敏輔

1. 개요

『묵암집(默庵集)』은 조선 후기의 문인인 신구(申球, 1666~1734)가 지은 상소문(上疏文), 편지 글, 제문(祭文) 등의 여러 글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文集)이다. 본서는 목활자(木活字) 가운데 전사자체목활자(全史字體木活字)로 간행한 판본으로 19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명인 『묵암집』에서 ‘묵암’은 신구의 호이고, ‘집’은 모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묵암집』이라는 서명은 묵암 신구가 지은 여러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묵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인인 신구가 지은 11편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 저자인 신구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인으로 원래 이름은 신관(申綬)이고 자는 자수(子綬)였으나, 후에 이름을 신구로 자는 군미(君美)로 고쳤다. 호는 묵암(默庵)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고려의 개국공신인 신숭겸(申崇謙, ?~927)의 후손이다. 신여규(申汝逵, ?~1703)와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아들로 송시열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벼슬은 영릉참봉(英陵參奉), 희릉봉사(禧陵奉事)를 지냈지만 다른 벼슬은 거절하고 은거하였다. 현종(顯宗) 7(1666)년에 태어났으며, 젊어서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숙종(肅宗) 15(1689)년에 기사환국(己巳換局, 남인이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를 계리로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한 사건)이 일어나 이이(李珣, 1536~1584)와 성혼(成渾, 1535~1598)이 문묘(文廟, 공자의 사당) 배향(配享)에서 빠지게 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上疏, 임금에게 신하가 올리는 글의 일종)를 올렸다. 숙종 42(1716)년에 윤선거(尹宣擧, 1610~1669)의 문집이 간행되자 그 문집의 내용 중에서 윤선거가 효종을 모독하고 욕보인 사실을 찾아내어 윤선거와 그의 아들 윤증(尹拯, 1629~1714)의 관작을 빼앗고 윤선거의 문집을 훼손(毀版, 판을 없앴)하도록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후에 숙종이 그의 상소를 받아들여 윤선거의 문집이 훼손하고, 그가 배향되어 있는 노강서원(魯岡書院)의 사액(賜額, 임금이 사당, 서원, 누문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을 철폐하였다. 경종(景宗) 2(1722)년에는 신임사화(辛壬士禍, 1721년부터 1722년까지 일어난 사화로 노론과 소론 사이에 당쟁 과정에서 소론이 노론을 밀어내고 실권을 잡은 사건)에 연루되어 거제도도 유배를 갔다. 영조 1(1725)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영조 10(1734)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묵암집』의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에는 신구의 손자가 그의 글들은 정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서문과 발문이 18세기에 작성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서의 경우 19세기에 제작한 목활자로 간행하였기 때문에 19세기 어느 시기에 신구의 손자가 정리한 초고본(草稿本,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원고)을 바탕으로 본서를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 목록(目錄), 권 1, 권 2, 부록(附錄), 발문으로 구분하였다. 서문은 정조 14(1790)년에 김이안(金履安, 1722~1791)이 작성하였다. 목록에는 각 권에 수록한 권차와 글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권 1에는 각각 소(疏) 1편, 서(書) 2편, 서(序) 1편, 설(說) 1편, 기(記) 1편 총 6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으며, 권 2에는 제문(祭文) 3편, 행장(行狀) 1편, 묘지(墓誌) 1편 총 5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신구의 행적을 기록한 행장과 묘지문, 묘갈명(墓碣銘)을 수록하였다. 발문은 정조 15(1791)년에 이민보(李敏輔, 1720~1799)가 작성하였다. 수록한 글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권1에 수록한 「변척기무소(辨斥譏誣疏)」는 숙종 42(1716)년에 윤선거의 문집이 간행되자 그 문집의 내용 중에서 윤선거가 효종을 모독하고 욕보인 사실을 찾아내어 윤선거와 그의 아들 윤증의 관작을 빼앗고 윤선거의 문집을 훼판하도록 요구하는 상소문이고, 「원정(原情)」은 경종 2(1722)년에 앞에서 이야기한 상소문의 내용을 보충하여 윤선거를 비판한 글이다. 권 2에 수록한 「고우암송선생반곡서원문(告尤菴宋先生盤谷書院文)」은 숙종 30(1704)년에 거제도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서 스승인 송시열에게 올린 제문이고, 「제농암김선생문(祭農巖金先生文)」은 조선 후기의 문인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에게 올린 제문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묵암집(默庵集)'이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본서를 간행할 때, 사용한 목활자는 전사자체목활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본서의 판심제(版心題, 고서에서 판심 부분에 기록한 서명) 및 어미(魚尾, 판심 부분에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장식한 문양), 글자체 등이 금속활자(金屬活字)인 전사자(全史字)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사자로 처음 책을 간행한 시기가 순조 16(1816)년이기 때문에 본서의 경우 순조 16(1816)년 이후인 19세기 중후반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신구가 지은 여러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신구의 생애 및 사상을 알 수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송시열, 김창협 등 당대 문인들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목활자인 전사자체목활자로 간행한 문집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목활자를 활용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묵암집(默庵集), 신구(申球), 문집(文集), 전사자체목활자(全史字體木活字)

참고문헌

김향숙, 「尹宣舉 父子 文集의 刊行과 毀板에 대한 고찰」, 『書誌學報』 제35호, 한국서지학회, 2010.

문사저영(文史咀英)

KOL000026382

한古朝44-나24

文史咀英 / 歐陽修(宋) ; 蘇軾(宋) 合著; 孝明世子(朝鮮) 編

金屬活字本(初鑄整理字)

漢城 : [校書館], 純祖 29(1829)

8卷4冊 : 四周雙邊 半郭 19.3 × 13.9 cm, 10行18字, 上下向黑魚尾 ; 29.4 × 19.0 cm

表題: 文史咀英

版心題: 文史咀英

篇題面: 文史咀英 / 己丑活印 / 東二樓藏

刊記: 己丑(1829)活印 東二樓藏

文史咀英序: 歲己丑(1829)仲秋下澣原任內閣提學世子右賓客臣朴宗薰奉令撰, 內閣檢校待教兼侍講院輔德臣金正喜奉令書

印: 趙能夏印

1. 개요

본서는 순조 29(1829)년에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송(宋)나라 구양수(歐陽修, 1007~1072)와 소식(蘇軾, 1037~1101)의 문장을 뽑아 엮은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편자인 효명세자(1809~1830)는 이름은 영(昞),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헌(敬軒)·학석(鶴石)·담여헌(淡如軒), 묘호는 익종(翼宗)이다. 순조(純祖)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부가 정조(正祖)이며, 외조부는 안동김씨 김조순(金祖淳)이다. 4세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1세에 관례를 치르고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과 가례(嘉禮)를 올렸다. 1827년 2월에 순조가 왕세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면서 대리청정을 시작하였다. 이에 효명세자는 김조순 계열의 인물들을 밀어내고 김로(金路), 홍기섭(洪起燮), 이인부(李寅溥), 김노경(金魯敬) 등 자신의 사람들로 요직을 채웠다. 김노경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9)의 부친으로, 추사 역시 세자의 측근 인물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1829년에 본서를 편찬할 당시에 박종훈이 명을 받아 서문을 쓰고, 김정희가 서문의 글씨를 쓰게 된다. 효명세자는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정치세력을 재편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군사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 한편 궁궐의 영건과 의례의 재정비 등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리청정을 시작한지 3년 후인 1830년 5월인 22세에 갑자기 졸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본서는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여가에 구양수와 소식의 글을 선집하여 송습(誦習)하는데 편리하고자 편찬하였다. 구양수와 소식의 글을 함께 뽑은 이유에 대해서 구양수의 문장은 맑고 아름다우며 간결하여 곡량씨(穀梁氏)의 풍격이 있고, 소식의 문장은 웅장하고 거리낌이 없어서 좌씨(左氏)의 흐름을 이었다고 평하였다. 따라서 구양수나 소식 모두 있어야 하므로 두 사람의 글을 함께 선집한 것이며, 이 책을 표준으로 삼아 문교(文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전체 8권 4책 117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3에는 구양수의 글 47편이, 권4~8은 소식의 글 70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에는 편제면(篇題面)과 서문이 있다. 서문은 1829년에 효명세자의 명을 받아 박종훈이 직접 찬술하였고, 추가 김정희가 직접 글씨를 쓴 후 목판에 새겨 간행하였다.

각 권에 수록한 구양수의 글을 살펴보면, 권1은 「통진사상황제서(通進司上皇帝書)」 등 상서(上書) 2편, 「논선황자소(論選皇子疏)」 등 소(疏) 1편, 논장자석은상태빈차자(論張子奭恩賞太頻筭子) 등 차자(筭子) 3편, 논두연범중엄등과정사장(論杜衍范仲淹等罷政事狀) 등 장(狀) 2편이다. 권2는 사지제고표(謝知制誥表) 등 표(表) 3편, 사양주연용도숙혜시계(謝襄州燕龍圖肅惠詩啓) 등 계(啓) 3편, 「상범사간서(上范司諫書)」 등 서(書) 4편, 「본론(本論)」 등 논(論) 5편, 「매성유시집서(梅聖俞詩集序)」 등 서(序) 12편이다. 권3은 「육일거사전(六一居士傳)」 등 전(傳) 1편, 어서각기(御書閣記) 등 기(記) 12편, 비명(碑銘) 1편, 묘지명(墓誌銘) 1편 이다. 소식의 글은 권4에 「어시제과책(御試制科策)」 등 제책(制策) 등 2편, 상신종황제서(上神宗皇帝書) 등 상서 1편이다. 권5는 「상황제서(上皇帝書)」 등 상서 4편, 「논고려매서이해차자」 등 차자 2편, 「간매절등장(諫買浙燈狀)」 등 장(狀) 2편, 「사복관제거옥국관표(謝復官提舉玉局觀表)」 등 표(表) 1편, 「하구양소사치사계(賀歐陽少師致仕啓)」 등 계(啓) 2편이다.

선정된 글 가운데 상서, 소, 차자 등은 주로 국방이나 국가경영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고, 제책은 과거제도와 인재선발 및 군왕의 자세 등으로 상소나 책문 등 제술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글들을 선정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829년에 정리자로 인출한 활자본으로, 인출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편제면과 추사가 쓴 서문은 목판본으로 인쇄되었다. ‘조능하(趙能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아마도 1787년에 태어나 1834년에 생원에 입격했던 조능하로 추정되며, 그는 본관이 풍양, 자는 성여(性汝)이다. 전옥참봉(典獄參奉), 장원별제(掌苑別提), 장수현감, 평창군수 등을 역임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구양수와 소식의 문장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이해와 평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에 전래된 구소문집(歐蘇文集)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소희)

핵심어 문사저영(文史咀英), 구소문집(歐蘇文集), 구양수(歐陽修), 소식(蘇軾), 효명세자(孝明世子), 익종(翼宗), 정리자(整理字), 김정희(金正喜), 조능하(趙能夏)

참고문헌

당윤희, 「歐陽修 詩文集의 조선에서의 수용과 유통(2)－ 한국 소장 朝鮮本 歐陽修 詩文集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42, 중국어문학회, 2013.

박철상, 『세한도-천 년의 믿음, 그림으로 태어나다』, 문학동네, 2010.

문선(文選)

KOL000026204

한古朝43-나11

文選 / 昭明太子(梁) 撰 ; 李善(唐)·等註

木活字本(甲寅字體訓練都監字)

[漢城] : [發行處不明], [光海君~仁祖(1609~1649)]

60卷30冊 : 四周雙邊 半郭 25.0 × 17.1 cm,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1.7 × 20.7 cm

表題: 文選

版心題: 文選

文選序: 顯慶三年(658, 唐高宗9)九月十七日文林郎守太子右內率府錄事參軍崇賢館直學士臣李善上表
進集注文選表: 開元六年(718, 唐玄宗6)九月十日工部侍郎臣呂延祚上表

印: 完山李□家藏

1. 개요

본서는 중국 양(梁)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이 편찬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소통은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초대 왕인 무제(武帝) 소연(蕭衍, 469~549)의 장자로, 자는 덕시(德施), 시호는 소명, 묘호는 고종(高宗)이다. 502년에 소연이 양나라를 건설하자 황태자가 되었으나, 31세의 나이에 요절하여 제위에 오르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매우 총명했고, 3만 여권에 달하는 장서를 지녔고 수많은 문인들과 교류했다. 당시까지 전해지던 시문들을 모아 『문선』을 편찬했고, 『금강경』을 편집하여 불교 교리 확산에도 기여했다.

『소명문선(昭明文選)』이라고도 하는 본서는 (秦)·한(漢) 이후 제(齊)·양(梁) 나라에 이르는 시문을 선별하여 편집한 시문집이다. 본서가 편찬된 이후 다양한 주석서들이 출현했는데, 첫 주석서는 그의 사촌인 소해(蕭該)가 저술한 『문선음의(文選音義)』이다. 이후 이선(李善)이 주석하여 당초 30권본에서 60권본으로 재편한 후 당(唐) 고종(高宗)에게 진상했다. 이로부터 60여년이 지난 718년에 여연조(呂延祚)가 다섯 명의 신하인 여연제(呂延濟)·유량(劉良)·장선(張銑)·여향(呂向)·이주한(李周翰)에게 명하여 주석을 달게 하였는데, 이 주석본이 바로 『오신주문선(五臣注文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선의 주석을 합한 것이 『육신주문선』이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60권 3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체별로는 부(賦)·시(詩)·악곡(樂曲)·조(詔)·문(文)·령(令)·교(敎)·책(策)·표(表)·상서문(上書文)·계(啓)·주탄문(奏彈文)·전(牋)·서(書)·격(檄)·대문(對問)·설론(設論)·사(辭)·서(序)·송(頌)·찬(贊)·부명(符命)·사론(史論)·사술찬(史述贊)·논(論)·연주(連珠)·잠(箴)·명(銘)·리(誄)·애(哀)·비문(碑文)·묘지(墓誌)·행장(行狀)·조문(弔文)·제문(祭文)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작품은 문사철을 위시하여 경전, 사서, 전기 및 시문집에서 고루 선정되었다. 몇 가

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문, 묘지, 행장에 있어서는 전기(傳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변려문학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서에 수록한 작품의 내용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견문 등을 표현한 부분, 그리고 사론, 사술찬, 논 등과 같이 많은 논문들을 통해 남조시대의 문학을 풍부하게 반영하였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판심 형태는 대부분이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인데, 간혹 상하향2엽하상향3엽화문어미와 상하향3엽하상향2엽화문어미 및 도상이 새겨진 상하내향유문어미 등이 혼재되어 있다. 아울러 낙장으로 인해 보사(補瀉)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권60의 제2장, 제33장, 제44장, 제47장이다. 권1 권수면 하단에 ‘완산이□가장(完山李□家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각 책의 첫 면 하단에 날인되어 있었던 장서인은 모두 도할되었다. 최소 2개 이상의 인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장이 도할된 후 함께 잘려져 나간 저작역할어가 보사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한국본 『문선』은 조선전기 목판본(古3745-197), 16세기의 초주갑인자본(古貴0237-18), 본서와 동일한 훈련도감자본(古3717-101), 18세기에 인출한 현종실록자본 등이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우리나라 한문학에 큰 영향을 준 책으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문선(文選),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이선(李選), 훈련도감(訓練都監)

참고문헌

노용필, 「韓國 古代의 『文選』 受容과 그 역사적 의의」, 『역사학연구』 58, 호남사학회, 2015.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KOL000020420

한古朝31-224

閔文忠公奏議 / 閔鎭遠(朝鮮) 著 ; 閔百順(朝鮮) 編

木板本

[平壤] : [平安監營], [英祖 33(1757)]

10卷5冊 : 四周雙邊 半郭 19.8 × 12.7 cm, 10行20字 註雙行, 上_下向3葉花紋魚尾 ; 29.6 × 17.8 cm

表題: 文忠公奏議

版心題: 閔文忠公奏議

書根題: 丹

閔文忠公奏議序: 崇禎百三十年丁丑(1757)日南至安東金元行謹序

後跋: 崇禎紀元後三丁丑(1757)九月庚寅朔朝不肖孫[閔]百順拔血謹書

1. 개요

본서는 영조 33(1757)년에 민백순(閔百順, 1711~1774)이 조부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의 소(疏)·차(劄)·계(啓)·의(議)·장(狀)·전(箋) 및 기타 글들을 모아 10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저자 민진원은 본관이 여흥(驪興, 지금의 경기도 여주),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또는 세심(洗心)이다. 부친은 국구(國舅)인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이며, 모친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딸이다. 또한 숙종의 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정2품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을 지낸 지재(趾齋) 민진후(閔鎭厚, 1659~1720)의 동생이며, 대사간 민형수(閔亨洙)의 부친이다. 송시열의 문인이다. 1691년 증광 문과 을과로 급제하였고,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되면서 노론이 집권하게 되자 1695년에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1697년에 흥문록에 뽑히고, 숙종실록과 경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신임사화, 정미환국으로 정치적 부침을 거쳤으며, 영조가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영수로서 활약하였다. 글씨와 문장에 능했으며, 『단암주의(丹巖奏議)』·『연행록(燕行錄)』·『단암만록(丹巖漫錄)』 등을 저술하였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다.

편자인 민백순은 자가 순지(順之)이며, 호는 강선주인(降仙主人)·단실거사(丹室居士)이다. 부친은 민창수(閔昌洙)이며, 조부가 바로 민진원이다. 김산군수(金山郡守)·연안부사(延安府使)·양주목사(楊州牧使)·승지(承旨) 등을 역임하였고, 『대동시선(大東詩選)』을 편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서의 편찬동기와 간행과정과 관련해서는 민백순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민백순은 조부의 평생의 거취와 의론이 담긴 글들을 통해 후대에까지 선조의 충정을 기억하고 감계가 되기를 기대하며 1757년에 이 책을 편찬하였다. 때마침 민백순의 종제(從弟)였던 민백상(閔百祥, 1711~1761)이 이 해에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자 평양감영에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권두에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서문과 총목(總目)이 있고, 각 권 앞에는 권별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내용은 소(疏), 차(劄), 계(啓), 의(議), 서계(書啓), 전(箋), 장계(狀啓) 등 문서별로 분류하고, 해당 문서군 내에서 작성 시기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개별 문서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관직 및 당시 상황을 간략히 소자로 기재해두었다. 아울러 각 문서의 내용 말미에는 비답(批答)과 전교(傳敎) 등을 주석으로 부기하였다. 문서별로 살펴보면 권1-5는 소차 67편, 권6은 계 16편과 의 11편, 권7은 서계 5편과 전 1편, 권7-9은 장계 20편, 권9는 시무록(時務錄), 권10은 서(書) 5편과 부록이다.

권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은 1696년 5월 초8일에 작성한 춘방연명소(春坊聯名疏)을 시작으로 1697년의 재사옥당소(再辭玉堂疏), 1703년의 안호남시인대논사직소(按湖南時引臺論辭職疏) 등 11편이 있다. 권2는 1705년(숙종 31)의 정원논호초초기소(政院論戶曹草記疏), 1707년 11월 20일 예조판서 당시에 올린 인수원전사청죄소(引水原前事請罪疏), 1708년 10월 29일 공조참판 당시에 올린 논수군절목변통소(論水軍節目變通疏) 및 신임사화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지은 을사수차(乙巳袖劄) 등 14편이다. 을사수차의 작성 시기는 ‘금상즉위초년(今上即位初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4일조에 지경연 민진원이 올린 차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금상즉위초년은 1727년임을 알 수 있다. 권3은 1725년에 작성한 소차들로 사우의정제이소(辭右議政第二疏), 논탕평차결감죄차(論蕩平且乞勘罪劄) 등 16편이, 권4는 1726년의 병오원조진계차(丙午元朝陳戒劄)에서 1729년 인엄교사죄소(因嚴敎俟罪疏) 등 15편이, 권5는 1730년의 결수해래사관소(乞收偕來史官疏), 1735년 경의 의진헌근록차(擬進獻芹錄劄) 등 11편이다. 권6은 1705년의 정원진계계(政院陳戒啓) 등 16편의 계와 1698년(숙종 24)의 노산신씨보위당부의회(魯山愼氏復位當否議), 1734년의 구모죄인찬경단죄의회(歐母罪人贊敬斷罪議) 등 11편의 의가 있다. 권7은 1725년의 을사칠월서계(乙巳七月書啓), 1726년의 병오정월서계(丙午正月書啓) 등 5편의 서계, 1733년의 사허치사임반어제전(謝許致仕仍頒御製箋) 등 1편의 전, 1698년의 호서감진시청모사진인허제실직장계(湖西監賑時請募私賑人許除實職狀啓), 1707년의 주선두포언축흘역장계(奏船頭浦堰築訖役狀啓) 등 13편의 장계가 있다. 권8은 1710년의 재임강도시는주해방장계(再任江都時論奏海防狀啓), 1714년이 논방수편의장계(論防守便宜狀啓) 등 5편이다. 권9는 1714년의 논방수용무편의장계(論防守戎務便宜狀啓) 등 1편과 시무록이다. 시무록은 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글이다. 권10은 상국 윤지완(尹趾完, 1635~1718)에게 보낸 편지 1편과 상국 홍치중(洪致中, 1667~1732)에게 보낸 편지 4편 및 저자의 아들 민형수(閔亨洙, 1690~1741)와 민통수(閔通洙, 1696~1742)가 연명하여 올린 상소가 부록으로 실려있다. 권말에는 편찬과 간행의 전말을 적은 민백순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1796년에 편찬한 『누판고』를 보면 『민문충공주의』 책판은 평양감영 이외에도 경상감영에도 소장되어 있다. 민백순의 발문에 의거하면 평양감영본은 1757년에 간행한 초간본으로 보이며, 경상감영본은 1757~1796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전본마다 간기가 확인되지 않아 평양감영판인지 경상감영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서에서 각 문서의 작성시기와 발문의 내용 가운데 ‘금상(今上)’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영조대인 1757년의 초간본 또는 늦어도 1777년 사이에 제작한 간본임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저자가 관직에 있으면서 올린 주의류(奏議類) 문서로서 숙종~영조대의 정치·사회 및 노론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김소희)

핵심어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주의류(奏議類), 민진원(閔鎭遠), 민백순(閔百順), 민백상(閔百祥), 평안감영(平安監營)

방산집(方山集)

KOL000027790

한古朝45-가91

方山集 / 安基遠(朝鮮) 撰 ; 安鍾和(朝鮮) 編 ; 安鼎遠(朝鮮) 校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乙亭, 1896

原集3卷·補遺1冊 : 四周單邊 半郭 20.4 × 14.8 cm, 10行20字, 上下向白魚尾 ; 30.5 × 19.9 cm

編題面: 方山集 丙申(1896)仲冬新鐫 乙亭梓行

方山詩鈔序: 丙戌(1886)...金綺秀, 方山集序: 金允植, 序: 壬午(1882)...曹秉恒

跋: 丙申(1896)...安鼎遠

印: 耕讀齋, 安日濬, 順興安瀆敬儀

1. 개요

본서는 여항(閻巷) 시인 안기원(安基遠, 1825~1896)의 시문집으로, 1896년 대한제국기의 교육자인 그의 아들 안종화(安鍾和, 1860~1924)의 주도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안기원의 자(字)는 선호(善浩), 호(號)는 방산(方山),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안기원의 생애에 대해서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매산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었다는 사실과, 과거 시험에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간 인물이라는 점 외에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다. 아들 안종화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시독(侍讀) 등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대한제국기에 1905년 을사늑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힘쓴 인물이다. 부친 사후에 유고(遺稿)를 수습하여 간행한 책이 바로 본서이다. 안기원의 친구 김기수가 쓴 「방산시초서(方山詩鈔序)」에 의하면 안종화가 부친의 시집인 『방산시초(方山詩鈔)』를 편찬하였다고 되어 있다. 본서는 『방산시초』에서 누락된 시편과 서간(書簡), 제문(祭文) 등을 보태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원집(原集) 3권과 보유(補遺)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卷首)에는 김기수(金綺秀)가 1886년에 쓴 「방산시초서」, 김윤식(金允植)이 쓴 「방산집서(方山集序)」, 조병항(曹秉恒)이 1882년에 쓴 「서(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각 권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오언절구(五言絕句) 19편과 칠언절구(七言絕句) 31편, 권2에는 오언율시(五言律詩) 24편, 권3에는 칠언율시(七言律詩) 106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1-3에 걸쳐 시가 수록되어 있어, 본서가 『방산시초(方山詩鈔)』를 바탕으로 한 책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권3의 칠언율시 뒤에는 아들 안종화에게 쓴 서(書) 4편과 스승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제문인 「제매산선생문(祭梅山先生文)」 1편이 수록되어 있다. 보유에는 오언율시 13편, 칠언율시 40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안기원의 동생 안정원(安鼎遠)이 쓴 발(跋)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방산(方山)은 안씨 가문이 세거(世居)하던 홍양(洪陽)의 남쪽 산기슭의 이름이며, 이를 취하여 호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안기원은 일찍부터 과업(科業)을 폐하고 방산에서 유유자적하며 시작(詩作)을 즐겼다. 수록된 시 중 동생 안정원과 주고받은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4. 서지적 특성

표제(表題)는 ‘방산집(方山集)’으로, 목판으로 인쇄한 제침(題籤)을 사용하였다. 편제면(編題面)에는 ‘방산집 병신중추신전 을정재행(方山集 丙申(1896)仲冬新鑄 乙亭梓行)’이라는 기록이 있어, 본서가 1896년에 을정(乙亭)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을정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권수제 역시 ‘방산집(方山集)’이다. 권수제 다음 행에는 ‘한주(漢州) 안기원(安基遠) 선호(善浩)’라는 기록이 있는데, ‘한주(漢州)’는 광주(廣州)의 옛 지명으로, 광주 안씨의 본관을 적은 것이다. 김기수의 「방산시초서」까지는 목판본이며, 김윤식의 「방산집서(方山集序)」부터는 전사자로 인출하였는데, 목활자 보자(補字)가 많이 섞여 있다. ‘순흥안호경의(順興安濩敬儀)’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안호(安濩)의 인장이다. 안호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字)는 경의(敬儀)이다. 1894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1902년에 혜민원(惠民院) 주사(主事)에 임명된 인물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대한제국기의 교육자인 안종화가 간행한 부친의 시문집이다. 부친과 숙부가 주고받은 시, 부친이 보낸 서간문을 수록한 이 책은 부친에 대한 안종화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안종화가 독서와 공부에 대한 부친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이 책을 편찬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 그의 교육 신념이 바로 부친의 영향을 받았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날인되어 있는 장서인으로 보아 순흥 안씨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으로, 선조의 문헌을 간행하고 대대로 보존하고자 한 후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김은슬)

핵심어 방산집(方山集), 안기원(安基遠), 안종화(安鍾和)

백석유고(白石遺稿)

KOL000022253

古朝46-가379

白石遺稿 : 并附錄 / 柳楫(朝鮮) 著; 柳光德(朝鮮) 編; 柳命基(朝鮮) 校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憲宗 10(1844)

原集3卷, 附錄2卷, 共2冊 : 四周單邊 半郭 22.0 × 14.8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
花紋魚尾 : 30.6 × 18.4 cm

表題: 白石集

版心題: 白石遺稿

白石先生遺稿序: 崇禎紀元後三丁巳(1797)季秋德殷宋煥箕(1728~1807)序

白石先生遺稿跋: 崇禎紀元後四辛卯(1831)後學豐壤趙寅永(1782~1850)謹撰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 의병 활동을 한 문신 학자인 백석(白石) 유즙(柳楫, 1585~1651)의 시문집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유즙은 본관이 문화(文化, 현 황해도 신천), 자는 용여(用汝), 호는 백석(白石)으로, 전북 김제(金堤)의 수곡(樹谷)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형조좌랑을 지낸 유태형(柳泰亨)이며 모친은 한양조씨(漢陽趙氏) 유정(惟精)의 딸이다.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과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에게 수학하였고, 조속(趙淾)·최경(崔勁)·권극중(權克中)·원두표(元斗杓) 등과 교유하였다. 1616년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동년 6월에 김장생의 천거로 오수찰방(檜樹察訪)에 제수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 김장생의 막하에서 의병을 모집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는 전라도 옥과 현에서 창의격문(倡義檄文)을 돌리며 의병 활동을 하였다. 만년에 고향에 은거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본서의 편찬은 송환기의 서문, 5대손 유광인(柳光寅)이 지은 지어(識語), 1844년에 쓴 6대손 유경기(柳敬基)와 유옥증(柳玉增)이 쓴 지어(識語), 유두증(柳斗增)과 유정태(柳鼎台)의 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상기한 글에 따르면 저자의 5대손인 유광덕(柳光德)이 유문을 수습하였으나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는 선조의 유고에 따라 간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사문(斯文)들이 간행하자는 공의(公議)가 일고 송환기가 간행을 권유함에 따라 유광인이 부록에 들어갈 글을 모으고, 6대손 유명기(柳命基)가 상자 안에서 유고를 더 발견하게 되었다. 유명기는 이 초고를 조인영에게 부탁하여 교정과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844년 봄에 유두증(柳斗增)과 유경기(柳敬基)가 상하 2권으로 나누어 간행했다. 이후 유두증은 유정태(柳鼎台), 유정팔(柳鼎八) 등과 함께 장성(長城) 종가에서 저자의 전책(殿策)과 집책(執策) 2권을 찾아내어 원집 뒤에 추가하여 중간본을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원집 3권, 부록 2권으로 총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1797년에 송환기가 지은 서문과 전체 목차가 있다. 각 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권1은 시(詩)로 오언절구(11수), 칠언절구(67수), 오언율시(43수), 오언고시(1수), 오언배율(1수), 칠언율시(27수) 등 150편의 시가 형식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권2는 기(記) 4편, 서(書) 3편, 문(文) 10편 등 17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3은 소(疏) 9편, 서(序) 2편, 설(說) 1편, 묘명(墓銘) 2편 등 14편이다. 권4-5는 부록으로 상, 하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시에는 「득실(得失)」, 「안위(安危)」, 「비희(悲喜)」 등 자신의 인생관과 처세관을 읊은 시로부터 계절, 시간, 경관, 인물 등에 대해 읊은 시, 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지은 송별시, 차운시, 만시(挽詩) 및 「문강화술회(聞講和述懷)」와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신의 심경을 읊은 등 다양하다. 권2에는 승반산(勝盤山)에 초당(草堂)을 지어 편안하게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안분(安分)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쓴 「초당기(草堂記)」, 충남 부여 임천에 있는 관찰사 민성휘(閔聖徽)의 별장인 용졸당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록한 「용졸당기(用拙堂記)」, 논산의 돈암서원을 설립할 때 관찰사에게 올린 편지인 「돈암서원영건시상방백서(遯巖書院營建時上方伯書)」, 병자호란 당시에 돌린 「창의격문」, 사계 김장생을 추모하며 작성한 제문인 「제사계선생문(祭沙溪先生文)」이 있다. 권3에는 이이와 성혼을 문묘종사를 요청한 4편의 「청양현종사소(請兩賢從祀疏)」, 상례(喪禮)를 서로 돕기 위해 계를 설치하고 계의 운영 방안 등을 정리한 「관곽계서(棺槨契序)」가 있다. 권4의 부록 상권에는 1616년 생원시에 입격한 이후로부터 관직에 제수된 날짜들을 적은 기록인 「관직제수연월(官職除拜年月)」와 세자시강의자의(世子侍講院諮議)로 임명하니 빨리 올라오라는 내용의 유지(諭旨), 1624년 이괄의 난 당시에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한 「호남모의록(湖南募義錄)」을 요약한 글, 송갑조(宋甲祚)의 일기를 뽑아 놓은 「송갑조일기(宋甲祚日記)」을 비롯하여 만사·제문·묘갈명 등 24편이 있다. 부록 하권에는 김장생, 김집, 조속, 이시백(李時白), 원두표, 조평(趙平), 송갑조, 송시열, 송준길(宋浚吉), 유계(兪槩), 이유태(李惟泰) 등이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송환기의 서문과 조인영의 발문만 남아있는 초간본으로, 이후 중간본에서는 유광인·유경기·유옥증의 지어와 유두증·유정태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부록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본서의 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으로 변경하고, 하에는 전책(殿策) 18편을 추가하였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17세기 전반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과 대외 관계 및 의병활동을 엿볼 수 있는 사료이자, 개인의 삶과 사상 및 교류관계 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소희)

핵심어 백석유고(白石遺稿) 유즙(柳楫), 의병(義兵), 김장생(金長生), 송시열(宋時烈), 김제(金堤)

번천집(樊川集)

KOL000028201

古朝45-나7-2

樊川集 / 杜牧(唐) 著 ; [編者不明]

木活字本(訓練都監字)

[漢城] : [發行處不明], [17世紀]

2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2.2 × 15.0 cm, 9行15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4.5 × 20.7 cm

印: 李夏坤印

1. 개요

당(唐) 시인 두목(杜牧, 803~852)의 시를 시체별(詩體別)로 분류하여 협주(夾註) 없이 수록한 책이다. 본서는 조선에서 갑인자체훈련도감자(甲寅字體訓練都監字)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두목의 자는 목지(牧之), 호는 번천(樊川)이다. 현재의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인 경조(京兆) 만년(萬年)에서 태어났다. 재상을 지낸 조부인 두우(杜佑)와 부친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가세가 기울었다. 26세 되던 해 과거에 급제하고 이후 감찰어사(監察御使), 비부원외랑(比部員外郎)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황주자사(黃州刺史)로 좌천되었다가 6년만에 조정으로 돌아와 사훈원외랑(司勳員外郎), 사관수찬(史館修撰) 등을 역임했다. 만년에는 조부 두우의 별장을 수리해 머물렀다. 외조카인 배연한에게 『번천문집』의 편찬을 맡겼다. 두목의 문집 및 시집은 시문만을 수록한 판본과 협주본(夾註本)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서는 협주 없이 두목의 시를 차례로 수록하였다.

서발문이나 간기, 혹은 역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본서의 편찬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서의 간행에 사용된 활자가 17세기 초에 사용했던 갑인자체훈련도감자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조선 궁궐의 경연(經筵)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홍문관 혹은 시강원에서 간행한 책으로 볼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에는 서발문이나 목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권상에는 부(賦), 오언고시(五言古詩), 칠언고시(七言古詩), 오언절구(五言絕句), 칠언절구(七言絕句)가 수록되어 있다. 권하에는 오언율시(五言律詩), 육언율시(六言律詩), 칠언율시(七言律詩), 오언배율(五言排律), 칠언배율(七言排律)이 수록되어 있다.

『번천시집』과는 내용이 다르고, 『번천문집』의 편찬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번천문집』의 시를 모두 수록하지 않고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표제 및 권수제, 판심제는 모두 '번천집(樊川集)'이다. 만자문(卍字紋)이 있는 황색표지이나 새

로 표지를 덧대었고, 전체적으로 배접된 수보본이다. 건·곤 2책으로 편책되었는데, 주석이 없이 본문만 수록되어 있다. 각책 권수면 우측하단에는 ‘이하곤인(李夏坤印)’이 답인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당의 시인 두목의 시를 협주를 제외하고 수록하여 조선의 경연(經筵) 등에서 열람하기 위해 훈련도감자로 간행한 책이다. 본서에 수록된 두목의 시를 통해 조선 왕실에서 두목의 시 중 어떤 작품을 가치있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본서에 압인된 인장을 통해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하곤(1677~1724)이 소장하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김은슬)

핵심어 변천집(樊川集), 두목(杜牧), 이하곤(李夏坤)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本大歲經)

KOL200100627

古1741-46

佛說廣本大歲經 / [編著者不明]

木板本

長興天冠山 : [天冠寺], 成宗 19(1488)

不分卷1冊(116張) : 四周單邊 半郭 22.4 × 17.1 cm, 有界, 6行14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2.2 × 22.3 cm

한글음역본임

刊記: 順治十四年丁酉(1657)四月日長興地天冠山開板

內容: 佛說廣本大歲經. -- 佛說地心陀羅尼經. -- 佛說天地八陽神呪經. -- 佛說竈王經. -- 佛說歡喜竈王經. -- 佛說安宅神呪經. -- 佛說百煞神呪經. -- 佛說金神七煞經. -- 佛說龍王三昧經. -- 佛說敗目神呪經. -- 佛說度厄經. -- 佛說五姓反支經. -- 佛說突屈經. -- 佛說明堂神經. -- 佛說救護身命經. -- 佛說牛馬長生經

1. 개요

본서는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本大歲經)』 등 16가지 불교 경전을 합본한 책이다. 한글로 한 자음을 표기한 한글 음역본(音譯本)이다. 인조 14(1635)년에 태인(泰仁) 용장사(龍藏寺)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하였다. 서명에 등장하는 조왕(竈王, 부역을 관장하는 신), 명당(明堂) 등을 통해서 불교 신앙과 민간 신앙, 도교 신앙이 결합한 책임을 알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에 수록된 16종의 불교 경전 중 번역자가 알려진 경전은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이 유일하며, 나머지 경전은 번역자 및 편저자를 알 수 없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의 본문 첫머리에는 ‘삼장법사의정봉 조역(三藏法師義淨奉 詔譯)’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정’은 당나라의 승려인 의정(義淨, 635~713)으로 보인다. 의정은 7세기 후반에 해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로 유학을 간 승려로 인도에서 다시 당나라로 돌아온 후 많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였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에서는 해당 경전을 의정이 번역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의 성격상 위경(僞經, 인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짓 경전)일 가능성이 높다.

『불설광본대세경』을 포함한 15종의 불교 신앙, 민간 신앙, 도교 신앙이 결합한 불교 경전을 간행한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불교계가 그 대안으로 민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신앙 및 도교 신앙과 결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문은 16종의 불교 경전인 『불설광본대세경』, 『불설지심다라니경(佛說地心陀羅尼經)』, 『불설천지팔양신주경』, 『불설조왕경(佛說竈王經)』, 『불설환희조왕경(佛說歡喜竈王經)』, 『불설안택신

주경(佛說安宅神呪經), 『불설백살신주경(佛說百煞神呪經)』, 『불설금신칠살경(佛說金神七煞經)』, 『불설용왕삼매경(佛說龍王三昧經)』, 『불설패목신주경(佛說敗目神呪經)』, 『불설도액경(佛說度厄經)』, 『불설오성반지경(佛說五姓反支經)』, 『불설돌굴경(佛說突屈經)』, 『불설명당신경(佛說明堂神經)』, 『불설구호신명경(佛說救護身命經)』, 『불설우마장생경(佛說牛馬長生經)』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불설지심다라니경』,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을 제외하고는 서문(序文) 없이 바로 본문이 등장한다. 『불설지심다라니경』의 본문 앞부분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불설지심다라니경서(佛說地心陀羅尼經序)」와 청문(請文, 부처 및 보살 등을 부르는 의례문)에 해당하는 「불설지심다라니계청(佛說地心陀羅尼經稽請)」을 수록하였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의 앞부분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천지팔양신주경서(天地八陽神呪經序)」를 수록하였다.

수록된 불교 경전 대부분 기복(祈福)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불설광본대세경』의 경우, 이 경전을 가지고 독경을 하면 모든 소원이 이뤄지고 모든 죄와 번뇌가 소멸되고 천신(天神) 및 사천왕(四天王) 등이 신변을 수호해 줌으로써 장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의 마지막 부분에 ‘순치십사년정유사월일장흥지천관산개판(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長興地天冠山開板)’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있어 효종 8(1657)년에 장흥(長興) 천관산(天冠山)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흥 천관산에 소재하는 사찰 가운데 본서를 간행한 시기에 불서를 간행한 사찰은 천관사(天冠寺)가 유일하므로 본서 또한 천관사에서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형태적 특징 및 한글 음역을 통해서 인조 14(1635)년에 태인 용장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효종 8(1657)년에 장흥 천관사에서 번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의 간행 관련 기록 뒷부분에 시주자(施主者) 및 각수(刻手), 대공덕주(大功德主) 등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천관사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불설광본대세경』을 포함한 15종의 불교 신앙, 민간 신앙, 도교 신앙이 결합한 불교 경전 합본으로 조선시대 불교 및 도교, 민간 신앙의 결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본문에 수록한 한글 음역을 통해서 조선시대 한자음 및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옥영정)

핵심어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本大歲經), 천관사(天冠寺), 위경(僞經), 민간신앙(民間信仰)

참고문헌

-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 인도 불경의 번역과 두 문화의 만남』, (주)창비, 2008.
-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남경,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本大歲經)』의 서지와 한자음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 제 5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유근자, 「신흥사 경판의 조성 배경과 사상 : 大顛和尚注心經·諸眞言集·佛說廣本大歲經·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大圓集 등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제45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5.

사례편람(四禮便覽)

KOL200800582

古5213-156

四禮便覽 / 李穡(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憲宗 10(1844)]

8卷4冊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8 × 16.1 cm, 有界, 8行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7.9 × 19.4 cm

跋: [崇禎四甲辰上之十年(1844)...趙寅永謹跋]

印: 吳炳武藏書

1. 개요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조선 후기 학자인 이재(李穡, 1680~1746)가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의 사례(四禮)를 엮어서 서술한 책이다. 중국 송나라의 주자(朱子)가 저술한 『가례(家禮)』의 허점을 보완하고 당시 통용되는 예법(禮法)을 수록하였다. 본서는 이재가 사망한 후 그의 증손(曾孫)인 이광정(李光正)이 헌종 10(1844)년에 목판본(木板本)으로 간행한 것이다. 서명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은 관례·혼례·상례·제례, 즉 관혼상제의 네 가지 의례를 보기 편리하도록 만든 책이라는 뜻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재의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이다. 증조부는 이유겸(李有謙), 조부는 이숙(李翹)이며 아버지는 이만창(李晩昌), 어머니는 민유중(閔維重)의 딸 여흥민씨(驪興閔氏)이다. 농암(籠巖) 김창협(金昌協)의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배우고 숙종 28(1702)년 알성시(謁聖試, 조선시대 국왕이 문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시행한 비정기 과거 시험)에서 문과(文科) 병과(丙科)로 급제(及第)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이조 정랑(吏曹正郎), 대제학(大提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본서는 영조 30(1754)년 이재의 문인 박성원(朴聖源, 1697~1767)을 중심으로 간행을 위한 초고(草稿)를 완성하고 교정하였지만 간행되지 못하다가 이재의 손자 이채(李采, 1745~1820)가 교정하고 조인영(趙寅永)이 발문(跋文)을 적으면서 조선 내에서 본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저자인 이재가 죽은 후 약 100여 년이 되던 해인 1844년 증손 이광정에 의하여 목판본으로 간행(刊行)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 서명 아래 인(仁)·의(義)·예(禮)·지(智)로 각 책의 순서를 표시하였다. 책1은 범례(凡例), 목록(目錄)과 권1~권2가 수록되어 있다. 목록은 전체 책의 목록이다. 권1에는 관례(冠禮), 권2에서는 혼례(婚禮)에 대한 내용이며 책2에는 권3~권4, 책3에는 권5~권6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상례(喪禮)를 다루고 있다. 책4에는 권7~권8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7은 상례, 권8은 제례(祭禮)에 대한 것이다. 각 권의 본문에 앞서 의례를 행할

때의 위치도·의복·장신구 등의 도식(圖式)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844년 저자의 증손 이광정에 의하여 목판을 사용하여 간행되었다. 표지 서명과 권수제(卷首題) 모두 ‘四禮便覽’이며 표지에는 각 책에 수록된 항목이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본문은 『가례』의 원문을 큰 글자로 기재한 후 원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 책에서 인용하여 작은 글자로 주석(注釋)을 달았다. 그리고 주석에 대한 다른 학설·출처 등은 두 줄로 수록하였다. 책1의 범례에 ‘오병식장서(吳炳武藏書)’의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어 오병식이라는 인물이 본서를 소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평해황씨 황윤석 종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사례편람』을 살펴보면 본서의 발문의 마지막 면이 결락된 것을 알 수 있다. 황윤석 종가 소장본에 의하면 발문은 1844년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사례편람』은 『가례』에 수록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과감하게 삭제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예법을 수록하는 등 예의 실천성에 중점을 두고 편찬된 책이다. 그러므로 이재가 이 책을 저술할 당시 의례의 실제 모습과 논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내용 가운데 상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은 당시의 의례 가운데 상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중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서는 조선 후기 의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례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과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임영현)

핵심어 이재(李穡), 사례(四禮), 관혼상제(冠婚喪祭), 이광정(李光正)

참고문헌

김윤정, 「조선후기 四禮의 전형—『四禮便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사의(士儀)

KOL000055037

古5210-43

士儀 / 許傳(朝鮮) 編

木板本

[山淸] : 麗澤堂, [1907年]

21卷10冊 : 四周雙邊 半郭 20.4 × 16.9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花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7 × 21.8 cm

刊記: 麗澤堂藏版

序: 性齋許傳

1. 개요

『사의(士儀)』는 조선 후기 문신(文臣)이자 유학자(儒學者)인 허전(許傳, 1797~1886)이 편찬한 책이다. 서명인 '사의(士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선비가 알아야 할 유가(儒家) 의례(儀禮)에 대한 것이다. 허전은 의례(儀禮)와 가례(家禮)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전(經傳), 역사서, 문집(文集) 및 우리나라의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퇴계집(退溪集)』 등 다양한 서적의 내용에서 선비가 알아야 할 유가 의례를 모아 이 책을 완성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허전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이로(以老), 호는 성재(性齋)이며 시호 문헌(文憲)이다. 부친은 허형(許珩), 모친은 연안이씨(延安李氏) 이중필(李重泌)의 딸이다. 183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及第)하여 함평현감(咸平縣監), 경연 시독관(經筵侍讀官), 우부승지(右副承旨), 김해부사(金海府使)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는 유학에서 실천을 중시한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학문을 계승하여 성호학의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김해부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많은 문도(門徒),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받아들여 영남 남부 지역의 학문적 성장을 이끌었다.

허전은 그의 부친인 허형이 사망한 1820년부터 선비의 의례를 모아 정리하여 1860년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그는 범례에서 『의례』와 『가례』를 근본으로 경전(經傳)과 자사(子史, 제자백가의 책과 역사서), 옛날과 지금의 제가(諸家, 여러 대가)의 요점을 수집하여 두 책의 미비한 점을 갖추었다.', '선유(先儒)의 논의 가운데 고례(古禮, 옛날의 예절)에 부합하고 지금의 시의(時宜, 그 시대의 사정에 맞음)에 적합한 것을 함께 취하여 예절의 규정에 들어맞도록 힘썼다.'라고 하여 예절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중시한 그의 학문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저서로는 문집인 『성재집(性齋集)』, 『종요록(宗堯錄)』, 『철명편(哲命編)』이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21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에는 허전이 직접 작성한 서문(序文)을 시작으로 범례(凡例), 목록(目錄), 고증서적(考證書籍), 동국서적(東國書籍), 동유성씨(東儒姓氏), 사의도(士儀圖)를 수록한 후 권1의 친친편(親親篇)이 이어진다. 2책에서는 권2~4, 3책에는 권5~6, 4

책에는 권7~8, 5책에는 권9~10, 6책에는 권11~12, 7책에는 권13~14, 8책에는 권15~16, 9책에는 권17~19, 10책에는 권20~21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3은 친친편으로 가족 및 친족간의 일상 의례를 수록하였고 권4는 성인편(成人篇)으로 관례(冠禮)와 계례(笄禮,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성이 쪽을 찌어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식)에 대한 내용이다. 권5 정시편(正始篇)은 혼례(婚禮), 권6~13 이척편(易戚篇)은 상례(喪禮), 권14~15 여재편(如在篇)은 제례(祭禮), 권16 방상편(方喪篇)은 국상례(國喪禮, 국가의 왕·왕비 등 왕족의 상례), 권17~19 법복편(法服篇)은 심의(深衣, 선비들이 입는 의복) 및 상복(喪服) 제도, 권19~21 논례편(論禮篇)은 고금 예설에 대한 변론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이택당장판(麗澤堂藏板)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인쇄 시기는 알 수 없다. 이택당은 경상남도 산청의 단성(丹城)에 위치한 사당으로 허전의 영정(影幀)을 모시기 위하여 설립한 곳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외에 목판으로 간행한 21권 10책의 『사의』(한古朝06-16)가 소장되어 있다. 본서와 동일하에 이택당장판을 사용하였지만 1책에는 서문~사의도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2책부터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적어도 2차례 목판을 통한 인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허전의 문집인 『성재집(性齋集)』의 「연보(年譜)」에 의하면 허전이 40여 년에 걸쳐 저술한 『사의』를 60세 되던 해에 완성하였으며 별도로 별집 4권을 저작(著作)하였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의 다른 판본(板本)으로는 1870년 경상도 함안의 입곡(立谷)의 노음정사(盧陰精舍)에서 목활자(木活字)로 간행한 것이 전한다. 본서와 달리 목록 1책이 별도로 있으며 부록 4권 2책을 포함하여 총 13책이다. 목판본 『사의』는 1907년에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도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허전이 유학의 실천적인 면을 중시한 입장에서 편찬한 의례서이다. 그는 기존 의례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주석(註釋)을 달거나 ‘변의(辨疑)’를 두어 의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사의도로 가례도(家禮圖)를 대신하고 부고(訃告) 전고묘(告廟), 성빈(成殯), 계후자(繼後子)에 대한 상복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의(時宜)를 반영하였다. 이는 정통적인 예학을 중시하면서 유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본서가 지니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현전하는 목판본 『사의』는 1870년 간행한 목활자본을 허전의 제자와 영남 지역 유학자들이 교정하고 체제를 새롭게 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목판본에 따라 편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목판본의 간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영현)

핵심어 성재(性齋), 허전(許傳), 선비, 의례(儀禮)

참고문헌

허전, 『성재집』

정경주, 「性齋 許傳의 학문 사상과 그 학술사적 위상」, 『南溟學研究』 31,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1.

최영배, 「『사의(士儀)』를 통해 본 혼례문화 연구」, 『차문화산업학』 31, 국제차문화학회, 2016.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2021.

사찬초선(史纂抄選)

KOL000011284

일산古2200-1

史纂抄選 / 李恒福(朝鮮)...等編

木板本(庚午字體訓練都監字覆刻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8世紀]

2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2.4 × 15.9 cm, 9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1~3葉花紋魚尾(일부 上下內向有紋魚尾) ; 27.9 × 20.5 cm

表題: 史纂 (乾)·(坤)

所藏本: 冊乾, 卷1, 周本紀, 呂后本紀, 孝文本紀, 越句踐世家, 趙世家.-- 坤冊, 卷2, 魏世家, 匈奴列傳, 大宛列傳, 禮書, 樂書, 三代世表, 十二諸侯年表, 六國表, 漢興諸侯年表, 秦楚之際月表, 高祖功臣年表

1. 개요

『사찬초선』은 광해군(光海君) 2~4(1610~1612)년에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조위한(趙緯韓1567~1649),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윤근수(尹根壽, 1537~1616) 등이 모여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130권 중 일부를 선별하여 편찬한 책이다. 편찬 당시에 참고한 주요 대본은 명대 학자인 능치룡(陵稚隆, 1553~1593)이 편찬했던 명판본 『사기찬』이며, 광해군 2(1612)년에 훈련도감이 주축이 되어 『사찬전선(史纂全選)』과 함께 경오자체훈련도감자본으로 처음 출간했다. 본서는 이 목할자본을 저본으로 18세기 경에 번각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1610년에 훈련도감에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을 간행하고 나자, 당시 도감의 총책임자였던 이항복은 다시금 어떠한 책을 간행할지를 두고 고심하였다. 이에 현곡(玄谷) 조위한이 『사기』의 출간을 권유하는 한편 본인이 그동안 열전을 대상으로 뽑아두었던 『사기』 필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상국(相國) 이덕형도 가정본(家藏本)을 제공하였고, 윤근수도 간행을 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찬』의 편찬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중국본 『사기찬』 17권을 모범으로 삼았고 편지를 왕래하면서 취사선택할 부분을 정하였고, 주소(注疏)를 다듬는 일은 차천로(車天輅, 1556~1615)가 담당하였다. 당시 모본으로 삼았던 중국본 『사기찬』이 전선(全選)과 초선(抄選)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점을 참조하되, 한 책 안에 전선과 초선이 섞여 있어서 열람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사찬전선』 53권과 『사찬초선』 20권으로 별도의 서명을 부여하여 편집,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책은 주본기(周本紀), 여후본기(呂后本紀), 효문본기(孝文本紀), 월구천세가(越句踐世家), 조세가(趙世家)가, 제2책은 위세가(魏世家), 흉노열전(匈奴列傳), 대완열전(大宛列傳), 예서(禮書), 악서(樂書), 삼대세표(三代世表), 십이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 육국표(六國表), 한흥제후연표(漢興諸侯年表), 진초지제월표(秦楚之際月表), 고조공신연표(高祖功臣

年表)가 수록되어 있다. 즉 본기(本紀) 3권, 세가(世家) 3권, 열전(列傳) 2권, 서(書) 2권, 표(表) 6권 등 총 1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1612년의 초인본 『사찬초선』에서는 시항본기, 율서, 공자세가, 사마상여열전 등 4권이 추가된 20권본이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초인본을 후대에 번각하는 과정에서 4권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사찬』은 해당 권의 전체 내용을 모두 수록했는지, 중요 사건만을 선별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전선', 후자는 '초선'의 서명이 부기되었다.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초선이 본기, 표, 서, 세가 등에서 고루 선정된 반면에 전선은 대부분이 열전 위주로 편집되었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판심 형태는 상하내향1~3엽화문어미를 비롯해서 한자(漢字)와 도상(圖像)이 새겨지는 등 다양한 어미(魚尾)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권2의 「흥노열전」 제6장과 「고조공신연표」 마지막 장의 어미의 경우 상어미에는 '자(子)' 자(字)가 음각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3엽화문어미가 새겨져 있다. 어미를 비롯한 판식이나 체제 등을 미루어 볼 때 18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총 3종의 『사찬초선』이 소장되어 있는데, 1612년에 훈련도감목할자로 인출한 초인본 『사찬초선』 2책본(일산靑220-2)과 『사찬초선』 2책본(한古朝 50-43), 『사찬』 7책본(한古朝 50-43)이 있다. 이 중에서 일산靑220-2는 제2책 권말에 이항복의 발문과 훈련도감의 인출기록이 남아있어 초인본의 간행 전말과 간행시기 및 참여자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출기록을 살펴보면 1612년 5월에 훈련도감 도제조였던 이항복, 제조 김수(金睟), 검제조 황신(黃愼, 1562-1617)과 박승종(朴承宗, 1562-1623), 제조 정사호(鄭賜湖, 1553-?), 도청 최기남(崔起南, 1559-1619), 감교관 차천로(車天輅, 1556~1615) 등 훈련도감 재직자 7인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古朝 50-43은 1612년에 간행된 초인본으로 추정되나, 발문 및 간행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목차 말미에 일산靑220-2가 '史纂抄選目錄終'으로 되어 있는 반면, 여기서는 '史纂抄選終'으로 '目錄'의 글자가 누락되어 있다. 후대의 번각본에서는 모두 일산靑220-2와 같이 '史纂抄選目錄終'으로 인출되었다. 한古朝 50-43은 7책본으로 제1-6책은 『사찬전선』, 제7책은 『사찬초선』이다. 즉 두 종의 서적을 통합하여 『사찬』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에 수록된 『사찬초선』은 해제대상과 동일판이나 더 늦은 시기에 인출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인출된 책판의 상태 및 보판여부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도서관의 인쇄출판기능을 대신하여 전란 이후 일실된 서적의 복구와 보급에 기여한 훈련도감의 인쇄문화사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명간본이 조선에 유입되어 독자적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명말에 일어났던 북고주의 학풍이 조선에 수용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서적이라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김소희)

핵심어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사찬(史纂), 사기찬(史記纂), 훈련도감(訓練都監)

참고문헌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심경호, 「宣祖 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研鑽에 관하여-韓愈文과 「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 『서지학보』 17, 한국서지학회, 1996.

옥영정, 군영의 활자와 인쇄문화,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사칠속편(四七續編)

KOL000021432

한古朝17-24

四七續編 / 李滉(朝鮮) ; 奇大升(朝鮮) 共著

木板本(後刷本)

[平壤] : [平安監營], 正祖 10(1786)

1冊(87張)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3.5 × 17.0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4 × 22.1 cm

表題: 高峯集

插圖: 天命圖(卷末)

四七續編辨跋: 崇禎三丙午(1786)仲冬後學淸風金鍾秀(1728~1799)謹書

1. 개요

본서는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이항(李滉, 1501~1570)이 사칠논변(四七論辨)에 관해 왕래한 편지를 모아 놓은 책이다. ‘사칠’은 사단과 칠정을 의미한다.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辭讓之心)·시비(是非之心)을 말하며, 칠정은 일곱 가지 감정인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을 말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항은 본관이 진보(眞寶),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로,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에서 출생하였다. 1533년에 성균관에 들어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와 교유하였고, 1534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副正字)를 거쳐 관직이 성균관 대사성, 대제학, 지경연 등에 이르렀다. 풍기군수로 재임 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받는데 기여하였고, 1560년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기거하면서 학문수양과 저술 및 후진양성에 힘썼다. 저서로 『역학계몽전 의(易學啓蒙傳疑)』, 『주자서절요』, 『자성록』, 『송원이학통록(宋元理學通錄)』, 『성학십도』 등이 있다.

기대승은 본관이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존재(存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전라남도 광주 소고룡리(召古龍里)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났다. 155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를 거쳐 성균관 대사성, 대사간, 공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1559년에 사단칠정설을 짓고, 1560년 퇴계 선생에게 글을 올려 사단칠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자문록(朱子文錄)』, 『논사록(論思錄)』, 『고봉집(高峯集)』 등을 저술하였다. 이로 엮어 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재양민론(理財養民論) · 승례론(崇禮論) · 언로통색론(言路通塞論) 등이다.

본서의 편찬은 1786년 김종수의 발문에서 ‘고봉이 유종(儒宗)으로 추앙받는 퇴계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종종 자신의 견해를 따르게 하였다는 점과 이기(理氣)의 원류를 논함에 울곡(栗谷)보다 앞서서 퇴계와 부합하였고 총명과 슬기로 스스로 체득하였다’는 점을 높이 칭송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칠논변의 전개과정에 대한 대략을 서술하는 것과 함께 이항과 논변을 펼친 고봉의 학문과 위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이황과 기대승은 약 12년간 서신을 교환하였는데, 그 중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의 『천명도(天命圖)』에서 시작된 사단칠정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8년간의 논변은 훗날 조선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서는 바로 1559~1566년까지 8년 동안 이루어진 사칠논변(四七論辯)에 관한 사안만을 선별하여 당시 전개된 논의의 대략적인 내용과 고봉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에는 퇴계가 고봉에서 준 편지(退溪與高峯書), 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사단칠정설(高峯上退溪四端七情說), 퇴계가 고봉에게 사단·칠정을 이와 기로 나눈 변론에 대한 답장(退溪答高峯四端七情分理氣辯), 퇴계가 사단·칠정을 논한 데 대한 고봉의 답장(高峯答退溪論四端七情書) 등이 있고, 권2는 퇴계가 사단·칠정을 재론한 것에 대해 고봉이 답한 편지(高峯答退溪再論四端七情書), 퇴계가 고봉에게 준 편지(退溪與高峯書), 사단·칠정 후설(後說), 사단·칠정 총론(總論) 등이다. 권말에는 퇴계와 고봉의 사칠논변의 단초가 된 천명도설과 관련된 글이 추가되어 있다. 천명도설은 정지운이 천명과 인성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해설을 붙여 서술한 유학서이다. 부록은 ‘고봉이 추만에게 답한 글(高峯答秋巒書)’ 2편, 천명도(天命圖), 추만 정지운이 지은 천명도설(天命圖說)의 서문인 ‘정추만 천명도설서(鄭秋巒天命圖說序)’이다. 퇴계와 고봉은 오랜 시간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1566년에 고봉이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단·칠정 후설과 총론을 지어 퇴계에게 올리고 그에 대한 퇴계의 답변을 받으면서 마무리하게 된다.

4. 서지적 특성

이 책은 1629년에 『이기변(理氣辨)』으로 초간되었는데, 1786년(종조 10)에 정조(正祖)의 명에 따라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로 이름을 바꾸어 중간하였다. 이 중간본의 간행은 본서 말에 있는 1786년에 작성한 김종수의 발문에서 “예전에 있던 이 책의 각본(刻本)이 중간에 유실되었는데, 지금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조공 준(趙公琿)이 가져다 새겨서 널리 전하러 하므로 선생의 6대손 전 승지(承旨) 언정(彦鼎) 씨가 나에게 부탁하여 오류를 교정하여 그 아래에 덧붙여 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1786년에 평안감영에서 관찰사 조준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서는 중간본의 책판을 활용하되 서명 부분 한 행만 『사칠속편』으로 개각(改刻)한 후 인출한 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古1252-151)가 바로 중간본이 되며, 본서와 판식의 형태 및 목리의 깨짐을 비교해보면 서명만 개각한 후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출시기는 본서의 권지일 하단에 ‘차편명정묘조소명명(此篇名正廟朝所命名)’이라고 되어 있는 점과 판식 및 지질로 보아 19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중기 이후에 사단칠정에 관한 수많은 논의와 저술들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사단칠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다. (김소희)

핵심어 사칠속편(四七續編), 이황(李滉), 기대승(奇大升), 성리설(性理說), 사단칠정(四端七情), 이기변(理氣辨),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사한일통(史漢一統)

KOL000011519

일산古2231-7

史漢一統 / 編著者不明

木活字本(訓練都監字)

[漢城] : [發行處不明], [17世紀]

3冊(缺本): 四周雙邊 半郭 22.8 × 15.7 cm,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일부 上下向2葉下上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5 × 20.5 cm

表題: 史漢一統(冊12), 漢書(冊13-14)

印: 完山, 李鼎命印, □…□, □…□

1. 개요

본서는 『사기』 130권과 『한서』 120권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16권 88편 체제로 재편한 서적이다. ‘사한일통’이라는 서명은 사기와 한서를 한 책으로 통합했음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와 관련해서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매산집(梅山集)』에서 ‘간이 최립(崔嶷)이 직접 선정했다고 했으나 맞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편찬시기와 편찬자 및 편찬목적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편찬당시에 1612년에 편찬한 『사찬』을 대본으로 하였다는 점과 1644~1653년 사이에 훈련도감자목활자본으로 초인본이 인출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17세기 초 무렵에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직필은 또한 본서가 『사기평림』과 『한서평림』을 활용했다고 평하였는데, 논평의 수용 방식을 살펴보면 『사기평림』과 『한서평림』이 아닌 『사찬』과 평점이 없는 『한서』 판본을 활용하여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사기』와 『한서』에서 주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재편집한 책으로, 1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별한 작품 가운데 『사기』 관련 부분은 권1~10에, 『한서』와 관련된 부분은 권11~16에 배치하였다. 예외적으로 권10의 끝부분에 『한서』의 <사마천전>에 나오는 ‘보임안서(報任安書)’가 추가되어 있다. ‘보임안서’는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후 임안(任安)에게 보낸 편지를 말한다. 이러한 배치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에 대한 이해와 사기 저술의 동기 등을 이해하는 한편 사마천의 문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사기』 부분 말미에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그 중 『한서』에 해당하는 권12-14만 남아있는 결본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2는 양왕손전, 주운전, 매복전, 광광전, 김일제전, 조충국전 등 열전 6편, 권13은 진탕전, 양공전, 포선전, 조광한전, 한연수전, 장창전, 왕존전, 소망지전 등 열전 8편, 권14는 풍봉세전, 왕상전, 사단전, 설선전, 주박전, 식부궁전, 탁방진전, 곡영전 등 열전 8편이다.

4. 서지적 특성

장서인은 각 책마다 다양한데, 제12책에는 ‘완산(完山), 이정명(李鼎命印)’이 찍혀있고, 제13책에는 미상의 보라색 원형인이 확인되며, 제14책에는 권수 하단에 장서인이 칼로 오려진 상태이다. 본서의 소장자인 이정명은 본관이 완산(전주), 자가 백응(伯凝)인 이정명(李鼎命, 1642~1700)으로 추정된다. 그는 영의정을 지낸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 1585~1657)의 손자이다.

『사한일통』의 판종은 17세기 초에 인출한 훈련도감자목활자본을 비롯하여 18세기 초에 경북 경주에서 간행한 목판본 및 1835년에 경주본을 토대로 대구 감영에서 중간(重刊)한 목판본이 있다. 이 중 1835년 본에만 ‘을미신간영장판(乙未新刊嶺營藏板)’이라는 간행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여러 종의 사한일통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 본서가 훈련도감자목활자본으로 가장 앞서는 판본이다. 나머지 古2231-40, 한古朝50-47, 한古朝50-47, 무구재古221-115는 동일한 책판에서 인출하되, 한古朝50-47, 무구재古221-115는 후쇄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방대한 분량의 『사기』와 『한서』를 선집하여 한 책에 모아둠으로써, 한나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사마천과 반고의 문장 즉 고문(古文)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유익하고 편리한 교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7세기 초 목활자본 서적의 간행과 유통을 살펴보고, 『사찬』과 함께 17세기 중반에 평점의 수용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소희)

핵심어 사한일통(史漢一統),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 사기평림(史記評林), 사찬(史纂), 한서(漢書)

참고문헌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사한일통(史漢一統)

KOL200800107

古2231-40

史漢一統 / 編者不明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6卷16冊 : 四周單邊 半郭 19.7 × 15.4 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7.2 × 18.5 cm

表題: 史漢

版心題: 史漢一統

書根題: 漢史

印: 安秉善

藏書記: 冊主□□(권9 서명 하단에 필사, □는 지운 흔적임)

1. 개요

본서는 『사기』 130권과 『한서』 120권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16권 88편 체제로 재판한 서적이다. ‘사한일통’이라는 서명은 사기와 한서를 한 책으로 통합했음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와 관련해서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매산집(梅山集)』에서 ‘간이 최립(崔崐)이 직접 선정했다고 했으나 맞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언급하였으나, 편찬시기와 편찬자 및 편찬목적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편찬당시에 1612년에 편찬한 『사찬』을 대본으로 하였다는 점과 1644~1653(인조22~효종4)년 사이에 훈련도감자목활자본으로 초인본이 인출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17세기 초 무렵에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직필은 또한 본서가 『사기평림』과 『한서평림』을 활용했다고 평하였는데, 논평의 수용 방식을 살펴보면 『사기평림』과 『한서평림』이 아닌 『사찬』과 평점이 없는 『한서』 판본을 활용하여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사기』와 『한서』에서 주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재판집하여 16권 16책으로 구성하였다. 선별한 작품 가운데 『사기』 관련 부분은 권1~10에, 『한서』와 관련된 부분은 권11~16에 배치하였다. 예외적으로 권10의 끝부분에 『한서』의 <사마천전>에 나오는 ‘보임안서(報任安書)’가 추가되어 있다. ‘보임안서’는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후 임안(任安)에게 보낸 편지를 말한다. 이러한 배치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에 대한 이해와 사기 저술의 동기 등을 이해하는 한편 사마천의 문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사기』 부분 말미에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집한 편수는 『사기』 130권 가운데 49편을, 『한서』 120권 가운데 38편을 선정하였다.

권1-10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시황과 항우의 본기 2편, 평준서(平準書) 등 서(書) 1편, 유후와 진승상의 세가(世家) 2편, 백이, 오자서, 맹상군 등 각종 열전 44편을 선정하였

다. 수록순서는 본기, 열전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시간과 사건의 선후에 따라 세가를 배치하였다. 권11~16은 『사기』에 중복되지 않는 인물 또는 사기에서 미진하게 다룬 인물들을 중심으로 채택하였다. 예컨대 권11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릉전은 ‘이광소건전(李廣蘇建傳)’ 즉 이릉의 조부인 이광과 소건의 일대기를 다룬 합전(合傳)으로, 이광의 삼대를 다룬 내용 가운데 이릉의 일만을 채택하였고 이를 편명으로 삼았다. 사마천은 흉노에 투항했던 이릉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마천을 이해하는 연장선 상에서 이릉의 일을 가장 먼저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권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시황, 항우의 본기 2편, 권2는 백이, 노자한 비, 오자서, 자공, 상군, 소진 등 열전 6편, 권3은 장의, 진진, 맹상군, 평원군우경 등 열전 6편, 권4는 범수, 채택, 악의 등 열전 5편, 권5는 자객, 이사, 장이진여 등 열전 3편, 권6은 유후, 진승상의 세가 2편과 회음후, 전담, 육가, 오왕비 등 열전 4편, 권7은 계포, 장석지, 풍당 등 열전 9편, 권8은 금암정당시, 영행, 일자, 골계, 유림, 흑리 등 열전 6편, 권9는 유협, 화식, 회남왕, 태사공자서 등 열전 4편, 권10은 흉노열전 1편과 평준서 1편 및 『한서』 「사마천전」에 실려있는 임안에게 보낸 글인 <답임안서>이다. 권11은 이릉, 소무, 엄조, 주보언 등 열전 8편, 권12는 양왕손, 주운, 매복, 광광, 김일제, 조충국 등 열전 6편, 권13은 진탕, 양공, 포선, 조광한, 한연수, 장창, 왕존, 소망지 등 열전 8편, 권14는 풍봉세, 왕상, 사단, 설선, 주박, 식부공, 탁방진, 곡영 등 열전 8편, 권15는 하무, 왕가, 양웅, 순리전의 황패(黃霸), 유협전의 누호(樓護), 진준(陳遵), 원섭(原涉), 영행전의 동현(董賢) 등 열전 5편, 권16은 외척전의 원후, 반첩여(班婕妤), 조황후 및 반고의 서문인 서전(敘傳)이 포함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사한일통』의 판종은 17세기 초에 인출한 훈련도감자목활자본을 비롯하여 18세기 초에 경북 경주에서 간행한 목판본 및 1835년에 경주본을 토대로 대구 감영에서 중간(重刊)한 목판본이 있다. 이 중 1835년 본에만 ‘乙未新刊嶺營藏板’이라는 간행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여러 종의 사한일통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 일산古2231-7이 훈련도감자목활자본으로 가장 앞서는 판본이다. 나머지 한古朝50-47, 한古朝50-47, 무구재古221-115는 본서와 동일한 책판에서 인출하였다. 다만 한古朝50-47은 본서와 유사한 시기에 인출되었으나, 나머지 2종은 본서보다 늦은 시기에 인출한 후쇄본이다. 한古朝50-47의 경우에는 일부 보판한 흔적도 남아있는데, 이는 권1의 제11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방대한 분량의 『사기』와 『한서』를 선집하여 한 책에 모아둠으로써, 한나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사마천과 반고의 문장 즉 고문(古文)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유익하고 편리한 교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찬』과 함께 17세기 중반에 평점의 수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치를 지닌다. (김소희)

핵심어 사한일통(史漢一統), 사기평림(史記評林), 사찬(史纂), 한서(漢書)

참고문헌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산보문원사굴(刪補文苑植橘)

KOL000024954

한古朝57-나21

刪補文苑植橘 / [編著者不明]

金屬活字本(校書館印書體字)

[漢城] : [校書館], [景宗 2(1722)年頃]

2冊 : 四周雙邊 半郭 21.5 × 13.1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 27.2 × 16.5 cm

발행시기 추정: 소장자 徐文永의 承文院 재직 시기에 근거함

印: 徐文永氏, 大丘

1. 개요

본서는 조선시대 미상의 인물이 중국의 단편소설을 취사선택하여 편집한 책이다. 책의 제목이 '산보문원사굴(刪補文苑植橘)'이므로 『문원사굴(文苑植橘)』이라는 중국 서적을 산삭하거나 증보하여 간행한 책으로 여기기 쉬우나, 『문원사굴』이라는 서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서는 조선에서 편찬하여 교서관 인서체자로 간행한 중국 소설집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는 박재연이 발굴하고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서의 편집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수연의 연구 논문에 의해 김석주(金錫胄, 1634~1684)와 김창집(金昌集, 1648~1722)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먼저 편집자로 지목된 김석주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字)는 사백(斯百), 호(號)는 식암(息庵)이다. 고조부는 강릉참봉 김흥우(金興宇), 조부는 영의정 김육(金堉)이며, 부친은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 모친은 오위도총부(五衛都總部) 도총관(都總管)을 지낸 신익성(申翊聖)의 딸이다.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 및 수찬(修撰)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다음으로 지목된 김창집은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의 형으로 유명한 조선의 문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다. 고조부는 좌의정 김상헌(金尙憲), 조부는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이며, 부친은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모친은 호조좌랑 나성두(羅星斗)의 딸이다. 김석주와 마찬가지로 홍문관의 부교리 및 수찬을 역임하였다.

제목의 '문원(文苑)'은 그동안 '좋은 문장'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홍문관을 문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사굴(植橘)'은 새콤한 산당화 열매[橘]와 귤[植]처럼 색다른 맛의 문장을 의미한다. '문원사굴(文苑植橘)'은 '홍문관의 관원이 뽑은 중국 소설'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편찬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문언소설을 애호하던 영조(英祖) 재위 시기에 간행된 책이고, 홍문관 관리의 주도하에 교서관 소장 활자인 교서관 인서체자로 인쇄된 점을 통해 본서의 편찬 목적과 독자층을 유추해볼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2권(卷) 2책(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 권1에는 「규염객(虬髯客)」, 「홍선(紅線)」, 「

곤륜노(崑崙奴), 「고압아(古押牙), 「위십일낭(韋十一娘), 「의창(義倡), 「견국부인(涘國夫人), 「부정농(負情儂), 「최앵앵(崔鶯鶯), 「조비연(趙飛燕) 10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 권2에는 「배심(裴諶), 「위포생(韋鮑生), 「최현미(崔玄微), 「위단(韋丹), 「영응(靈應), 「유익(柳毅), 「설위(薛偉), 「순우분(淳于棼), 「장직방(張直方), 「동곽선생(東郭先生) 10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규염객·「홍선·「곤륜노·「고압아·「위십일낭과 권2의 「배심 같은 소설은 여성 협객이 등장하는 소설로, 『녹창여사(綠窓女史)』와 같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필기소설집에도 수록된 소설이다. 권2의 「순우분은 『태평광기』, 「최현미는 『박이지(博異志)』, 『유양잡조(西陽雜俎)』 등에 비슷한 내용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제(表題)는 ‘문원사굴(文苑植橘)’이고, 표지 우측에는 해당 책에 수록된 소설의 편명(篇名)이 필사되어 있다. 권수제(卷首題)와 판심제(版心題)는 모두 ‘산보문원사굴(刪補文苑植橘)’이다. 각 권수제면 하단에는 정방형(正方形)의 주문인(朱文印) ‘서문영씨(徐文永氏)’와 종정형(鍾鼎形) 주문인 ‘대구(大丘)’가 담인되어 있다. 본서의 이전 소장자인 서문영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1722년에 승문원(承文院) 제술관(製述官)을 지내다가 1722년 11월 18일부터 1724년 5월 7일까지 귀후서(歸厚署) 별제(別提)를 지낸 기록을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문영은 승문원 제술관 재직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양 등지의 찰방(察訪)에 임명되어 외직을 맡았으므로, 승문원에 근무한 1722년경 본서를 손에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종합 평가

이 책이 언제 편찬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본 『산보문원사굴』이 1684년에 주도되어 영조 중반까지 사용한 금속활자인 교서관 인서체자로 인쇄한 판본이고, 이전 소장자 서문영이 승문원 제술관이었던 시기가 1722년 즈음이기 때문에, 1722년경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 실린 작품 중 「위십일낭」은 중국에도 남아있지 않은 희귀한 소설로 자료적 가치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소설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은슬)

핵심어 산보문원사굴(刪補文苑植橘), 문원사굴(文苑植橘), 규염객(虬髯客), 배심(裴諶), 홍선(紅線), 위포생(韋鮑生), 곤륜노(崑崙奴), 최현미(崔玄微), 고압아(古押牙), 위단(韋丹), 위십일낭(韋十一娘), 영응(靈應), 의창(義倡), 유익(柳毅), 견국부인(涘國夫人), 설위(薛偉), 부정농(負情儂), 순우분(淳于棼), 최앵앵(崔鶯鶯), 장직방(張直方), 조비연(趙飛燕), 동곽선생(東郭先生)

참고문헌

박재연, 「조선각본 문원사굴에 대하여」, 『중국소설연구회보』 13, 한국중국소설학회, 1993.
김영진, 「조선 후기 서적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김수연, 「조선왕실 간행 중국단편소설선 산보 문원사굴의 문화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3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삼원기사(三冤記事)

KOL000048484

古2515-60

三冤記事 / 安邦俊(朝鮮) 編

木板本

順天 : 松廣寺, [1686]

不分卷1冊(完帙) : 四周雙邊 半郭 19.8 × 12.6cm, 有界, 7行15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28.1 × 16.5cm

表題: 三金記

版心題: 三冤記事

刊記: 丙寅(1686)秋順天松廣寺刊

1. 개요

본서는 은봉(隱峰)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김덕령(金德齡, 1567~1596), 김응회(金應會, 1555~1597), 김대인(金大仁)의 억울함을 신원(伸冤)하기 위해 쓴 전기(傳記)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안방준은 조선 중기 활동한 문신으로, 본관은 죽산(竹山), 자(字)는 사언(士彦), 호(號)는 은봉(隱峯)·우산(牛山)·빙호자(冰壺子) 등이다. 전라남도 보성군 출신으로, 생부는 안중관(安重寬), 계부(繼父)는 안중돈(安重敦)이다. 초명(初名)은 삼문(三文)이다. 성혼(成渾, 1535~1598)의 문인으로, 박광전(朴光前, 1526~1597)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다. 1614(광해군 6)년 보성군 우산(牛山)에 들어가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김류(金瑬, 1571~1648), 정철(鄭澈, 1536~1593), 조헌(趙憲, 1544~1592), 송준길(宋浚吉, 1606~1672) 등과 교유하였다. 효종대에는 지평(持平), 장령(掌令), 공조참의(工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항의신편(抗義新編)』, 『이대원전(李大源傳)』, 『호남의병록(湖南義兵錄)』, 『사우감계록(師友鑑戒錄)』 등을 남겼다. 본 해제의 대상인 『삼원기사』도 안방준의 저서 중 하나이다.

안방준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관련된 기록을 다수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제2차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진주서사(晉州敍事)』를 들 수 있다. 그가 창의(唱義)한 이력을 보아 『삼원기사』는 같이 의병활동을 한 세 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작성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은봉전서(隱峯全書)』의 연보에 따르면 안방준은 1615(광해군 7)년에 『호남의록(湖南義錄)』, 『임정충절사적(壬丁忠節事蹟)』과 함께 『삼원기사』를 편찬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내용

『삼원기사』는 별도의 서발문이 없고, 3명에 대한 기록만 간략히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인원은 김덕령, 김응회, 김대인 순이다. 본문은 각 인물에 대한 성명, 자호, 거주지 등을 밝혀두는 것으로 시작하며, 각각의 인물에 대한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이 『은봉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기록 중 김덕령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의 거주지가 광주(光州)였으며, 임

진왜란 기간 동안 영남으로 넘어가 산음(山陰), 진주(晉州) 등으로 차차 옮겨간 것이 확인된다. 이후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하자 김덕령이 참하였는데, 이를 좋게 보지 않은 자가 무고하였다는 내용과 김덕령을 추포하던 시기 선조(宣祖)가 대신들에게 ‘덕령은 능히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사로잡겠는가?’라고 말하는 대목 등이 확인된다. 김덕령과 관련된 기사 중 말미에는 뒤에 이정암(李廷菴, 1541~1600)이 증직을 요청한 기록으로 마무리 된다.

김응회의 자는 시극(時極)이며, 담양(潭陽)에 거주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으며, 김덕령은 그의 처제(妻弟)이다. 『삼원기사』에 따르면, 김응회는 모함을 받아 의금부(義禁府)에 수감되었는데, 김덕령이 역적 모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두둔하였으며, 무거운 형벌을 받음에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자신이 어찌 괴롭지 않겠느냐마는 임금이 가까이 계시기에 차마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김응회의 기록 말미에는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피신하던 중 적군을 만나 어머니와 함께 죽었다는 기록과 1613(광해군 5)년에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김대인은 순천에 거주하던 인물로, 어린 시절 중이 되었다가 다시 환속되었다. 뒤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삼원기사』에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4. 서지적 특징

『삼원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본이 확인되며, 안방준의 문집인 『은봉전서(隱峯全書)』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선장(線裝)에 목판으로 인출된 것인 반면, 규장각 소장본은 첩장(帖裝)에 필사본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권말제면(卷末題面)에 ‘병인년 가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간행하였다.(丙寅秋 順天松廣寺刊)’이라는 간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表紙)는 원래의 표지와 덧댄 표지가 같이 존재한다. 원래의 표지에는 삼김기(三金紀)라는 표제가 기재되어 있으며, 앞표지 이면(裏面)에는 삼김기(三金記), 삼원기사, 뒷표지 이면에는 김장군령(金將軍齡), 삼김기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삼김기라는 서명은 본 문헌의 내용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세 명의 김씨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안방준의 저술 중 하나로, 역울하게 세상을 떠난 의병 3명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자칫 사라질 뻔한 의병들의 기록을 안방준이 기술한 것이기에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사찰에서 간행된 문헌이라는 점에서 사찰의 인쇄문화사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다희)

핵심어 의병(義兵), 안방준(安邦俊), 김덕령(金德齡), 김응회(金應會), 김대인(金大仁)

삼원참찬연수서(三元參贊延壽書)

KOL202200001

古貴1260-52

三元參贊延壽書 / 李鵬飛(元) 編

木板本

全州 : [全羅監營], 世宗 20(1438)

5卷1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0.9 × 15.4 cm, 有界, 12行25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8 × 19.2 cm

表題: 三元延壽書

刊記: 皇明正統參年歲次戊午(1438)孟秋重刊于全州府

序: 歲至元辛卯(1291)...李鵬飛

圖: 行天之健應地無疆 外 4圖

序文 1張 缺落

1. 개요

『삼원참찬연수서(三元參贊延壽書)』는 원나라의 의사인 이봉비(李鵬飛)가 편찬한 의학 양생서(養生書)이자 도가서(道家書)로 남녀관계의 절제와 금기를 통한 양생법,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양생법, 음식을 통한 양생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본서는 세종(世宗) 20(1438)년 전주부(全州府)에서 목판(木板)으로 간행한 목판본(木板本)이다.

서명인 『삼원참찬연수서』에서 ‘삼원’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며 ‘참찬’은 돕는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연수서’는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담긴 책이라는 의미이다. 정리해보면 『삼원참찬연수서』라는 서명은 사람이 타고난 삼원을 도와서 수명을 늘리는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삼원참찬연수서』를 편찬한 이봉비는 원나라의 의사로 자는 징심(澄心)이고 호는 구화징심노인(九華澄心老人)이다.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귀지현(貴池縣) 출신으로 구화산(九華山) 부근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 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봉비가 『삼원참찬연수서』를 편찬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봉비가 지은 서문(序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봉비가 자신을 떠나간 어머니를 찾아서 회수(淮水) 부근을 헤매고 있었는데, 성이 궁(宮)씨인 한 도인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인은 자신의 나이가 90세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얼굴이 매우 동안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봉비가 과거를 보러 갈 때 다시 도인을 만났는데 예전에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신기해서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는지 물어보자, 도인이 말하길 원래 인간은 천원(天元), 지원(地元), 인원(人元) 각각 60세를 부여받아서 총 180세를 살 수 있는데, 경계하고 삼가는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 수명을 깎는다고 하였다. 이에 이봉비가 어떻게 하여 수명이 깎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 도인이 말하길 정신이 견고하지 못하면 천원의 수명이 줄고, 근심이 지나치면 지원의 수명이 줄며, 음식에 절도가 없으면 인원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또한 이 말에 덧붙여서 마땅히 보배를 아껴야 하나 아낄 줄 모르고 금기를 지켜야 하나 지킬 줄 모르니 이것들은 이미 여러 성인(聖人)들이

이야기한 바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후에 이봉비가 도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스스로 양생을 실천하니 나이 70세에 이르렀고, 그 때에 이봉비가 양생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여 이러한 방법을 담은 책을 편찬하였다고 서문에서는 전하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삼원참찬연수서』는 총 5권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봉비가 원 지원(至元) 28(1291)년에 지은 서문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내에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인설(仁說)」을 수록하였다. 이는 양생법을 알기에 앞서 인간의 몸이 어떠한 원리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권 1에는 「천원지수정기불모자득지(天元之壽精氣不耗者得之)」를 수록하였다. 권 1의 제목을 해석하면 천원의 수명은 정기(精氣)를 소모하지 않는 자가 얻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 1에서는 정기를 소모하는 행위 즉 남녀관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권 2에는 「지원지수기거유상자득지(地元之壽起居有常者得之)」를 수록하였다. 권 2의 제목을 해석하면 지원의 수명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자가 그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 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정하게 바른 마음 가짐과 몸 가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 3에는 「인원지수음식유도자득지(人元之壽飲食有度者得之)」를 수록하였다. 권 3의 제목을 해석하면 인원의 수명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법도가 있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 3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 4는 「신선구세각노환동진결(神仙救世却老還童真訣)」을 수록하였는데, 도가(道家)에서 전해지는 각종 보약을 만드는 법 및 도인법(導引法, 호흡법)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권 5는 「신선경세(神仙警世)」, 「음덕연수론(陰德延壽論)」, 「함삼위일가(函三爲一歌)」를 수록하였다. 「신선경세」는 다른 기록에 등장하는 양생법을 정리한 것이고, 「음덕연수론」은 덕을 쌓아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수록한 것이다. 「함삼위일가」는 삼원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권 4와 권 5에는 내용과 관련 있는 삽도(插圖)를 수록하고 있다.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황명정통삼년세차무오맹추중간우전주부(皇明正統參年歲次戊午孟秋重刊于全州府)’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세종 20(1438)년 전주부에서 본서를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宣祖) 9(1576)년에 간행한 『고사촬요(攷事撮要)』의 「팔도정도(八道程途)」 전주 항목에는 전주에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라는 책판(冊板)이 있다고 나오는데, 본서를 간행한 책판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원나라의 의사인 이봉비가 편찬한 양생서로 간행한 당대부터 변계량(卞季良, 1369~1430) 등 많은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에 편찬한 여러 의서(醫書)에 인용문헌으로 등장하여 조선시대 양생법 나아가 의학에 대한 철학 배경을 알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본서는 세종 20(1438)년 전주부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한 목판본이라는 점과 『고사촬요』에도 등장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책판 보관 및 인쇄 문화를 엿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외에는 세종 20(1438)년 전주부에서 간행한 목판본 『삼원참찬연수서』가 현전하지 않는다는 점 즉 유일본이기 때문에 본서가 가지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삼원참찬연수서(三元參贊延壽書), 이봉비(李鵬飛), 전주부(全州府), 양생서(養生書)

참고문헌

주인용, 『『三元延壽參贊書』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철웅, 「변계량의 사상과 도교 인식」, 『국학연구』 제46호, 한국국학진흥원, 2021.

성호준, 「『삼원연수참찬서(三元延壽參贊書)』와 조선의 의학·양생서」, 『우계학보』 제38집, 우계문화재단, 2020.

삼현실기(三賢實紀)

KOL000048484

古2515-60

三賢實紀 / 徐景斗(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憲宗7(1841)序]

不分卷3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1.8 × 17.2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5 × 21.7 cm

序: 庚子(1840)...洪直弼, 上之元年辛丑(1841)...鄭懋欽

識: 辛丑(1841)...南溪後孫景魯, 辛丑(1841)...盤谷後孫東旭

跋: 辛丑(1841)...節孝後孫奎行

1. 개요

『삼현실기』는 반곡(盤谷) 장지도(張志道, 1371~?), 절효(節孝) 윤은보(尹殷保), 남계(南溪) 서즐(徐鷺)의 사적(事蹟)과 역사 기록 등을 엮어 1841년(헌종 7)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분권(不分卷) 3책의 목판본(木板本)이다. 서명의 '삼현(三賢)'은 장지도·윤은보·서즐 세 사람을 가리키는 '영남삼현(嶺南三賢)'에서 따온 것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장지도는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조선 건국 이후 교서소감(校書少監)으로 있을 때 태조의 명에 따라 『정관정요(貞觀政要)』의 교정을 보았다. 그러다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고향인 지례(현재의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일대)로 낙향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는데, 본서에 함께 수록된 윤은보와 서즐이 바로 그의 제자이다. 장지도는 자식이 없었는데 윤은보와 서즐이 장지도가 죽자 그의 묘소 앞에 여막을 짓고 3년 상을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장지도와 윤은보, 서즐의 행적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수록되었으며 세종은 세 사람의 행적이 함께 정표된 '삼효정려비(三孝旌閭碑)'를 내렸다.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은 서문에서 본서의 편찬 경위를 밝혔다. 그는 장지도를 비롯한 세 사람의 행적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로 400여년 동안 저술이 흩어지고 문헌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들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스승의 도가 서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너져 사람들이 학교를 진흥시키지 않으므로 이들의 행적을 서술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제1책과 제2책을 원편(原編)과 부편(附編)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책은 서문, 목록, 본문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은 1840년 홍직필이 작성한 것과 1841년 정무흠(鄭懋欽, ?~?)이 작성한 것이다. 본문은 장지도 등 3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반곡유시(張盤谷遺詩)」, 「장반곡등과방목(張盤谷登科榜目)」,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여지승람(輿地勝覽)」, 「지천지(知川誌)」, 「일선지(一善誌)」, 「섬계서원환안축문

(剡溪書院還安祝文)», 「섬계서원향사축문(剡溪書院享祀祝文)», 「섬계서원강당상량문(剡溪書院講堂上樑文)», 「정려중수기(旌閭重修記)», 「정려중수게판축문(旌閭重修揭板祝文)», 「염원기(剡院記)», 「상설루상량문(賞雪樓上梁文)», 「상설루기(賞雪樓記)», 「삼현찬(三賢贊)」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장지도가 지은 시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마방목』, 『삼강행실도』, 『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수록된 장지도의 행적, 윤은보·서즐와의 사우(師友)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장지도·윤은보·남계를 배향(配享)한 서원인 섬계서원, 세 사람의 효행과 학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려비(旌閭碑), 섬계서원 내에 있는 상설루와 관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책 부편에는 「서(序)», 「기(記)», 「지(識)», 「발(跋)」이다. 여기에는 18~19세기 여러 인물들이 장지도·윤은보·서즐의 행적에 대한 찬사,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목록에는 ‘서-기-지-발’의 순서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록된 것은 문장 유형에 상관없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은 대체로 장지도 등 3인에 대한 찬사, 차운(次韻)한 시문이며 마지막에 작성 시기와 작성자를 기재하였다. 가장 마지막에 서즐의 후손 서경로(徐景路)의 지문(識文), 윤은보의 후손 윤규행(尹奎行)의 발문(跋文), 장지도의 후손인 장동욱(張東旭)이 작성한 지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제1책의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원서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실었다. 문헌의 내용을 수록할 때는 음각·양각 등의 판각(板刻) 방식도 그대로 따랐다. 본문의 글자가 다소 뭉개지고, 책판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인쇄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한 판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현실기』(청구기호: 古2511-61)도 있다.

5. 종합 평가

장지도와 윤은보, 서즐은 영남삼현(嶺南三賢)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이들의 행적은 『삼강행실도』, 『여지승람』 등 다수의 문헌에서 수록되어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조선 정부는 정려문(旌閭門)·유허비(遺墟碑) 등을 내려 이들의 행적을 기리고 칭찬하였다. 본서는 이들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간행되었는데, 이 책이 간행된 19세기 조선은 정치·사회·경제적 폐단이 대두되면서 조선 정부를 지탱하고 있던 성리학적 질서체계 또한 무너져 가고 있었다. 본서의 간행은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 조선 후기 향촌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아름다운 풍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임영현)

핵심어 장지도(張志道), 윤은보(尹殷保), 서즐(徐鷲), 영남삼현(嶺南三賢), 섬계서원(剡溪書院)

상례비요(喪禮備要)

KOL201600022

古5213-166

喪禮備要/申義慶(朝鮮) 纂述 ; 金長生(朝鮮) 修潤 ; 金集(朝鮮) 改正

木板本

[大邱] : [在田堂書鋪], [1913년]

2卷2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1.1 × 17.0 cm, 8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8.8 × 20.6 cm

表題: 喪禮

版心題: 喪禮備要

喪禮備要序: 萬曆庚申(1620)季夏光山侯人金長生序, 歲戊子(1648)季冬不肖孤[金]集泣血書

喪禮備要跋: 天啓元年歲舍辛酉(1621)...申欽書

1. 개요

『상례비요(喪禮備要)』는 조선 중기 학자인 신의경(申義慶, 1557~1648)이 중국 송나라 주자(朱子)의 『가례(家禮)』 가운데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여러 학설을 모으고 해설을 더한 책이다. 신의경의 친구인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부족한 내용을 더하였고, 김집(金集, 1574~1656)이 교정하여 목판(木板)으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신의경은 조선 중기 문신(文臣)이자 예학자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효직(孝直), 호는 서파(西坡)이다. 광해군 12(162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학행으로 천거되어 사헌부 대관(司憲府臺官)을 지냈다. 신의경은 주자의 『가례』가 조선에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가 사대부(士大夫)의 상(喪)에서 집례(執禮), 예식을 집행함하면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주자 『가례』의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의례와 여러 학설을 참고하여 해설을 더하여 본서를 저술하였다. 신의경이 저술한 『상례비요』는 1권 1책이었다. 이후 김장생이 본문의 내용을 첨삭하고 고증하였으며, 그의 아들 김집이 교정하여 2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상하권(上下卷)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에는 「서(序)」, 「범례(凡例)」, 「상례비요도(喪禮備要圖)」와 상권이, 2책에는 하권과 「발(跋)」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은 1620년에 김장생이 쓴 것과 1648년 김집이 쓴 것이며, 발문은 1621년 신흙(申欽, 1566~1628)이 작성한 것이다. 본문의 각 항목에는 상구(喪具, 장사를 치를 때 사용하는 기구)와 제구(祭具,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기구)의 소항목을 두어 각 의례 절차에 필요한 물품을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예서에서는 볼 수 없는 『상례비요』만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상례비요』는 1620년 지방의 유생들에 의하여 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졌고, 인

조 26(1648)년 김집이 교정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만 1774년, 1782년, 1812년, 1848년 4차례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상례비요』의 다른 판본 가운데 1782년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우산古 5213-196)을 살펴보면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권 2책의 목판으로 간행된 본서는 대구의 재전당서포(在田堂書舖)에서 간행한 것이며 표지 서명은 ‘상례(喪禮)’이다.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상례비요』의 판권지(板權紙)를 살펴보면 대정 2(1913)년 9월 20일에 인쇄하여 같은 해 9월 26일에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서도 1913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전당서포는 1907년부터 1930년 초까지 대구 지역에서 목판 방각본(坊刻本) 및 납활자 서적을 출간하였던 출판사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의례 가운데 상례와 제례만을 다루고 있지만 실용성을 전제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높은 수준의 의례서라고 할 수 있으며 『상례비요』의 등장 이후 관혼상제(冠婚喪祭)의 형식을 갖춘 사례서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예학자로 저명한 김장생·김집 부자가 직접 증보·교정하였다는 점에서 예학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상례비요』는 조선 후기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 본서가 가지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기 지방 상업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은 근현대로 접어드는 시기에도 예학서의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임영현)

핵심어 신의경(申義慶), 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 재전당서포(在田堂書舖)

참고문헌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예학총서』, 민족문화사, 2018.

김향숙, 『畿湖士林 禮書의 書誌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상변통고(常變通攷)

KOL200800206

古5213-152

常變通攷 / 柳長源(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純祖30(1830)

30卷16冊 : 四周雙邊 半郭 21.3 × 16.5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2.2 × 21.7 cm

序: 上之三十年(1830)...李秉遠

跋: 庚寅(1830)...[柳]致明

印: 由□之章, 安秉善

1. 개요

『상변통고(常變通攷)』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류장원(柳長源, 1724~1796)이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상례(常禮, 보통의 예법)와 변례(變禮, 보통의 예법이 아닌 임시변통의 예법)에 관한 여러 학설을 엮은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 책이다. 류장원의 문인인 이병원(李秉遠, 1774~1840)이 서문(序文)을 적고 종증손(從曾孫)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이 발문(跋文)을 작성하여 순조 30(1830)년에 총목 1책을 포함하여 30권 16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서명인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 상변은 상례와 변례를 줄인 말이며, 통고는 자료를 모으고 비평하여 학술을 세우는 종합적인 고찰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류장원은 조선 후기 영남의 재야학자(在野學者)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숙원(叔遠), 호는 동암(東巖)이다. 그는 영조 45(1769)년부터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심학(心學) 전수받아 김종덕(金宗德),李宗수(李宗洙)와 함께 호문삼로(湖門三老)로 불린다. 본서는 류장원이 말년인 정조 7(1783)년에 완성하였으며 이후 문인·후손 등 7명이 원고를 보완하여 1830년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류장원은 범례에서 근래 예를 언급한 학자들의 학설은 책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운 조문, 변통되는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각각 근거를 달리하여 논의가 서로 벗어나고 평소 사용하는 일상의 법도에 대하여는 빠뜨린 점이 있는 것을 평소 안타까워하였다고 하며 본서의 저술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례』를 위주로 하여 경전(經傳)과 제자(諸子) 문집에서 아울러 채집하여 종류별로 붙여 보여 상례와 변례의 절차를 모두 살필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은 ‘안(案)’자를 써 넣었다고 하는 등 본문의 구성 방식에 대한 사실을 서술하였다. 류장원이 본서를 처음 저술하였을 당시에는 모두 22권이였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문중(門中)의 후손인 류건휴(柳健休), 류휘문(柳徽文)이 교정을 보면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완하였는데 류정문(柳鼎文)과 그리고 류치명도 교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병원이 10년 동안 교감하여 총목을 포함한 30권 16책이 완성되었고 류휘문이 안동의 황산사(黃山寺)에 있으면서 『상변통고』를 간행하였다. 류장원이 남긴 저서로는 문집인 『동암집(東巖集)』과 『계훈유편(溪訓類編)』, 『호서유편(湖書類編)』, 『사서찬주(四書纂註)』 등이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30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1은 총목(總目)으로 가장 먼저 이병원의 서문과 류치명의 발문이 실려있으며, 다음으로 「범례(凡例)」, 「인용서목(引用書目)」, 「선유성씨(先儒姓氏)」, 「가례서(家禮序)」, 「이천례서(伊川禮序)」, 「예총론(禮總論)」, 그리고 30권의 전체 목차를 권차(卷次)를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책2는 권1~권2, 책3은 권3~권4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통례(通禮)」로 의복, 음식, 인사 등 일상적인 의례에 대한 내용이다. 책4는 권5 「관례(冠禮)」로 성년 의례, 권6 「혼례(婚禮)」로 혼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책5에는 권7~권8, 책6에는 권9~권10, 책7에는 권11~권12, 책8에는 권13~권14, 책9에는 권15~권16, 책10에는 권17~권18, 책11에는 권19~권20, 책12에는 권21~권22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상례(喪禮)」로 죽음과 관련한 의례에 대한 것이다. 책13에는 권23~권24와 책14에 수록된 권25는 모두 「제례(祭禮)」로 죽은 이에 대한 의례, 권26은 「향례(鄉禮)」로 향촌에서 사람을 대하는 의례를 담고 있다. 책15의 권27은 「학교례(學校禮)」로 학교의 의례, 권28은 「국恤례(國恤禮)」로 왕실의 초상을 맞아 행하는 의례에 대한 내용이다. 책16에는 권29~권30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가례고의(家禮考疑)」로 『가례』 중 어려운 고사와 명물(名物)에 대한 것을 서술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830년 목판으로 인쇄된 의례서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전하고 있다. 표지의 좌측에는 서명과 책차(冊次), 우측에는 각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항목을 기재해 두었다. 각 책의 마지막에 ‘안병선(安秉善)’의 인장이 찍혀 있어 그의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1830년에 간행된 『상변통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1-6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180.42-유장원상) 등에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시대를 관통한 주자(朱子)의 『가례』를 근본으로 서술하되 조선 사회에 맞게 변화되어 행해지던 의례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의례의 특징과 고유성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의례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학파에서 그들의 학설을 담은 의례서가 다수 편찬되었는데 본서도 그 가운데 하나로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의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임영현)

핵심어 류장원(柳長源), 류치명(柳致明), 이병원(李秉遠), 류건휴(柳健休), 류휘문(柳徽文), 가례(家禮)

참고문헌

류장원, 『상변통고』

류휘문, 『호고와선생문집(好古窩先生文集)』

상제의집록(喪祭儀輯錄)

KOL000055122

古5213-115

喪祭儀輯錄 / 金翊東(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哲宗 8(1857)跋]

6卷4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19.2 × 15.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7.5 × 19.6 cm

序: 李敦禹謹序

跋: 丁巳(1857)...裴克紹(1819-1871)謹書, 曹秉直

印: 松軒

1. 개요

『상제의집록(喪祭儀輯錄)』은 조선 후기 학자인 김익동(金翊東, 1793~1860)이 중국 송나라의 주자(朱子)가 저술한 『가례(家禮)』를 근본으로 하여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의례(儀禮)에 대한 학설을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 편찬한 책이다. 간행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김익동의 손자인 김정교(金正教)가 목판을 사용하여 6권 4책으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김익동의 본관은 청도(淸道), 자는 자익(子翼), 호는 직재(直齋)이다. 부친은 김귀옹(金龜翁), 모친은 이시린(李時麟)의 딸 고성이씨(高城李氏)이다. 1819년(순조 1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고향인 하양(河陽)에 은거하면서 사양정사(社陽精舍)를 지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저자인 김익동은 예를 행하는데 필요한 법도가 번잡해지고 변론(辯論)이 일치되지 않아 초학자들이 따르기 어려워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본서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의례 가운데 상례와 제례만을 다룬 것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므로 당황하여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본서의 편찬에는 배극소(裴克紹, 1819~1871)가 참여하였으며 1853년에 교정을 보았고 1857년에 교감하였지만 곧바로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김익동의 아들인 김덕흠(金勳欽, 1824~1894)이 류치엄(柳致儼, 1810~1876)과 이돈우(李敦雨, 1807~1884)에 교정을 부탁하였지만 이때에도 간행되지 못하였다. 김익동의 손자인 김정교가 조병직(曹秉直)을 발문을 받은 이후에야 간행되었는데 간행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김익동의 저서로 1908년 손자 김희교(金羲教)가 간행 『직재문집(直齋文集)』이 전하는데 본서도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서(序), 범례(凡例), 본문, 발(跋)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는 이돈우가 작성하였다. 범례는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본서의 서술 방식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범례 다음에 김익동이 편찬 배경에 대하여 밝힌 소지(小識)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

圖), 삼부팔도복지도(三父八母服之圖) 등 8개의 도식과 축문식(祝文式), 서소식(書疏式)이 차례로 이어진다. 총 6권의 본문은 책1에 권1 통례(通禮), 책2에 권2, 책3에 권3~권4, 책4에 권5~권6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2~권5까지는 상례(喪禮), 권6은 제례(祭禮)를 다루고 있다.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권1 통례는 사당(社堂)에 대한 것이다. 권2~권5의 상례는, 권2에서는 초종(初終)·습(襲)·소렴(小斂)·대렴(大斂)·성복(成服)·조석곡전(朝夕哭奠)·조전부(弔奠賻)·문상(聞喪), 권3에는 치장(治葬)·천구(遷柩)·조조(朝祖)·조전(祖奠)·유전(遣奠)·발인(發引)·급묘(及墓)·하관(下棺)·사후토(祠后土)·제목주(題木主)·반곡(反哭), 권4에는 우제(虞祭)·졸곡(卒哭)·부(祔)·소상(小祥)·대상(大祥)·담(禫)·길제(吉祭), 권5에는 개장(改葬)·거상잡의(居喪雜儀)·치부존장(致賻奠狀)·사장(謝狀)·위인부모망소(慰人父母亡疏)·부모망답인위소(父母亡答人慰疏)·위인조부모망장(慰人祖父母亡啓狀)·조부모망답인계장(祖父母亡答人啓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권6 제례는 사시제(四時祭)·기일(忌日)·묘제(墓祭)에 대한 내용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목판본(木板本)으로 인쇄 상태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그리고 1908년 김익동의 손자인 김희교가 간행한 김익동의 문집 『직재문집』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동일본(한古朝29-170)이 소장되어 있으며 영남대학교 도서관(古南 385.4-상제의), 미국 하버드 대학 연칭도서관(TK 562-8105), 한국국학진흥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권의 첫 면과 마지막 면에 인장 ‘송헌(松軒)’이 찍혀 있다.

5. 종합 평가

『상제의집록』은 의례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맞이하게 되는 상례와 제례에 대하여 주자 『가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설을 모으고 저자의 의견을 붙여 편찬한 책이다. 19세기 초에 『상변통고(常變通攷)』가 간행된 이후 영남 지역에서는 『상변통고』의 체제를 따른 예서가 다수 편찬되었으며 본서도 또한 그러한 경향 속에 편찬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임영현)

핵심어 김익동, 직재, 상례, 제례, 배극소, 김정교

참고문헌

김익동, 『직재문집』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예학총서』, 민족문화사, 2018.

상제집략(喪祭輯略)

KOL000047849

古5213-96

喪祭輯略 / 權舜經(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哲宗14(1863)

4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0.0 × 16.1 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3 × 20.7 cm

表題: 喪祭輯略

版心題: 喪祭輯略

序: 癸亥(1863)...金岱鎮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 학자인 권순경(權舜經, 1676~1744)이 사례(四禮, 관례·혼례·상례·제례) 가운데 상례를 중심으로 하되 제례를 덧붙여 저술한 책으로 철종 14(1863)년 그의 5대손인 권주신(權周新)과 권호신(權虎新)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예서 가운데 이재(李穡, 1680~1746)가 저술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비견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권순경의 본관은 안동, 자는 성칙(聖則), 호는 무와(無窩)이며 부친은 권시창(權是昌)이다. 숙종 39(1713)년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 26위로 합격하였으며 주계학사(周溪學舍)를 중건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밀암(密庵) 이재(李裁),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 등과 교유하였으며 저서로 『무와집(無窩集)』이 있다. 권순경이 본서를 저술하게 된 사유는 직접 쓴 지문(識文)에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는 예로부터 상례(喪禮)는 사례 가운데 가장 공손하게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정의가 심오하여 빠뜨리고 두루 통용되기 어려우며 갑자기 당하게 되는 일이므로 예법을 잘못 거행하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에 익혀두어야 실수가 없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제집략』을 저술하되, 옛 사람들의 저술에 기록된 예법과 상례의 주요점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수록하여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이미 김장생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가 있어 상례를 익혀서 상례를 거행하는데 참고하지만 보충하거나 생략해야 할 조목이 있으므로 본인은 상례를 위주로 하되 제례를 덧붙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상제집략』의 간행은 권순경의 5대손인 권주신과 권호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1863년 『상제집략』과 함께 권순경의 문집 『무와집』, 그의 동생 권순기(權舜紀, 1676~1744)의 『약계고(藥溪稿)』, 그리고 권순경의 차남 권흠(權愼, 1710~1748)의 『오헌고(梧軒稿)』를 엮어 간행한 『용천연고(龍川聯稿)』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서문(序文)-목록(目錄)-지문(識文)-본문(本文)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서문은 1863년 문소(聞韶) 김대진(金岱鎭, 1800~1871)이 작성한 것이다. 목록은 4권 2책의 총목(總目)이 권차(卷次)의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1741년 권순경이 직접 쓴 지문이 실려 있어 본서의 저술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조목은 주자 『가례(家禮)』를 모범으로 하면서 부설(附說)은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참고하였다. 권1~권3에 상례, 권4에 제례가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초종(初終) 15조, 습(襲) 30조, 소렴(小斂) 10조, 대렴(大斂) 5조, 권2에는 성복(成服) 79조, 분상(奔喪) 3조, 문상(聞喪) 7조, 객사(客死) 5조, 권3에는 치장(治葬) 39조, 초우(初虞) 20조, 재우(再虞) 1조, 삼우(三虞) 1조, 졸곡(卒哭) 1조, 부(祔) 23조, 소상(小祥) 11조, 대상(大祥) 13조, 담(禫) 14조, 길제(吉祭) 19조, 개장(改葬) 19조가 수록되어 있다. 상례는 『가례』의 「상례」 절목을 따르되 세부 절차를 종류별로 편집하여 절목을 간략화 하였다. 개장(改葬)·객사(客死)는 당시의 풍속을 반영한 것이다. 권4에는 시제(時祭) 22조, 기제(忌祭) 18조, 묘제(墓祭) 8조, 절일제(節日祭)·생일제(生日祭) 각 1조, 사당(祠堂) 9조, 종법(宗法) 3조, 심의(深衣) 9조가 수록되어 있다. 제례의 절일제와 생일제는 당시의 풍속을 반영한 것이며 시제의 지자위종자이제(支子爲宗子而祭), 기제의 행제어타소(行祭於他所), 묘제의 묘제시우국휼(墓祭時遇國恤) 등은 변례(變禮)로서 권순경이 평소 주변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풍부하게 기록해 두고 본서에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상제집략』은 건(乾)·곤(坤)으로 책의 순서를 구분하였는데, 표지의 우측 상단에 ‘용천(龍川)’이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다. 표지의 한자 서명 가운데 ‘상(喪)’자는 이체자로 기재하였는데, 김대진의 서문 ‘상제집략서(상제집략서)’, 권수제(卷首題)·판심(版心) 등에 기재된 ‘상’자도 모두 이체자이다. 본서는 1863년 『용천연고』와 함께 판각(板刻)되어 현재의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용산정(龍山亭)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표지에 기재된 용천은 『용천연고』의 서명과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본서와 『용천연고』는 권주신 등에 의하여 같은 시기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크기, 어미(魚尾) 등이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만 한 행(行)에 기재된 글자수는 본서는 19자, 『용천연고』는 18자로 다르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도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상제집략』을 간행할 때 사용한 목판이 『용천연고』 목판과 함께 현전하고 있다. 본서의 책판 크기는 세로×가로×두께가 26.8×48.1×5.6cm이며, 전체 66판 132면이다. 목판은 배나무, 목판의 양쪽에 있는 마구리는 소나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본서는 당시의 풍속과 국가 제도를 풍부하게 수록하였으며 다양한 학설을 인용하여 예법의 이론과 실재를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임영현)

핵심어 권순경(權舜經), 상례(喪禮), 제례(祭禮), 상제집략(喪祭輯略), 용천연고(龍川聯稿)

참고문헌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예학총서』, 민족문화사, 2018.

석씨원류(釋氏源流)

KOL000023729

한古朝21-121

釋氏源流 / 寶成(明) 撰

木板本(後刷)

楊州 : 佛岩寺, 顯宗 14(1673)

4卷8冊: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6.8 × 18.0 cm, 有界, 行字數不定,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4.6 × 23.0 cm

서명은 序題임

表題: 釋氏源流

御製序: 成化二十二年(1486)八月十五日

後跋: 時癸丑(1673)暮春下澣大覺登階處能謹跋

刊記: 康熙十二年癸丑(1673)秋京畿楊州地佛岩寺開刊

印: 萬機, 弘齋

1. 개요

『석씨원류(釋氏源流)』는 명나라 승려 보성(寶成)이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의 행적과 인도에서의 불교 역사를 서술한 『석가여래응화록(釋迦如來應化錄)』의 내용과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부터 원나라까지의 불교와 관련된 일화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판본을 저본으로 조선 현종(顯宗) 14(1673)년에 양주(楊州) 불암사(佛岩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서명인 『석씨원류』에서 ‘석씨’는 석가모니 부처를 포함한 불교 종단을 의미하며, ‘원류’는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석씨원류』라는 서명은 석가모니 부처 및 불교 종단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 즉,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와 불교의 역사를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석씨원류』는 명나라 승려 보성이 『석가여래응화록』 등의 책을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편찬자인 보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 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보성은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 출신으로 『석씨원류』를 편찬할 때에는 남경(南京)의 대보은사(大報恩寺)에 머물렀다고 한다. 보성은 대보은사에서 『석씨원류』 외에 북송(北宋) 승려 도성(道誠)이 편찬한 『석씨요람(釋氏要覽)』을 중간(重刊)하였다. 그 밖에 『석가여래응화록』도 저술하였다. 보성에 대해서는 이외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중국본 『석씨원류』에 수록한 보성의 발문(跋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책들은 다양하나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및 불교 종단의 일화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림과 함께 수록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에 명나라 성화제(成化帝, 1447~1487)가 지은 「어제석씨원류서(御製釋氏源流序)」, 당나라 왕발(王勃)이 지은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를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본문은 전체 400개의 이야기를 4권으로 구분하였다. 권 1에는 「석가수적(釋迦垂迹)」부터 「불화노지(佛化盧志)」까지 1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였고, 권 2에는 「빈공견불(貧公見佛)」부터 「사자전법(師子傳法)」까지 1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권 3에는 「제조유방(諸祖遺芳)」부터 「남파혜능(南派慧能)」까지 1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였고, 권 4에는 「조영육조(詔迎六祖)」부터 「담파국사(膽巴國師)」까지 1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조선 승려인 처능(處能, 1617~1680)이 지은 「석씨원류후발(釋氏源流後跋)」, 간행 관련 기록, 「홍도비구이고득락송(洪道比丘離苦得樂頌)」을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권 1~2의 이야기는 석사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그 이후의 불법 계승 등과 관련한 이야기이며, 권 3~4의 이야기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부터 원나라까지 여러 고승 및 불교와 관련된 일화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각 책의 앞부분에 여래설법도(如來說法圖)를 수록하였고 책 1, 4를 제외하고는 천룡경찬삼주호법위타천보안보살도(天龍慶讚三洲護法韋駄尊天普眼菩薩圖)도 수록하였다. 본문은 해당하는 이야기에 대한 변상도(變相圖)를 먼저 수록하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수록 방식은 같은 면 상단에 변상도, 하단에 이야기를 수록한 조선 숙종(肅宗) 37(1711)년 간행 고창(高敞) 선운사(禪雲寺) 판본과 차이를 보인다. 책 8의 본문 뒷부분에 중국에서 수입한 책을 바탕으로 간행하였음을 밝힌 발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시주자(施主者), 각수(刻手)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 부분에는 ‘강희십이년계축추경기양주지불암사개간(康熙十二年癸丑秋京畿楊州地佛岩寺開刊)’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현종 14(1673)년에 양주 불암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책의 앞표지 안쪽에는 인경(印經, 경판을 인쇄함)과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을 묵서(墨書)로 기록하였다, 책 8의 뒷표지 안쪽에는 ‘허부시(虛浮詩)’를 묵서로 기록하였다. 책 8의 「석씨원류후발」 뒷부분에는 ‘만기(萬機)’, ‘홍재(弘齋)’라는 인장이 찍혀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책을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판본으로 조선시대 서적 수입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만기(萬機)’, ‘홍재(弘齋)’라는 인장과 인경 불사에 상궁(尙宮)들이 참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왕실에서 발원한 불서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왕실 여성들의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석씨원류(釋氏源流), 보성(寶成), 석가모니(釋迦牟尼), 불교사(佛教寺), 불암사(佛岩寺)

참고문헌

- 이영종, 『『釋氏源流』와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普照思想』 제11집, 보조사상연구원, 1998.
- 송일기, 「禪雲寺板 <釋氏源流>의 刊行事實」,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석전선생유고(石田先生遺稿)

KOL000027737

한古朝45-가36

石田先生遺稿 / 成輅(朝鮮) 著

木板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孝宗 3(1652)跋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2 × 13.7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0 × 17.9 cm

序: 壬辰(1652)...李景奭

序: 鄭斗卿

1. 개요

본서는 조선 전기의 학자인 성로(成輅, 1550~1615)가 지은 시문(詩文) 및 여러 글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이다. 목판으로 간행한 목판본(木板本)으로 서문(序文)은 효종(孝宗) 3(1652)년에 쓰였는데, 이를 통해서 17세기 이후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명인 『석전선생유고』에서 ‘석전선생’은 성로의 호이고, ‘유고’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석전선생유고』라는 서명은 석전 성로가 생전 지은 글을 정리한 문집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석전선생유고』는 조선 전기의 학자인 성로가 지은 219편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 저자인 성로는 조선 전기의 학자로 문장으로 유명한 정철(鄭澈, 1536~1593)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자는 중임(重任)이며, 호는 석전, 삼일당(三一堂), 잠암(潛巖)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명종(明宗) 5(1550)년에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를 지낸 성영국(成永國)과 제용감부봉사(濟用監副奉事)을 지낸 최언청(崔彦淸)의 딸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20세에 정철의 문하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웠으며, 이듬해인 선조(宣祖) 3(1570)년에 진사시(進士試), 과거 시험 중 하나로 진사를 뽑는 시험으로 소위 소과라고 함)에 합격하여 진사 자격으로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다. 이 무렵에 스승인 정철이 당쟁(黨爭)에 휩쓸려 여러 차례 유배를 가는 것을 보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후에 사옹원참봉(司饔院參奉)과 제릉참봉(齊陵參奉) 등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많은 정철의 제자들이 당쟁으로 인하여 정철이 곤란을 당하자 안면을 바꿔서 시류에 따라갔으나, 성로는 의리를 지켜 은거하였다. 친우였던 권필(權韜, 1569~1612)이 세상을 떠나자, 자신이 지은 시문과 글을 거의 다 태워버리고 세상과 연을 끊었다. 광해군(光海君) 7(1615)년에 술에 취해서 누운 상태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성로는 효자로서도 유명하였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피난을 가는 중 노모가 눈병과 다리 통증으로 걷지 못하자 노모를 업어서 강화도까지 모시고 갔고, 강화도에서는 노모가 편하시도록 배를 빌려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석전선생유고』의 서문(序文)에는 『석전선생유고』 편찬 경위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는데, 서문에 의하면 성로는 자신이 지은 시문과 글을 대부분 스스로 불태워 버렸지만, 성로의 외손자인 조성후(趙成後)가 미처 태우지 못한 약간의 시문과 글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경석(李景奭, 1

595~1671)에게 교정을 부탁하여 문집으로 간행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 권 상, 권 하, 부록(附錄)으로 구분하였다. 서문은 2편을 수록하였다. 1편은 효종 3(1652)년에 이경석이 지었으며, 나머지 1편은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이 지었다. 권 상에는 성로가 지은 시(詩) 가운데 오언절구(五言絶句) 40편과 칠언절구(七言絶句) 99편 총 139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권 하에는 성로가 지은 시 가운데 오언율시(五言律詩) 37편, 칠언율시(七言律詩) 22편, 오언배율(五言排律) 2편, 오언고시(五言古詩) 13편, 칠언고시(七言古詩) 5편, 전(傳) 1편 총 80편의 시와 글을 수록하고 있다. 부록(附錄)으로 이경석이 지은 성로의 행장(行狀)인 「성석전선생행장(成石田先生行狀)」, 장유(張維, 1587~1638)가 지은 성로의 제문(祭文)인 「석전선생제문(成石田先生祭文)」, 이정구(李廷龜, 1564~1635)가 지은 만사(輓詞), 여이징(呂爾徵, 1588~1656)이 지은 성로의 딸인 창녕성씨(昌寧成氏)의 행장인 「유인성씨행장(孺人成氏行狀)」을 수록하였다.

수록한 글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야사(野寺)」와 「월야(月夜)」는 주변의 풍경을 보고 즉흥적으로 지은 시로 주위 환경과 경치 잘 표현한 시문이며, 「추야(秋夜)」, 「등석(燈夕)」, 「추사(秋思)」는 불우한 자신의 신세를 주위환경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문이다. 이처럼 성로는 시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신희(申欽, 1566~1628)은 자신의 저서 『청창연담(淸窓軟談)』에서 성로의 시가 청고(淸苦) 즉 아주 괴로울 정도로 많다고 평하였다. 본서에 수록한 유일한 산문인 「잠암전(潛巖傳)」은 자서전 격인 글로 자신의 불행을 탄식하는 글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석전유고(石田遺稿)’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서문의 경우, 저자의 필적을 그대로 살려서 행초서(行草書)로 판각하였다. 이경석의 서문에는 작성한 연대를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본서가 효종 3(1652)년 이후에 간행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서문의 뒷부분에는 신희의 『청창연담』에 수록한 성로의 시문평(詩文評)을 먹으로 써 놓은 것이 특징적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성로가 지은 여러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전기 학자였던 성로의 행적과 교유 관계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부록인 「성석전선생행장」의 경우, 성로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의 유일한 사료라는 점에 성로의 생애 및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외손자인 조성후가 외할아버지인 성로의 문집 간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통해서 당대 사회상을 알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석전선생유고(石田先生遺稿), 성로(成輅), 문집(文集), 목판인쇄(木板印刷)

참고문헌

신희, 『상촌선생집(象村先生集)』

석탄선생문집(石灘先生文集)

KOL000026264

古朝44-가55

石灘先生文集 : 附錄 / 李愼儀(朝鮮)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純祖 1(1801)序

4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2.0 × 15.9 cm, 10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9 × 20.4 cm

序: 崇禎甲申後再甲戌(1754)...尹鳳九

跋: 崇禎後三辛酉(1801)...宋煥箕

印: 恩津宋煥箕印

1. 개요

조선 중기의 문인인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 1551~1627)의 시문집이다. 순조 1(1801)년 후손 이지일(李志逸)이 편집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신의의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경칙(景則), 호는 석탄(石灘)이다. 선조 15(1582)년에 천거되어 예빈시봉사(禮賓寺奉事)가 되고 1584년 참봉 및 종묘서봉사(宗廟署奉事)를 지냈다. 1592년 왜구와 싸워 공을 세우기도 하였고, 이후 사옹원직장(司饗院直長)과 공조좌랑·고부군수(古阜郡守)를 거쳐 임천군수(林川郡守), 남원(南原)·홍주(洪州)·해주(海州) 목사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때 회령(會寧)에 유배되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와 임조 5(1627)년 형조참의·형조참판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정묘호란으로 왕을 호종하던 도중 병사했다.

본서의 권말에 수록된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발문에는 편찬 경위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송환기는 우암 송시열의 후손으로, 일전에 석탄 이신의의 신도비명을 써준 일이 있다. 두 집안의 교유가 대대로 이어져 본서의 발문을 부탁받았다고 하였다. 이지일의 선조인 무하옹(無何翁) 이원손(李元孫, 1498~1554)의 문집 『무하옹집(無何翁集)』을 간행하며 본서를 함께 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구성 및 내용

제1책 권수에는 윤봉구(尹鳳九)의 서문과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 시 1수, 소(疏) 2편, 서(書) 43편, 잡저 2편, 제문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정사헌의(丁巳獻議)」는 1617년(광해군 9)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여 올린 것이다. 「재이후응지봉사(災異後應旨封事)」는 형조참판에 재임할 때 재변(災變)에 대한 임금의 자문에 응하여 올린 문서로, 12조항에 걸친 국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서에는 유근(柳根)·심종도(沈宗道)·이유간(李惟侃)·정홍명(鄭弘溟)·김장생(金長生) 등 문인 및 지인과 주고 받은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차록(筭錄)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차록에는 『대학』과 『가례』 관련 의문점에 대한 선현들의 학설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글이 수

록되어 있다. 제2책 권3·4는 부록으로, 저자가 괴산현감·해주목사 등에 재임하던 중 임금이 그의 선정을 치하하여 내린 4편의 교서(敎書), 1628년(인조 6)의 사제문(賜祭文), 송시열(宋時烈)·이이명(李爾命) 등이 지은 연보·신도비명(神道碑銘)·묘지명, 고양(高陽) 유생을 대표한 홍계적(洪啓迪)이 문봉서원(文峯書院)에 그를 제향할 것을 청원한 「고양장보추향문봉서원소(高陽章甫追享文峯書院疏)」 및 시장(諡狀)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송환기의 발문이 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表題)는 ‘석탄집(石灘集)’, 권수제 및 판심제는 ‘석탄선생문집(石灘先生文集)’이다. 표제 하단에는 ‘건(乾)·곤(坤)’으로 책차(冊次)가 필사되어 있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필사되어 있다. 각책 제1면 우측하단에는 ‘은진송환기인(恩津宋煥箕印)’가 찍혀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중기 인물인 이신의의 유문을 수집하여 조선 후기에 간행한 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서각 등에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자칫하면 민멸될 위기에 놓인 유문을 모아 보존한 문중의 노력이 엿보이는 자료이다. 차록의 글은 경학(經學) 및 예제(禮制)를 연구하는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된다. 각책 제1면 우측하단의 인장 ‘은진송환기인(恩津宋煥箕印)’을 통하여 본서의 발문을 쓴 송환기의 수택본임을 알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석탄선생문집(石灘先生文集), 이신의(李愼儀)

선교석(禪教釋)

KOL000023745

한古朝21-139

禪教釋 / 休靜(朝鮮) 著

木板本

海南 崑崙山 : 大興寺, 仁祖 20(1642)

不分卷1冊(24張): 四周單邊 半郭 18.3 × 13.3 cm, 無界, 6行12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1 × 18.8 cm

附: 禪教訣

版心題: 禪教釋, 禪教訣

刊記: 崇禎十五年歲次壬午(1642)仲春日全羅道海南地崑崙山大興寺開刊

1. 개요

『선교석(禪教釋)』은 조선 승려 휴정(休靜, 1520~1604)이 제자인 행주(行珠), 유정(惟政, 1544~1610), 보정(寶鼎)에게 선(禪)과 교학(敎學)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분별하여 설명한 불서이다. 본서에는 휴정이 저술한 『선교결(禪教訣)』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인조(仁祖) 20년(1642)에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서 목판(木板)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서명인 『선교석』은 선과 교학의 변석(辨釋) 즉, 선과 교학의 특징과 차이점을 통하여 해석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선교석』을 저술한 휴정은 서산대사(西山大師)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승려이다. 속성(俗姓, 승려가 되기 전의 성씨)은 최씨이고 본관(本貫)은 완산(完山)이다. 어린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중종(中宗) 29(1534)년에 진사시(進士試, 과거 시험 중 하나로 진사를 뽑는 시험으로 소위 소과라고 함)에 낙방한 후 지리산으로 들어가 출가하였다. 그 후 각지의 사찰을 돌며 수행하다가 명종(明宗) 7(1552)년에 부활한 승과(僧科, 스님을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제도)에 급제하여 대선(大禪), 양종판사(兩宗判事)를 역임하였다. 명종 12(1557)년에 역임했던 모든 승직(僧職)을 버리고 다시 여러 사찰을 돌며 수행 및 제자 양성에 힘을 썼다. 선조(宣祖) 25(1592)년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승병(僧兵)을 일으켰다. 그 후 제자들과 함께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써 활약하다가 선조 37(1604)년에 묘향산(妙香山)에서 입적하였다. 휴정은 『선교석』 외에도 『선교결』, 『선가귀감(禪家龜鑑)』, 『설선의(說禪儀)』 등의 다양한 저서를 남겼다.

본서의 본문에 의하면 휴정이 묘향산 금선대(金仙臺)에 머물 때, 제자인 행주, 유정, 보정이 『금강오가해(金剛五家解)』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선(禪)의 종지(宗旨, 근본이 되는 가르침)가 있는지, 또한 『금강오가해』의 반야(般若, 지혜)를 종지로 삼아도 되는지 묻자 이에 대해서 선과 교학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하며 후에 이 내용을 책으로 편찬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선교석』의 본문은 묻고 답하는 문답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질문 부분은 문장의 첫머리에 ‘문(問)’이라고 기록하였고, 답변 부분은 문장의 첫머리에 ‘답(答)’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작은 글씨로 답변 부분의 출전(出典)을 밝히고 있다. 『선교석』의 본문 뒷부분에는 선조 19(1586)년에 쌍익(雙翼)이 글씨를 쓴 발문(跋文)이 있는데, 다른 책의 발문과 다르게 선학자(禪學者)와 교학자(敎學者) 50명이 모여서 토론한 내용을 발문으로 삼았다. 『선교석』의 뒷부분에는 부록으로 『선교결』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 뒷부분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수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휴정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선과 교학의 차이를 각종 불서들을 근거하여 설명하고, 선이 교학보다 우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선교석』 본문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불서와는 다르게 해서(楷書)가 아닌 행초서(行草書)로 간행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선교결』의 뒷부분에 ‘송정십오년세차임오중춘일전라도해남지곤륜산대흥사개간(崇禎十五年歲次壬午仲春日全羅道海南地崑崙山大興寺開刊)’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인조 20(1642)년에 해남 곤륜산(崑崙山) 대흥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주자(施主者), 각수(刻手)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흥사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계선(界線, 각 행 사이에 그어진 선)이 없는 무계본(無界本)이지만, 『선교결』 뒷부분 일부에 계선이 나타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시대 휴정의 선과 교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휴정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발문에 선학자와 교학자들이 등장하여 토론하는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시대 불교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옥영정)

핵심어 선교석(禪敎釋), 선교관(禪敎觀), 휴정(休靜), 교리서(敎理書)

참고문헌

- 고영섭, 「淸虛 休靜의 禪敎 이해」, 『佛敎學報』 제7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 김호귀, 「조선중기 선교관의 변천과 특징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0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 정광균, 「청허 휴정의 선풍과 계승」, 『불교와 사회』 제12권 제2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20.

선부초평주해산보(選賦抄評註解刪補)

KOL000009552

古3714-2

選賦抄評註解刪補. 卷1-10 / 蕭統(梁) 撰

木板本

[刊寫地不明] : [刊寫者不明], [刊寫年不明]

10卷6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0.9 × 14.5cm, 有界, 11行23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一部 上下內向黑魚尾) : 29.5 × 18.5cm

表題: 文選賦 ((仁)·(義)·(禮)·(智)·(信)·(文選賦))

版心題: 選賦

內容: 冊1(卷1), 冊2(卷2-3), 冊3(卷4-5), 冊4(卷6-7), 冊5(卷8-9), 冊6(文選賦)

1. 개요

『선부초평주해산보(選賦抄評註解刪補)』는 소통(蕭統, 501~531)이 편찬한 문헌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南朝) 양(梁)의 소명태자(昭明太子)가 편찬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인 『소명문선(昭明文選)』 가운데서 ‘부(賦)’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하여 수록한 문헌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는 성은 소(蕭), 자는 덕시(德施), 이름은 통(統)이다. 중국 남조 양나라의 제1대 왕인 무제(武帝) 소연(蕭衍)의 아들이다. 501년 소연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502년 소연이 양나라를 세우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성인이 된 뒤에는 국정에 참여해 어진 정치를 펼쳐 백성들과 관리들의 신망을 받았다.

『소명문선』은 소명태자 소통이 진(秦)·한(漢) 이후 제(齊)·양(梁)대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어 편찬한 문집이다. 내용이 30권 38류로 되어있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부’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하여 『선부초평주해산보』를 편찬하게 되었다. 대체로 명(明) 임조하(林兆河)가 편찬한 『선시약주(選詩約註)』 등의 체례(體例)를 따른 듯하다.

3. 구성 및 내용

『선부초평주해산보』는 10권 6책의 목판본이다. 목록은 권1에 굴원(屈原)의 「이소경(離騷經)」, 반고(班固)의 「서도(西都)」, 「동도(東都)」, 장형(張衡)의 「南都賦」, 권2에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 권3에 「촉도(蜀都)」, 「오도(吳都)」, 「위도(魏都)」, 권4에 「감천(甘泉)」, 「적전(籍田)」, 「자허(子虛)」, 「상림(上林)」, 「우렵(羽獵)」, 「장양(長楊)」, 「사치(射雉)」, 권5에 「북정(北征)」, 「동정(東征)」, 「서정(西征)」, 「등루(登樓)」, 「천태산(天台山)」, 「무성(蕪城)」, 「추흥(秋興)」, 「설(雪)」, 「월(月)」, 「붕(鵬)」, 「앵무(鸚鵡)」, 「초료(鸚鵡)」, 「저백마(楮白馬)」, 「무무학(舞鶴)」, 권6 「유통(幽通)」, 「사현(思玄)」, 「장문(長門)」, 「탄서(歎逝)」, 「과부(寡婦)」, 「한(恨)」, 「별(別)」, 「문(文)」에 이르기까지는 『문선』의 순서를 따라 작품을 나열한 것이다. 다시 권7에서는 「금(琴)」, 「笙(笙)」, 「소(嘯)」, 「신녀(神女)」, 「호색(好色)」, 「낙신(洛神)」 등의 부(賦)에 뒤이어 공치규(孔稚珪)의 북산이문(北山移文)과 도연경(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가 있

다. 권8에는 『문선』의 권34, 35에 칠(七)이란 문체(文體)로 분류되어 실려있는 매승(枚乘)의 「칠발(七發)」과 조식(曹植)의 「칠계(七啓)」, 장협(張協)의 「칠명(七命)」이 있고, 권9는 부록(附錄)으로 『문선』에는 들어있지 않는 유신(庾信)의 「애강남(哀江南)」과 왕발(王勃)의 부자묘(夫子廟)가 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의 표지 서명 아래 해당 권수를 알아볼 수 있게 권별로 ‘인(仁)’(권1), ‘의(義)’(권2-3), ‘예(禮)’(권4-5), ‘지(智)’(권6-7), ‘신(信)’(권8-9), ‘문선부(文選賦)’(초사보증(楚辭補增))을 작성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외에도 목판본 3책본(동곡고3745-1), 필사본(우산고3745-2), 목판본(古朝44-나16) 등이 소장되어있는데 본서와 동곡고3745-1이 형태사항을 비교하였을 때 동일판으로 보인다.

5. 종합평가

『선부초평주해산보(選賦抄評註解刪補)』의 편찬시기를 알 수 없으나, 중국 양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가 편찬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인 『昭明文選』에서 ‘부(賦)’ 작품들을 모아 편찬하였다. 의미가 크다. 『선부초평주해산보』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고 있는데, 본 해제 문헌은 필사본이 아닌 지방관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다희)

핵심어 초사(楚辭), 초사집주(楚辭集注), 이소경(離騷經)

참고문헌

賈捷. 「조선간 『선부초평주해산보』인 『초사』 각편지고실」.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성리관규(性理管窺)

KOL000021422

한古朝17-13

性理管窺 / 蔡之洪(朝鮮) 著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英祖 14(1738)

4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2.2 × 14.9 cm, 10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4 × 19.0 cm

表題: 性理管窺

版心題: 性理管窺

性理管窺序: 崇禎再戊午(1736)十月日仁川蔡之洪序

印: 洪氏直弼伯應

1. 개요

본서는 조선후기 학자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경서 가운데 성리(性理)에 관한 여러 설을 뽑아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영조 14(1738)년에 4권 2책의 목활자본으로 인출한 유학서이다. '관규(管窺)'는 '관중규표(管中窺豹)'의 약어로서 대롱구멍으로 표범의 털 무늬를 보는 것과 같이 식견의 좁음을 비유한 겸사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채지홍은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군범(君範), 호는 봉암(鳳巖)·삼환재(三患齋)·봉계(鳳溪)·사장과(舍藏窩)이다.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권상하가 살던 충청도 청풍(淸風) 황강(黃江)의 제자를 뜻하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의 한 사람으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외암(巍巖) 이간(李柬),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등과 교류하였다.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고 지행(知行)에 힘썼다. 재학(才學)과 지행(志行)으로 여러 차례 천거되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한 후 구운산(九雲山)에 은거하며 학문 정진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연구에 매진하여 이기(理氣)의 은미함과 현저함, 성명(性命)의 본말(本末),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절, 천하 고금의 치란(治亂)의 변천 등으로부터 성상(星象), 지리(地理), 산수(筭數)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한원진과 함께 호론(湖論)에 속했으며, 『봉암집(鳳巖集)』, 『성리관규(性理管窺)』, 『세심요결(洗心要訣)』, 『독서전보(讀書填補)』, 『천문집(天文集)』 등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후학들이 성리학을 연구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서들 중에 성리와 관련된 것과 오선생의 이기설(理氣說)을 선별하고, 선현의 주석과 자신의 사견을 첨부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는 채지홍의 자서, 「성리관규초록제서명(性理管窺鈔錄諸書名)」, 목록이 있다. 「성리관규초록제서명」은 본서에서 참고한 서적들에 관한 기록으로 역(易), 서(書), 시(詩), 논(論), 학(學), 용(庸), 맹(孟) 등 사서삼경과 『예기』 등 서적에 대

한 간략한 소개와 주자(周子, 주돈이)·정자(程子, 정호·정이)·장자(張子, 장재)·주자(朱子, 주희) 등 송대(宋代) 오선생의 인적사항과 저서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채지홍이 기존에 전개된 성리에 관한 설을 이(理), 기(氣), 이기선후설(理氣先後說), 심(心), 심위기변(心爲氣辨) 등 12항목으로 나누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각 권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은 「태극(太極)」·「음양오행(陰陽五行)」, 권2는 「이기(理氣)」·「화육인물(化育人物)」·「천명지성(天命之性)」 상, 권3은 「천명지성」 하, 「기질지성(氣質之性)」, 권4는 「심(心)」에 대한 내용이다.

책의 내용은 각 권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 내용을 경전에서 채록하였다. 아울러 중간중간 또는 마지막에 ‘근안(謹按)’을 부기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홍씨직필백응(洪氏直弼伯應)’의 장서인을 통해 홍직필(1776~1852)의 수택본임을 알 수 있다. 홍직필은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홍공필(洪兢弼),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 호는 매산(梅山)이다. 박윤원(朴胤源)을 사사하였고, 오희상(吳熙常)과 교분이 두터웠다. 기호학맥의 낙론을 계승한 인물로, 임헌회(任憲晦)·조병덕(趙秉德)·소휘면(蘇輝冕) 등 기호학계의 비중있는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18세기 이후 전개된 호락논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호론(湖論)에 속한 채지홍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성리관규(性理管窺), 채지홍(蔡之洪), 권상하(權尙夏), 홍직필(洪直弼), 호락논쟁(湖洛論爭)

성명오대가율시초(盛明五大家律詩抄)

KOL000009562

일산古3715-62

盛明五大家律詩抄 / [編著者不明]

金屬活字本(初鑄韓構字)

[漢城] : [發行處不明], [17世紀]

2卷1冊(缺本, 全4卷3冊) : 四周雙邊 半郭 21.0 × 12.6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3
葉花紋魚尾 ; 26.8 × 16.5 cm

表題: 皇明五大家律詩抄

目錄題: 皇明五大家律詩抄

1. 개요

『성명오대가율시초(盛明五大家律詩抄)』는 명나라의 문인인 이몽양(李夢陽, 1472~1529), 하경명(何景明, 1483~1521), 이반룡(李攀龍, 1514~1570), 왕세정(王世貞, 1526~1590), 오국륜(吳國倫, 1524~1593) 5인의 시 가운데 뛰어난 것들을 뽑아서 편찬한 시선집(詩選集)이다. 본서는 금속활자(金屬活字)인 초주한구자(初鑄韓構字)로 간행한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다.

서명인 『성명오대가율시초』에서 ‘성명’은 명나라를 의미하고, ‘오대가’는 명나라의 문인 5명 즉 이몽양, 하경명, 이반룡, 왕세정, 오국륜을 의미한다. ‘율시초’는 율시(律詩, 한시 형식의 하나로 8구로 된 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뽑았다는 의미로 정리하자면 『성명오대가율시초』라는 서명은 명나라 문인 5명의 율시를 뽑아서 모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서명과는 다르게 본문에는 율시 외에 절구(絶句, 한시 형식의 하나로 4구로 된 시) 등도 수록하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성명오대가율시초』에 수록한 시를 지은 5명의 문인은 이몽양, 하경명, 이반룡, 왕세정, 오국륜으로 이들은 소위 명나라 전후칠자(前後七子, 명나라에서 글솜씨가 뛰어난 명나라 전기 7명, 명나라 후기 7명의 문인들을 가리키는 명칭)에 속하는 뛰어난 문인들이다. 각각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몽양은 명나라 전기의 문인으로 소위 명나라 전칠자(前七子) 중 한명이다. 자는 헌길(獻吉), 호는 공동자(空同子)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후에 곧은 성품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다. 문학계에서는 복고주의를 주창하였다. 하경명은 명나라 전기의 문인으로 소위 명나라 전칠자 중 한명이다. 자는 중묵(仲默), 호는 대복(大復)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학계에서는 이몽양과 동일하게 복고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반룡은 명나라 후기의 문인으로 소위 명나라 후칠자(後七子) 중 한명이다. 자는 우린(于鱗)이고 호는 창명(滄溟)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후 여러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났다. 문학계에서는 명나라 전칠자의 복고주의를 계승하였다. 왕세정은 명나라 후기의 문인으로 소위 명나라 후칠자 중 한명이다. 자는 원미(元美)이고 호는 봉주(鳳洲) 또는 엄주산인(弇州山人)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병부상서(兵部尙書)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문학계에서는 명나라 전칠자의 복고주의를 계승하였지만, 당송시대를 넘어서 육조(六朝)시대의 시까지 수용하였다. 오국륜

은 명나라 후기의 문인으로 소위 명나라 후철자 중 한명이다. 자는 명경(明卿)이고 호는 천루(川樓) 또는 남악산인(南岳山人)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권신(權臣)들의 눈 밖에 나서 파직과 복직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문학계에서는 명나라 전철자의 복고주의를 계승하였다.

본서에는 편찬 경위 및 배경을 밝힌 서발문(序跋文)이 없어서 정확한 편찬자 및 편찬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성명오대가율시초』을 간행한 활자가 초주한구자라는 점에서 편찬 과정에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성명오대가율시초』는 본래 4권 3책의 구성이나 본서는 2책이 현전하지 않는다. 현재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2권 1책으로 본문은 권 1상, 권 1하, 권 2상과 같이 1권을 상하로 나눈 형태이다. 각 권의 앞에는 각각 목록(目錄)을 수록하였다. 각 권의 목록에는 수록하고 있는 시의 종류 및 저자, 수록한 시의 수량을 표시하였다. 본문을 살펴보면, 권 1상에는 오언절구(五言絶句) 총 121수를 수록하였다. 저자별로 살펴보면, 이몽양의 오언절구 18수, 하경명의 오언절구 19수, 이반룡의 오언절구 16수, 왕세정의 오언절구 38수, 오국륜의 오언절구 13수를 수록하였다. 권 1하에는 칠언절구(七言絶句) 총 213수를 수록하였다. 저자별로 살펴보면, 이몽양의 칠언절구 24수, 하경명의 칠언절구 34수, 이반룡의 칠언절구 57수, 왕세정의 칠언절구 83수, 오국륜의 칠언절구 15수를 수록하였다. 권 2상에는 오언율시(五言律詩) 총 141수를 수록하였다. 저자별로 살펴보면, 이몽양의 오언율시 65수, 하경명의 오언율시 76수를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없는 권 2하, 권 3상, 권 3하, 권 4상, 권 4하에 수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권 2하에는 이반룡의 오언율시 31수, 왕세정의 오언율시 95수, 오국륜의 오언율시 88수 총 214수를 수록하였다. 권 3상에는 이몽양의 칠언율시(七言律詩) 61수, 하경명의 칠언율시 79수, 이반룡의 칠언율시 71수 총 211수를 수록하였다. 권 3하에는 왕세정의 칠언율시 98수, 오국륜의 칠언율시 116수 총 214수를 수록하였다. 권 4상에는 이몽양의 오언배율(五言排律) 9수, 하경명의 오언배율 9수, 이반룡의 오언배율 7수, 왕세정의 오언배율 27수, 오국륜의 오언배율 12수 총 64수를 수록하였다. 권 4하에는 이몽양의 칠언배율(七言排律) 2수, 하경명의 칠언배율 2수, 이반룡의 칠언배율 2수, 왕세정의 칠언배율 8수, 오국륜의 칠언배율 2수 총 16수를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지 서명과 목록 서명이 권수 및 권말에 있는 서명과 차이를 보이는데, 표지와 목록에는 ‘황명오대가율시초(皇明五大家律詩抄)’라는 서명을 수록하였다. 본서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 없지만, 본서를 간행한 활자가 초주한구자라는 점과 초기 초주한구자 간행본인 『행군수지(行軍須知)』 등과 형태적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서 17세기 특히 17세기 후반에 간행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5명의 명나라 문인 이몽양, 하경명, 이반룡, 왕세정, 오국륜의 시를 뽑아서 정리한 시선집으로 조선 후기 명나라 문학의 수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또한 중국 문학서의 국내 유통 양상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본서를 금속활

자인 초주한구자로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금속활자 간행 양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옥영정)

핵심어 성명오대가율시초(盛明五大家律詩抄), 전후칠자(前後七子), 시선집(詩選集), 초주한구자(初鑄韓構字)

참고문헌

김건곤, 「藏書閣本 『古文百選』 研究」, 『藏書閣』 제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임규완, 「張混 編 『詩宗』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7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최은주, 「朝鮮後期 詩文選集에 나타난 明代 文學의 수용 양상」, 『東方漢文學』 제24집, 동방한문학회, 2003.

성학집요(聖學輯要)

KOL000014509

일산古1252-45

聖學輯要 : 并筭字 / 李珥 著

金屬活字本(戊申字)

[漢城] : [校書館], 肅宗22(1696)

13卷7冊(完帙)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4.7 × 17.3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
花紋魚尾 ; 34.7 × 22.7cm

表題: 聖學輯要 (乾)·(坤)

版心題: 聖學

序: 萬曆三年歲次乙亥(1575)...李珥

內賜記: 康熙三十五年(1696)十二月十九日內賜侍講院進書權尙夏...右承旨臣尹[手決]

印: 宣賜之印

1. 개요

『聖學輯要』는 1575년(선조 8) 조선의 문신이자 성리학자 율곡 이이(李珥, 1536~1584)이 저술한 정치, 철학저서이다. 본 해제 대상은 숙종 22(1696)년에 금속활자인 무신자(戊申字)로 간행한 서적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이의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숙헌(淑獻), 호는 율곡(栗谷), 석담(石潭), 우재(愚齋),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1536년 오죽헌에서 아버지 이원수李元秀와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외가가 있던 강릉이고, 고향은 파주 율곡으로, 그는 율곡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여 13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한 이래 모두 아홉 번의 과거에 합격하고 그중 일곱 번 장원하였다. 평생 학문과 저술에 힘쓰며 제왕의 지침서인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저술하는데, 성학집요의 서문에 의하면, 본 문헌은 사서와 육경에 씌어 있는 도(道)의 개략을 추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사서육경은 너무 방대해 거기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길을 잃기 십상일 것이므로 그 중에서 핵심을 추출, 한데 엮어 놓음으로써 도를 향해 가는 길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大學)』의 본뜻을 좇아서 성현(聖賢)들의 말을 차례(次例)대로 실어 인용(引用)하고 설명(說明)을 붙인 책이었다. 이에 이이는 이 책을 제왕(帝王)의 학(學)을 위해 선조에게 지어 바쳤다.

3. 구성 및 내용

『성학집요』는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에 씌어 있는 도(道)의 개략을 추출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다. 권1은 진차(進筭)·서(序)·범례·목록도(目錄圖) 등과 단장(單章)으로 된 통설로 되어 있고, 권2는 수기편(修己篇) 상으로 총론수기장(總論修己章)·입지장(立志章)·수렴장(收斂章)·궁리장(窮理章) 등의 4장, 권3은 수기편 중으로 성실장(誠實章)·교기질장(矯氣質章)·양기장(養氣章)·정심장(正心章)·검신장(檢身章)의 5장, 『성학집요』 권4는 수기편 하로 회덕량장(恢德量章)·

보덕장(輔德章)·돈독장(敦篤章)·수기공효장(修己功效章) 등, 권5는 정가편(正家篇)으로 총론정가장(總論正家章)·효경장(孝敬章)·형내장(刑內章)·교자장(教子章)·친친장(親親章)·근엄장(謹嚴章)·절검장(節儉章) 등, 권6은 위정편(爲政篇) 상으로 총론위정장(總論爲政章)·용현장(用賢章) 등, 권7은 위정편 하로 취선장(取善章)·식시무장(識時務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8은 성현도통장(聖賢道統章)이 단장(單章)으로 실려 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에는 간기(刊記, 간행 기록)는 없지만 1696년에 시강원(侍講院) 진서(進書) 권상하(權尙夏)에게 내사한 당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696년을 간행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인장은 ‘내사기(內賜記)’와 ‘선사지인(宣賜之印)’이 답인되어있다. 각 책의 표지 서명은 ‘성학집요’로 묵서되어 있고 서명 하단에는 책의 순서를 매겨두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각 책에 수록된 편명을 기술해두었다.

5. 종합평가

『성학집요』는 숙종 22(1696)년·영조 8(1732)년·영조 35(1759)년 등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696년에 간인하여 시강원(侍講院) 진서(進書) 권상하(權尙夏)에게 내사한 당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내사기(內賜記)와 내사인인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잘 남아 있다. 『성학집요』는 『성학십도』와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다희)

핵심어 율곡전서(栗谷全書), 성학십도(聖學十圖), 성리학(性理學)

참고문헌

이정효. 「『聖學輯要』 간행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58, 한국서지학회, 2014.

소석유고(小石遺稿)

KOL000008549

일산古3648-72-22

小石遺稿 / 趙秉夔(朝鮮) 著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發行處不明], 高宗 5(1868)跋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1.5 × 14.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32.1 × 10.7 cm

跋: 戊辰(1868)...[趙]寧夏

1. 개요

『소석유고(小石遺稿)』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조병기(趙秉夔, 1821~1858)가 지은 여러 글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文集)이다. 본서는 금속활자인 전사자(全史字)로 간행한 판본으로 19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명인 『소석유고』에서 ‘소석’은 조병기의 호이고, ‘유고’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석유고』라는 서명은 소석 조병기가 생전 지은 글을 정리한 문집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소석유고』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조병기가 지은 글 가운데 126편를 모아서 편찬한 문집이다. 저자인 조병기는 조선 후기에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병조판서(兵曹判書),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자는 경주(景胄)이며, 호는 소석이다.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 1776~1846)과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아들로 조선 순조 21(1821)년에 태어났다. 후에 작은아버지인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의 양자로 들어갔다. 헌종 11(1845)년에 문과(文科, 과거 시험 중 하나로 문관을 뽑는 시험)에 급제하였다. 그 이후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이조참의(吏曹參議), 이조참판(吏曹參判),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형조참판(刑曹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 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철종 8(1857)년에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가 승하하였을 때, 빈전도감(殯殿都監, 조선시대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에서 관을 모시는 전각인 빈전(殯殿)의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는 임시 관청)의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提調)를 맡았으나 빈전도감에 화재가 일어나자 그 책임을 지고 파직 당하였다. 곧바로 다시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복직하였다. 그 이듬해인 철종 9(1858)년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년에 급진개화파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 때 피살당한 대신인 조영하(趙寧夏, 1845~1884)이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소석유고』의 발문(跋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영하가 쓴 발문에 의하면 아버지인 조병기가 양할아버지인 조인영의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자신이 아버지의 숙원인 양할아버지의 문집을 간행하고,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문집도 함께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권 1 목록(目錄), 권 1, 권 2 목록, 권 2, 발문으로 구분하였다. 권 1 목록에는 권 1에 수록한 글의 종류 및 제목을 수록하였다. 권 1에는 시(詩) 86편을 수록하고 있다. 권 2 목록에는 권 2에 수록한 글의 종류 및 제목을 수록하였다. 권 2는 소(疏) 19편, 전문(箋文) 15편, 기(記) 1편, 서(序) 1편, 제문(祭文) 4편 총 40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발문은 고종 5(1868)년에 아들인 조영하가 작성하였다.

수록한 글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권 1에 수록한 「백부주갑수시(伯父周甲壽詩)」는 자신의 친아버지인 조만영이 환갑을 맞이하자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은 시이고, 「헌종대왕만사(憲宗大王輓詞)」는 헌종(憲宗, 1827~1849)이 승하하자 이를 애도하면서 지은 시이다. 권 2에 수록한 「걸면빈전도감제조소(乞免殯殿都監提調疏)」는 철종 8(1857)년 순원왕후의 빈전도감제조를 맡았을 때, 빈전도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인문(宣仁門)을 포함한 62칸의 전각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죄를 고하고 벌을 달라는 상소문(上疏文)이다. 「송경지서(松京誌序)」는 순조 24(1824)년에 김이재(金履載, 1767~1847)가 편찬한 개성부(開城府)의 읍지(邑誌)인 『중경지(中京誌)』를 철종 6(1855)년에 증보할 때, 당시 개성부유수였던 조병기가 지은 『중경지』의 서문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소석유고(小石遺稿)’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본서를 간행할 때, 사용한 금속활자는 전사자이다. 본서에는 별다른 간행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간행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전사자를 간행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고종 5(1868)년에 아들인 조영하가 지은 발문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종 5(1868)년 이후인 19세기 말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병기가 지은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조병기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교유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헌종의 만사 등을 통해서 조선 왕실 외척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금속활자인 전사자로 간행한 문집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금속활자의 활용 양상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소석유고(小石遺稿), 조병기(趙秉夔), 문집(文集), 전사자(全史字)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11 장서각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소정시고(邵亭詩稿)

KOL000010151

일산古3644-67

邵亭詩稿 / 金永爵(朝鮮) 著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發行處不明], 高宗 28(1891)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1.3 × 14.9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 30.6 × 19.6 cm

刊記: 辛卯(1891)季春

書後: 同治六年丁卯(1867)正月下旬...張丙炎(淸)

1. 개요

『소정시고(邵亭詩稿)』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영작(金永爵, 1802~1868)이 지은 여러 시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시문집(詩文集)이다. 본서는 조선 고종 28(1891)년에 금속활자인 전사자(全史字)로 간행한 판본이다. 서명인 『소정시고』에서 ‘소정’은 김영작의 호이고, ‘시고’는 시문집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정시고』라는 서명은 소정 김영작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시문집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소정시고』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영작이 지은 시 가운데 557수를 모아서 편찬한 시문집이다. 저자인 김영작은 조선 후기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자는 덕수(德修) 또는 덕수(德叟)이며, 호는 소정(邵亭)이다. 본관은 경주(慶州)로 충주목사(忠州牧使) 김사직(金思植, 1756~?)과 용인이씨(龍仁李氏)의 아들로 순조(純祖) 2(1802)년에 태어났다. 헌종(憲宗) 9(1843)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그 이후 예조참의(禮曹參議), 동부승지(同副承旨), 병조참의(兵曹參議),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병조참판(兵曹參判), 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고종 5(1868)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문에 능통하였고 알려져 있으며,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박규수(朴珪壽, 1807~1877) 등 당대의 문인들과 시회(詩會)를 가지며 많은 시문을 창작하였다. 또한 철종(哲宗) 9(1858)년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연행(燕行)하였는데, 이때 청나라의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조선 말기에 온건개화파(穩健開化派)로 유명한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이 그의 아들이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소정시고』의 편찬과 관련한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본문의 뒷부분에 청나라 문인인 장병염(張丙炎)이 지은 김영작의 또 다른 시문집 『존춘헌시초(存春軒詩鈔)』의 발문인 「서후(書後)」를 수록하고 있어 『존춘헌시초』의 간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목록(目錄), 권 1, 권 2로 구분하고 있다. 목록에는 각 권에 수록한 시

문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였다. 권1과 권2에 수록한 시문들은 모두 시문이 지어진 연도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권1에는 순조 17(1817년)년에 지은 「감영지정(鑑影池亭)」부터 헌종 13(1847)년에 지은 「하이서연존보요화노인회근(賀李西淵尊甫澆花老人回蹕)」까지의 고금체시(古今體詩) 174수를 수록하였고, 권2에는 철종 즉위년(1849)에 지은 「헌종대왕만사(憲宗大王輓詞)」부터 고종 5년에 지은 「시홍집(示弘集)」까지의 고금체시 183수를 수록하였다.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청나라 문인인 장병염이 지은 「서후」가 있는데, 이는 『소정시고』가 아닌 김영작이 자신의 시를 편집하여 청나라로 보낸 『존춘헌시초』를 읽고 지은 글이다.

수록한 시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권 1에 수록한 「서풍석상서택소집분운득속자(徐楓石尙書宅小集分韻得俗字)」는 서유구의 집에서 여러 문인들이 모였을 때 지은 시이고, 「송홍삼사부연(送洪三斯赴燕)」은 김영작의 친우이자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손자인 홍양후(洪良厚, 1800~1879)가 여행을 떠나게 되자 친우를 송별하면서 지은 시이다. 권 2에 수록한 「헌종대왕만사」는 헌종이 승하하자 김영작이 헌종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시이고, 「시홍집」은 자신의 아들인 김홍집이 관직에 임명되자 임금을 잘 보필하고 백성을 잘 보살피라는 당부로 지은 것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각 책의 앞부분에 편제면(編題面, 책의 가장 앞부분에 별도로 제목을 인쇄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에는 ‘소정시고(邵亭詩稿)’라는 서명을 전서(篆書)로 기록하였으며, 좌측 상단에는 ‘존춘헌선본(存春軒選本)’이라는 기록이 있다. 우측 하단에는 ‘신묘계춘(辛卯季春)’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본서를 고종 28(1891)년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김영작이 지은 시문을 모은 시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김영작의 생애 및 사상을 알 수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서유구, 홍양후 등 당대 문인들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금속활자인 전사자로 간행한 문집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금속활자를 활용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소정시고(邵亭詩稿), 김영작(金永爵), 시문집(詩文集), 전사자(全史字)

참고문헌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漢文學報』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박상환, 尹致英과 金永爵의 漢詩 交流, 『漢文學報』 제28집, 우리한문학회, 2013.
 徐毅·李姝雯, 「邵亭金永爵與清文士交往資料考述」, 『大東漢文學』 제46집, 대동한문학회, 2016.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KOL200300018

古貴2244-3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4上~下 / 魏齊賢(南宋) 編; 葉棻(南宋) 增補
金屬活字本(庚子字)

[漢城] : [校書館], [世宗 5(1423)]

1卷1冊(缺本, 全110卷40冊) : 四周雙邊 半郭 22.8 × 14.9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9.7 × 19.0 cm

1. 개요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남송의 문인인 위제현(魏齊賢)이 송나라 여러 문인들의 글 가운데 뛰어난 글들을 선정하여 모은 문선집(文選集)이다. 남송의 문인인 섭분(葉棻)이 내용을 추가하여 증보(增補)하였다. 본서는 금속활자(金屬活字)인 경자자(庚子字)로 간행한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라는 서명은 송나라 현인 500명의 이름난 글 가운데 정수만을 뽑아서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서명에서는 송나라 현인 500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수록한 글들의 저자는 약 520명이다. ‘송파방(宋播芳)’이라는 약칭으로도 불린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를 편찬한 위제현에 대해서는 『사고전서촬요(四庫全書撮要)』에 출신지 및 자(字)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외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사고전서촬요』에 의하면 위제현은 자가 중현(仲賢)이고,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평향현(平鄉縣)인 거록(鉅鹿) 출신이라고 한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를 증보한 섭분에 대해서도 출신지 및 자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사고전서촬요』에 의하면 섭분은 자가 자식(子寔)이고,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남양시(南陽市)인 남양(南陽) 출신이라고 한다.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의 편찬은 남송 소희(紹熙) 1(1190)년에 위제현이 처음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를 편찬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처음 편찬할 당시에는 100권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20년 후인 남송 가정(嘉定) 3(1210)년에 섭분이 100권본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가운데 빠진 내용을 보충하여 150권으로 증보하였다고 전해진다. 다만 남송 대에는 위제현이 처음 편찬한 100권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및 섭분이 증보한 150권본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모두 제대로 간행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에 들어선 후에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를 본격적으로 간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섭분의 150본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를 편집한 110권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5(1423)년에 금속활자인 경자자로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 등에 의하면 그 이후 여러 차례 반사(頒賜, 임금이 물건 등을 내려주는 일)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중종 37(1542)년에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다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은 110권 구성으로 그 가운데 권 1~7까지는 상(上), 중(中), 하

(下)로 구분하였다. 각 권에 수록하고 있는 글의 종류를 살펴보면, 권 1~7까지는 표(表), 전(箋)을 수록하였고, 권 8~49까지는 계(啓)를 수록하였다. 권 50~51까지는 제고(制誥)를 수록하였고, 권 52~53까지는 만언서(萬言書)를 수록하였다. 권 54에는 서(書)를 수록하였고, 권 55에는 차자(筓子)를 수록하였다. 권 56~62까지는 첩폭(疊幅)을 수록하였고, 권 63~70까지는 척독(尺牘)을 수록하였다. 권 71~74까지는 주표(朱表)와 청사(靑詞)를 수록하였고, 권 75~82까지는 석소(釋疏), 소(疏), 청소(靑疏), 권연소(勸緣疏), 축찬소(祝贊疏)를 수록하였다. 권 83~85까지는 축문(祝文)을 수록하였고, 권 86에는 혼서(婚書)를 수록하였다. 권 87에는 부(賦), 송(頌), 시(詩)를 수록하였고, 권 88~90에는 악어(樂語)를 수록하였다. 권 91에는 문(文)을 수록하였고, 권 92~93에는 상량문(上梁文)을 수록하였다. 권 94~101에는 제문(祭文)을 수록하였고, 권 102~104에는 만사(挽詞)를 수록하였다. 권 105~106에는 기(記)를 수록하였고, 권 107에는 서(序)를 수록하였다. 권 108~109에는 비(碑), 명(銘), 찬(贊), 잠(箴)을 수록하였고, 권 110에는 송(頌), 제발(題跋)을 수록하였다.

본서는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가운데 권 4상~하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본서에는 표문(表文) 총 75편을 수록하였다. 표문을 지은 인물들은 북송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활동했던 8명의 문장가)에 속하는 증공(曾鞏, 1019~1083),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소식(蘇軾, 1037~1101), 소철(蘇轍, 1039~1112)을 포함한 당대에 유명한 문장가들이다. 수록한 표문 가운데 대표적인 「사제용도각학사표(謝除龍圖閣學士表)」는 소식이 지은 표문으로 송나라 철종(哲宗, 1077~1100)이 소식을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지항주사(知杭州事)에 제수하자, 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표문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조선 전기에 금속활자인 경자자로 간행한 책으로 본서에는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고서연표자료(韓國古書年表資料)』에서 다른 소장본에 ‘영락계묘납월일주자인(永樂癸卯臘月日鑄字印)’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등장한다고 전하고, 『세종실록』에서 세종 6(1424)년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를 반사하였다는 기록도 등장하여 세종 5(1423)년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 중종 37(1542)년에 간행한 2권 1책의 을해자본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古2244-15)도 소장하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송나라 여러 문인들의 글 가운데 뛰어난 글들을 선정하여 모은 문선집으로 조선 전기 문인들의 문학 사조 등을 알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본서는 조선 세종 대에 금속활자인 경자자로 간행한 판본으로 세종의 정책 특히 서적 간행 정책 및 조선 전기 활자 인쇄 문화를 보여준다. (옥영정)

핵심어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위제현(魏齊賢), 문선집(文選集), 세종(世宗), 경자자(庚子字)

참고문헌

윤병태, 『韓國古書年表資料』, 국회도서관, 1969.

류화정, 「조선 전기 문선집 『宋播芳』·『元播芳』小考」,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송파유고(松坡遺稿)

KOL000027767

한古朝45-가67

松坡遺稿 / 羅珪(朝鮮) 著

木活字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35(1898)

1卷1冊(41張): 四周單邊 半郭 23.0 × 16.3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1葉花紋魚尾 ; 29.3 × 19.4 cm

서명은 卷末題에 의함

開刊記: 崇禎五戊戌(1898)...[羅]之煥

序: 崇禎五丁酉(1897)...宋秉幹

自序: 崇禎十四年辛巳(1641)...松坡翁[羅珪]

跋: 崇禎五戊戌(1898)...宋之憲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의병장인 나각(羅珪, 1574~1644)이 지은 글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이다. 본서는 목활자로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본문 뒷부분에 수록한 「선조송파공유고개간기(先祖松坡公遺稿開刊記)」를 통해서 고종 35(1898)년에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명인 『송파유고』에서 ‘송파’는 나각의 호이고, ‘유고’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송파유고』라는 서명은 송파 나각이 생전 지은 글을 정리한 문집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송파유고』는 조선 후기의 의병장인 나각이 지은 153편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 저자인 나각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효성과 충심으로 이름이 높던 인물이다. 자는 연보(連寶)이며, 호는 송파이다. 본관은 금성(錦城)으로 선조 7(1574)년에 충순위(忠順衛)를 지낸 나시남(羅詩男)과 이천서씨(利川徐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15세에 아버지인 나시남이 병으로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베어 피를 낸 다음 그 피를 아버지에게 드렸다. 결국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서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19세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길에 나섰다. 왜적을 만났다. 왜적이 두 사람을 해하려하자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를 감쌌다. 이에 감동한 왜적들이 더 이상 해를 가하지 않고, 피난길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효행이 알려져서 선조 41(1608)년에 창릉참봉(昌陵參奉) 관직을 받았다. 광해군 2(161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사직하고 3년상을 지냈다. 그 이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여 학문에 매진하였다. 인조 5(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종사관(從事官)으로 뽑혀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정묘호란이 끝나자 곧바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인조 14(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사위인 이시우(李時佑)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던 중 전주에서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낙향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조정에서 관직을 제수하였지만, 전부 사양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 22(1644)년 집에서 조용히 세

상을 떠났다.

후손 나지환(羅之煥)이 지은 「선조송파공유고개간기」에는 『송파유고』의 편찬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선조송파공유고개간기」에 의하면 선조인 나각은 충신이자 효자로 그의 글은 충과 효를 배우기에 좋은 글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점차 나각의 글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의 증조부가 이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 나각의 문집을 간행하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증조부가 정리한 초고본(草稿本,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원고)을 간직하고 있다가 근년에 파보(派譜)를 간행할 때, 문중에 건의하여 『송파유고』를 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송파유고』와 함께 다른 선조인 나덕윤(羅德允, 1548~1611)과 나무송(羅茂松, 1577~1653)의 문집을 함께 간행하였다 밝히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序文), 본문, 부록(附錄), 발문(跋文)으로 구분하였다. 서문은 고종 34년(1897)에 송병간(宋秉幹)이 지었다. 본문에는 나각이 직접 지은 문집 서문 1편, 시문 152편을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정조 16(1792)년에 이홍직(李弘稷, 1705~1796)이 지은 「서(書)」, 순조 28(1828)년에 송치규(宋稹圭, 1759~1838)가 지은 「행장(行狀)」, 철종 9(1858)년에 장헌주(張憲周, 1777~1867)가 지은 「서송파나공행장후(書松坡羅公行狀後)」, 고종 6(1869)년에 홍병위(洪秉瑋)가 지은 「묘비명(墓碑銘)」, 고종 35(1898)년에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지은 「묘갈명(墓碣銘)」, 고종 35(1898)년에 권성수(權聖洙, 1833~?)가 지은 「묘표음기(墓表陰記)」 등 나각의 행적과 관련있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발문은 고종 35(1898)년에 송지헌(宋之憲, 1872~1934)이 지었으며, 발문의 뒷부분에 고종 35(1898)년에 후손 나지환(羅之煥)이 지은 「선조송파공유고개간기」와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지은 「묘갈명」을 수록하였다.

수록한 글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파록자서(松坡錄自序)는 인조 19(1641)년에 나각이 직접 지은 문집 서문으로 이를 통해서 나각 생전에 문집을 간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완성파진일이사자남한귀(完城罷陣日李嬭自南漢歸)」는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던 중 전주에서 화친으로 인해 먼저 남한산성으로 갔던 사위 이시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감정을 표현한 시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송파고(松坡稿)’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선조송파공유고개간기」를 통해서 간행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특히 파보 즉 족보(族譜)를 간행하는 중간에 함께 『송파유고』를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당시의 목활자 인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함께 간행하였다고 알려진 나무송의 문집인 『창주유고(滄洲遺稿)』 등이 현전하고 있어서 당시 『송파유고』를 간행한 목활자의 특징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나각이 지은 여러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나각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선조송파공유고개간기」에 비교적 편찬 경위 및 배경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문집 간행 양상 및 목활자 인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송파유고(松坡遺稿), 나각(羅珩), 문집(文集), 목활자(木活字)

참고문헌

정재현, 『강재집(剛齋集)』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KOL000028214

古朝45-나24

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 陳與義(南宋) 著; 劉辰翁(南宋) 評點

木活字本(乙亥字體訓練都監字)

[漢城] : [發行處不明], [17世紀]

15卷5冊 : 四周雙邊 半郭 21.5 × 14.8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上下內向3葉花紋魚尾混入); 29.4 × 19.6 cm

序: 劉辰翁

1. 개요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은 북송의 문인인 진여의(陳與義, 1090~1139)의 시문집(詩文集)을 남송의 문인 유진옹(劉辰翁, 1232~1297)이 주석(註釋)을 달고 평점(評點, 시의 중요한 부분에 찍는 점)을 찍은 책이다. 본서는 목활자(木活字)인 을해자체훈련도감자(乙亥字體訓練都監字)로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이다.

서명인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에서 ‘수계선생평점’은 유진옹의 호가 수계(須溪)이기 때문에 유진옹이 평점을 찍었음을 의미하며, ‘간재시집’은 진여의의 호가 간재(簡齋)이기 때문에 진여의의 시문집이라는 의미이다. 종합해보면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이라는 서명은 유진옹이 평점을 찍은 진여의의 시문집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의 원작인 『간재집(簡齋集)』을 지은 진여의는 북송 대의 문인으로 자는 거비(去非)이고 호는 간재(簡齋)이다. 현재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출신으로 어려서 부터 글재주가 뛰었다고 전해진다. 북송(北宋) 정화(政和) 3(1113)년 과거에 급제하여 개덕부교수(開德府教授)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북송 정강(靖康) 1(1126)년에 금나라가 북송을 침략하자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남송 소흥(紹興) 1(1131)년 월주(越州)에서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한림학사(翰林學士) 지제고(知制誥) 등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남송 소흥 9(1139)년에 세상을 떠났다. 진여의는 모든 문장에 뛰어났지만, 그 가운데 시를 잘 지어서 북송 휘종(徽宗)이 그의 시를 좋아하였다고 전해진다.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의 평점을 찍은 유진옹은 남송 대의 문인으로 자는 회맹(會孟)이고 호는 수계이다. 현재 절강성(浙江省) 길안(吉安)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으며, 남송 경정(景定) 3(1262)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남송 상흥(祥興) 2(1279)년에 남송이 멸망하자 원 대덕(太德) 1(129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관직에 나아가지 않다.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은 조선에서도 여러 간행하였는데, 특히 금속활자(金屬活字)인 갑진자(甲辰字)와 갑인자(甲寅字)로도 간행하였다. 중종(中宗) 39(1544)년 목판으로 간행한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에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지은 발문(跋文)을 수록하였는데, 발문에서는 『간재집』이 동방에 흥하지 않아서 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를 병폐로 생각하였으니,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송인수(宋麟壽, 1499~1547)가 중종 38(1543)년에 많은 책을 간행할

때, 이 책 또한 간행하고자 하여 무장현(茂長縣)에서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발문의 내용을 통해서 조선에서의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 간행 배경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은 총 15권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유진옹이 지은 서문과 목록(目錄)을 수록하였고, 권 1에는 부(賦) 2편을 수록하였다. 권 2에는 시 19편을 수록하였고, 권 3에는 시 34편을 수록하였다. 권 4에는 시 28편을 수록하였고, 권 5에는 시 46편을 수록하였다. 권 6에는 시 28편을 수록하였고, 권 7에는 시 34편을 수록하였다. 권 8에는 37편을 수록하였고, 권 9에는 38편을 수록하였다. 권 10에는 시 42편을 수록하였고, 권 11에는 시 47편을 수록하였다. 권 12에는 시 43편을 수록하였고, 권 13에는 시 39편을 수록하였다. 권 14에는 명(銘), 찬(贊) 3편을 수록하였고, 권 15에는 사(詞) 16편을 수록하였다. 내용 구성은 진여의가 지은 글의 제목과 본문 밑에 주석을 단 형태로 구성하였다. 주석에는 처음 달았던 주석과 후대에 추가로 단 주석이 있는데, 후대에 추가한 주석에는 증주(增註)라고 별도로 표시하였다. 본문 중간에 중요한 구절에는 글자 옆에 평점을 찍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목활자인 을해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한 책으로 본서에는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본서를 을해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하였기 때문에 훈련도감자를 통해서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던 17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본서의 표지에는 ‘간재집(簡齋集)’이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놓았으며, 그 아래에는 책차(冊次)를 먹으로 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 7권 1책의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古叢3717-207)을 소장하고 있는데, 해당본은 금속활자인 갑진자로 간행한 판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북송의 문인인 진여의의 시문집을 남송의 문인 유진옹이 주석을 달고 평점을 찍은 문학서로 조선의 문학 사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본서는 17세기에 목활자인 을해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한 판본으로 17세기 서적 간행 정책 및 목활자 인쇄 문화를 보여 준다. (옥영정)

핵심어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진여의(陳與義), 문학서(文學書), 을해자체훈련도감자(乙亥字體訓鍊都監字)

참고문헌

우정훈, 『訓鍊都監字本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노경희, 「버클리대학 소장본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의 비밀」, 『문헌과 해석』 제90호, 문헌과 해석사, 2022.

장인진, 「원나라 劉辰翁 評點本の 조선전기 출판 현상」, 『한국학논집』 제7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

KOL202200004

古貴1741-51

首楞嚴經義海. 卷22-23 / 咸輝(南宋) 編

木板本

漢城 : 刊經都監, 世祖 8(1462)

2卷1冊(全23卷) : 上下單邊 半郭 23.9 × 23.0 cm, 無界, 12行13字 註雙行, 無魚尾 ; 34.7 × 25.3 cm

版心題: 楞

刊記: 天順六年壬午(1462)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墨書: 尼志寬伏爲亡父鄭明閔亡母金氏兩位靈駕

表紙는 改裝됨

1. 개요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는 서역 출신 승려인 반라밀제(般刺蜜帝)가 번역하였다고 알려진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 대해서 북송 승려 자선(子璿, 965~1038), 효월(曉月), 인악(仁岳, 992~1064)이 주석(註釋)한 내용을 남송 승려인 함휘(咸輝)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원문과 함께 정리한 책이다. 본서는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서명인 『수능엄경의해』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의미를 해석한 여러 주석서들을 하천이 모이는 바다와 같이 모았다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당나라 때 서역 출신 승려인 반라밀제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고 전하지만, 위경(僞經, 인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짓 경전)일 가능성이 높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 유통된 후 많은 승려들이 다양한 주석서들을 편찬하였지만, 본서는 북송 승려 자선, 효월, 인악의 주석서를 남송 승려 함휘가 정리한 책이다. 함휘에 대해서는 북건성(福建省)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함휘가 직접 지은 서문(序文)에 의하면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효월의 주석서로 공부를 시작하여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자선의 주석서를 통해서 오묘한 이치를 파악한 후, 인악의 주석서로 다양한 해석들을 배워야 하지만, 3가지 주석서가 따로 간행되어 열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학을 위해서 3가지 주석서를 모아서 함께 간행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과주(科註, 본문의 문단을 의미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하는 주석)를 달고, 선을 통해서 하단과 연결하였다. 하단에는 굵은 글자로 『대불정

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본문을 수록하였고, 작은 글자로 해당하는 내용의 각종 주석을 수록하였다. 각 권의 마지막에는 해당 권에서 나온 한자 중 벽자(僻字, 흔히 쓰이지 않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음석(音釋)을 수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능엄주(楞嚴呪)를 통해서 악마의 장애를 물리친 후, 부지런히 참선 정진하여 여래의 진실한 지혜를 얻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담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바탕으로 자선, 효월, 인악의 다양한 해석을 수록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권 22, 23 마지막 부분에 ‘순천육년임오세조선국간경도감봉교조조(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세조 8(1462)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 23의 권말제(卷末題, 각 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제목) 아래 ‘종(終)’을 수록하여 전체 23권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영락북장(永樂北藏, 명나라의 대장경) 등에서 『수능엄경의해』가 전체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권 23 뒷부분에 내용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수능엄경의해』는 권 1-3, 9-15, 22-23만 현존하고 있다. 뒷표지의 안쪽 면에 ‘니지관복위망부정명윤망모김씨양위영가(尼志寬伏爲亡父鄭明閔亡母金氏兩位靈駕)’라는 묵서(墨書)가 남아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관(志寬)이라는 비구니(比丘尼)가 본서를 간행할 때 또는 표지(表紙)를 다시 만들 때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주석서로써 조선시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주석서의 전래 및 수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복송 승려 효월, 인악의 주석서가 현재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주석서에 대한 연구 및 복원의 기초적인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 함휘(咸輝), 간경도감(刊經都監), 주석서(註釋書)

참고문헌

박광현, 『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장애순, 『『楞嚴經』의 修行體系 研究 : 識心見性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주성옥, 「『능엄경』 주소(註疏)를 통해 본 과문의 특징 : 『계환해』와 『정맥소』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1호, 불교학연구회, 2014.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KOL000057091

古1775-2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 [編著者不明]

木板本

安東 下柯山 : 廣興寺, 中宗 33(1538), [後刷]

1卷1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7.8 × 20.5 cm, 有界,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7.5 × 25.5 cm

版心題: 結

刊記: 嘉靖十七年戊戌(1538)七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界線: 無界(附錄)

行字數: 9行20字 註雙行(附錄)

1. 개요

본서는 수륙재(水陸齋, 물과 육지를 해매는 영혼들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불교의식)를 행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기록한 불교 의식집으로, 1538년(중종 33)에 안동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명은 수륙무차평등재(水陸無遮平等齋) 즉 수륙재의 의식을 요점만 뽑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수륙재 의식집과 다르게 수인(手印, 불교에서 깨달은 진리 및 맹세한 서원 등을 손으로 표시한 것)을 맺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결수문(結手文)』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본서와 함께 조선 시대에 많이 간행한 수륙재 의식집이자 발문(跋文) 및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문선(東文選)』 등의 기록을 통해서 고려의 승려 죽암(竹菴, ?~?)이 편찬하였다고 알려진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와는 대조적이다. 다만 본서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편차 구성이 매우 유사한 점을 통해서 본서의 편찬자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별도의 서발문(序跋文)이 없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설회인유(設會因由)」에서는 인계(印契) 즉 수인과 관련 있는 것들은 소본(小本)에 수록하였기에 거듭 수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가 다른 수륙재 의식집과 다르게 수인을 맺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서 이야기한 소본이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를 지칭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의 간행이 대부분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와 함께 이뤄졌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앞의 이야기를 종합하였을 때, 『수륙무차평등

재의찰요』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편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수록재의 순서에 따라서 수록재의 역사와 행하는 목적을 밝히는 설회인유(設會因由)부터 수록재를 마치고 불렀던 여러 영혼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봉송육도(奉送六道)까지 총 37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각 편의 제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편명	순번	편명	순번	편명
1	설회인유(設會因由)	14	소청중위(召請中位)	27	선밀가지(宣密加持)
2	엄정팔방(嚴淨八方)	15	천선례성(天仙禮聖)	28	주식현공(呪食現功)
3	발보리심(發菩提心)	16	헌좌안위(獻座安位)	29	고혼수향(孤魂受饗)
4	주향통서(呪香通序)	17	소청하위(召請下位)	30	참제업장(懺除業障)
5	주향공양(呪香供養)	18	인예향욕(引詣香浴)	31	발흥서원(發弘誓願)
6	소청사자(召請使者)	19	가지조욕(加持澡浴)	32	사사감정(捨邪敢正)
7	안위공양(安位供養)	20	가지화의(加持化衣)	33	석상호지(釋相護持)
8	봉송사자(奉送使者)	21	출욕참성(出浴參聖)	34	수행육도(修行六度)
9	개벽오방(開闢五方)	22	가지례성(加持禮聖)	35	관행계찬(觀行偈讚)
10	안위공양(安位供養)	23	수위안좌(受位安座)	36	회향계찬(廻向偈讚)
11	소청상위(召請上位)	24	가지변공(加持變供)	37	봉송육도(奉送六道)
12	헌좌안위(獻座安位)	25	선양성호(宣揚聖號)		
13	보례삼보(普禮三寶)	26	설시인연(說示因緣)		

본문의 뒷부분에는 부록(附錄)으로 수록재를 행할 때 갖춰야 하는 각종 방문(榜文), 소문(疏文) 등 의식에 필요한 글 양식들을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부록의 제목을 따로 수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의 판본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성종(成宗) 1(1470)년 광주(廣州) 견성사(見性寺) 판본에는 「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라는 제목이 있어서 부록이 「수륙재의소방문첩절요」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문의 내용은 수록재의 역사와 행하는 목적, 수록재를 행할 단(壇)을 설치하는 방법, 수록재에서 행해야 하는 의식 및 진언(眞言, 불교에서 사용하는 주문), 의식을 행할 때 맺어야 하는 수인, 청문(請文, 부처 및 보살 등을 부르는 의례문)과 각종 기물(器物)들의 배치, 의식을 행해야 하는 시간 등을 수록하고 있다. 부록의 내용은 수록재를 행할 때 각 건물의 문 및 재단(齋壇) 등에 붙이는 글인 방문과 수록재를 행할 때 필요한 일종의 제문(祭文)인 소문의 양식을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가정십칠년무술칠월일경상도안동지하산광흥사개판(嘉靖十七年戊戌七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중종 33(1538)년에 안동(安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 다음 부분에는 시주자(施主者), 각수(刻手)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본서는 본문과 부록의 계선(界線, 각 행 사이에 그어진 선)과 행자수(行字數, 책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행의 수와 1행에 들어간 글자 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문의 경우 계선이 있는 유계본(有界本)이지만, 부록의 경우 계선이 없는 무계본(無界本)이다. 본문의 경우 7행17자의 행자수를 가지지만, 부록의 경우 9행20자의 행자수를 가진다. 이러한 본문과 부록의 형태 차이가 나는 특징은 중종 28(1533)년에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한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 판본의 특징으로 이것을 통해서 본서가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

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번각본임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수륙재의 절차를 수록한 의식집으로 조선시대 수륙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본문의 뒷부분에 부록을 통해서 수륙재에서 사용한 각종 글들의 양식을 살펴 볼 수 있다. 본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수록한 시주자 및 각수 등의 명단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찰의 경관 간행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광흥사(廣興寺), 수륙재(水陸齋), 결수문(結手文)

참고문헌

연제영,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設行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0집, 한국서지학회, 2011.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KOL200100638

古1796-23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 普雨(朝鮮) 述 ; 妙圓(朝鮮) 校

木板本

[陝川 伽倻山] : [海印寺], 仁祖 20(1642)跋

不分卷1冊(14張) : 四周雙邊 半郭 19.1 × 15.5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6.2 × 18.7 cm

한글 懸吐本임

施主: 沖信

刻板: 釋敏 등 9인

跋: 特壬午(1642)...處能

魚尾: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混入

懶菴, 虛應堂은 普雨(1515~1565)의 號임

四針眼 線裝本(표지개장)

1. 개요

본서는 조선 중기의 승려인 보우(普雨, 1509~1565)가 불교의례를 집전할 때의 마음가짐 및 의식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인과 손님의 문답 형태로 저술한 일종의 불교의식집으로, 인조(仁祖) 20(1642)년 무렵에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명인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은 수월도량(水月道場)에서 공화불사(空花佛事)를 하는 여환(如幻)한 손님과 주인이 꿈속에서 묻고 답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수월도량’은 물에 비친 달과 같은 도량이라는 의미이며, ‘공화불사’는 허공에 핀 꽃과 같은 불사라는 의미이다. ‘여환’은 마치 환상과 같다는 의미로 ‘수월도량’, ‘공화불사’, ‘여환’ 모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즉 공(空)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저자 보우는 명종(明宗)대에 활발히 활동한 승려로 법호(法號, 승려가 스승에게 받는 별호)는 나암(懶庵), 당호(堂號, 거처하는 건물의 이름을 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력이 높은 승려들이 사용함)는 허응당(虛應堂)이다. 보우와 관련한 행장(行狀) 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출가 전의 속성(俗姓, 승려가 되기 전의 성씨), 본관(本貫)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7세 무렵 부모를 여의고 사찰에 머물다가 15세 즈음에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보우의 행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출가한 이후에는 금강산(金剛山), 양평(楊平) 용문사(龍門寺), 양주(楊州) 회암사(檜巖寺), 평창(平昌) 월정사(月精寺) 등에서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를 후원자로 삼으면서 40세인 명종 3(1548)년에 봉은사(奉恩寺)의 주지(住持)에 임명되었다. 봉은사 주지에 임명된 후에는 억불정책으로 쇠퇴한 불교계를 중흥하기 위해서 문정왕후에게 불교와 관련한 많은 정책을 건의하였다. 먼저 폐지하였던 선교양종(禪敎兩宗)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명종 7(1552)년에는 승과(僧科, 스님을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제도)도 부활시켰다. 그 이후에도 불교계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건의하였으나, 명종 20

년(1565)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여러 대신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해에 바로 유배형에 처해져서, 제주도로 보내졌고 그 곳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변협(邊協, 1528~1590)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본서의 편찬 배경 등에 대해서는 편찬 당시 지어졌던 서발문 등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조선 후기 승려 처능(處能, 1617~1680)이 지은 중간(重刊)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중간의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발문에 의하면 불교의례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책이 전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자, 지선(智禪)을 포함한 10명의 승려들이 해인사에서 중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에는 총 31번의 문답을 수록하고 있다. 31번의 문답은 별도의 구분 없이 수록하였다. 각각의 문답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번에서 5번까지의 문답은 각종 의식을 집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집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의식에 있어서 진언(眞言, 불교에서 사용하는 주문)을 올리는 행위보다 원관(圓觀) 즉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6번에서 14번까지의 문답은 불교의례 중 의식을 행할 공간에 부정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결계의식(結戒儀式)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결계의식에서 거행하는 여러 절차들의 이유와 효용에 대한 내용이다. 15번에서 18번까지의 문답은 결계의식 가운데 특별히 물을 뿌리면서 거행하는 쇄수결계(灑水結戒)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쇄수결계에서 거행하는 여러 절차들의 이유와 효용에 대한 내용이다. 19번에서 22번까지의 문답은 불교의례 중 청하는 대상을 부르는 소청의식(召請儀式)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소청의식에서 거행하는 여러 절차들의 효용에 대한 내용이다. 23번에서 29번까지의 문답은 불교의례 중 청한 대상에게 공양(供養)을 올리는 헌공의식(獻供儀式)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헌공의식에서 거행하는 여러 절차들의 이유와 효용에 대한 내용이다. 30번에서 31번까지의 문답은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이라는 서명에 대한 문답으로 책의 서명을 어떤 이유로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라고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부록(附錄)으로 「사명일시식시국혼통용청(四名日施食時國魂通用請)」, 「제상하귀천승속남녀통용청(諸上下貴賤僧俗男女通用請)」, 「수륙재시추루단청우사명일시식통청(水陸齋時醜陋壇請又四名日施食通請)」을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수록한 각 글들은 특정 의식 절차에 따라서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대상을 부르기 위해 작성하는 청문(請文) 양식에 대한 내용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가장 뒷부분에는 교정(校正), 시주자(施主者) 등 간행 참여자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해인사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불서들과는 다르게 책의 뒷부분에 간행한 연도 및 간행한 장소 등에 대한 간기(刊記)를 수록하지 않고, 발문 안에 간행 관련한 기록을 수록하였다. 발문에 의하면 지선을 포함한 10명의 승려들이 발원하여 해인사에서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전기의 승려 보우가 조선시대 각종 의식의 절차 및 효용, 집전할 때의 마음가짐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불교의식집으로 조선시대 특히 조선 전기의 불교의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다. 또한 다른 불교의식집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조선시대 불교의례

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수월도장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 보우(普雨), 불교의례(佛敎儀禮), 의식집(儀式集), 해인사(海印寺)

참고문헌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敎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동진, 「普雨의 『水月道場空花佛事』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정명희, 「조선시대 불교 의식과 승려의 소임 분화 : 甘露圖와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제31호, 미술사연구회, 2016.

수촌집(水村集)

KOL000018125

古朝46-가190

水村集: 并附錄 / 任陞(朝鮮) 著

金屬活字本(校書館印書體字)

[漢城]: [校書館], [18世紀 後半]

13卷6冊: 四周雙邊 半郭 21.5 × 13.8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29.7 × 18.2 cm

印: 洪善養, 土浩

1. 개요

본 해제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임방(任陞, 1640~1724)의 시문집이다.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를 사용하여 인출하였으며, 간행 시기는 영조(英祖) 재위기간의 후반으로 추정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임방의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대중(大中), 호는 수촌(水村)·우졸옹(愚拙翁)이다. 부친은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한 임의백(任義伯)이고 모친은 상산김씨(尙山金氏) 김상(金尙)의 딸이다. 우암 송시열, 동춘 송준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66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32세가 되던 해인 1671년에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된 이후 30여년간 외직 및 의금부도사, 형조정랑, 호조정랑 등 내직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스승인 송시열이 유배되자 사직하고 6여 년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694년 인현왕후 복위 이후 다시 의금부도사, 군자감정(軍資監正), 단양군수(丹陽郡守), 사옹원첨정(司饗院僉正) 등을 역임하였다. 63세가 되던 해인 1702년에 문과급제 하여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으나 소론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였다. 이후 1713년 호조참의에 제수되면서 다시 관직에 나와 대사성, 우부승지, 병조·호조·공조·예조 참의, 좌승지(左承旨) 등을 역임하고 1721년에는 관직이 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해 신임사화(辛壬士禍)로 함종(咸從)에 유배되고, 이배(移配)된 금천(金川)에서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본서에는 서발문이 없어서 편찬 및 간행의 경위, 편찬 주체와 시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부록(附錄)에 윤봉조(尹鳳朝, 1680~1761)가 1758년 편찬한 신도비명(神道碑銘)이 수록되어 있고, 임방의 외손자인 풍산홍씨 홍봉한(洪鳳漢)이 1758년 무렵 호조판서 및 선혜청 당상관을 역임하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1758년경 홍봉한 등의 주도로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3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 및 권말에 서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각권 첫머리에는 권별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5에는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보통 문집에서 시를 수록할 때 고체시(古體詩), 오언율시(五言律詩), 칠언절구(七言絕句), 부(賦) 등 시체(詩體)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수촌집』에서는 연대순으로 시를 수록하였다. 권 6-12에는 문(文)을 수록하였다. 권6에는 왕명을 받아 찬술한 응제문(應製文)을 수록하였다. 권 7에는 상소(上疏) 25편, 권8에는 계사(啓辭)·헌의(獻議)·서(書)·서(序) 등을 수록하였다. 권9에는 기(記)·제발(題跋)·문(箋)·예장(禮狀)·혼서(婚書)·상량문(上樑文)·잡저(雜著)등을 수록하였다. 권10에는 제문(祭文) 29편, 권11에는 행장(行狀) 1편, 권12에는 행장 1편과 묘지(墓誌)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3은 저자 사후 저자에 대한 사적과 행장을 모아 수록한 부록으로, 치제문(致祭文)·시장(諡狀)·신도비명(神道碑銘)·묘표(墓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 해제서의 표제 및 권수제, 판심제는 모두 ‘수촌집(水村集)’이며, 백색 만자문(卍字紋) 표지에 청색 책사(冊絲)를 사용하여 장황되어 있다. 표제 하단에는 책차가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로 매겨져 있고 서뇌(書腦) 하단에는 총책수가 ‘공육(共六)’으로 필사되어 있어 본 해제서가 모두 6책으로 구성된 전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필사되어 있다. 권수에는 서발문이나 총목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각권 첫머리에 권별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각책 권수 하단에는 백문 정방형의 ‘사호(士浩)’와 주문 정방형의 ‘홍선양(洪善養)’이 답인되어 있어, 이전 소장자가 남양홍씨 홍선양(洪善養, 1727~1798)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수촌집』은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서강대학교 도서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Columbia University Library)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한 동일 판본이다.

『수촌집』에는 송시열의 문인이자 노론(老論)의 일원이었던 임방의 시가 시기별로 수록되어 있어, 당시 작자의 처지와 심경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다. 임방의 외손이자 사도세자 장조(莊祖)의 장인 홍봉한 덕에 영조 즉위 이후 신원이 되고 시호를 하사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간행된 본 해제서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으로 가치가 높다. (김은슬)

핵심어 수촌집(水村集), 임방(任陞), 노론(老論), 송시열(宋時烈)

송효록(崇孝錄)

KOL000023055

한古朝57-가538

崇孝錄 / 朴世采(朝鮮) 編

木板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4卷7冊 : 世派圖, 四周雙邊 半郭 21.6 × 14.3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3 × 20.7 cm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자신의 집안인 반남박씨(潘南朴氏) 역대 선조들의 유문(遺文) 및 유사(遺事) 등을 모은 후에 다시 세대별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서명인 『송효록』에서 ‘송효’는 효를 숭상한다는 의미이고, ‘록’은 기록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인 박세채는 조선 후기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조판서(吏曹判書),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자는 화숙(和叔)이며, 호는 현석(玄石) 또는 남계(南溪), 시호(諡號)는 문순(文純)이다. 본관은 반남으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한 박의(朴漪, 1600~1645)와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역임한 신희(申欽, 1566~1628)의 딸인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아들로 인조(仁祖) 9(1631)년에 태어났다. 태어나서 바로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난 숙부 박유(朴維, 1606~1626)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아버지인 박의의 후사를 잇게 되었다. 인조 26(1648)년에 진사시(進士試, 과거 시험 중 하나로 진사를 뽑는 시험으로 소위 소과라고 함)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다. 효종(孝宗) 1(1650)년에 이이(李珥, 1536~1584), 성혼(成渾, 1535~1598)의 문묘(文廟, 공자의 사당) 배향을 반대하는 상소(上疏, 임금에게 신하가 올리는 글의 일종)에 대해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이에 대한 효종의 비답(批答, 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이 실망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과거를 포기한다. 효종 2(1651)년부터 김상헌(金尙憲, 1570~1652), 김집(金集, 1574~165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 이후 학문에 전념하면서 환국(換局) 등 여러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직에 나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숙종 10(1684)년 회니시비(懷尼是非,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 묘갈 내용을 발단으로 송시열과 윤증이 대립한 사건)가 일어나자 송시열과 윤증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후에 소론의 영수이자 학자로서 활동하다가 숙종 21(169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독서기(讀書記)』, 『춘추보편(春秋補編)』, 『양명학변(陽明學辨)』 등이 있다.

이 책의 편찬경위는 본서에는 없지만, 타기관 소장본 등에 남아있는 박세채의 자서(自序)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박세채가 『예기(禮記)』를 읽던 중 감명을 받아서 반남박씨의 시조인 박응주(朴應珠) 이래의 여러 선조들의 글 및 행적을 모아서 『송효록』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14권 7책으로 구성하였으며, 책1에는 크게 세파도(世派圖), 범례(凡例), 권1~2까지를 수록하였고, 책2에는 권3~4, 책3에는 권5~6, 책4에는 권7~8, 책5에는 권9~10, 책6에는 권11~12, 책7에는 권13~14를 수록하였다.

세파도에는 반남박씨의 시조인 호장공(戶長公) 박응주부터 박세채의 아버지인 중봉공(中峯公) 박의까지의 세계도(世系圖)를 수록하였다. 범례에는 『송효록』에 수록한 글의 종류, 글의 출처, 『송효록』의 구성 체계와 그 이유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권1에는 반남박씨의 시조인 호장공 박응주, 11대조 밀직공(密直公) 박수(朴秀, 1296~1373), 10대조 문정공(文正公) 박상충(朴尙衷, 1332~1375)을 포함한 3명의 유문 및 유사 등을 수록하였는데, 박응주와 박수의 경우 제목만을 수록하였다. 권2에는 권1에도 수록한 9대조 평도공(平度公) 박은(朴崧, 1370~1422), 8대조 참판공(參判公) 박규(朴葵, 1400~1437)를 포함한 6명의 유문 및 유사 등을 수록하였고, 권3에는 5대조 정랑공(正郎公) 박조년(朴兆年), 고조부 야천선생(冶川先生) 박소(朴紹, 1493~1534)를 포함한 8명의 유문 및 유사 등을 수록하였다. 권4에는 정산공(鼎山公) 박주(朴洲, ?~1604), 감정공(監正公) 박응천(朴應川, ?~1581)을 포함한 4명의 유문 및 유사 등을 수록하였고, 권5에는 증조부 졸헌공(拙軒公) 박응복(朴應福, 1530~1598)을 포함한 4명의 유문 및 유사 등을 수록하였다. 권6에는 참봉공(參奉公) 박동민(朴東民, 1556~1593), 남곽공(南郭公) 박동열(朴東說, 1564~1622)를 포함한 4명의 유문 및 유사 등을 수록하였고, 권7에는 권6에도 수록한 남곽공 박동열, 조부 오창공(梧窓公)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을 포함한 3명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다. 권8에는 권7에 이어서 오창공 박동량의 유사를 수록하였고, 권9에서 권7~8에 이어서 오창공 박동량의 유사와 동추공(同樞公) 박환(朴煥, 1584~1671)을 포함한 2명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다. 권10에는 목사공(牧使公) 박병(朴炳, 1587~1663)을 포함한 2명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고, 권11에는 첨정공(僉正公) 박린(朴潾, 1594~1665), 충숙공(忠肅公) 박정(朴炡, 1596~1632)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다. 권12에는 권11에 수록한 충숙공 박정, 나헌공(儒軒公) 박황(朴潢, 1597~1648)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고, 권13에는 권12에 수록한 나헌공 박황, 박세채의 아버지인 중봉공 박의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다. 권14에는 권13에 수록한 중봉공 박의와 관해공(觀海公) 박유를 포함한 4명의 유문 및 유사를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송효록(崇孝錄)’이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으며, 서명 아래에 각각 ‘일(一)’, ‘이(二)’ 등 책차 또한 먹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표지 우측 하단에는 ‘공칠(共七)’이라는 총책수를 먹으로 표시하였다. 본서는 장서각 소장본을 비롯하여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서문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송효록』 서문의 수록 여부는 『송효록』의 유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박세채가 자신의 집안인 반남박씨 집안 역대 선조들의 유문 및 유사 등을 모은 책으로 박세채의 반남박씨 선조현양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현재 행장(行狀) 등이 남아있지 않은 반남박씨 인물들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 한편 『송효록』이 당대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후대에 다른 가문에서 편찬한 비슷한 종류의 책에 모범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선조현양사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송효록(崇孝錄), 박세채(朴世采), 반남박씨(潘南朴氏), 실기(實記)

참고문헌

김현영, 「조선후기 반남박씨의 선조현양사업과 족적 결속」, 『古文書研究』 제62집, 한국고문서학회, 2023.

시선(詩選)

KOL000010292(제어번호 오류, 古3715-84의 제어번호임)

일산古3715-63

詩選 / 金萬基(朝鮮) 選定

木活字本(校書館筆書體字)

[漢城] : [校書館], [1710(肅宗 36) 跋]

11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1.3 × 13-13.5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7.5-27.3 × 17.2-16.5 cm

간행시기추정: 본관 소장 동일 판본 『詩選』(청구기호: 古3715-84)의 跋 ‘庚寅(1710)...李頤命’
印: 徐宗愈印, 師孟

1. 개요

본서는 중국 고대 악부시(樂府詩)부터 당시(唐詩)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시체(詩體) 중 900여수를 수록한 책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숙종의 장인인 김만기(金萬基, 1633~1687)가 시를 선정하였고 그 아들인 달보(達甫)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교서관필서체자(校書館筆書體字)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시를 선정한 김만기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영숙(永淑), 호는 서석(瑞石)이다. 부친은 생원 김익겸(金益兼)이고,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형이다. 1652년에 사마시를 거쳐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은 승문원 수찬, 교리 등을 지내면서 1674년에 숙종의 국구가 되었다.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훈련대장으로 공을 세워 보사공신(保社功臣)이 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저서에 『서석집(瑞石集)』이 있다.

권말에 수록된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발문에는 『시선』의 편찬자에 대한 설명과 해당서의 특징점이 잘 드러나 있다. 시를 300편 선정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고 그 후 소명태자(昭明太子) 이하로는 시를 선정한 사람이 매우 많아졌지만, 혹은 편벽되거나 널리 망라하지 못하여 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병통으로 여겼다. 김진규가 그 선친 서석(瑞石) 김만기가 선정한 『시선』을 간행했다고 되어 있다. 시를 선정한 세대를 살펴보면 주(周)·한(漢)·위(魏)·진(晉)·송(宋)·제(齊)·양(梁)·진(陳)·수(隋)·당(唐)에 이르고, 시체(詩體)로 보면 가요(歌謠)·악부(樂府)·고시(古詩)·율시(律詩)·절구(絶句)를 망라하였다. 또 송(宋)과 명(明)의 사람들이 시를 평론한 명언을 취하여 권수에 수록하였고, 편구의 아래에 분주(分註)하였으니 간략하면서도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극찬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1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卷首)에는 「시선제가총론(詩選諸家總論)」이 수록되어 있다. ‘종영운(鍾嶸云) 시자유삼의(詩者有三義)’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는 시에 대한 문필가의 견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이명의 발문에서 ‘송(宋)과 명(明)의 사람들이 시를 평론한 명언을 취하여 권수에 수록하였다[又取宋明人評詩之名

言列之卷首』라고 것이 바로 이 총론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만기가 시에 대한 평론 중 명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직접 편집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시선제가총론」 뒤에는 총목(總目)을 수록하고, 각권 첫머리에는 권별 목록을 수록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작자명과 시제명, 시의 내용을 차례로 수록하고, 송과 명의 시 평론 중 타당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주석으로 채택하여 소자쌍행으로 수록하였다. 이이명의 발문에서 ‘편구의 아래에 분주하였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구성을 설명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여러 시체(詩體) 중 『시경』 이전의 고일시(古逸詩) 및 악부시(樂府詩)를 각 역조별로 수록하였고, 당대(唐代) 5언·7언의 고시(古詩)·율시(律詩)·배율(排律)·절구(絕句)를 뒤에 수록하였다. 권1에는 고일(古逸) 19수, 한악부(漢樂府) 41수, 권2에는 위악부(魏樂府) 14수, 진악부(晉樂府) 38수, 송악부(宋樂府) 15수, 제악부(齊樂府) 8수, 양악부(梁樂府) 13수, 진악부(陳樂府) 1수, 북조악부(北朝樂府) 4수, 수악부(隋樂府) 2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한시(漢詩) 36수, 위시 27수가, 권4에는 진시(晉詩) 31수, 송시 25수, 제시 8수, 양시 16수, 진시(陳詩) 2수, 북조시 2수, 수시 3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5-11은 당시(唐詩)로, 권5에는 5언고시 115수, 권6에는 7언고시 70수, 권7에는 5언율시 116수, 권8에는 5언배율 53수, 권9에는 7언율시 90수, 권10에는 5언절구 104수, 권11에는 7언절구 114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동종본의 권말에는 1710년(숙종 36)에 이이명이 쓴 발문이 있으나, 본 해제 대상서에는 발문이 없다.

4. 서지적 특성

본 해제서의 표제(表題)는 따로 있지 않으며, ‘원(元)’·‘형(亨)’·‘이(利)’·‘정(貞)’이라는 책차(冊次)가 묵서(墨書)되어 있다. 목활자(木活字)인 교서관필서체자(校書館筆書體字)로 인출한 책으로, 금속활자를 섞어 사용하였다. 본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본관 소장 동일 판본 『시선』(청구기호: 古3715-84)의 권말(卷末)에 수록된 이이명(李頤命)의 발문(跋文)을 통해 1710년경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10년은 편찬자 김만기의 아들 김진규가 대제학을 지내고 있을 때이다. 각책의 권수면에는 ‘서종유인(徐宗愈印)’, ‘사맹(師孟)’ 인장이 답인되어 있어, 본 해제서의 이전 소장자가 서종유(徐宗愈, 1672~1720)임을 알 수 있다. 서종유는 『조야기문(朝野記聞)』 등의 저술을 편찬한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의 아들이며,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사위이다. 서종유의 부친 서문중과 편찬자 김만기는 연배가 비슷하고, 당색이 모두 서인(西人)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개인적인 친분으로 본 해제서를 증여하고, 그 아들인 서종유가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 해제서는 조선 중기의 문인인 김만기가 시대별·시체별로 선정한 시를 모아 그의 아들인 김진규가 대제학을 지내고 있을 당시 교서관필서체자로 간행한 책이다.

『시선』이라는 책의 내용을 통하여 조선 중기의 문인인 김만기의 취향과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본 해제서에 압인된 인장을 통해 이 책이 서인과 노론 사이에서 유통되고 향유된 정황을 살필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시선(詩選), 김만기(金萬基), 김진규(金鎭圭)

시수(詩藪)

KOL000028211

한古朝45-나21

詩藪 / 胡應麟(明)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7世紀]

本編6卷, 雜編6卷, 續編2卷, 共6冊 : 四周雙邊 半郭 18.0 × 13.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花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6.7 × 17.9 cm

序: 汪道昆

1. 개요

중국 명대(明代)의 문학가인 호응린(胡應麟, 1551~1602)이 시에 대하여 역조별로 평론한 책이다. 본서는 조선에서 17세기 무렵 간행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시수』의 저자 호응린은 중국 절강(浙江) 난계(蘭溪) 사람으로, 자는 원서(元瑞), 호는 석양생(石羊生)·소실산인(少室山人) 등이다. 1576년 향시(鄉試)에 합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서 여러 차례 낙방하여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당시 후칠자(後七子) 중 한 명인 왕세정(王世貞, 1526~1590)과 함께 시사(詩社) 활동을 하였다. 『시수(詩藪)』 또한 이 시기에 편찬하였다. 권수에 수록된 왕도곤(汪道昆, 1525~1593)의 서문에서는 『시수』가 엄우(嚴羽)의 『창량시화(滄浪詩話)』와 왕세정의 『예원치언(藝苑卮言)』을 이어 그 이후의 시를 평론한 것이라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내편(內篇) 6권, 외편(外篇) 6권, 잡편(雜篇) 6권, 속편(續篇)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은 ‘시에 대한 담론[詩談]의 수풀[林藪]’이라는 의미로 명명하였다. 주(周)·한(漢)부터 육조(六朝)·당(唐)·송(宋)·원(元)·명(明)에 이르기까지의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에 대한 논평이다.

『시수』의 초간본(初刊本)은 호응린이 39세(1589) 때 간행되었다. 전편(全篇)은 내편(內篇)·외편(外篇)·잡편(雜篇)·속편(續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간본에는 내편과 외편까지 포함되어 있고, 잡편과 속편은 이후에 보충된 것이다. 다음은 그 권차와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내편			외편		잡편			속편		
권1	古體 上	雜言	권1	周·漢	권1	遺逸 上	篇章	권1	國 朝 上	洪 永 · 成 洪
권2	古體 中	五言	권2	六朝	권2	遺逸 中	載籍			
권3	古體 下	七言	권3	唐 上	권3	遺逸 下	三國			
권4	近體 上	五言	권4	唐 下	권4	閏餘 上	五代	권2	國 朝 下	正 德 · 嘉 靖
권5	近體 中	七言	권5	宋	권5	閏餘 中	南渡			
권6	近體 下	絶句	권6	元	권6	閏餘 下	中州			

내편(內篇)은 제1-2책으로, 내편 권1-3은 고체시에 대한 논평이다. 내편 권1에는 잡언(雜言),

권2에는 오언(五言), 권3에는 칠언(七言)을 수록하였다. 제2책 내편 권4-6은 당대(唐代) 이후 근체시의 절구(絶句)를 논평한 것이다. 권4에는 오언, 권5-6에는 칠언을 수록하였다.

외편(外篇)은 제3-4책으로, 외편 권1 주한(周漢), 권2 육조(六朝), 권3 당상(唐上), 권4 당하(唐下), 권5 송(宋), 권6 원(元)에 이르는 역대 시를 논평한 것이다. 잡편(雜篇)은 제5책 권1-4 및 6책 권5-6에 해당한다. 잡편 권1-3은 유일(遺逸)을 수록하였고, 엮은 것으로, 편장(篇章)·載籍·三國을 논하였다. 잡편 권4-6은 윤여(閏餘)로, 나머지 시인 오대(五代)·남만(南蠻) 등의 시를 논평한 것이다. 제6책 말미에 수록된 속편(續篇) 권1-2는 명대(明代)의 시를 논평한 것이다.

4. 서지적 특성

표제 및 권수제·판심제는 모두 ‘시수(詩藪)’이다. 표제 하단에는 책차(冊次)가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로 표기되어 있고 서뇌(書腦)에 총책수 표시가 ‘공육(共六)’으로 필사되어 있어, 본서가 6책의 완질본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우측에는 편명이 필사되어 있다. 본서는 발행사항이 확실치 않으나, 그 판식으로 미루어보아 명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7세기경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는 귀갑문(龜甲紋)으로, 17세기에 간행되었을 당시의 표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명대 문학가 호응린이 역조별, 시체별(詩體別)로 시에 대한 논평을 정리한 책이다. 『시수』는 중국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시단(詩壇)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李植, 1584~1647)부터 조선 후기의 임방(任陞, 1640~1724), 이의현(李宜顯, 1669~1745)에 이르기까지 『시수』를 읽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에서 간행한 본서의 존재 역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은슬)

핵심어 호응린(胡應麟), 시수(詩藪), 왕세정(王世貞)

시종(詩宗)

KOL000028242

古朝45-나48

詩宗 / 張混(朝鮮) 編

木活字本(張混字)

[漢城] : [發行處不明], [純祖年間(1800~1834)]

24卷13冊 : 四周單邊 半郭 18.2 × 12.2 cm, 10行20字, 上下向白魚尾 : 25.1 × 16.0 cm

義例(卷首)

表題: 詩泉(第1-2冊)·詩宗(第3-12冊)

印: 鄭口愚, 溫城, 李雲承, 韓山

1. 개요

조선 후기의 문신 장혼(張混, 1759~1828)이 중국의 고대로부터 명나라까지의 시가를 수집하고 분류한 책이다. 장혼자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장혼의 본관은 결성(結城), 자는 원일(元一), 호는 이이엄(而已)·공공자(空空子)이다. 서울 지역에서 대대로 거주하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장필한(張弼漢)은 위항시인(委巷詩人)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소대풍요(昭代風謠)』에 시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부친은 문음(門蔭)으로 통례원(通禮院) 우통례(右通禮)를 지낸 장우벽(張友璧)이다. 아들 장창(張昶)과 장욱(張旭), 손자 장효무(張孝懋)도 시로 이름이 높았다. 장혼은 정조 14(1790)년 감인소(監印所)를 설치하자 대제학이던 오재순(吳載純)의 추천으로 교서관(校書館) 사준(司準)이 되어 서적편찬에 종사했다. 순조 16(1816)년까지 근무하면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수많은 어정서(御定書)를 교정했으며 율곡의 『율곡전서』 등 문집류를 교정, 간행했다.

장혼은 인왕산 옥류동(玉流洞) 골짜기에 ‘이이엄’이라는 집을 짓고 자신과 같이 중인에 속하는 위항시인들과 시회를 결성하였다. 정조 10(1786)년에는 천수경(千壽慶) 등과 함께 시를 수창하는 모임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를 결성해 중추적 구실을 담당했다. 정조 21(1797)년에는 천수경과 함께 『풍요속선(風謠續選)』을 간행했다. 이이엄자(而已)라는 목활자를 만들어 책을 간행했다. 본서 또한 이이엄자로 간행한 책이다.

본서의 「의례」에는 편찬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의례」에 의하면 고금의 시선집 가운데 가장 정박(精博)한 소통(蕭統)의 『문선(文選)』, 풍유눌(馮惟訥)의 『고시기(古詩紀)』, 고병(高棟)의 『당시품회(唐詩品彙)』의 시를 모으고 부족한 역조의 시를 보충한다고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 윤집(潤集) 1책과 24권 12집 12책, 모두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각 집별 수록된 권차와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권차 및 내용	
윤집(潤集)	義例, 總目, 集論, 世次	
자집(子集)	卷1	古逸 (擊壤歌 等) / 集言詩·三言詩
	卷2	四言詩 (五子之歌, 箜篌引 等)
축집(丑集)	卷3	五言古詩 (與蘇武詩 等)
	卷4	五言古詩 (輕薄篇, 招隱詩 等)
인집(寅集)	卷5	五言古詩 (過歷山湛長史草堂, 登池上樓 等)
	卷6	五言古詩 (正朝臨朝, 述懷, 望廬山瀑布水, 西施詠 等)
묘집(卯集)	卷7	五言古詩 (游龍門奉先寺, 石壕吏, 壯遊, 相逢行, 南澗中題 等)
	卷8	五言古詩 (秋懷詩, 遊子吟, 小閣閒坐, 無題, 跋子瞻和陶詩 等)
진집(辰集)	卷9	七言古詩 (皇娥歌, 胡笳十八拍, 採蓮曲, 將進酒 等)
	卷10	七言古詩 (飲中八仙歌, 哀王孫, 杜鵑行, 鴈門太守行, 南溪 等)
사집(巳集)	卷11	五言絶句 (昭君怨, 題袁氏別業 等) / 六言絶句 (名與身孰親 等)
	卷12	七言絶句 (回鄉偶書, 山中問答, 除夜作, 秋思 等)
오집(午集)	卷13	五言律詩 (奉和隨王殿下, 春望 等)
	卷14	五言律詩 (松江獨宿, 陳後主 等)
미집(未集)	卷15	五言律詩 (村家, 荊州 等)
	卷16	五言律詩 (太公釣渭圖, 芝山 等)
신집(申集)	卷17	七言律詩 (奉和初春幸太平公主南莊應制 等)
	卷18	七言律詩 (長沙過賈誼宅, 左遷至藍關示姪孫湘 等)
유집(酉集)	卷19	七言律詩 (隋宮 等)
	卷20	七言律詩 (題潼關蘭若 等)
술집(戌集)	卷21	七言律詩 (禁林春直 等)
	卷22	七言律詩 (九日 等)
해집(亥集)	卷23	七言律詩 (寓姑蘇半塘寺 等)
	卷24	七言律詩 (秋日園居 等) / 五言排律 (靈隱寺 等)

권수는 윤집(潤集)으로, 의례(義例), 시종총목(詩宗總目)이 수록되어 있다. 집론(集論)을 수록하여 수록 작품에 대한 문필가들의 비평을 집록하였다. 鍾嶸, 劉勰, 沈約, 殷璠, 梅聖俞, 嚴羽, 李夢陽, 謝榛, 王世貞, 胡應麟, 黃庭堅, 朱熹, 高棅, 葉岑翁, 楊士奇, 陶瀚 등의 설을 인용하였는데, 明代의 왕세정, 호응린의 시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차(世次)」에서는 본서에 수록된 시의 찬자를 고일(古逸)·한(漢)·위(魏)·오(吳)·진(晉)·송(宋)·제(齊)·양(梁)·진(陳)·북위(北魏)·북제(北齊)·북주(北周)·수(隋)·당(唐)·송(宋)·원(元)·명(明) 등의 역조순으로 배열하고, 성명과 자호, 약력 등을 적었다.

권1과 권2는 자집(子集)으로, 한위(漢魏) 이전의 시를 모은 고일(古逸)로 지칭하여 수록하였다. 권1에는 고일시 119수 및 집언시(集言詩)·삼언시(三言詩) 25수, 권2에는 사언시(四言詩) 153수가 실려 있다. 권5-8에는 오언고시를 수록하였다. 축집(丑集) 권3에는 한위의 시 178수, 권4에는 진(晉)의 시 163수를 수록하였다. 인집(寅集) 권5에는 송(宋)부터 수(隋)까지의 시 203수, 권6에는 227수를 수록하였다. 묘집(卯集) 권7에는 184수, 권8에는 126수를 수록하였다. 진집(辰集) 권9에는 162수, 권10에는 134수의 권9-10까지는 칠언고시가 수록되어 있다. 사집(巳集) 권11에는 오언절구와 육언절구, 권12에는 칠언절구 370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13-16까지는 오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오집(午集) 권13에는 제(齊)부터 당(唐)까지의 시 245수, 권14에는 238수가 수록되어 있다. 미집(未集) 권15에는 364수, 권16에는 267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17-24까지는 칠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신집(申集) 권17에는 163수, 권18에는 216수가 수

록되어 있다. 유집(酉集) 권19에는 206수, 권20에는 206수가 수록되어 있다. 술집(戌集) 권21에는 233수, 권22에는 235수가 수록되어 있다. 해집(亥集) 권23에는 203수, 권24에는 141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24 말미에는 낙빈왕(駱賓王)의 「영은사(靈隱寺)」 등 오언배을 49수가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1-2책의 표제는 ‘시천(詩泉)’, 나머지는 ‘시종(詩宗)’이다. 권수제 및 판심제는 모두 ‘시종(詩宗)’이고, 판심 어미 하단에 ‘윤집(潤集)’·‘자집(子集)’·‘축집(丑集)’...‘해집(亥集)’으로 집수가 표기되어 있다. 하판구(下版口) 우측에 장차(張次)가 표기되어 있다. 1-2책 권수면에 답인되어 있던 장서인을 도할(刀割)하고 다른 종이를 덧댄 흔적이 있다. 제3책-12책 권수면에는 ‘정□우(鄭□愚)’, ‘온성(溫城)’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온양(溫陽) 정씨 집안에서 본서를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잘라 낸 인장은 ‘이운승(李雲承)’·‘한산(韓山)’ 인장으로, 제 12책 등에 남아있다. 이운승(1837~?)은 1837년(헌종 3)에 진사가 된 인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공계(公繼)이다.

5. 종합 평가

상고시대부터 명대까지의 중국 역대의 고시와 근체시 등을 망라하여 선록한 시선집이다. 중국 한시의 작품과 작자 연구, 한시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대표적인 여향문학가인 장혼이 선호하던 시와, 당시 유행하던 시의 풍격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시종(詩宗), 장혼(張混), 장혼자(張混字)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

KOL000028214

古朝45-나28

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 / 元好問(金) 編; 郝天挺(元) 註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宣祖 14(1581)引

4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0.4 × 15.0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9 × 19.0 cm

重刊引: 萬曆辛巳(1581)...楊淙

1. 개요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은 금나라의 문인인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이 편찬한 당시선집(唐詩選集)인 『당시고취(唐詩鼓吹)』에 원나라 문인이자 원호문의 제자인 학천정(郝天挺, 1247~1313)이 주석(註釋)을 단 『당시고취대전(唐詩鼓吹大全)』을 명나라 때 현재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에서 새로 편집한 당시선집(唐詩選集)이다. 본서는 목판(木板)으로 간행한 목판본(木板本)으로 중국의 책을 조선에서 번각하여 간행한 판본으로 보인다.

서명인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에서 ‘신각소판’은 새롭게 강소성에서 판각한 책이라는 의미이고, ‘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은 과거 간행한 『당시고취대전』에 해석을 붙였다는 의미이다. 정리해보면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이라는 서명은 과거 간행하였던 『당시고취대전』에 해석을 붙여서 강소성에서 새롭게 판각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의 바탕인 『당시고취』를 편찬한 원호문은 금나라의 문인으로 자가 유지(裕之)이고 호가 유산(遺山)이다. 현재의 산서성(山西省) 현현(忻縣) 출신으로 금 명창(明昌) 1(1190)년에 태어났다. 7세 무렵부터 시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불렀다. 과거를 준비하였으나 몇 차례 낙방하고 중간에 몽골이 금나라를 침공하는 등 전란이 일어나서 32세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금나라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던 가운데 몽골군의 공격으로 금나라가 멸망하자 몽골의 관직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거하였다. 원 헌종(獻宗) 7(1257)년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고취』에 주석을 달아 『당시고취대전』으로 편성한 학천정은 자가 계선(繼先)이고 호가 신재(新齋)이다. 원나라의 문인으로 일찍부터 원호문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후에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1215~1294)가 불러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여러 원나라 황제를 거치며 여러 관직들을 역임하였다. 관직 생활 중에는 여러 정책을 발의하였다. 원 황경(皇慶) 3(1314)년에 세상을 떠났다.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명나라 문인인 양종(楊淙)이 지은 소인(小引,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소인에 의하면, 『당시고취』가 자유분방한 당시 가운데 뛰어난 것들을 뽑고, 이에 대해서 학천정이 주석을 달아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금릉(金陵) 즉 현재의 남경에서 간행한다고 밝혔다.

3. 구성 및 내용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은 총 4권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양종이 지은 소인과 목록(目錄)을 수록하였다. 권 1에는 율시(律詩) 111편을 수록하였고, 권 2에는 율시 120편을 수록하였다. 권 3에는 율시 137편을 수록하였고, 권 4에는 율시 148편을 수록하였다. 내용 구성은 가장 먼저 저자의 이름과 그에 대한 주석을 수록하였다. 그 다음에는 시의 제목과 본문을 수록하였고, 해당 하는 내용에 대한 주석은 내용 바로 아래에 수록하였다.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에는 유종원(柳宗元, 773~819), 허혼(許渾, 791~?), 설봉(薛逢) 등의 시를 수록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당나라 대에 시로 이름 높았던 이백(李白, 701~762), 두보(杜甫, 712~770), 한유(韓愈, 768~824) 등이 빠졌다는 점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목판본으로, 초기 간행 관련 기록이 책의 뒷부분이 아닌 본문에 남아 있다. 권 1의 권수제(卷首題, 각 권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제목) 옆에는 ‘금릉 삼산 근천주현 재(金陵 三山 近泉周顯 梓)’라는 기록이 있는데, 기록 끝부분의 재가 보통 판각하였다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행 관련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에서 나오는 금릉은 현재 강소성 남경시이며 삼산(三山)은 명나라 후기에 남경에서 유명한 서점가인 삼산가(三山街)이다. 뒤이어 나오는 근천주현(近泉周顯)은 삼산가에서 유명한 서상(書商, 책을 파는 사람)인 주씨(周氏) 집안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이 중국에서 방각본(坊刻本, 판매 목적으로 간행한 책)으로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서의 표지에는 ‘당시고취(唐詩鼓吹)’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놓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 동일한 판본의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동곡고3715-167) 1권 1책을 소장하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원호문이 편찬하고 학천정이 주석을 단 『당시고취대전』에 명나라 때 새로 편집을 가한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을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책이다. 『당시고취』는 조선 전기에 많이 유통되었던 책으로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은 조선 시대 특히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온 문학 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학서이다. 또한 본서는 중국의 방각본을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책으로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과의 서적 교류에 대해서 엿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신각소판고본구해당시고취대전(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 원호문(元好問), 당시(唐詩), 시선집(詩選集)

참고문헌

노경희, 「17.8세기 조선과 예도 문단의 당시선집(唐詩選集) 수용과 간행 양상 비교 연구」, 『다산과 현대』 제3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0.

최석원, 「문학적 전범으로서 ‘唐詩’에 대한 지식의 유통과 확산」, 『中國語文論叢』 제93집, 2019.

李天保, 「元明时期《唐詩鼓吹》版本考述」, 『清华大学学报』 第34卷, 2019.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新刊官板批評正百將傳)

KOL000010151

일산古3644-67

新刊官板批評正百將傳. 卷3-4 / 張預(南宋) 集; 趙光裕(明) 評

木活字本(甲寅字體訓練都監字本)

[漢城] : [發行處不明], [17世紀]

2卷1冊(缺帙, 全10卷5冊): 四周雙邊 半郭 24.5 × 16.9 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5 × 21.7 cm

卷末題: 正百將傳評林

頭註 있음

卷4 40張 以後 缺落

1. 개요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新刊官板批評正百將傳)』은 남송의 문인인 장예(張預)가 중국 주나라부터 오대십국(五代十國)까지 명장(名將) 100명의 전기(傳記)를 정리한 『십칠사백장전(十七史百將傳)』에 명나라 문인 조광유(趙光裕)가 새롭게 비평(批評)을 달아서 간행한 책이다. 본서는 목활자(木活字)인 갑인자체훈련도감자(甲寅字體訓練都監字)로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이다. 서명인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에서 ‘신간관판’은 새롭게 관청에서 간행한 책이라는 의미이고, ‘비평정백장전’은 정백장전 즉 『십칠사백장전』에 비평을 달았다는 의미이다. 정리해보면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이라는 서명은 『십칠사백장전』에 비평을 달아서 새롭게 관청에서 간행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은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간행한 방각본(坊刻本, 판매 목적으로 간행한 책)인 것으로 보인다. 서명에 ‘관판’이 들어간 까닭은 본서가 신뢰성이 높은 책이라고 홍보하기 위해 삽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의 바탕인 『십칠사백장전』을 편찬한 장예는 남송대의 문인으로 자는 공립(公立)이며, 현재의 하북성(河北省) 창주(滄州) 출신이다. 병법에 능해서 『십칠사백장전』 외에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주석(註釋)을 달았다고 전해진다. 이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십칠사백장전』에 비평을 달아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으로 편성한 조광유는 명나라의 문인으로 자는 극영(克榮)이며, 현재의 절강성(浙江省) 출신이다. 장예와 마찬가지로 병법에 능해서 『손자병법』 등 여러 병법서에 주석을 달았다고 전해진다. 그 외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본서에는 없는 조광유의 서문(序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해당 서문은 권 1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광유의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예의 『십칠사백장전』가 세상에 나온 후, 명나라 문인인 하교신(何喬新, 1427~1502)이 『십칠사백장전』의 체제를 빌려서 송나라와 원나라 명장 40명의 전기를 정리한 『속백장전(續百將傳)』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십칠사백장전』과 『속백장전』에 빠진 내용들이 많아졌으므로 병법을 잘 아는 조광유에게 주변 사람들이 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광유가 청을 받아들여 『십칠사백장전』와 『속백장전』을 교정을 하고, 나아가 비평까지 달아서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과 『신간관판비평속백장전(新刊官板批評續百將傳)』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내용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은 총 10권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각 권에 수록하고 있는 글의 종류를 살펴보면, 권 1에는 주나라의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 기원전 1211~기원전 1072)부터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이목(李牧, ?~기원전 229)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고, 권 2에는 전국시대의 조사(趙奢)부터 전한(前漢)의 조충국(趙充國, 기원전 137~기원전 52)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권 3에는 전한의 진탕(陳湯, ?~기원전 6)부터 후한(後漢)의 경공(耿恭)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고, 권 4에는 후한의 왕패(王霸, ?~59)부터 황보숭(皇甫崇, ?~195)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권 5에는 후한의 주준(朱雋, ?~195)부터 촉한(蜀漢)의 장비(張飛, ?~221)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고, 권 6에는 오나라의 주유(周瑜, 175~210)부터 동진(東晉)의 도간(陶侃, 257~332)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권 7에는 동진의 사현(謝玄, 343~388)부터 북위(北魏)의 우근(于謹, 493~568)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고, 권 8에는 북제(北齊)의 곡율광(斛律光, 515~572)부터 당나라의 위지공(尉遲恭, 585~658)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권 9에는 당나라의 이정(李靖, 571~649)부터 이사업(李嗣業, ?~759)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고, 권 10에는 당나라의 이광필(李光弼, 708~764)부터 후주(後周)의 유사(劉訶, 891~955)까지 1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본서는 결질본(缺帙本)으로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 가운데 권 3~4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본서의 각 권 앞부분에는 해당 권의 목차(目次)를 수록하였다. 본문을 살펴보면 권 3에는 전한의 진탕, 풍봉세(馮奉世, ?~기원전 39), 후한의 등우(鄧禹, 2~58), 구순(寇恂, ?~36), 풍이(馮異, ?~34), 잠팽(岑彭, ?~35), 가복(賈復, 9~55), 오한(吳漢, ?~44), 경공까지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권 4에는 후한의 왕패, 장궁(藏宮, ?~58), 제준(祭遵, ?~33), 마원(馬援, 기원전 14~49), 반초(班超, 32~102), 우후(虞詡), 황보규(皇甫規, 104~174), 장환(張奐, 104~181), 단기명(段紀明, ?~179), 황보숭까지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목활자인 갑인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한 책으로 본서에는 특별히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본서를 갑인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하였기 때문에 훈련도감자를 이용해서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던 17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 책은 책의 뒷부분이 아닌 본문에 초기 중국에서 간행한 것과 관련한 기록이 있다. 각 권의 권수제(卷首題, 각 권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제목) 옆에는 ‘금릉 주왈교 응헌보각(金陵 周曰校 應賢甫刊)’이라는 기록이 있다. 기록에서 나오는 금릉은 현재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이며, 주왈교는 남경에서 유명한 서상(書商, 책을 파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서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이 중국에서 방각본으로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방각본을 조선에서 목활자로 다시 간행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문 중에는 서두(書頭, 광곽의 위쪽에 있는 빈자리)에 주석을 단 두주(頭註)가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장예의 『십칠사백장전』을 조광유가 새롭게 비평을 달아서 간행한 일종의 전기문(傳記

文)을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책으로 이를 통해 당시 중국과의 서적 교류에 대해서 엿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서는 17세기에 목활자인 갑인자체훈련도감자로 간행한 판본으로 17세기 서적 간행 정책 및 목활자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신간관판비평정백장전(新刊官板批評正百將傳), 장예(張預), 전기(傳記), 갑인자체훈련도감자(甲寅字體訓練都監字)

참고문헌

우정훈, 『訓練都監字本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李坛坛, 「宋张预《百将传》的史料来源与成书时间」, 『文化学刊』 第1卷, 2023.

신수자경편(新修自警編)

KOL000018088

한古朝16-20

新修自警編 / 趙善璫(宋) 原編 ; 朴世采(朝鮮) 改編

金屬活字本(顯宗實錄字)

漢城 : [校書館], 肅宗 10(1684)

20卷9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2.7 × 15.5 cm,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0 × 20.3 cm

表題: 自警編補

版心題: 自警編

自警編本序: 嘉定甲申(1224)正月望漢國趙善璫序

新修自警編凡例, 新修自警編目錄

跋: 闕逢困敦(甲子, 1684)十二月癸丑潘陽朴世采謹書

印: 李夏坤印

1. 개요

본서는 송(宋)의 학자인 조선료(趙善璫)가 조정대신들의 언행을 모아 엮은 『자경편』을 토대로 조선 숙종 10(1684)년에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새롭게 증보하여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자경’이란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말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원편자인 조선료는 남송말기에 활동하던 문신학자로, 남송 이종(理宗) 연간(1205~1264)을 전후하여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자가 덕순(德純)이고, 송 왕조의 종실이다. 가정(嘉定) 원년(1208)에 장원 급제하였고, 수직랑(修職郎)을 거쳐 호주(湖州) 덕청현(德淸縣)의 주부(主簿)가 되어 문서처리를 담당했다. 대리평사(大理評事), 선교랑(宣敎郎), 통판(通判) 등을 역임하면서 민생의 안정에 힘을 기울였고, 1221년 경에 병으로 절강성(浙江省) 덕청현 구계(龜溪)에 은거하면서 1224년에 『자경편』을 편찬하고 1234년에 구강군재(九江郡齋)에서 간행했다.

『자경편』을 조선식으로 재판성한 박세채는 본관이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 또는 남계(南溪)이다. 서울의 명문세족으로 부친은 홍문관교리 박의(朴猗)이며, 어머니는 명문장가로 알려진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딸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에게 수학하였다. 송시열과 교류하면서 그의 손자인 손석(淳錫)을 사위로 두었다. 1649년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문묘종사 문제로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했다. 1659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고, 기해예송에서 송시열과 송준길의 기년설을 지지하며 서인 측의 이론가로 활약했다. 1674년 갑인예송으로 패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생활을 하다가,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사헌부 집의(執義)에 다시 등용되었다 이후 승정원 동부승지, 공조참판,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1684년 회니시비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을 막고자 했으나 결국 소론의 편에 서게 되고 소론계 학자들

과 교유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많은 저술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효종, 숙종연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으면서도 『범학전편(範學全編)』, 『춘추보편(春秋補編)』, 『삼례의(三禮儀)』, 『남계예설(南溪禮說)』,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주자대전습유(朱子大全拾遺)』 등을 비롯해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특히 예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평가된다.

조선료가 이 책을 짓게 된 동기는 그의 자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시경(詩經)』 「억(抑)」편에 위무공(衛武公)이 이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곁에서 외우게 하여 스스로를 경계하였던 일에 감흥하여, 조정 대신 138명의 언행을 모으고 주희의 『송명신언행록』의 체제를 참조하여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박세채는 기존의 『자경편』은 체제가 자세하지 못하다고 여겨 주자의 『명신록』 등을 토대로 본문을 증산(增刪)하여 독자들이 마음의 열고 안목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바른 학문의 범위를 정하여 세도(世道)와 국사(國事)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편찬했다.

3. 구성 및 내용

조선료의 『자경편』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주제로 하여 윤리규범에 따라 목차를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북송대 인물 138인에 대한 927편의 단문을 학문류(學問類), 조수류(操修類), 제가류(齊家類), 접물류(接物類), 출처류(出處類), 사군류(事君類), 정사류(政事類), 습유류(拾遺類) 등 8류(類)로 분류하고, 각 류 안에 유교적 윤리 규범에 맞게 새로운 조목을 두었다. 예를 들어 학문류에는 ‘학문(學問), 견식(見識), 기량(器量)’ 등 3조, 조수류에는 ‘정심(正心), 검신(檢身), 성실(誠實)’ 등 12조, 제가류에는 ‘효유(孝友), 교자손(教子孫)’ 등 4조 등 총 9류 58조의 세목으로 구분하였다.

신수자경편은 『자경편』에 송명신언행록,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소학 및 주자의 어록을 증보하여 편찬한 것으로, 『자경편』 가운데 성리학적 내용과 거리가 있는 습유류를 제외한 채 7류로 편찬했다. 이를 통해 주희의 도통관을 드러내고 그 의식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권두에 조선료의 자서, 신수자경편의 범례, 총목록이 수록되어 있고, 뒤에는 박세채의 발문이 있다.

4. 서지적 특성

『자경본』은 1234년에 송간본이 초간된 이래로 명초부터 명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중간되었다. 그 중 송간본이 여말선초 무렵에 국내에 유입되어 다양한 판본으로 간행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경본』의 제 판본은 1452년의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본, 현전본 미상), 1519년의 목판본(초주갑인자본각본), 1555년에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혼입보자), 1609년에 목활자본(추향당활자), 1664년에 송시열의 서문이 붙은 목판본 등 5종이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조선식으로 재구성하여 간행한 책으로는 박세채의 『신수자경편』을 비롯하여 1719년의 김창집의 『후자경편(後自警編)』, 1829년 이준수의 『광보자경편(廣補自警編)』, 18~19세기의 언해본 『자경편』이 있다. 『신수자경편』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필사본으로 전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일산古152-6, 古1240-9가 현종실록자본으로 인출되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료의 『자경편』을 전승하는 한편 조선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계통

의 『자경편』을 널리 유통하고 보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자경편(自警編), 조선료(趙善璫), 박세채(朴世采), 송간본(宋刊本), 중국본(中國本)

참고문헌

임기영, 『自警編』의 수용 및 간행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74, 한국서지학회, 2018.

안솔잎, 『조선시대 『自警編』의 간행과 편찬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신편기묘유적(新編己卯遺蹟)

KOL200600012

古2156-48

新編己卯遺蹟 / 安邦俊(朝鮮) 初編 ; 安壽麟(朝鮮) 新編

金屬活字本(整理字體鐵活字)

漢陽: [發行處不明], [正祖 23(1799)]

5卷2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3.7×17.0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3.1×21.0cm

表題: 己卯錄 (一)·(二)

版心題: 己卯遺蹟

所藏本: 冊1(卷1-2), 冊2(卷3-5)

1. 개요

『신편기묘유적(新編己卯遺蹟)』은 1519(중종 14)년에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대해 적은 책이다. 조광조(趙光祖)의 5세손 조창현(趙昌賢)이 초고를 정리하다가 끝나치지 못한 것을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 1642(인조 20)년에 편집하여 4권 2책의 『기묘유적(己卯遺蹟)』으로 처음 간행하였다. 그 후 1799(정조 23)년에 안수린(安壽麟)이 5권 2책으로 다시 구성하여 『신편기묘유적(新編己卯遺蹟)』을 간행하였다. 국립도서관 소장본은 1799년 안수린이 신편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안방준의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峰)·우산(牛山)·빙호(氷壺)이며,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박광전(朴光前)·박종정(朴宗挺)에게서 수학하고, 1591(선조 24)년 파산(坡山)에 가서 성훈(成渾)의 문인이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광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도 격문을 띄워 근왕(勤王)의 의기(義旗)를 높이 세웠다. 1614(광해군 6)년 보성 북쪽 우산(牛山)에 들어가 후진을 양성하였다. 일찍이 성리학에 전념하여, 호남 지방에서 명성을 떨쳤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중봉(重峯) 조헌(趙憲)을 가장 숭배하였으며, 이들의 호를 한자씩 빌어 자기의 호를 은봉이라 하였다. 안방준의 시문은 『은봉전서』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편저로 조헌을 추모하며 지은 『항의신편(抗義新編)』이 있고, 『이대원전(李大源傳)』, 『호남의병록(湖南義兵錄)』, 『삼원기사(三冤記事)』, 『사우감계록(師友鑑戒錄)』, 『혼정편록(混定編錄)』, 『매환문답(買還問答)』, 『기묘유적노랄수사(己卯遺蹟老辣瀟辭)』 등이 있다.

3. 구성 및 내용

『신편기묘유적』은 총 5권 2책으로 구성되어있다. 1799(정조 23)년에 송환기(宋煥箕)가 서서(序)를 썼다. 권1~2에는 조광조가 집권한 후 동료 사람들을 기용하여 기묘사람이 형성되고 그들이 4, 5년간 공의를 주도한 과정, 조광조의 경연 연설 및 여러 사적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권3~4에는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이 조광조 일파를 무고한 사실과 이신(李信)의 고변의

로 김식이 화를 입은 일 및 송사련(宋祀連)의 고변으로 안당 부자가 주살 당한 일을 기술하였다. 권5에는 남곤, 심정 등의 무리가 죽음과 처형당하는 등의 사건과 조광조가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를 받은 일 및 기묘제현(己卯諸賢)의 사적(事蹟)을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징

본서는 송환기(宋煥箕)의 서문(序文)에 기재된 ‘송정후삼기미계추덕은송환기서(崇禎後三己未季秋德殷宋煥箕序)’의 기록을 통해 간행 연대를 1799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묘유적』은 안방준의 문집 『은봉전서』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은 본서와 동일하다. 본서는 5권 2책의 정리자체 철활자 인본이다. 『기묘유적』은 주로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4권 2책),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3권 1책), 하버드 대학 옌칭도서관 소장본(4권 1책)이 있다. 정리자체 철활자 인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있으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엔 목활자본이 있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기묘사화와 관련된 각종 사건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며, 종종 때의 기호사림파(畿湖士林派)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본서는 정리자체 철활자로 간인된 희귀서로서 당시의 활판 인쇄술을 연구하는 데도 문헌학적 가치를 가진다. (이다희)

핵심어 기묘사화(己卯士禍), 조광조(趙光祖), 기묘유적(己卯遺蹟)

참고문헌

박미향, 「은봉 안방준의 절의사상, 『역사학연구』 38, 호남사학회, 2010.

악견집(嶽堅集)

KOL201000145

古3644-532

嶽堅集 / 朴瑞龜(朝鮮) 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顯宗3(1662)跋]

不分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0.0 × 14.3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0 × 19.0cm

序題: 嶽堅詩集

序: 丙申(1656)...曹挺立

序: 疆圉作噩(1657)...姜大遂

跋: 壬寅(1662)...晁敬

校正本임

1. 개요

『악견집(嶽堅集)』은 조선 중기에 활동한 박서구(朴瑞龜, 1546~1623)의 문집으로, 그의 영전(靈前)에 올린 제문(祭文), 만장(挽章)과 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 해제 대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악견집』은 초간본에 해당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박서구의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정하(呈夏), 호는 악견(嶽堅), 초수(樵叟)이다. 박언부(朴彦孚)의 후손으로 부친은 박사충(朴士忠), 조부는 박예(朴芸), 증조부는 박언림(朴彦林)이다. 어머니는 함종어씨(咸從魚氏)이며, 집의(執義)를 지낸 어영준(魚泳濬, 1483~1529)의 딸이다. 박서구는 박사충과 함종어씨 사이에서 1546(명종 원년)년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제로는 형 박서린(朴瑞麟), 동생 박서봉(朴瑞鵬)이 있다.

박서구는 경상도 출신으로 학행과 효행이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하였다. 황여일(黃汝一, 1556~1622), 신지제(申之悌, 1562~1624), 유중룡(柳仲龍, 1558~1635), 손인갑(孫仁甲, ?~1592) 등과 교류하였다. 문집에 따르면 그는 겨우 8-9세의 나이에 문리(文理)를 깨우쳤으며, 도구(陶丘) 이제신(李濟臣)에게 시를 배웠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곽재우(郭再祐, 1552~1617)와 함께 의병 활동을 하였다. 본 문집은 그의 유문(遺文)을 수습하여 그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아들 박현(朴晁)이 간행을 주도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악견집』은 불분권(不分卷) 1책(冊)이며, 서문과 부록, 본문, 발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1656(효종 7)년 조정립(曹挺立)이 지은 것과 1657(효종 8)년 강대수(姜大遂, 1591~1658)가 지은 것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강대수의 서문은 작성 시기를 강어작악(疆圉作噩)이라 표현하였는데, 강어는 정(丁), 작악은 유(酉)를 의미하는 고갑자(古甲子)로, 정유년을 의미한다. 강대수 서문 말미에는 서문을 진사(進士) 전영(全滌) 썼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서문을 받은 뒤 원문을 그대로 새긴 것이 아니라, 판식에 맞추어 전영이라는 인물이 판하본

(板下本)에 다시 옮겨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으로는 「박성종계(朴姓宗系)」, 제문, 만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율시(律詩), 표문(表文), 전문(箋文), 부(賦), 서(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은 아들 박현이 지은 것으로, 1662(현종 3)년에 지은 것이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의 본문 곳곳에 주묵(朱墨)을 사용하여 문구의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흔적이 서문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나, 강대수의 서문 말미에 표기된 진사 전영이 썼다는 문구부터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확인된다. 주묵으로 표기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는 특정 문구 내지 글자의 삭제이다. 해당 표현에는 삭제 표기를 하거나, ‘○’, ‘()’ 등의 표기를 사용하여 표기해두었다. 예를 들어 「박씨종계」 제6장 뒷변에는 ‘휘(諱)’자에 ‘○’ 표기가 되어 있으며, 제문 중에는 ‘문하족생김극민(門下族生金克敏)’이라는 문구 중 ‘족(族)’에 ‘○’ 표기를 해두었다. 만장의 경우 특정 인물의 관직에서 삭제 표기한 흔적이 확인되며, 본문 중에서도 율시의 주석 부분에서 삭제한 흔적이 확인된다.

두 번째로는 내용 및 글자 위치의 교열이다. 해당 표현에는 수정할 부분이 있는 글자의 난상(欄上), 글자의 곁 등에 수정할 내역 또는 수정할 글자를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글자 위치의 경우 ‘-’ 표기를 사용하여 잘못 띄워진 글자를 붙여야 한다는 표현을 해두었다. 해당 유형의 예시로는 「박성종계」의 편명 상단에 ‘제목은 2자를 낮춰라(題低二字)’라는 표현이나 ‘악견의 아들 현이 삼가 유적(遺跡)을 서술하여 자손들에게 보인다.(嶽堅之子現 謹誌述遺迹 示子孫)’이라는 표현 중 악견의 아들을 의미하는 악견지자(嶽堅之子)의 악견과 지자 사이 자간(字間)이 너무 멀어 ‘-’ 표기를 사용하여 붙여야한다고 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글자 중 획이 인출 불량으로 획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필(加筆)을 해둔 것이다. 해당 표현은 「박성종계」에서는 ‘갑(甲)’, ‘천(天)’의 글자에 가필한 것이 확인되며, 본문 제3장 뒷면 2행의 16번째 글자도 ‘탕(蕩)’의 초두변에 가필을 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교정(矯正)의 흔적은 1921년 간행되는 목활자본 『악견집』에서 대개 반영되었으므로, 본 해제 대상 『악견집』의 주묵은 1921년 간행된 목활자본 『악견집』 간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악견 박서구의 문집으로, 그의 문학 세계 및 교유관계, 역사적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해제 대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악견집』은 옛 소장자가 교정(校正)을 보았으며, 1921년 간행된 목활자본 『악견집』에 그 교정 내역이 반영되었으므로 역사적, 문헌학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다희)

핵심어 악견집(嶽堅集), 박서구(朴瑞龜), 교정(矯正)

참고문헌

박서구, 『악견시집(嶽堅詩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3644-453)

야곡선생집(冶谷先生集)

KOL000021473

한古朝17-59

冶谷先生集 : 三官記 / 趙克善(朝鮮) 著 ; 趙鍾灝 等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30(1893)]

4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3.9 x 17.8 cm, 12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1 x 21.6 cm

表題: 冶谷集

版心題: 冶谷先生集

卷頭: 冶谷先生事實記略

1. 개요

본서는 조선후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의 시문집인 『야곡선생집』 가운데 「삼관기(三官記)」만을 뽑아 인출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조극선은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유제(有諸), 호는 야곡(冶谷)으로, 충청도 덕산현(德山縣)에서 태어났다. 잠와(潛窩) 이명준(李命俊, 1572~1630), 잠야(潛冶) 박지계(朴知誠, 1573~1635),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 등을 스승으로 모셨다. 1623년(인조 1) 학행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으며, 면천군수·이조정랑·온양군수 등을 역임했다. 철종 대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문목(文穆)의 시호를 받았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면서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특히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록(日錄)」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5~29세까지는 『인재일록(忍齋日錄)』에, 30~41세까지는 『야곡일록(冶谷日錄)』에 남겨두었다. 이 밖에 「영일록(永日錄)」, 「삼관기」, 「잡기(雜記)」 등이 있다.

『야곡선생집』의 편찬과 관련해서는 1893년 조종호가 작성한 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저자의 유문은 일찍이 명재 윤증과 약천 남구만이 원고를 수정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한 채 상자 안에 간직되어 있었다. 이후 족조(族祖) 조세희(趙世熙)가 정본(正本)을 선사(善寫)하다가 마치지 못하였고, 조종호의 부친과 백형(伯兄) 또한 이 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조종호가 생질(甥姪) 이돈기(李敦器)와 다시 교정하였고, 조종호가 「사실기략(事實記略)」과 「세계(世系)」를 첨부한 후 6개월여에 걸쳐 간행을 마무리했다.

3. 구성 및 내용

1893년에 인출한 목활자본 『야곡선생집』은 원집 14권, 별집을 합하여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서는 4권 2책의 목활자본이며, 「삼관기」만을 수록하고 있다. 「삼관기」는 저자가 독서하고 사물을 대하면서 마음과 귀와 눈을 통해 경험한 바를 심관(心官), 이관(耳官), 목관(目官)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이다. 심관에는 모두 99개의 조항이, 이관은 상하로 구분하여 상에는 62개 조항, 하에는 47개 조항이, 목관은 104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목활자본 『야곡선생집』은 권두에 윤동수(尹東洙)의 서문과 「사실기략(事實記略)」, 총목록이 있다. 원집 14권과 별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은 시(詩) 52수가, 권2는 소(疏) 10편과 계(啓) 1편이, 권3~4는 조서(書) 38편이, 권5는 서(序) 4편, 기(記) 2편, 지(識) 5편, 논(論) 4편, 잠(箴) 3편, 설(說)이다. 이 중 「일록서(日錄序)」는 저자가 이명준에게 수학하기 시작하던 15세 경에 작성하기 시작한 일록의 서문이다. 권6은 잡저(雜著) 7편, 축문(祝文) 10편, 제문(祭文) 13편, 묘비기(墓碑記) 2편, 행장(行狀) 2편이다. 권7~10이 바로 「삼관기」이다. 권11~14는 부록으로 세계(世系)와 연보, 언행습유(言行拾遺), 사실(事實), 저자와 관련된 각종 행장과 묘지명 및 제문 등이 실려있다. 권말에는 조종호의 발문이 있다. 별집에는 1626년(인조 4)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啓運宮)이 사망하자, 인조의 상복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일을 계기로 작성한 「예설참의(禮說僭擬)」가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삼관기」는 조종호가 간행한 14권본 목활자본에서는 원집 권7~10에 있었던 것으로, 본서에서는 「삼관기」만을 별도로 분리한 후 본문과 판신의 권차만을 수정·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식과 활자모양 및 인출면의 특징이 14권본과 동일한 점에서, 본서 역시 1893년 경에 인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권두에 실린 「야곡선생사실기략」의 경우에는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야곡선생집』(古3648-72-85)은 「삼관기」에 해당하는 권7~10의 1책이 누락된 6책본으로 본서와 동일한 활자로 인출되었다. 이 외에 춘호재 소장 필사본에는 권두에 「연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계사유고간행(癸巳遺稿刊行)” 아래에 세주로 “본손인 종호의 집에 청(廳)을 설치해서 원집 5권 120질, 부록 1권 60질, 또 별도로 만든 삼관기 상하권 40질, 예설참의는 1권 40질을 6개월에 걸쳐 인출을 마쳤다.”라고 기록하여 당시 인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삼관기」는 고금의 역대 인물들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지리·풍속·제도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야곡선생집』 가운데서도 가장 역작으로 손꼽히며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야곡집(冶谷集), 삼관기(三官記), 인재일록(忍齋日錄), 야곡일록(冶谷日錄), 조극선(趙克善)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

KOL000022932

한古朝57-가3

梁大司馬實記 / 梁大樸(朝鮮) ; 梁慶遇(朝鮮) ; 梁亨遇(朝鮮) 共著
木板本

[全州府] : [完營], [正祖 20~23(1796~1799)]

11卷5冊(完帙): 插圖, 四周雙邊 半郭 21.2 × 14.7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33.3 × 21.8 cm

表題: 梁大司馬實記

版心題: 梁大司馬實記

書根題: 梁大司馬實記

奉教書: 上之二十三年己未(1799)孟冬上澣原任奎章閣提學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臣沈煥之奉教書

御製贈兼兵曹判書大提學忠壯公梁大樸致祭文(己未)

雲巖破倭圖, 筆蹟, 世譜, 總目

內賜記: 咸豐十年(1860)四月日日檢校待教李容殷內賜梁大司馬實記一件命除賜恩 檢校待教臣徐
[手決]

內容: 卷1-5(冊1-3), 靑溪集 / 梁大樸 著.-- 卷6(冊3), 附錄.-- 卷7-10(冊4-5), 靑湖集 / 梁
慶遇 著.-- 卷11(冊5), 東崖集 / 梁亨遇 著

印: 奎章之寶 外

1. 개요

16세기 전라도 남원(南原) 지역의 시인이자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청계(靑溪) 양대박(梁大樸, 1543~1592)의 행적(行蹟)과 문장(文章)을 집대성한 책으로, 정조 20(1796)년에 왕명에 의해 11권으로 편찬되었다.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는 1796년에 대사마 즉 병조판서에 추증된 양대박의 실기를 말한다. 그러나 양대박의 실기 뒤에 그의 아들인 양경우(梁慶遇, 1568~?)와 양형우(梁亨遇, 1570~1623)의 문집이 5권(권7~11)에 걸쳐 부록으로 실려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양대박의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사진(士眞)이고, 호는 송암(松巖), 죽암(竹巖), 하곡(荷谷), 청계도인(靑溪道人)이다. 1543년 남원의 지리산 자락에서 출생하였다. 우계(牛溪) 성훈(成渾, 1535~1598)의 제자이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지역에서 제일 먼저 창의(倡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대로 전해진 부유한 재산을 토대로 군비와 군량을 마련하고,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과로로 사망했다. 생전에는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칭해졌던 이달(李達, 1539~1612)·백광훈(白光勳)·임제(林悌)를 비롯하여 박순(朴淳, 1523~1589) 등 당대의 이름난 시인들과 교류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사후에는 임진왜란의 공로로 김천일, 이순신에 비견되는 충절의 인물로 평가받았다.

양경우는 양대박의 장자로 자는 자점(子漸), 호는 제호(霽湖)·점역재(點易齋)·요정(蓼汀)·태암(泰

巖)이다. 시비평서로 유명한 『제호시화(霽湖詩話)』를 저술할 정도로 문장으로 이름났다. 1796년에 부친이 병조판서에 추증될 적에 이조참의에 증직(贈職)되었다.

양형우는 양대박의 차자로, 자가 자발(子發), 호는 동애(東厓)이다. 형과 함께 사계 김장생에게 수학하였고, 임진왜란 당시에 부친과 형과 함께 의병에 가담했다. 그 역시 시를 잘 짓기로 유명했다.

이 책의 편찬은 정조 연간에 양대박의 문학과 행적을 현창하기 위해 시행했던 증직과 포상 및 면역 등과 같은 일련의 추송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1796년에 정조는 양대박을 비롯하여 두 아들이 시를 잘 짓기로 유명했으나 문집책판이 소실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내각에 보관하던 문집과 『창의록(倡義錄)』을 꺼내 김근수(金近淳, 1772~?)에게 한 책으로 만들 것을 명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유통되었던 문집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었다. 정조는 충신을 숭상하고 공로를 찬양하는 뜻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자 완성된 책자를 호남감영에 내려 보내 책판을 제작하게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이 책의 체제는 크게 권두(卷頭)와 양대박 관련 행적과 유고, 양경우의 문집, 양형우의 문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분하여 양대박과 관련된 내용은 「창의(倡義)」(권1), 「포충(褒忠)」(권2), 「유고(遺藁)」(권3~5), 「부록(附錄)」(권6)이며, 양경우는 「부제호집(附霽湖集)」(권7~10), 양형우는 「부동애집(附東崖集)」(권11)에 실려있다.

권두에는 「봉교서(奉教書)」, 「치제문(致祭文)」, 「운암파왜도(雲巖破倭圖)」, 「필적(筆蹟)」, 「세보(世譜)」, 「총목(總目)」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운암파왜도」는 임진왜란 당시에 양대박과 양경우가 전라도 운암에서 왜적과 대적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해당 삽화가 전래된 내력과 모사 경위 등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필적」은 양대박의 필적을 모사한 것이며, 세보는 『양대사마실기』가 간행될 당시까지의 남원양씨 직계 가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권1의 「창의」는 임진왜란 당시에 양대박과 그 아들들의 의병 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기술한 「종군일기」를 비롯하여, 운암파왜도에 대한 전래과정에 대한 「운암파왜도기」와 양대박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가장」과 「전」이 포함되어 있다. 권2의 「포충」은 양대박의 현창 사실을 시기순으로 기록한 내용이며, 권3~6의 「유고」와 「부록」은 양대박의 시문집인 『청계유고』를 토대로 재편한 부분이다. 권7-10의 「부제호집」은 양경우의 문집이며, 권11의 「부동애집」은 양형우의 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860년에 검교대교 이용은(李容殷)에게 내려준 내사본(內賜本)으로 ‘함풍10년 4월 1일 검교대교 이용은 내사 양대사마실기 1건 명제사은 검교대교 신서[수결](咸豐十年(1860)四月一日檢校待教李容殷內賜梁大司馬實記一件命除賜恩 檢校待教臣徐[手決])’의 내사기가 적혀있다. 아울러 권수면 우측 상단에는 「규장지보」의 내사인(內賜印)이 날인되어 있고, 서뇌(書腦) 상단에 ‘내사(內賜)’가 묵서(墨書)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11권 5책 완질의 古貴2511-46-2(반환문화재)와 권4·권6·권8만 남은 3권3책의 古2513-8의 두 종이 소장되어 있다. 판식 등으로 미루어보아 세 종 모두 1796~1799년경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양대박의 문학적 재능과 의병을 창의를한 충신으로서의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공인해주고 널리 현창하기 위해 간행한 공적인 문집이다. 양대박·양경우·양형우 등 개별 인물의 생애와 행적 및 문학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초기 의병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청계유고』와 『청계집』 등 제판본과의 원문비교를 통해 문집의 내용이 번개·정착되어 가는 과정 및 정조대 왕명에 의해 문집이 편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생애사, 지역사, 전쟁사, 문학사 및 인쇄문화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용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 양대박(梁大樸), 양경우(梁慶遇), 양형우(梁亨遇), 정조(正祖), 전라감영(全羅監營)

참고문헌

김소희, 「『梁大司馬實記』의 편찬과 체제에 관한 연구」, 『남도문화연구』 4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김소희, 「청계 양대박 문집의 異本 연구」, 『규장각』 5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강성문, 「梁大樸의 雲巖戰 考察」, 『學藝誌』 5,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1997.

강정화, 「靑溪 梁大樸의 지리산 읽기」, 『頭流山紀行錄』, 『동방한문학』 47, 동방한문학회, 2011.

김희태, 「청계 양대박의 행적과 곡성 청계동」, 『향토문화』 30,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0.

양태순, 「청계 양대박의 생애와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한시학회, 2001.

양산세고(楊山世稿)

KOL000027740

한古朝45-가39

楊山世稿 / 趙泰萬(朝鮮) 編 ; 趙泰東(朝鮮) 校正

金屬活字本(戊申字)

[漢城] : [校書館], 肅宗 34(1708)跋

1冊(86張) : 四周雙邊 半郭 25.3 × 17.2 cm,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3.3 × 22.0 cm

跋: 歲舍丁亥(1708)...[趙]泰東

後識: 戊子(1707)...[趙]泰億

內容: 杜谷稿/ 趙啓生 著. 華山稿/ 趙未生 著. 提學稿/ 趙從生 著. 信善堂稿/ 趙彥秀 著. 松岡稿/ 趙士秀 著. 持平稿/ 趙嶸 著. 楊湖稿/ 趙嶸 著. 柳湖稿/ 趙峻 著. 龍湖稿/ 趙存性 著. 時庵稿/ 趙相禹 著. 晚醒稿/ 趙昌遠 著. 尙衣正稿/ 趙慶起 著. 藥泉稿/ 趙啓遠 著. 看竹稿/ 趙晉錫 著. 慵隱稿/ 趙胤錫 著. 藏六堂稿/ 趙龜錫 著. 晚悟堂稿/ 趙禧錫 著. 蘿溪稿/ 趙師錫 著. 苔村稿/ 趙嘉錫 著.

印: 驪興人閔應朱聲甫章

1. 개요

본서는 조태동(趙泰東, 1649~1712)이 양산조씨(楊山趙氏) 여러 인물의 유고를 수록하여 편찬한 문집이다. 조계생(趙啓生, 1363~1438)을 비롯한 총 19명의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의 '세고(世稿)'는 한 문중에서 2인 이상의 문학 작품을 모아 편찬한 문집을 가리킨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책의 마지막에 수록된 발문은 본서를 편찬한 조태동과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이 각각 작성한 것이다. 조태동은 선조들이 지은 문장을 모아서 세고를 제작하고자 하였고, 사촌 형제인 조태만이 수집해놓은 일부 글을 자료로 삼아 책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조태동의 자(字)는 성등(聖登)으로 「장육당고(藏六堂稿)」의 저자인 조귀석(趙龜錫, 1615~1665)의 아들이다. 본서의 편찬에 관여한 조태만(趙泰萬)의 자는 제박(濟博), 호(號)는 고박재(古朴齋)이다. 가장 마지막에 수록하고 있는 「태촌고(苔村稿)」의 저자 조가석(趙嘉錫, 1634~1681)의 아들이기도 하다.

본서에 수록된 저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두곡고(杜谷稿)』의 조계생과 『화산고(華山稿)』의 조말생(趙未生), 『제학고(提學稿)』의 조종생(趙從生)은 형제 관계이다. 『신선당고(信善堂稿)』를 쓴 조언수(趙彥秀), 『송강고(松岡稿)』를 쓴 조사수(趙士秀)도 형제 관계이며, 이 형제는 조말생의 5세손이다. 『지평고(持平稿)』의 저자 조인(趙嶸), 『양호고(楊湖稿)』의 조영(趙嶸), 『류호고(楊湖稿)』의 조준(趙峻)도 형제이다.

『용호고(龍湖稿)』 저자 조존성(趙存性)은 조언수의 증손이며, 『시암고(時庵稿)』 저자 조상우(趙相禹)는 조말생의 7세손이다. 『만성고(晩醒稿)』를 쓴 조창원(趙昌遠)과 『약천고(藥泉稿)』의 저자 조계원(趙啓遠)은 형제이며 조창원은 조존성과 부자 관계이다. 『상의정고(尙衣正稿)』의 저

자 조경기(趙慶起)는 조언수의 증손이며, 『간죽고(看竹稿)』의 저자 조진석(趙晉錫), 『장육당고』의 조귀석, 『만오당고(晩悟堂稿)』의 조희석(趙禧錫), 『나계고(蘿溪稿)』의 조사석(趙師錫), 『태촌고(苔村稿)』의 조가석(趙嘉錫)은 형제 관계이며, 조계원의 아들들이다. 마지막으로 『용은고(慵隱稿)』 저자 조윤석(趙胤錫)은 조창원(趙昌遠)의 아들이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은 목록, 본문, 발문의 순서로 되어 있다. 본문은 ‘권(卷)’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수록 인물들의 문집 이름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양산조씨 조계생을 시작으로 마지막 조가석까지 총 19명의 글이 담겨 있다.

4. 서지적 특성

책에 수록된 일부 시에는 내용이 끝나고 난 뒤 작은 글씨로 시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두었다. 「두곡고」에 실린 ‘이중추원사정간영친연분운득귀자((李中樞院使貞幹榮親宴分韻得歸字)’라는 시를 살펴보면, 시의 내용이 끝나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경수집』에서 나왔다(出慶壽集)’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존성의 『용호고』에는 한글과 한문을 함께 사용하여 시문을 기록하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양산조씨 문중 인물의 문학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한 집안의 문학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이다. 세고에 수록하고 있는 조귀석의 문집인 『장육당고』는 숙종 11(1685)년에 『장육당유집(藏六堂遺集)』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조선시대 문집 발행 양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부 작품에는 작은 글씨로 출처와 설명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세고의 편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성원)

핵심어 양산(楊山), 세고(世稿), 양산조씨(楊山趙氏)

양양기구록(襄陽耆舊錄)

KOL201100135

古2513-475

襄陽耆舊錄 / 金麗昱(朝鮮) 等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正祖17(1792)

1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0.7 × 15.6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5 × 20.0cm

表題: 襄陽耆舊錄

版心題: 耆舊錄

刊記: 上之十七年壬子(1792)閏四月開刊

序: 上之十四年(1789)...金養根

跋: 壬子(1792)孟夏...金麗昱

板種: 서문은 木板本임

印: 顯

1. 개요

본서는 김여옥(金麗昱) 등이 예천 출신 인물인 윤상(尹祥, 1373~1455), 임지한(林支漢, 1217~?), 황사성(黃士誠, 1600~1672) 등 예천 의충사(毅忠祠)에 봉안된 인물들의 사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정조 17(1792)년 목활자로 간행한 책이며, 양양은 예천의 별칭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는 조의양(趙宜陽, 1719~1808)의 서문을 통해 김여옥과 장대흥(張大興)이 주도하였으며, 호장(戶長)인 노효국(魯孝國), 배덕형(裴德亨)과 이방(吏房)인 황기진(黃基鎭), 김응화(金應和)가 간사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노효국, 배덕형, 황기진, 김응화의 직책을 보아 예천에서 활동한 향리(鄉吏)로 여겨진다.

피전자(被傳者)인 윤상은 본관이 예천이며, 초명(初名)은 윤철(尹哲), 자(字)는 실부(實夫), 호(號)는 별동(別洞)이다. 부친은 예천군 향리를 지낸 윤선(尹善)이며, 조부는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증직(贈職)된 윤신단(尹臣端)이다.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인인 조용(趙庸, ?~1424)이 예천으로 유배되었을 때, 조말생(趙末生, 1370~1447) 등과 함께 수학(受學)하였다. 고려 공양왕4(1392)년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며, 태조 5(1396)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교수관(教授官), 성균관(成均館)의 사예(司藝), 대다성(大司成),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등을 지냈다. 저서로 『별동집(別洞集)』이 있으며,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다.

임지한은 본관이 예천이며, 대대로 예천의 향리를 지냈다. 고려시대 무과에 급제한 뒤 경주에서 최종(崔宗), 최적(崔積), 최사(崔思)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공을 세운 바 있다. 황사성(黃士誠)은 본관이 평해(平海)이며, 자는 윤보(允甫)로 조선후기 활동한 인물이다. 예천군의 향리로 광해군 12(1620)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일찍이 창원부사(昌原府使)를 역임한 바 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이 되었다.

본 문헌에는 그 밖에도 윤혁(尹奭), 노서린(魯瑞麟), 장위규(張緯奎), 임원발(林元發) 등의 인물에 대한 사적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해당 문헌은 발문을 통해 예천군 향리들이 주축이 되어 예천 출신 인물을 기리기 위한 목적 아래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양양기구록』은 1권 1책의 목할자본이다. 권수제나 목록 상에서는 권차(卷次)가 확인되지 않으나, 판심제 하단에 권지일(卷之一)이라는 표현이 있어 1권 1책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상지십칠년임자윤사월개간(上之十七年壬子閏四月開刊)이라는 간기가 수록되어 있어, 1792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정조 14(1790)년 김양진(金養振)의 서문, 전체 목록, 윤상과 관련된 사적, 임지한과 관련된 사적, 황사성과 관련된 사적, 제영(題詠), 윤혁, 노서린, 장위규, 임원발과 관련된 사적, 조의양의 서문, 권응구(權應玖)의 기문(記文), 신완(申完, 1738~?)의 발문, 1792년 김여옥의 발후(跋後)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윤상, 임지한, 황사성이다.

윤상의 경우 「연보(年譜)」, 「묘갈명(墓碣銘)」, 「문견록(聞見錄)」, 「향현사봉안문(鄉賢祠奉安文)」, 「상향축(常享祝)」, 「문집서(文集序)」, 「문집후서(文集後叙)」가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 '별동 윤선생(別洞尹先生)'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는 그의 호와 성씨를 결합한 것이다.

임지한은 '장군임공(將軍林公)'으로 지칭되는데, 무과에 급제한 이력을 바탕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기록은 「사적(事蹟)」, 전(傳), 지(識), 의충사당향축(毅忠祠當享祝)」, 「제영(題詠)」이 수록되어 있다. 황사성은 '창원황공(昌原黃公)'이라 지칭되는데, 창원부사를 지낸 이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와 관련된 기록은 「사적」, 「유사(遺事)」, 「서(序)」, 「발(跋)」, 「제도적후(題道蹟後)」, 「추제사적(追題事蹟)」, 「의충사추향봉안문(毅忠祠追享奉安文)」, 「상향축」, 「제영」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윤혁과 노서린은 효자로서의 행적을, 장위규, 임원발은 공신으로서의 행적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윤혁의 경우 「윤효자정려행적(尹孝子旌閭行蹟)」, 노서린의 경우 「노효자정려행적(魯孝子旌閭行蹟)」, 「노효자행적(魯孝子行蹟)」, 장위규의 경우 「장공신사적(張功臣事蹟)」, 임원발의 경우 「임공신사적(林功臣事蹟)」이라는 편명으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징

『양양기구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확인된다. 두 곳에 소장된 『양양기구록』은 동일한 판본으로 여겨진다. 본 해제 대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서문에 '현(顯)'으로 판독되는 원형의 인문이 담겨져 있다. 서문은 목판으로 인출되었으며, 목록과 본문 등은 목할자로 인출된 것이다. 제24장의 난상(欄上)에는 의충사의 위치가 과거에는 군기(軍器)의 동쪽에 있었으나, 실화(失火)로 인해 연소가 될 것을 염려하여 무인년 봄 성청(星廳)의 서쪽에 옮겼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기록의 무인년은 1818년(순조 18)이므로, 『양양기구록』 간행 이후 의충사의 변화를 옛 소장자가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권말제(卷末題) 하단에 책주(冊主) 장(張) 아무개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18세기 후반까지 알려진 예천군 출신 인물들의 사적을 모은 것으로, 당시 주목된 인물들의 사적을 일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지방 향리들이 주축이

되어 사적을 수합하고 문헌을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의 고인쇄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다희)

핵심어 양양(襄陽), 김여옥(金麗昱) 윤상(尹祥), 임지한(林支漢), 황사성(黃士誠), 의충사(毅忠祠)

양자법언(楊子法言)

KOL000021358

한古朝16-31

楊子法言 / 楊雄(漢) 著; 宋咸(宋) 註

木活字本(甲寅字體訓練都監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3 × 17.1 cm, 10行17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 32.7 × 21.9 cm

表題: 法言

版心題: 楊子法言

楊子法言序: 宋咸(宋)撰

印: 完山, 李光普, 德章

1. 개요

본서는 전한 말의 사상가이며 문장가였던 양웅(揚雄)이 유가의 전통사상을 문답체 형식으로 기술한 철학서로, 『법언(法言)』이라고도 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양웅(揚雄, B.C.53-A.D.18)은 한(漢)나라 성도(成都) 출신의 유학자로, 자는 자운(子雲)이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賦)와 굴원(屈原)의 사(辭)를 좋아하여 자신의 글에 차용하였으며, 훈고(訓詁)를 기반으로 유가(儒家)의 정도(正道)를 밝히는 것에 몰두했다.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전한(前漢) 말엽에 성제(成帝)를 섬기다가, 뒤에 신(新)나라가 건국하자 대부(大夫)가 되었으므로, 후세에 비난을 받았다. 유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태현경(太玄經)』, 『방언(方言)』, 『훈찬(訓纂)』 등을 저술하였다. 양웅의 전기와 관련해서는 『한서』 권87의 「양웅전(揚雄傳)」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양자법언』의 편찬경위는 양웅의 자서와 1036년에 작성한 송함의 서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양웅은 당시 자신에게 성인(聖人)의 도(道)에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는 자가 있어 성인의 법(法)으로 응답한 것을 『논어』의 체제를 본따 13권으로 찬술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법언』을 이해하기 위해 동진(東晉)의 이궤(李軌)가 주석을 달았는데 내용이 소략했고,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은 산정(刪定)해서 해석하였으나 없어지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 보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서 송함은 정현(鄭玄)이 『시경』을 주석했던 뜻을 참조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양웅의 본의를 후대에 전수하고자 이 책을 편찬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주석한 것에는 ‘송함(咸曰)’이라고 부기하여 옛 주석과 구별해 두었다. 또한 『시경』과 『서경』의 경우에는 저자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소서(小序)를 모든 편(篇)의 앞에 두는 관례를 따라서, 『법언』의 각 편 뒤에 있던 서문을 장(章)의 첫머리로 올려서 경의(經義)에 부합되게 하고 각 편을 차례한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자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2권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는 송함이 지은 서문과 총목이 있다. 각 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에는 학행편(學行篇), 오자편(吾子篇), 수신편(修身篇), 문도편(問道篇), 문신편(問神篇), 문명편(問明篇), 과견편(寡見篇) 등 7편이, 권2에는 오백편(五百篇), 선지편(先知篇), 중려편(重黎篇), 연건편(淵鶩篇), 군자편(君子篇), 효지편(孝至篇)의 6편이다. 전체적인 체제는 『논어』를 본따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가의 도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과 체계 및 제자들의 다양한 학설 등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학행편」을 가장 먼저 둔 이유는 유학의 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움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어 충분히 학문을 닦고 나면 유가의 도가 귀결되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성인의 도와 이단의 설이 섞이지 않도록 「오자편」을 지었다고 기술하였다. 「수신편」에서는 학문을 닦고 나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베풀게 되니 자신의 몸을 근본으로 하여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문답하는 가운데 사람의 본성에는 선악이 섞여 있어서 무엇을 닦느냐에 따라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는 선악양성의 인성론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수신을 한 후에야 비로소 도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드러서게 되니 「문도편」을 설정하였고, 도를 밝힌 뒤에는 신명스러운 이치를 궁구할 수 있으므로 「문신편」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신명의 이치를 통해 천지의 조화를 알게되는 것을 ‘명(明)」이라 규정하고 이 명철함을 통해 천명을 보존하는 도리를 알게 되므로 「문명편」 등을 지었다. 이처럼 성인의 도는 명철함이 지극하지만, 견문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견편」 등을 두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710년에 문과에 급제했던 이광보(李光普, 1675~?)가 소장한 서적으로, 그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에는 권점 등 독서 흔적이 남아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훈련도감목찰자본으로 인출한 본서와 같은 판본은 확인되지 않으며, 성암고서박물관, 미국 하버드연칭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동일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제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포함하여 전통유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선악이 혼재하는 선악양성의 인성의 주장과 학습을 강조하는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암(貞庵) 민우수(閔遇洙, 1694~1756), 연경재(研經齋) 성해응(成海應, 1760~1839),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 책을 저서에 인용하거나 독서기를 남긴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양자법언』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엿볼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양자법언(楊子法言), 양웅(楊雄), 송함(宋含), 논어(論語), 훈련도감(訓練都監), 독서기(讀書記), 이홍욱(李烘昱)

여문정선(麗文程選)

KOL000032727

古3745-10

麗文程選 / [李植(朝鮮) 編]

木活字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16世紀]

10卷5冊 : 四周單變 半郭 20.0 × 13.6 cm, 有界, 5罫10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4.0 × 17.1 cm

印: 士心氏, 月城世家, 菊邨, 閑戶看書(第1冊), 至樂莫如教子孫(第2冊), □養□(第3冊), 月□□
氏□養□□(第4冊), 人之能爲人惟腹有詩書(第5冊)

1. 개요

본서는 4언구와 6언구의 대구(對句)로만 문장을 구성한 한문 문체인 사육변려문(四六駢麗文)을 지을 때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을 뽑아 수록한 책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특히 변려문이 유행했던 육조(六朝) 및 당(唐)·송(宋)의 변려문을 모아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편찬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에는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이 없고, 저자사항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현곡 정백창(鄭百昌, 1588~1635)의 문집인 『현곡집(玄谷集)』에는 현곡이 1631년에 쓴 「여문정선서(麗文程選序)」가 수록되어 있다. 훈련도감자본 『여문정선』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 서문에는 본서의 편찬자와 편찬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변려문을 수록한 책 중에서는 『이어유편(麗語類編)』과 『사육전서(四六全書)』가 가장 좋지만,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열람하기 어렵고 또 한쪽에 편중되었다는 불평이 없을 수가 없다. 택풍(澤風) 이식이 『이어유편』과 『사육전서』 중 더 나은 작품을 택하여 합한 것이 수백 편이 되었으니, 비용을 들여 이를 간행하려고 했다. 관해(觀海) 이민구(李敏求)가 실제로 함께 상의하였고 정백창 또한 의견을 보태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서문은 본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여문정선』의 별집을 택당 이식이 추가로 편찬하였을 당시에 훈련도감을 사용하여 간행할 때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문정선』을 편찬할 때 함께 상의한 이민구(1589~1670)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州)·관해(觀海)이다. 이조판서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이다. 「여문정선서」를 쓴 정백창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덕여(德餘), 호는 현곡(玄谷)·곡구(谷口)·대탄자(大灘子) 등이다. 조부는 참봉 정원린(鄭元麟)이고, 부친은 공청도관찰사 정효성(鄭孝成), 모친은 군수 홍의필(洪義弼)의 딸이다.

3. 구성 및 내용

『여문정선』은 모두 10권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제1책	권1	制詔類

	권2	表類
제2책	권3	表類
	권4	啓類
제3책	권5	啓類
	권6	啓類
제4책	권7	啓類
	권8	啓類, 狀類, 書類, 詞類, 榜類
제5책	권9	露布類, 牒類, 檄類, 致語類, 上梁文類
	권10	序類, 碑誌類, 祭文類, 連珠類

권1에는 제조류(制詔類) 주무진(周茂振)의 추증비간소(追贈比干詔), 낙명귀(樂明龜)의 사진경선 태위철권문(賜陳敬瑄太尉鐵券文) 등 3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2-3에는 맹기(孟祺)의 하대성악 표(賀大成樂表), 반시(潘時)의 촉수도임사상표(蜀帥到任謝上表) 등 50편의 표류(表類)와 허경종(許敬宗)의 정종묘악의(定宗廟樂議)가 수록되어 있다. 권4-8에는 계류(啓類)가 수록되어 있다. 하사승상제태부계(賀史丞相除太傅啓), 황규(黃虬)의 송우도상현관계(訟牛盜上縣官啓), 진서산(眞西山)의 위진제무죄가대사재집계(爲賑濟無罪可待謝宰執啓), 웅극(熊克)의 하홍내한계(賀洪內翰啓) 등의 계문과 장류(狀類)·서류(書類)·사류(詞類)·방류(榜類)가 수록되어 있다. 권9에는 왕우칭(王禹偁)·여조겸(呂祖謙)·낙빈왕(駱賓王) 노포류(露布類) 3편과 유종원(柳宗元)의 첩류(牒類) 1편, 최치원(崔致遠)의 격황소문(激黃巢文)을 비롯한 낙빈왕·홍매(洪邁)·왕응린(王應麟) 격류(檄類) 4편, 치어류(致語類) 3편, 상량문류(上梁文類) 7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10에는 서류(序類) 11편, 비지류(碑誌類) 6편, 제문류(祭文類) 3편이 수록되어 있고 그 뒤에 뇌국영(雷國英)의 양도인화연소(楊道人化緣疏)가 수록되어 있다. 연주류(連珠類) 9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제 및 권수제는 ‘여문정선(麗文程選)’, 판심제는 ‘여문(麗文)’이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서뇌(書腦)에는 총책수 ‘공이(共二)’가 필사되어 있다. 각책 권수면에는 ‘사심씨(士心氏)’·‘월성세가(月城世家)’가, 권말에는 ‘국촌(菊邨)’이 답인되어 있다. 권수면에는 각각 다른 한문인(閑文印)이 답인되어 있는데, 제1책에는 ‘한호간서(閑戶看書)’, 제2책에는 ‘지락막여교자손(至樂莫如教子孫)’, 제3책에는 ‘□양□(□養□)’, 제4책에는 ‘월□□씨□양□□(月□□氏□養□□)’, 제5책에는 ‘인지능위인유복유시서(人之能爲人惟腹有詩書)’가 찍혀 있다.

작품의 제목을 먼저 수록하고, 그 하단에 편찬자나 출전을 표기하고 있다. 이 출전들 중 ‘송파방대전(宋播芳大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라는 책인데, 송나라의 위제현(魏齊賢)·엽분(葉芬)이 송대 오백이십가의 글을 수록한 선집이다. 조선에서는 1424(세종 6)년에 경자자(庚子字)로 간행한 적 있고, 성종(成宗)-명종(明宗) 연간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하기도 한 책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당시 변려문에 대한 인식과, 이전에 유행하였던 변려문 선집에 대한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렇지만 훈련도감자본 『여문정선』에 수록되어 있는 정백창의 서문과 목록 및 별집(別集) 4편의 작품 애강남부(哀江南賦), 익주부자묘비(益州夫子墓碑), 구성궁

송(九成宮頌), 건원전송(乾元殿頌)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서는 조선 중기에 간행한 책으로, 택당 이식이 『여문정선』 뒤에 『여문정선별집』을 편찬하여 훈련도감자로 간행하기 이전의 판본으로 추정되어 고간본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김은슬)

핵심어 여문정선(麗文程選), 택당(澤堂), 이식(李植), 현곡(玄谷), 정백창(鄭百昌)

역대군감(歷代君鑑)

KOL000022862

한古朝50-110

歷代君鑑 / 景帝(明) 命編

木板本

[大邱] : [慶尙監營(嶺營)], [肅宗 4(1678)]

50卷5冊 : 四周雙邊 半郭 24.3 × 15.9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4.5 × 21.5 cm

表題: 歷代君鑑

版心題: 君鑑

御製歷代君鑑序: 景泰四年(1453)八月日(明景帝)

內容: 卷1-12(冊1), 卷13-22(冊2), 卷23-30(冊3), 卷31~38(冊4), 卷39~50(冊5)

1. 개요

1453년(景泰 4)에 명(明) 경제(景帝)의 명으로 삼황오제(三皇五)로부터 원대(元代)에 이르는 제왕 88인의 행적을 선과 악으로 분류하여 50권으로 편찬한 책을 조선 숙종 4(1678)년에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역대군감』이란 서명을 통해 역대 제왕들 가운데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찬을 명한 경제(景帝)는 이름이 주기옥(朱祁鈺, 1428~1457)으로, 경태(景泰)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1449~1457년 사이에 재위한 명나라 7번째 황제로서, 『역대신감(歷代臣鑑)』의 편찬을 명했던 선종(宣宗) 선덕제(宣德帝)의 차자이다. 일명 대종(代宗)이라고 알려져 있다. 선덕제의 장남이자 그의 이복형이었던 영종(英宗)이 즉위하여 성왕(郕王)에 봉해졌는데, 1449년에 토목(土木)의 변으로 직접 친정을 나간 영종이 몽골 계통의 오이라이트에게 포로로 붙잡히자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다. 이듬해 정통제(正統帝) 영종이 조정으로 송환되자 그를 상황(上皇)의 자리에 앉혔으나 궁중에 유폐시켰다. 이후 조정은 정통제와 경태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로 나뉘어졌고, 1457년에 탈문(奪門)의 변으로 제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본서는 명나라 경태제가 등극한 지 4년째 되는 재위 초창기에 야심차게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편찬의 직접적인 동기는 ‘御製歷代君鑑序’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역대 제왕들의 한 마디 말과 한가지 행실이 천하의 사표(師表)가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편찬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조석(朝夕)으로 살펴봄으로써 권선징악 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는 한편 후대에 귀감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조정의 신하들에게 반사함으로써 왕을 보좌하는 방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경태제의 어저서문을 보면 이 책은 한당(漢唐) 이래 여러 신하들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편집하여 ‘선가위법(善可爲法)’이라고 이름하고, 언행에 있어서 경계하고 살펴야 할 것이 있는

자는 ‘악가위계(惡可爲戒)’라고 이름하여 말미에 첨부하였다.

본서는 권두에 총목록과 어제서문이 있고, 권1~35는 ‘선가위법’의 제왕 54인을, 권36~50은 ‘악가위계’의 제왕 34인을 고대로부터 원대에 이르기까지 왕조별로 수록했다. 먼저 ‘선가위법’에 수록된 인물은 권1에 삼황의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3인, 권2에 오제인 소호(少昊), 전욱(顓頊), 고신(高辛) 5인, 권3에 하(夏) 나라의 우(禹) 등 3인, 권4는 상(商) 나라의 탕(湯), 태갑(太甲) 등 5인, 권5는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 무왕(武王) 등 5인, 권6~9는 서한(西漢)의 고제(高帝), 문제(文帝), 경제(景帝) 등 6인, 권10~11은 동한(東漢)의 광무(光武), 명제(明帝) 등 3인, 권12는 촉한(蜀漢)의 소열제(昭烈帝) 1인, 권13은 서진(西晉)의 무제(武帝) 1인과 동진(東晉)의 원제(元帝) 1인, 권14는 남조(南朝)의 송문제(宋文帝) 1인, 권15는 북조(北朝)의 위효문제(魏孝文帝) 등 2인, 권16~18은 당(唐)의 태종(太宗), 헌종(憲宗) 등 3인, 권19는 오대(五代)의 주세종(周世宗) 1인, 권20~26은 송(宋)의 태조(太祖) 등 7인, 권27은 금(金)의 세종(世宗), 권28은 원(元)의 세조(世祖), 권29~35는 국조(國朝) 즉 명(明)의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 4인을 수록했다.

‘악가위계’에 수록된 인물은 권36에 하(夏)의 태강(太康) 등 3인, 상(商)의 무을(武乙)과 주(紂) 2인, 주(周)의 여왕(厲王)과 유왕(幽王) 등 2인, 권37은 진(秦)의 시황제(始皇帝)와 이세(二世) 등 2인, 권38은 서한(西漢)의 원제(元帝) 등 2인, 권39는 동한(東漢)의 안제(安帝) 등 3인, 권40은 서진(西晉)의 혜제(惠帝)와 동진(東晉)의 효무제(孝武帝), 권41~42는 남조(南朝)의 송소제(宋少帝) 등 5인, 권43~44는 북조(北朝)의 제문선(齊文宣) 등 4인, 권45는 수(隋)의 양제(楊帝), 권46~47은 당(唐)의 고종(高宗) 등 2인, 권48은 오대(五代)의 당장종(唐莊宗), 권49는 송(宋) 휘종(徽宗), 권50은 요(遼)의 천조(天祚)와 금(金)의 해릉(海陵)과 원(元)의 순제(順帝) 각 1인이 선정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453년에 간행된 명판본을 저본으로 조선에서 간행한 것이다. 간행 시기는 판형과 지질 및 『승정원일기』의 숙종 4(1648)년 4월 18일 정해조(丁亥條)의 기사를 통해 볼 때 1678년 무렵에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5. 종합 평가

경태제의 부친 선덕제(宣德帝)가 편찬한 『역대신감(歷代臣鑑)』과 함께 군주가 갖추어야 할 학문인 제왕학의 교재로 인식되어 경연과 서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서적이다. 또한 조선에 수용되어 감계류(鑑戒類) 서적의 편찬에 활용되었고, 중국서적의 수용과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김소희)

핵심어 역대군감(歷代君鑑), 경제(景帝), 영영(嶺營), 감계류(鑑戒類), 제왕학(帝王學)

참고문헌

조계영, 「조선시대 歷代君鑑·歷代臣鑑의 수용 양상과 특징」, 『규장각』 3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역대신감(歷代臣鑒)

KOL000024948

한古朝57-나17

歷代臣鑒 / 宣宗(明) 命編

木板本

[全州] : [全羅監營(完營)], [肅宗 4(1678)]

37卷8冊 : 四周雙邊 半廓 24.9 × 17.0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4.9 × 22.6 cm

表題: 歷代臣鑑

版心題: 臣鑑

書根題: 歷代臣鑑

御製歷代臣鑒序: 宣德元年(1426)四月日(明宣宗)

印: □仁齋, 仁海, 完山崔弘海印

1. 개요

1426년에 명(明) 선종(宣宗)의 명으로 춘추시대로부터 원대(元代)에 이르는 신하 286인의 행적을 선과 악으로 분류하여 37권으로 편찬한 책을 숙종 4(1678)년에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역대신감』이란 서명을 통해 역대 신하들 가운데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찬을 명한 선종은 이름이 주첨기(朱瞻基, 1399~1435)로 선덕(宣德, 1426~1435)의 연호를 사용했다. 선종은 곧 그의 묘호이다. 그는 인종(仁宗) 홍희제(洪熙帝)와 성효소황후(誠孝昭皇后)의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비범하여 조부 영락제(永樂帝)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 1411년에 일찍이 황태손(皇太孫)이 되고, 1424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1425년에 부친이 등극한 지 8개월 만에 사망하자, 즉위하여 이듬해에 연호를 선덕으로 개정했다. 1426년에 숙부인 한왕(漢王) 주고후(朱高煦)의 난을 평정하였고, 즉위한 10년 동안에는 내정에 힘써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켰다. 과거제를 개정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궁정 안에 내서당(內書堂)을 설치해서 환관의 독서를 허용하였는데, 이것이 후대 환관 정치의 개입을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서의 편찬목적은 어제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보익이 되는 신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신하된 자들이 인의를 숭상하고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여겨 태평성세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과거 태평한 세대의 명신과 현신들의 사적을 정리해 귀감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힌 난신들의 행위도 알려서 후대의 경계를 삼도록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은 권두(卷頭)에 선종의 어제서인 ‘어제역대신감서문(御製歷代臣鑒序文)’과 ‘총목차’가 수

록되어 있고, ‘선가위법(善可爲法)’과 ‘악가위계(惡可爲戒)’로 구분하여 왕조순으로 286인의 인물을 나열하였다. 권1~29이 ‘선가위법’으로 본받을 만한 현신(賢臣)과 양신(良臣) 213인에 대한 기록이며, 권30~37이 ‘악가위계’로 경계해야 할 악신(惡臣) 73인에 대한 기록이다. 서술방식은 인물별로 자와 이름·출생지 등의 인적사항, 재능과 기질, 주요 사건과 행적, 사망과 시호 등을 기술하였다.

먼저 ‘선가위법’으로 선정된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열국(列國) 시대의 정(鄭)의 자산(子産), 제(齊)의 안평중(晏平仲), 진(晉)의 숙향(叔向), 노(魯)의 공의휴(公儀休) 등 4인이, 권1~4에는 한대(漢代)의 소하(蕭何), 조참(曹參), 왕릉(王陵), 진평(陳平), 주발(周勃), 장석지(張釋之) 등 57인, 권5~6은 삼국시대의 제갈량(諸葛亮), 관우(關羽), 장비(張飛), 장완(蔣琬) 등 15인, 권7에는 진대(晉代)의 양호(羊祜), 두예(杜預), 조적(祖逖), 왕도(王導) 등 7인, 권8~10에는 남북조시대의 단도제(檀道濟), 원찬(袁粲), 풍도근(馮道根), 정소숙(鄭紹叔) 등 25인, 권10에는 수대(隋代)의 조작(趙綽) 1인이, 권11~15에는 당대(唐代)의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이정(李靖), 위징(魏徵) 등 30인이, 권15~23에는 오대(五代)의 왕언장(王彦章) 1인, 권16에는 송대(宋代)의 조보(趙普), 조빈(曹彬), 여몽정(呂蒙正) 등 45인, 권24에는 요대(遼代)의 고모한(高模翰), 야율옥질(耶律屋質) 등 4인과 금대(金代)의 도단극령(徒單克寧), 장만공(張萬公) 등 4인이, 권25에는 원대의 무칼리(木華黎), 사천택(史天澤), 백안(伯顏) 등 20인이다.

다음으로 ‘악가위계’로 선정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권30~31은 한대의 전분(田蚡), 영성(竇成), 주양유(周陽由) 등 19인이, 권31은 삼국시대의 위연(魏延), 사마의(司馬懿) 등 5인과 진대의 왕敦(王敦), 소준(蘇峻) 등 4인이, 권32는 남북조의 심유지(沈攸之), 범엽(范曄) 등 9인과 수대의 양현감(楊玄感), 하약필(賀若弼) 등 4인이, 권33~34는 당대의 내준신(來俊臣), 주흥(周興), 이림보(李林甫) 등 8인, 권34는 오대의 온도(溫韜) 1인, 권35~36은 송대의 조한(曹翰), 정위(丁謂), 채확(蔡確) 등 15인이, 권37은 요대의 이처온(李處溫) 등 2인, 금대의 적잔합희(赤盞合喜) 1인, 원대의 아합마(阿合馬), 상가(桑哥) 등 5인이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판심 형태는 상하내향1~3엽화문어미를 비롯해서 상하내향흑어미 및 도상(圖像)이 새겨지는 등 다양한 어미(魚尾)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간행 시기는 『승정원일기』의 숙종 2(1676)년 1월 3일 병술조(丙戌條) 기사에서 『역대군감』은 경상도에서 『역대신감』은 전라도에서 나누어 간인(刊印)하게 할 것을 건의한 점, 숙종 4(1678)년에 4월에 경상도에서 『역대군감』을 인출해 진상한 점, 당시 『역대신감』을 진상한 기록은 없지만 『역대신감』과의 판식의 유사성으로 보아 본서도 이 무렵에 완영에서 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2종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제1종은 제1책의 첫장에 성명인(姓名印)과 자호인(字號印)이 상하로 나란히 날인되어 있는데, 하단의 성명인은 주필(朱筆)로 지워져 있다. 다른 1종은 권1, 권5, 권11 등 권수면에 ‘완산최홍해인(完山崔弘海印)’이 날인되어 있다. 권16(제4책)의 권수면에 날인된 인장은 도할(刀割)되어 있다. 표지는 귀갑문(龜甲紋)이 새겨진 황지(黃紙)로 장정이 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연도미상의 목판본(무구재 古2520-47)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서와 비교해볼 때 어저서와 총목차의 수록순서가 바뀐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책판에서 인출한 목판본이다.

5. 종합 평가

선덕제의 아들인 경태제(景泰帝)가 편찬한 『역대군감(歷代君鑑)』과 함께 군주가 갖추어야 할

학문인 제왕학의 교재로 인식되어 경연과 서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서적이다. 또한 조선에 수용되어 감계류(鑑戒類) 서적의 편찬에 활용되었고, 중국서적의 수용과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김소희)

핵심어 역대신감(歷代臣鑑), 선종(明), 중국본(中國本), 완영(完營), 감계류(鑑戒類), 제왕학(帝王學)

참고문헌

조계영, 「조선시대 歷代君鑑·歷代臣鑑의 수용 양상과 특징」, 『규장각』 3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역산집(櫟山集)

KOL000022409

한古朝46-가1026

櫟山集 / 善影(朝鮮) 著

木活字本

安邊 雪峯山 : 釋王寺 內院菴, 高宗 25(1888)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0.7 × 15.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0 × 19.8 cm

刊記: 崇禎紀元後五戊子(1888)七月日咸鏡道安邊雪峯山釋王寺內院菴開刊

序: 癸未(1883)...金祖永

序: 龍集戊子(1888)...心舟

跋: 尹祖榮

跋: 靈應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승려인 선영(善影, 1792~1880)이 지은 여러 글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이다. 본서는 고종 25(1888)년에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 내원암(內院庵)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판본이다. 서명의 '역산'은 선영의 당호(堂號, 거처하는 건물의 이름을 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력이 높은 승려들이 사용함)에서 따 온 것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역산집』은 조선 후기의 승려인 선영이 지은 글 179편을 모아서 편찬한 문집이다. 저자인 선영은 조선 후기의 고승으로 덕준(德俊)의 제자이다. 덕준은 조선 후기 고승으로 이름 높았던 해원(海源, 1691~1770)의 법손(法孫)이다. 자는 무외(無畏)이고 법호(法號, 승려가 스승에게 받는 별호)는 영허(映虛)이다. 속성(俗姓, 승려가 되기 전의 성씨)은 임씨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임득원(林得元)과 한양조씨(漢陽趙氏)의 아들로 정조(正祖) 16(1792)년에 태어났다. 12세에 양주(楊州) 학림암(鶴林庵)에서 출가하였다. 지탁(知濯, 1750~1839), 덕함(德函) 등 여러 고승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21세에 덕준의 법맥(法脈)을 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남쪽 지방에서 수행하다가, 만년에 이르러 안변 석왕사 내원암에 거처하였다. 선(禪)과 교학(敎學)에 두루 능통하여서 많은 승려들이 본보기로 삼았다. 고종 17(1880)년에 갑작스럽게 병세를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입적하였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역산집』의 서문과 발문 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서문 및 발문에 의하면 본래 선영은 자신이 지은 글을 후세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로 태우려고 했는데, 선영의 법손인 혜흔(慧昕)이 후대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선영에게 간곡히 청해서 간직하였다가 선영이 입적한 후에 선영의 여러 법손들과 상의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 본문, 발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문은 2편을 수록하였는데, 1편

은 고종 20(1883)년에 김조영(金祖永)이 지었으며 서문의 제목은 「영허당유집서(映虛堂遺集序)」이다. 이를 통해서 『역산집』의 당초 서명이 『영허당유집(映虛堂遺集)』이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 1편은 법손인 심주(心舟)가 지은 서문이다. 본문은 상하 2권으로 구분하였다. 권 상에는 각각 오언절구 29편, 오언율시 16편, 칠언절구 28편, 칠언율시 47편, 고시(古詩) 2편, 총 122편의 시문을 수록하였다. 권 하에는 선영이 지은 서간문(書簡文) 7편, 기문(記文) 8편, 상량문(上樑文) 5편, 서문 7편, 비문(碑文) 4편, 영찬(影讚) 14편, 권선문(勸善文) 5편, 소별(疏別) 7편, 총 57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권하의 뒷부분에는 부록(附錄)으로 선영의 비문(碑銘), 행장(行狀), 영찬(影讚)을 수록하였다. 발문도 2편을 수록하였는데 1편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윤조영(尹祖榮, 1841~?)이 지었으며, 나머지 1편은 법손인 영응(靈應)이 지었다. 발문 뒷부분에는 간행과 관련한 기록을 수록하였다.

수록한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흥국사만월보전여시왕중수기(興國寺滿月寶殿與十王重修記)」는 순조(純祖) 18(1818)년에 남양주 흥국사(興國寺) 만월보전(滿月寶殿)과 명부전(冥府殿) 시왕상(十王像)을 중수한 사실을 정리한 글로 이를 통해서 남양주 흥국사의 중창 불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인봉화상문계서(仁峯和尚門契序)」는 인봉화상(仁峯和尚) 즉 덕준의 제자들이 덕준에게 수학한 제자들의 모임인 문계(門契)를 조직하였을 때, 그 연혁에 대해서 기록한 서문이다. 이를 통해서 당대 사찰계(寺刹契)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인봉선사진찬(仁峯先師眞贊)」은 선영이 자신의 스승인 덕준의 초상에 기록한 덕준을 찬양하는 글로써, 이를 통해서 당대 승려들의 법맥 의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마지막에 수록된 ‘송정기원후오무자칠월일함경도안변설봉산석왕사내원암개간(崇禎紀元後五戊子七月日咸鏡道安邊雪峯山釋王寺內院菴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고종 25(1888)년에 안변 석왕사 내원암에서 간행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안변 석왕사 내원암은 선영이 입적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사찰로, 이를 통해서 선영의 제자들이 문집을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간기 앞에는 문집 간행에 참여한 제자 및 승려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각각 ‘수은(受恩)’, ‘수법(受法)’, ‘수선(受禪)’, ‘수계(受戒)’, ‘은손(恩孫)’, ‘법손(法孫)’, ‘법증손(法曾孫)’, ‘은증손(恩曾孫)’으로 제자들을 구분하였으며, 그 뒷부분에 제자는 아니지만 문집 간행에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선영이 지은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승려인 선영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당대 문인 및 고승들과의 교유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간행 관련 기록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승려 문집의 편찬 양상 및 법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역산집(櫟山集), 선영(善影), 승려문집(僧侶文集), 내원암(內院庵)

참고문헌

선영, 『역산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의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영가삼이집(永嘉三怡集)

KOL000026026

古朝43-가49

永嘉三怡集 / 洪奭周(朝鮮); 洪顯周(朝鮮) 供編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五車觀], 1824

1冊(淵泉子文選·沆瀣子文選·海居子文選): 四周單邊 半郭 21.4 × 14.7 cm, 10行20字, 上下向
黑魚尾 ; 30.8 × 19.1 cm

編題面: 永嘉三怡集 甲申(1824)孟秋 五車觀聚珍 淵泉子計五十五篇 沆瀣子計三十九篇 海居子
計二十七篇 總一百二十一篇

序: 甲申(1884)...李正履

淵泉子文選 / 洪奭周 著. - 沆瀣子文選 / 洪吉周 著. - 海居子文選 / 洪顯周 著

1. 개요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홍석주(洪奭周)·홍길주(洪吉周)·홍현주(洪顯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84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풍산(豊山) 홍씨인 홍석주와 홍현주는 편찬자이자 편집자이다. 홍석주의 자는 헌중(憲仲), 호는 향해(沆瀣)이다. 홍현주(洪顯周, 1793~1865)는 조선 정조의 부마가 된 인물로, 자는 세숙(世叔), 호는 해거자(海居子)이다.

홍석주가 자기 조상들의 문집인 『풍산세고(豊山世稿)』를 편찬한 뒤 그 사업의 연장으로 형제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함께 편집하여 순조 24(1824)년 전사자(全史字)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총목(總目)과 이정리(李正履, 1783~1843)가 1864년에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수록된 것은 홍석주의 「연천자문선(淵泉子文選)」으로 시 29수, 부 2편, 서(序) 7편, 발 1편, 기 2편, 묘표 1편, 묘지명 1편, 제문 2편, 명 1편, 잡저 8편을 수록하였다. 홍석주의 시는 친지들과 주고받은 것, 여행의 감흥을 읊은 것이 주종을 이룬다. 서(書)에는 여항문학자인 장혼(張混)과 문학을 논한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수록된 홍길주의 「향해자문선(沆瀣子文選)」에는 시 18수, 부 1편, 서(書) 1편, 서(序) 5편, 전 1편, 기 4편, 묘지 1편, 뇌(詠) 1편, 송(頌) 1편, 잡저 5편, 변려(駢麗) 1수가 수록되어 있다. 화첩(畫帖)·장서(藏書)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세 번째로 수록된 홍현주의 「해거자문선(海居子文選)」에는 시 19수, 사(辭) 1편, 서(序) 2편, 기 2편, 잡저 3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제 및 편제(編題)·판심제는 ‘영가삼이집(永嘉三怡集)’이고, 권수제는 ‘연천자문선(淵泉

子文選)’·‘향해자문선(沆瀣子文選)’·‘해거자문선(海居子文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풍산홍씨의 세 형제 홍석주·홍길주·홍현주의 합편 문집이다. 1824년 전사자로 『풍산세고』를 펴낸 후, 같은 활자로 자신 형제들의 문집인 『영가삼이집』을 편찬한 것이다. 특히 본서 편제면의 ‘오거관(五車觀)’이라는 기록을 통해 풍산홍씨 집안 관련 서적을 간행할 때 오거관에 서 전사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대 풍산홍씨가의 문중의식을 엿볼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홍석주(洪奭周), 홍길주(洪吉周), 홍현주(洪顯周), 연천자문선(淵泉子文選), 향해자문선(沆瀣子文選), 해거자문선(海居子文選), 오거관(五車觀), 풍산세고(豊山世稿)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풍산세고』(일산古3648-93-16-1-3)

오자근사록(五子近思錄)

KOL000021381

한古朝16-55

五子近思錄 / 汪佑(淸) 合編, 汪鑑(淸) 共校

金屬活字本(後期校書館印書體體字, 木活字混入)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8世紀]

14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1.0 × 12.5 cm, 9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8 × 17.3 cm

表題: 近思錄

版心題: 五子近思錄

五子近思錄序: 新安後學汪佑謹序

朱子近思錄原序: 五月五日新安朱熹謹識

呂東萊先生近思錄原序: 淳熙三年(1176)四月四日呂祖謙謹書

五子近思錄跋: 康熙癸酉(1693)冬至前十日後學朱啓昆謹跋

原刻近思錄徵書篇目(14件), 五子近思錄增入朱子書目, 原刻近思錄集解姓氏, 五子近思錄合編姓氏, 附錄星溪汪氏著述書目, 五子近思錄合編參校姓氏

五子近思錄目次

原刻近思錄例, 五子近思錄例, 五先生姓氏(周子, 程伯子, 程叔子, 張子, 朱子)

1. 개요

본서는 청나라 왕우(汪佑)가 『근사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고 여기에 주희의 어록을 추가하여 편찬한 책이다. 『근사록』은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주자(周子, 주돈이), 장자(長子, 장재),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 사선생(四先生)의 저술과 어록에서 학문의 중심 문제들과 일상 생활에 요긴한 부분들을 뽑아 편집한 책이다. 따라서 ‘오자’는 근사록의 사선생과 주희를 말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왕우의 자는 계아(啓我), 호는 성계(星溪)로 휘주(徽州) 휴령인(休寧人)이다. 강희(康熙) 연간에 왕지묵(汪知默), 왕덕원(汪德元), 강항(江恒), 호연(胡淵) 등과 자양서원(紫陽書院)에서 강학하였다. 주자(朱子)를 숭상하였고, 『소학(小學)』, 『근사록』을 독실히 좋아하였으며, 본서를 비롯해서 『성계문집(星溪文集)』, 『명유통고(明儒統考)』 등을 저술했다.

이 책의 편찬은 왕우가 지은 ‘오자근사록서(五子近思錄序)’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 염락관민(濂洛關閩)의 도를 하나로 모으고, 전대와 후대의 성인(聖人)의 도 역시 한 곳에 모아 밝게 빛나게 함으로써 정학(正學)이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은 권두에 서발문과 인용서목, 해석 및 편찬관련인물, 목차를 수록하였다. 예컨대 서발문의 경우 왕우의 ‘오자근사록서’, 주희의 ‘주자근사록원서’, 여조겸의 ‘여동래선생근사록

원서', 주계곤의 '오자근사록발' 등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용서목 역시 『근사록』을 간행할 때 참조한 『주자태극통서(周子太極通書)』 『명도선생문집(明道先生文集)』 등 14종의 참고문헌을 보여주는 '원각근사록징서편목'과 왕우가 주희의 의론을 추가하면서 참고한 『사서집주(四書集註)』 『사서혹문(四書或問)』 등 18종의 서목인 '오자근사록증입주자서목'이 있다. '오자근사록합편성씨'에는 참고한 서적과 편찬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왕우의 인적사항 및 '子鑑恭校點次, 姪 鎭 敬閱, 再姪 可進·冢孫 可涵 證梓'라고 하여 이 책의 교정과 간행에 관여한 인물을 기록하였다.

『오자근사록』은 『근사록』의 편집체계를 본따 만든 책으로, 도체(道體)·위학(爲學)·치지(致知)·존양(存養)·극기(克己)·가도(家道)·출처(出處)·치체(治體)·치법(治法)·정사(政事)·교학(教學)·경계(警戒)·변이단(辨異端)·관성현(觀聖賢)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원래 『근사록』에 있던 622조의 사선생의 어록과 별도로 주희의 어록 548조를 증보하여 1,170조에 달하는 어록이 망라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이 책은 금속활자인 후기교서관인서체자에 목활자가 상당량 혼입되어 있고, 글자가 치우쳐진 상태로 인출된 것이 많아 인출상태가 전반적으로 정갈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자가 본문에 현토와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달고, 난상에는 이본(異本)과 교감한 글자 등을 꼼꼼히 부기하여 원문서지학적인 연구와 함께 근사록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서의 인출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종로도서관에 소장(고152.5-04890)된 본서와 동일본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종로도서관본에는 “이철보인(李喆輔印)”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고, 동일한 장서인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어제정훈(御製政訓)』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종로도서관본에 자호인은 없지만, 해당 장서의 주인은 본관이 연안(延安), 자가 보숙(保叔), 호가 지암(止庵)으로 조선후기 병조판서, 좌참찬을 역임한 이철보(1691~1775)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통해볼 때 본서의 간행시기는 1693년 이후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래된 이후로부터 이철보가 사망한 1775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이 책은 『근사록』에 주자의 어록을 보완함으로써 정주학의 사상과 내용이 좀 더 완비되었고, 청나라 초기 주자학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 주자서의 유입과 활용 및 주자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김소희)

핵심어 오자근사록(五子近思錄), 근사록(近思錄), 왕우(汪佑), 왕감(汪鑑)

참고문헌

程水龙, 「徽州汪佑《五子近思录》源流考, 『安徽史学』 3, 2010.

오자직해(吳子直解)

KOL000049768

古698-48

木板本

濟州 : [濟州牧], 仁祖 18(1640)

2卷1冊(完帙) : 四周雙邊 半郭 24.0×16.0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 33.3×20.5cm

版心題: 吳子

刊記: 庚辰(仁祖 18, 1640)元月上澣濟州開刊

魚尾: 花紋魚尾 混入

1. 개요

『오자직해(吳子直解)』는 중국 전국시대 위(衛)의 오기(吳起)가 편찬한 『오자(吳子)』를 명(明)의 유인(劉寅)이 직해한 것이다. 본 해제서는 인조 18(1640)년 제주목(濟州牧)에서 간행한 목판본(木板本)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오기(吳起, ?~B.C.381)는 중국 전국시대 장수이자 병법가로, 흔히 오자(吳子)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사기(史記)』의 열전에는 그가 위나라 출신으로 용병(用兵)에 능하였으며, 증자(曾子, B.C.505~435)의 문인이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사기』의 열전 중 위문후(魏文侯)와 재상 이극(李克)과의 대화에서는 그가 탐욕과 여색을 밝혀 비판받는 와중에도 용병술에 있어서는 병법가로 유명한 제(齊)의 사마양저(司馬穰苴)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오자』를 직해한 유인은 생몰년이 명확하지 않으나, 중국 명(明)의 홍무연간(洪武年間) 활동한 인물이다. 자(字)는 공진(拱辰)이며, 산서성(山西省) 출신이다. 1371년 진사가 되었으며, 병부주사(兵部主事), 병부시랑(兵部侍郎) 등을 역임하였다. 『오자직해』를 포함한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직해하였다.

『오자』는 적어도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병법서로 읽혀온 문헌이며, 『오자직해』는 15세기 말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자직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중국의 병서가 유입된 상황과 병학에 대한 관심 고취로 인해 금속활자본, 목판본 등으로 간행되었다. 본 해제서인 1640년 제주목 간행 『오자직해』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간행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오자직해』는 상하(上下) 2권의 1책으로, 별도의 서발(序跋)은 없으며, 본문 다음에는 간기와 간행 주도 인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상하를 아울러 전체 6편 36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상(卷上)에 도국(圖國) 8장, 요적(料敵) 4장, 치병(治兵) 8장이, 권하(卷下)에는 논장(論將) 5장, 응변(應變) 10장, 여사(勵士) 1장이 수록되어 있다.

도국편에는 오기가 위(魏) 문후(文侯)를 알현하며, 군사를 운용할 인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피해야 할 4가지 조건과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5가지, 군대의 종류 5

가지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 오기는 군사를 일으키는 데에 피해야 할 4가지 조건으로 말한 것은 나라가 결속되지 못한 상황, 군이 결속되지 못한 상황, 진영(陣營)이 단합되지 못한 상황, 전투에 임했을 때 일사분란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명분, 이익, 증오심, 나라의 혼란, 기근과 같은 재해를 거론하였다. 이외에도 군대의 종류로는 의병(義兵), 강병(強兵), 강병(剛兵), 폭병(暴兵), 역병(逆兵)이 있다고 하였다.

요적편에는 위무후가 오자에게 자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당시 오기가 파악한 위나라 주변 국가에 대한 특징, 적정(敵情)을 살폈을 때 싸울 수 있는 조건, 싸움을 피해야 하는 조건 등이 서술되어 있다. 치병편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건, 지휘체계 확립, 훈련으로 다듬어진 숙련된 군인, 피해야 할 지형, 군마의 사육 및 관리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다.

권하에 수록된 논장편에는 장수가 가져야 하는 덕목으로 이(理), 비(備), 과(果), 계(戒), 약(約)을 제시하였으며,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응변편에는 변고에 대응하는 방식이 서술되어 있는데, 지휘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유리한 지형 선점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전술의 중요성, 다양한 지형에서의 대응 방식, 적국을 공략한 이후 지켜야 할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다. 여사편에는 군주가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논상에 차등을 두며 전사자와 유족을 예우하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와 동일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원각사정보박물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 서명은 오자 직해인데 오자는 크게 쓴 반면, 직해는 작게 써두었다. 원각사정보박물관 소장본과 대조하였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광곽이나 자획이 일부 탈락된 부분이 확인되므로 원각사정보박물관보다는 후쇄본으로 여겨진다.

책의 말미에는 간기와 간행에 관여한 관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부분에는 간기(刊記, 간행 기록)는 경진원월상한(庚辰元月上澣), 제주개간(濟州開刊)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관원은 당시 제주목사(濟州牧使)인 심인(沈演, 1587-1646), 제주목판관(濟州牧判官) 김름(金凜), 제주심약(濟州審藥) 한충민(韓忠敏), 군관(軍官) 심흡(沈滄), 군관 유창삼(柳昌三), 진무(鎭撫) 김상길(金尙吉)의 품직(品職)과 성명(姓名)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조선시대 무과의 필수 교재인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하나로, 전국시대 병법서의 내용을 풀이해둔 것이다. 대문마다 풀이를 수록하여 내용의 이해가 편리하다는 점과 조선시대 무과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문헌이라는 점과 제주도에서 간행된 17세기의 문헌으로 17세기 지방관아에서 이루어진 판각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헌학적 가치를 지닌다. (이다희)

핵심어 병법서(兵法書), 무경칠서(武經七書), 주해서(註解書), 오기(吳起), 유인(劉寅), 제주목(濟州牧)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

KOL000010150

일산古3644-66

藕船精華錄 / 李尙迪(朝鮮) 撰 ; 金奭準(朝鮮) 編輯 ; 崔性學(朝鮮) 校訂 ; 李用霖(朝鮮) 恭閱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6(1869)]

3卷1冊 : 肖像, 四周單邊 半郭 19.9 × 12.4 cm, 有界, 9行19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6.9 × 16.4 cm

序: 同治八年(1869)...崔性學

跋: 先生沒後五年己巳(1869)...金奭準, 李容肅

1. 개요

본서는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문인(門人)인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스승의 문집 『은송당집(恩誦堂集)』에서 좋은 시를 뽑아 3권으로 편집한 시선집(詩選集)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상적의 자는 혜길(惠吉), 호는 우선(藕船)이다. 조선 후기 한어(漢語) 역관으로, 김정희(金正喜)의 문인이다. 열두 차례 사행에 동행하여 당시 청의 저명한 문인들과 교분을 쌓을 수 있었다. 저서로는 『은송당집』이 있다. 이상적의 문인이자 본서의 편자인 김석준 역시 역관이며, 서예 및 시(詩)에 재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자는 희보(姬保), 호는 소당(小棠)·묵지도인(墨指道人)·연백당(研白堂) 등이다. 저서로는 『홍약루시초집(紅藥樓詩初集)』, 『회인시록(懷人詩錄)』 등이 있다. 김석준의 발문에 의하면 이상적의 문집 20권 가운데 뛰어난 작품을 선별하여 3권으로 편집하였는데, 청대의 문인이자 서예가인 임길(林估)이 왕사정(王士禎) 문집의 시를 선별하여 편찬한 『어양산인정화록(漁洋山人精華錄)』의 예를 따랐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卷首)에는 이상적의 아들 이용림(李用霖)이 모사한 이상적의 초상과 오곤전(吳昆田)의 「화상찬(畫像贊)」, 문인 최성학(崔性學)의 서문과 김석준의 「이우선선생전(李藕船先生傳)」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입춘후일일용오방김추사학사정희(立春後一日龍湖訪金秋史學士正喜)」 등 29편의 고체시(古體詩), 권2에는 「간자산박주부선성염치직중(東茨山朴主簿善性染署直中)」 등 67편의 금체시(今體詩)가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비서성추야(秘書省秋夜)」 등 50여편의 금체시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김석준과 이용숙(李容肅)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각권 말미에는 ‘문인 김상준 편집(門人 金奭準 編輯)’, ‘최성학 교정(崔性學 校訂)’, ‘남 용림 공열(男 用霖 恭閱)’이라는 기록이 있어, 문인 김석준과 최성학, 이상적의 아들 이용림이 편집과 교정을 맡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전사자(全史字)를 닮은 목활자로 인쇄한 서적이다. 수록된 서문과 발문이 모두 186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 간행하여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 모두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에 수록된 이상적의 초상과 「화상찬」은 이상적의 문집인 『은송당집(恩誦堂集)』 수록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이상적의 제자인 김석준이 스승의 문집인 『은송당집』에서 좋은 시를 가려 뽑아 편찬한 책이다. 왕사정 문집의 시를 선별하여 편찬한 『어양산인정화록』의 체례를 따라 편찬하였다. 『은송당집』과 『은송당속집』은 1859년경 중국에서 간행한 중국본이며, 본서는 10년 후인 1869년 전사자를 닮은 목활자로 간행한 책으로 이 또한 중국에서 간행하여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판본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남아있다. 왕사정의 시문집에서 시문을 뽑아 『어양산인정화록』을 편찬한 체례를 모방하여 편찬한 서적으로, 조선 후기에 청대 서적 간행 모방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 은송당집(恩誦堂集), 이상적(李尙迪), 김석준(金奭準), 어양산인정화록(漁洋山人精華錄)

운곡집(雲谷集)

KOL000027754

한古朝45-가54

雲谷集 / 冲徽(朝鮮) 著

木板本

高山[完州] : 寂滅庵, 仁祖 11(1633)

不分卷1冊(33張) : 四周單邊 半郭 20.0 × 14.9 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 29.8 × 19.4 cm

序: 崇禎己巳(1629)...谿谷病夫[張維]

跋: 崇禎癸酉(1633)...東岳居士[李安訥]

刊記: 大明崇禎六年(1633)冬十月日 開刊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混入

1. 개요

『운곡집(雲谷集)』은 조선 후기의 승려인 충휘(冲徽, ?~1613)가 지은 여러 시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시문집(詩文集)이다. 인조(仁祖) 11(1633)년에 고산(高山) 적멸암(寂滅庵)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서명인 『운곡집』에서 ‘운곡’은 충휘의 법호(法號, 승려가 스승에게 받는 별호)이고, ‘집’은 모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운곡집』이라는 서명은 운곡 충휘가 지은 여러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운곡집』은 조선 후기의 승려인 충휘가 지은 시문 147편을 모아서 편찬한 시문집이다. 저자인 충휘는 조선 후기의 고승으로 일선(一禪, 1533~1608)의 제자이다. 일선은 서산대사(西山大師)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휴정(休靜, 1520~1604)의 제자이다. 충휘에 대해서는 일선의 제자라는 사실과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서 머물렀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행적이 없다. 다만 시문에 뛰어나서 장유(張維, 1587~1638),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차천로(車天輅, 1556~1615),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등 당대의 문인들과 교유하였다고 전해진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운곡집』의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 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서문 및 발문에 의하면 충휘의 제자인 회옥(懷玉), 지문(志文), 희안(希安) 등이 스승의 유고(遺稿)를 모아 정리하고 문인들에게 서문 및 발문을 받아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서문 및 발문에 등장하는 충휘의 제자 가운데 지문과 희안은 승려들의 법맥(法脈)을 기록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서 충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 본문, 발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문은 인조 7(1629)년에 장유가 지었으며 서문의 제목은 「운곡시고소서(雲谷詩稿小序)」이다. 이를 통해서 『운곡집』의 당초 서명이 『운곡시고(雲谷詩稿)』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문에는 별도의 표기는 없지만 오

언절구(五言絶句), 칠언절구(七言絶句), 오언율시(五言律詩), 칠언율시(七言律詩)의 한시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각각 오언절구 38편, 칠언절구 57편, 오언율시 20편, 칠언율시 32편 총 147편의 시문을 수록하였다. 발문은 인조 11(1633)년에 이안눌이 지었으며 여타 발문과는 다르게 칠언절구의 한시 형태로 지었다. 발문의 뒷부분에는 수록하고 있는 시문의 종류와 편수(編數)를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수록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소장 『운곡집』에는 인조 12(1634)년에 신익성이 지은 발문을 추가로 수록하고 있다.

수록한 시문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정홍양사군지봉이상공(謹呈洪陽使君芝峯李相公)」는 충휘가 이수광에게 보내는 시문이며, 「금산계상중별동악이명부부경주(錦山溪上重別東岳李明府赴慶州)」는 금산(錦山)에서 이안눌과 헤어지면서 지은 시문이다. 이를 통해서 충휘가 당대의 문인과 깊이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각성사(寄覺性師)」는 당대의 고승이었던 각성(覺性, 1575~1660)에게 보내는 시문이며, 「경정송운대사(敬呈松雲大師)」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승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에게 보내는 시문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불교계에서 충휘의 위상을 알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운곡시고(雲谷詩稿)’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본문의 뒷부분에 ‘대명송정 육년동십월일개간(大明崇禎六年冬十月日開刊)’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인조 11(1633)년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발행지와 관련한 부분은 비워져 있는데, 개인소장 『운곡집』에 ‘고산적멸암(高山寂滅庵)’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서 고산 적멸암에서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 부분에 인장이 찍혀져 있지만 인문(印文)의 훼손이 심해서 글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승려 충휘가 지은 시문을 모은 시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 승려의 생애를 일부나마 알 수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장유, 신익성, 이안눌, 유정, 각성 등 당대 문인 및 고승들과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승려 문집의 편찬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운곡집(雲谷集), 충휘(沖徽), 승려문집(僧侶文集), 적멸암(寂滅庵)

참고문헌

충휘·명조, 『운곡집·허백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의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월사선생집변무주(月沙先生集辨誣奏)

KOL000021778

한古朝31-422

月沙先生集辨誣奏 / 李廷求 編

木板本

山淸 : 知谷寺, 純祖 4(1804)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19.7 × 15.0 cm, 9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5 × 18.7 cm

1. 개요

본서는 명나라 사신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가 작성한 책이다. 서명의 '변무주(辨誣奏)'에서 '변무'는 일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억울함을 밝힌다는 단어이다. '주'는 주소문(奏疏文, 상소문이라고도 하며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줄일 말로, 본서는 이정구가 변무부사로서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주소문을 기록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정구의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 보만당(保晩堂) 등 여러 호칭으로 불렸다. 그는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 상촌(象村) 신희(申欽, 1566~1628)과 더불어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꼽혔으며 4명의 호에서 앞 글자만을 따와 '월상계택(月象谿澤)'이라고 불렸다.

선조 31(1598)년 명나라 신하인 정응태(丁應泰)는 조선이 왜적과 손을 잡아 중국을 침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조선에서는 당시 정응태의 거짓된 보고를 바로잡고자 이항복(李恒福)을 변무사(辨誣使, 조선시대 국가 중요 사실이 중국에 잘못 알려지면 이를 해명 또는 정정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로, 승문원 교리로 있던 이정구를 변무부사로 선발하였는데 이때 이정구가 작성한 주소문을 가지고서 본서를 편찬하였다.

본서 마지막의 '순조 4(1804)년 6월에 산청 지곡사에서 다시 간행하였다.(嘉慶九年甲子六月日山淸智谷寺重刊)'라는 간행 기록을 통하여 1804년 산청(山淸) 지곡사(智谷寺)에서 목판으로 중간(重刊, 이미 간행했던 책을 다시 간행함)한 책임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책(冊)으로 총 20장이다. 수록된 주소문은 총 2편으로 '무술변무록(戊戌辨誣錄)'에 '찬화정응태주본(贊畫丁應泰奏本), 정주사참론본국변무주(丁主事參論本國辨誣奏)'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간행 기록은 마지막 줄에 기재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지에는 '변무(辨誣)'라는 글자로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소(疏)'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첫 장을 펼쳐보면 서명인 월사선생집변무주(月沙先生集辨誣奏)라고 제목이 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장 윗부분에 한 개의 인장이 있으나 흐릿하여

정확히 판독하기가 어렵다. 판심(版心, 책 중앙 접힌 부분)에는 ‘월사집변무주(月沙集辨誣奏)’라고 새겨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를 포함하여 총 3종의 『월사선생집변무주(月沙先生集辨誣奏)』가 있다. 1종은 필사본(청구기호: 한古朝56-나57)로 표지서명이 ‘월사집(月沙集)’이다. 본서(한古朝31-422)와 나머지 1종(청구기호: 우산古6022-251)은 목판으로 인쇄하였다. 목판본 1종(우산古6022-251)의 표지서명은 ‘월사선생무술변무록(月沙先生戊戌辨誣錄)’인데, 뒤표지 안쪽 면에 ‘1950년 3월 9일에 책 표지를 고쳐 제본하였다(檀紀四二八三年三月九日 改粧也)’라는 필사 기록이 있다.

5. 종합평가

본서는 당시 조선에서 한문사대가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에게 문장을 인정받은 이정구가 작성한 상소문을 수록하여 목판으로 인쇄한 책이다. 주소문의 내용을 통하여 16세기 당시 조선과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백성원)

핵심어 변무주(辨誣奏),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정응태(丁應泰)

위료자직해(尉繚子直解)

KOL000019607

古朝76-59

尉繚子直解 / 尉繚(周) 原著 ; 劉寅(明) 解

金屬活字本(顯宗實錄字)

[漢城] : [武庫], 肅宗 43(1717)

5卷2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2.1 × 14.9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5 × 20.3cm

表題: 尉繚子 乾·坤

版心題: 尉繚子

刊記: 丁酉(1717)武庫印

印: 春宮

所藏本: 冊1(卷1-2), 冊2(卷3-5)

1. 개요

『위료자(尉繚子)』는 명대(明代) 유인(劉寅)이 주해(註解)한 책이며, 주나라 위료의 병법서(兵法書)이다. 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정조 1(1777)년에 금속활자 현종실록자본(顯宗實錄字本)으로 간인(刊印)되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위료자(尉繚子)』의 저자인 위료(尉繚)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위료에 대한 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전국(戰國) 말기 진시황(秦始皇) 때 진나라에서 활약한 인물이라는 설이다. 둘째, 전국 중기 양혜왕(梁惠王) 때 위(魏)나라에서 활약한 인물이라는 설이다. 셋째, 율료라는 인물은 위(魏)나라에도 있었고 그 후 진(秦)나라에도 있었으니, 두 명이 각기 다른 사람이라는 설이다.

『위료자』는 중국 병학사(兵學史), 사상사(思想史)의 주요한 자료로서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손자(孫子)』, 『오자(吳子)』 등과 함께 무경칠서(武經七書)에 편입되면서 유가(儒家)의 칠서(七書)에 비견될 정도로 중시되었다.

『위료자직해』는 『무경칠서주해(武經七書註解)』 중의 하나이다. 『무경칠서(武經七書)』는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삼략(三略)』, 『육도(六韜)』,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로서 대표적 병서로 불리었다. 이들이 해설한 바는 유가(儒家)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전략·전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 등 처세 전반에 걸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무경칠서주해』는 조선시대에 세조가 수양대군으로 있을 때 문종의 명에 의해 『무경칠서』에 주해(註解)를 달아 문종(文宗) 2(1452)년에 편찬한 책으로 훗날 최항(崔恒)을 시켜서 다시 교정하게 하고 발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무경칠서 중 『손자』는 11명에 의한 주해가 있었으나 잘못된 부분이 많았고, 다른 책들은 주해가 없었기 때문에 세조가 처음으로 주해를 달았다.

3. 구성 및 내용

5권 2책으로, 총24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권별 구체적인 편목은 다음과 같다. 1권은 천궁(天宮), 병담(兵談), 제담(制談), 전위(戰威), 공원(攻權)이며, 2권은 수권(守權), 십이릉(十二陵), 무의(武議), 장리(將理), 원궁(原官)이다. 3권은 치본(治本), 전권(戰權), 중간령(重刑令), 오제령(伍制令), 분색령(分塞令)이며, 4권은 속오령(束伍令), 경졸령(經卒令), 늑졸령(勒卒令), 장령(將令), 종군령(踵軍令)이다. 5권은 병교(兵教) 상·하, 병령(兵令) 상·하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 12편에서는 저자의 정치관과 전쟁관을 서술하면서 정의로운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과 정치·경제의 연관을 논하였다. 뒤의 12편에서는 군령과 군제를 구체적으로 논하였는데, 이는 다른 선진의 병서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선진 군사제도사 연구에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에는 간기(刊記, 간행 기록)와 발문(跋文) 등 간행 시기 및 장소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권5 권말제면(卷末題面)에 ‘정유하무고(丁酉夏武庫)’라고 답인되어 있어 숙종 43(171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책의 표지(表紙)에는 ‘위료자’라는 표지 서명이 묵서되어 있고 하단에는 건(乾), 곤(坤)과 같은 형식으로 책의 순서를 매겨두었다.

5. 종합평가

『위료자직해』는 『손자』·『오자』 등의 군사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후세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전술방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이다희)

핵심어 위료자(尉繚子), 유인(劉寅), 병법서(兵法書)

참고문헌

成百曉, 李蘭洙 譯註, 『(譯註)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전통문화연구회, 2013.

을묘동경첩(乙卯同庚帖)

KOL000027775

한古朝45-가75

乙卯同庚帖 / 趙彥植(朝鮮)等著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發行處不明], 高宗 16(1879)序

不分卷1冊(18張): 四周單邊 半郭 20.8 × 15.0 cm,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8.6 × 18.6 cm

序: 己卯(1879)...八十三歲老人性齋(許傳)

印: 趙彥植印, [漢陽], 滿川明□□, 窓外遲日, 博人, 文叔, 吉羊[祥], 彥植, 趙彥植藏書

1. 개요

1879년에 25세가 된 1855년 을묘년생 동갑(同甲) 친구 13명이 결성한 시회 모임의 기록을 간행한 책이다. 동경(同庚)은 동갑을 의미한다. 본서는 전사자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권수에 수록된 허전(許傳, 1797~1886)의 「을묘동경첩서(乙卯同庚帖序)」에는 그 편찬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동갑인 친구는 온 세상 사람이 형제처럼 지내는데, 우리 같은 조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친하게 지낸다. 송(宋)의 문로공(文潞公) 문언박(文彦博)은 나이가 78세가 되어 처음으로 동갑회(同甲會)를 만들었는데 후대인들이 이를 흠모하여 본받았다. 우리 무리의 후배 을묘생이 모두 13인인데 모두 뜻과 기개가 보통을 뛰어넘고, 재주와 기예가 빼어나다. 우정이 금란지교와 같아 이들이 동갑회를 결성하여 학업을 서로 권하는 것도 함께, 덕을 늘리는 것도 함께, 도(道)를 도모하는 것도 함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계첩을 만들기로 했는데, 나 허전에게 서문을 부탁했다. 선함을 쌓고 복을 스스로 구하여 훗날 기영회(耆英會)에서 송문언박의 동갑회보다 오롯이 아름답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불분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1879년에 허전이 쓴 서문과, 을묘동경첩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을묘동경열록(乙卯同庚列錄)」에는 동경회원의 성명이 대자로 적혀 있고, 그 하단에 소자(小字)로 생일일시와 자호를 소자쌍행으로 기재하였다. 그 하단에는 다시 대자로 본관을 적었으며, 본관 하단에는 부모의 생존 여부를 소자로 기재하였다. 조연식(趙彦植), 조중윤(趙中允), 안진원(安晉遠), 정봉시(鄭鳳時), 이서규(李序珪), 윤시영(尹始榮), 조종헌(趙鐘憲), 심은경(沈殷慶), 이만규(李萬珪), 정홍섭(丁弘燮), 유진형(俞鎭滢), 안종희(安種晦), 이철화(李哲和)의 성명이 보인다. 그중 조중윤, 안진원, 윤시영, 조종헌, 심은경, 정홍섭, 안종희의 성명 위에는 ‘선(畵)’이라는 글자가 필사되어 있다.

다음으로 「을묘동경시원운(乙卯同庚詩原韻)」이 수록되어 있다. 7언율시를 적고 두 칸을 비운 후 그 하단에 시를 지은 사람의 호를 적었다. 그 뒤에는 「을묘동경시분운(乙卯同庚詩分韻)」, 「을묘동경회약(乙卯同庚會約)」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허전이 쓴 서문은 초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허전의 친필을 목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남색 안료로 인출하였다. 「을묘동경열록」 또한 목판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나머지 내용은 전사자로 인출하였다.

서문 제1면 및 권수에 ‘조언식인(趙彦植印)’, ‘한양(漢陽)’, ‘만천명□□(滿川明□□)’, ‘창외지일(窓外遲日)’, ‘박인(博人)’, ‘문숙(文叔)’, ‘길양(吉羊)’, ‘언식(彦植)’ 등의 인장이 답인되어 있고, 권말에는 ‘조언식장서(趙彦植藏書)’가 답인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1855년 을묘년생 동갑 친구들의 명단과 시회에서 쓴 시, 규약 등을 함께 엮은 책이다. 당시 시회의 분위기와 친구들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본서는 가장 처음에 성명이 수록된 조언식의 소장본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은슬)

핵심어 을묘동경첩(乙卯同庚帖), 조언식(趙彦植), 조중윤(趙中允), 안진원(安晉遠), 정봉시(鄭鳳時), 이서규(李序珪), 윤시영(尹始榮), 조종헌(趙鐘憲), 심은경(沈殷慶), 이만규(李萬珪), 정홍섭(丁弘燮), 유진형(俞鎭滢), 안종희(安種晦), 이철화(李哲和), 허전(許傳)

참고문헌

허전, 『성재선생문집(性齋先生文集)』 권13 「을묘동경첩서(乙卯同庚帖序)」

의례통고(疑禮通攷)

KOL000015766

古5213-58

疑禮通攷 / 鄭萬陽·鄭葵陽(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全15卷7冊(本集12卷6冊, 別集3卷1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19.6 × 16.0 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7 × 20.8 cm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 학자인 정만양(鄭萬陽, 1664~1730)과 정규양(鄭葵陽, 1667~1732) 형제가 편찬한 의례서(儀禮書)이다. 본집(本集) 12권 6책과 별집 3권 1책의 총 15권 7책으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정만양과 정규양 형제의 본관은 영일(迎日)로 조선 후기 영남 지역에 은거한 유학자이다. 정만양의 자는 경순(景醇), 호는 훈수(塤叟)·기암(企菴)·정재(定齋)이며 정규양의 자는 숙향(叔向), 호는 지수(箴叟)이다. 부친은 정석주(鄭碩胄)이며, 어머니는 김방렬(金邦烈)의 딸 의성김씨(義城金氏)이다. 두 사람 모두 종조부 정시연(鄭時衍)과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영조 4(1728)년 이인좌의 난 때 경상북도 일대에 격문을 돌려 동생 정규양은 의병장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은데, 정규양의 연보(年譜)에 의하면 45세 때인 숙종 37(1711)년 예서에 없는 변례(變禮)를 밝히기 위하여 『의례통고』 편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정만양·정규양 형제는 본서 외에도 문집 『훈지문집(塤箴文集)』을 비롯하여 『심경질의(心經質疑)』, 『치도의설(治道擬說)』, 『경학연원도(敬學淵源圖)』, 『상의치심단(上醫治心丹)』, 『선천심법도(先天心法圖)』, 『대학차록(大學筭錄)』 등의 저서를 함께 저술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통례(通禮)」, 「관례(冠禮)」, 「혼례(昏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와 별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1에는 권1~권2, 책2에는 권3~권4, 책3에는 권5~권6, 책4에는 권7~권8, 책5에는 권9~권10, 책6에는 권11~권12가 수록되어 있고 별집은 권1에서 권3까지 있다. 권차(卷次)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권1~권2는 통례, 권3은 관례, 권4는 혼례, 권5~권11은 상례, 권12는 제례이다. 별집의 권1에는 「군복(君服)」·「사우복(師友服)」, 권2에는 「학례(學禮)」, 권3에는 「향음주의(鄉飲酒儀)」·「투호의(投壺儀)」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주로 주자의 『가례』와 다른 예서의 학설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의절(儀節)을 고증하였는데 마지막에 ‘안(按)’자를 써서 저자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우리나라 학자의 학설 앞에는 ‘동(東)’자를 써서 중국의 것과 구분하였다.

4. 서지적 특성

『의례통고』는 1779년(정조 3)과 1861년(철종 12)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서는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표지 서명 아래 일(一)·이(二)·삼(三)·사(四)·오(五)·육(六)의 숫자를 한자로 기재하여 책의 순서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별집은 ‘단(單)’이라는 한자를 적어두어 1책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각 책에 수록된 내용을 기재하여 책을 펼쳐보지 않고도 수록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인쇄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육의당A05E-0083), 영남대학교 도서관(古 385-정규양) 등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가례』를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학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가례』의 예법을 행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 책이다. 구성과 내용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의례문해』와 유사성을 보이는데 별집에 수록한 학례, 향음주례, 투호의를 통하여 독창적 가치를 지닌다. (임영현)

핵심어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가례(家禮), 훈수(塤叟), 지수(簾叟), 훈지(塤簾)

참고문헌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예학총서』, 민족문화사, 2018.

의와졸변(疑訛拙辨)

KOL000009270

古3649-159

疑訛拙辨 / 李鯤燮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不分卷1冊(完帙) : 四周雙邊 半郭 20.2 × 17.6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3 × 20.5cm

表題: 疑訛拙辨

版心題: 疑訛拙辨

1. 개요

『의와졸변(疑訛拙辨)』은 사천이씨 임란공신인 이곤변(李鯤燮, 1551~?)이 저술한 목판본이다. 이곤변은 자신의 조부 구암(龜巖) 이정(李楨)과 관련된 소문을 변론하기 위해 이 책을 간행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진사(進士) 이곤변(李鯤燮)은 시조 식(軾) 13세손이며 사천(동성)이씨의 현조(顯祖)인 구암선생의 차손(次孫)으로 자는 자거(子舉)이며 호는 백인재(百忍齋)로 백인재공파의 파조이다. 구암선생의 사려(思慮)가 많았던 애중지손(愛重之孫)으로 일찍이 그는 형 호변(虎燮)과 나란히 을묘진사시(乙卯進士試)에 동방(同榜)하여 삼천진(三千鎭, 지금의 삼천포) 권관(權官)을 지냈으며, 왜란 때는 형 우소재공과 더불어 이순신을 도와 무공을 세우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녹권(錄卷)에 책록되었다. 그는 기절(氣節)이 웅위(雄偉)하고 사리(事理)에 밝은 걸출(傑出)로 문사(文詞)에 능하고 반궁(泮宮, 성균관의 다른 이름)에 유학하여 당세에 명성을 떨쳤다고 전해진다. 일찍이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을 섬겼는데 오리께서는 백인재를 가리켜 뛰어남이 있는 남도(南道)의 인물이라 칭찬하였으며, 또한 많은 문집(文集)을 남겼으나 세 전하는 것은 오로지 『의와졸변』 한 권이 있을 뿐이다.

이곤변이 본서를 편찬한 것은 조부인 이정와 남명 조식 간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때문이었다. 둘 사이는 누구보다 친했으나 1568(선조 1)년 진주 수곡면에서 발생한 '하종악 후처 음행사건(淫行事件)'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 음부옥은 진주의 죽은 진사(進士) 하종악(河宗嶽)의 후처 이씨(李氏)의 음행 소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옥사이다. 이 사건에 조식과 이정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미묘하게 대립하다가 급기야 조식이 이정과 절교하고, 조식의 문인들이 과부 이씨와 간부(姦夫)의 집을 헐고 향리에서 내쫓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일은 조정에까지 보고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에 이르렀다. 훗날 이정의 손자 이곤변이 그 조부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졸변(拙辨)'을 짓고, 조식의 손자 조준명(曹浚明)이 이를 반박하는 '반변(反辨)'을 짓는 등, 두 사람의 사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쪽 집안과 지역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제(卷首題)는 '의와졸변'인데 그 하단에 이 글을 쓴 작성자인 진사(進士) 이곤변(李鯤變)이라고 기재하고 주석(注釋)으로 '선생님의 손자'라고 기록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이곤변이 자신의 조부를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절교를 선언한 남명의 선비답지 않은 행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에는 서발문(序跋文), 간기(刊記, 간행 기록) 등 간행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간행 연대나 간행 지역, 간행자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판심(版心, 책장이 중앙에서 접힌 곳)에 '의와졸변'으로 기재하였으나, 중간 중간 제목과 장수를 삭제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동일 판본이 고려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도 소장되어있다.

5. 종합평가

16세기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두 학파가 틀어지게 되었던 사건은 1568년(선조 1) 진주 수곡면에서 발생한 '하종악 후처 음행사건(淫行事件)'이다. 이와 관련한 전말을 『의와졸변』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는데 의미있는 문헌이다. (이다희)

핵심어 이곤변(李鯤變), 이정(李楨), 하종악(河宗嶽), 조식(曹植), 이황(李滉)

참고문헌

鄭萬祚,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韓國學論叢』 22, 國民大學校韓國學研究所, 1999.

이언(易言)

KOL000029848

일산古6100-1

易言 / 杞憂生(淸) 著 ; 王韜(淸) 讐校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發行處不明], 高宗 20(1883)

2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2.4 × 15.7 cm, 10行21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 32.5 × 20.5 cm

序: 光緒元年(1875)...王韜

自序: 光緒元年(1875)...杞憂生

跋: 光緒六年歲次庚辰(1880)...王韜

所藏本: 冊乾, 序, 自序, 上卷目錄, 論公法, 論稅務, 論阿片, 論商務, 論開礦, 論火車, 論電報, 論開墾, 論治旱, 論機器, 論船政, 論鑄銀, 論郵政, 論鹽務, 論遊歷, 論議政, 論考試(附論 洋學), 論吏治. -- 冊坤, 下卷目錄, 論邊防, 論交涉, 論傳教, 論出使, 論水師, 論火器, 論練兵, 論民團, 論治河(附某君議), 論虛費, 論廉俸, 論書吏, 論招工, 論醫道, 論犯人, 論棲流, 論借款, 論裹足, 跋

1. 개요

『이언』은 고종 8(1880)년 청나라의 정관응(鄭觀應, 1842~?)이 자국의 쇠퇴를 염려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 개화서이다. 아편전쟁으로 인해 혼란한 사회를 몸소 겪은 정관응은 국가가 자강(自強)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방안을 꾸준히 상고해왔다. 신문물에 관한 그의 소견은 타인에 의해 신문과 문견록 등에 실린 바 있으며, 이를 책으로 간행한 것이 『이언』이다. 저자는 자서(自序)에서 『서경』의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 오직 어렵다’라는 구절과 『시경』의 ‘군자는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책은 말을 쉽게 한 경계(警戒)를 면치 못하였으나 다만 정성을 다할 따름이라고 하며 서명을 ‘이언’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정관응은 1842년 중국 광둥성(廣東省) 향산현(香山縣)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기우생(杞憂生), 모옹산인(慕雍山人)이다. 본서의 서발문, 자서 등에서는 저자를 기우생으로 칭하고 있다. 정관응은 유년기에 영국 선교사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傳蘭雅, 1839~1928)에게 영어를 배운 후, 보순양행(寶順洋行) 등 중국 소재의 영국 자본 회사에서 매판(買辦)으로 활동하면서 서양인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문물을 접했다. 당시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국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관응은 서양의 만국공법 체제와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언』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집필한 서적이다.

정관응은 중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심하였는데, 이는 그의 초기 저작으로 알려진 『구시계요(救時揭要)』에서 아편, 빈민 구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1870년 이후부터는 『이언』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부 내용은 중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신보(申報)』에 실리기도 하였다. 본서의 권

수에 있는 자서와 왕도(王韜)의 서문은 1875년 작성되었으나, 본서의 간행은 왕도의 발문이 작성된 1880년경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을 필두로 한 2차 수신사(修信使) 일행이 1880년 일본에서 가져오면서 조선에 유입되어 당시 지식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혁과 자강을 위한 방책으로 1883년 왕명에 의해 한문본 『이언』이 다시 간행되었고, 얼마 후 순한글로 번역된 언해본 또한 간행되었다. 소장본은 조선에서 재간된 한문본 2권2책 완질이다.

3. 구성 및 내용

『이언』은 서문, 본문,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 왕도가 쓴 서문과 저자의 자서가 있고 그 뒤로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국의 봉건주의(封建主義)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법률, 관료 체제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항목별로 세세히 나누어 서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권에는 논공법(論公法), 논세무(論稅務), 논아편(論阿片), 논상무(論商務), 논개광(論開礦), 논화차(論火車), 논전보(論電報), 논개간(論開墾), 논치한(論治旱), 논기계(論機器), 논선정(論船政), 논주은(論鑄銀), 논우정(論郵政), 논염무(論鹽務), 논유력(論遊歷), 논의정(論議政), 논고시(論考試)(부논양학(附論洋學)), 논이치(論吏治)의 내용이, 하권에는 논변방(論邊防), 논교섭(論交涉), 논전교(論傳教), 논출사(論出使), 논수사(論水師), 논화기(論火器), 논연병(論練兵), 논민단(論民團), 논치하(論治河)(부모군의(附謨君議)), 논허비(論虛費), 논염봉(論廉俸), 논서리(論書吏), 논초공(論招工), 논의도(論醫道), 논범인(論犯人), 논서류(論棲流), 논차관(論借款), 논과족(論裹足)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하권 각각 18항목이며 총 3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상권의 ‘논고시’의 경우 ‘논양학’이 부록으로 붙어있고, 하권의 ‘논치하’ 항목에는 ‘모군의’가 첨부되었다. 권말에는 왕도에 의해 작성된 발문이 붙어있는데, 서양의 만국공법을 준행하여야 강병부국(強兵富國)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본서가 ‘서양의 신문물을 취하되 중국의 전통적인 유도(儒道) 사상은 변치 않는다’는 점에 입각하여 저술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2권 2책으로 금속활자인 전사자(全史字)로 인쇄되었다. 표지에는 만자(卍字) 문양이 있으며, 표제(表題)는 태두리가 있는 제첨(題籤, 표지에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종이에 써서 앞표지에 붙임)에 ‘이언(易言)’이 인쇄되어 있다. 표제 하단에 ‘건곤(乾坤)’으로 책의 순서를 매겨두었다. 표제면(標題面, 본문 앞에 서명과 저자, 발행사항, 간행연도 등이 기재된 면)에는 큰 글씨로 ‘이언(易言)’이 적혀있고 왼쪽 하단에는 ‘근신서첨(覲宸書籤)’과 ‘윤음상인(綸音相印)’의 인쇄인이 있다. 각 권수(卷首, 권이 시작하는 부분)와 권말(卷末, 권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우생이 저술하고 왕도가 교정한 사실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언해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지에 소장되어 전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에 전래된 이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화이론(華夷論)을 바탕으로 한 위정척사파와는 대립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들어 부국강병책을 펼치자는 개화파의 주장의 핵심 사상으로 채용되었다. 1882년 8월 유학 지식영(池錫永, 1855~1935)이 올린 상소 내용을 살펴보

면, 『만국공법』, 『조선책략』 등 외국서적을 수집하고 인재들로 하여금 책에 실린 대응책을 연구하게 할 것을 청하며 자강(自強)을 이룩하고 외적을 막는 계책은 모두 『이언』에 실려 있다고 하며 본서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같은 해 10월 전적(典籍) 변옥(卞燾, 1830~?)은 백성들의 생업에 보탬이 있는 양학에 대한 서적을 간행하기 바라는 상소를 올리며 『만국공법』, 『이언』을 언급한 바 있고, 11월 유학 김영효(金永孝)가 올린 상소에서는 『이언』의 「논수사」 편을 예시로 들며 군대의 배치와 훈련법을 재정비할 것을 청하였다. 유학 양진화(梁鎭華)와 윤선학(尹善學) 역시 외국의 석탄과 기계 제조법 등을 모방 및 도입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며 『이언』을 언급한 바 있다. 상기 기록들을 통해 본서가 조선에 전래된 후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고, 그 사상은 개화파의 개혁 운동 사조를 고조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언』의 국내 유입과 유통은 중국 근대의 양무사상(洋務思想,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자강을 이루고자 했던 이념)이 조선에 유입되고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해본에 실린 근대 용어들의 경우 최초로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화기 당시 어휘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가 있다. (백성원)

핵심어 기우생(杞憂生), 정관응(鄭觀應), 이언언해(易言諺解)

참고문헌

이광린,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の 受容과 그 影響」, 『동아연구』 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2.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KOL000030984

古0237-17

李太白文集 / 李白(唐) 著

木活字本(訓練都監字)

[漢城] : [發行處不明], [17世紀]

1冊(70張): 四周雙邊 半郭 25.1 × 15.7 cm, 有界, 9行17字, 上內向3葉花紋魚尾 ; 30.1 × 20.0 cm

印: □□

1. 개요

본서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李白)의 문집으로, 조선시대 목활자인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 책의 저자인 이백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으로 자(字)는 태백(太白), 호(號)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적선인(謫仙人)이다. 시문(詩文)에 능하여 시선(詩仙)으로 일컬어졌으며 당나라의 또 다른 시인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라고 불렸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표(表)」, 「서(書)」, 「비송(碑頌)」, 「기명송문(記銘頌文)」, 「찬가(讚歌)」, 「서(序)」로 이루어져 있다. 「표」는 표문(表文)으로 신하가 국왕에 올리는 문서 또는 외교문서로서 제후가 천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릴 때 쓴다. 본서에는 3건의 표문이 실려 있다. 「서」는 간찰(簡札)로 수산(壽山)의 맹소부(孟少府)에 답한 간찰을 비롯하여 6건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다. 「비송」은 비문(碑文)과 송(頌)으로 비문은 비석에 어떤 인물의 사적(事蹟)과 공적(功績)을 기리는 내용을 새겨 무덤에 세워 놓는 것이며 송은 왕이나 어떤 인물을 칭송하는 글이다. 본서에는 4건의 비명과 1건의 송이 수록되어 있다. 「기명송문」은 기(記文), 명문(銘文), 송(頌文), 문(文)으로 기문은 기행문, 명문은 비석이나 기물에 새기는 글, 송문은 부처의 덕을 칭송하거나 교법(教法)의 이치를 노래한 글, 「찬가」는 공덕의 기리는 글로 17건이 수록되어 있다. 「서」는 서문(序文)으로 책의 첫머리에 쓰는 글로 책이 이루어진 전말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25건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조선 후기 14대 왕인 선조(宣祖)때 제작된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쇄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 책의 간행을 담당하던 교서관(校書館)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임시 기구로 설립된 훈련도감에서 남는 병력을 이용하여 목활자를 제작하였고 그 때 만들어진 목활자를 훈련도감자라고 한다. 이 책과 동일한 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쇄된 도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895.1443-Y51y),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812.081-이백○) 등에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시인으로 유명한 이백의 산문(散文)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백의 시를 짓는 능력은 당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 잘 알려진 반면 그의 산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비록 많은 수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시인의 산문을 수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임영현)

핵심어 이백(李白), 시선(詩仙),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 목활자(木活字)

일암선생문집(一庵先生文集)

KOL000027516

古朝46-가1925

一庵先生文集 / 辛夢參(朝鮮) 著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2(1865)]

7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1.4 × 16.4 cm,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29.6 × 19.9 cm

表題: 一菴集

版心題: 一庵先生文集

一庵先生文集序: 韓山李象靖(1711~1781)謹序

跋: 星山李源祚(1792~1871)謹撰

印: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신몽삼(辛夢參, 1648~1711)의 시문집으로, 19세기에 목활자로 인출한 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신몽삼은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성삼(省三) 또는 공삼(公參), 호는 일암(一庵)이다. 부친 대림(辛大臨)과 모친은 용성송씨(龍城宋氏) 지원(知遠)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도천리(道泉里)에서 출생하여 숙종 2(1676)년에 초계(草溪: 현 합천) 가리현(佳里峴)으로 이사했다가, 1686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망우당(望雨堂) 광재우의 유허지(遺墟地)가 있는 창암(滄巖)에 우거했다. 1675년 증광시에서 생원에 합격하였으나, 부친 신대림(辛大臨)의 뜻에 따라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후에도 학덕과 효행으로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주자와 퇴계의 학설 연구에 침잠했다. 어린 시절 외삼촌 송정현(宋廷賢), 족부(族父) 신민행(申敏行)에게 『십구사략』과 『통감절요』 등을 배웠으나, 이후 특정한 스승에게 학문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공부했다. 갈암 이현일(李玄逸), 경암(敬菴) 문도동(文道東)과 교류하였으며, 특히 문도동과 성리설을 논한 일이 유명하다. 저서로 『주자가례(朱子家禮)』 안에서 여러 선유들의 예설(禮說)을 채택하여 해석하고 교정하여 『가례집해(家禮輯解)』가 있다.

본서는 저자의 족후손(族後孫)인 신자순(辛子順)과 손자 신필전(辛必塹), 증손 신덕종(辛德鍾) 등이 원고를 수습한 후,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에게 요청하여 1755년경에 편차가 완성되었다. 이어 이광정의 행장을 얻게 되고, 서문도 받고자 했으나 이광정이 사망하는 바람에 신덕종이 대신 이상정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이상정의 서문이 붙은 정고본(定稿本)은 간행하지 못한 채 집안에 보관되어 왔다. 이후 110년이 지난 1865년경에 이원조의 발문을 받아 인출했다. 발문의 작성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원조가 '유집 4책이 110여년간 간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자신이 도산동주(道山洞主)가 되자 저자의 집안에서 자신에게 등본(謄本)

을 보여주며 교정을 요청했다'고 한 발문의 참조할 수 있다. 즉 편정이 완료된 1755년경으로부터 110년이 지난 시기는 약 1865년이다. 또한 '도산동주'란 저자를 배향한 도산서원(道山書院)의 동주를 맡게 되었다는 것으로, 본 서원은 1859년(철종 10)에 설립되어 1868년에 휘철되었다. 따라서 이원조의 발문이 1865~1868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이 시기 즈음에 목활자로 인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원집(原集) 7권과 부록의 4책으로 구성된 목활자본이다. 권두에는 이상정의 서문이, 권말에는 이원조(李源祚)의 발문이 있다. 서문의 작성 시기는 『대산집』에서 1758년에 이상정이 동생 이광정(李光靖)에게 보낸 편지에 서문을 부탁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이 무렵을 즈음하여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원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은 시(詩)로 오언시(五言詩), 칠언시(七言詩), 만시(挽詩)로 구분하여 전체 200여수를 실었으며, 대체로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권2~3은 서(書) 77편, 권4~5는 답문(答問) 50편, 권6은 잡저(雜著) 9편·서(序) 3편, 기(記) 2편, 발(跋) 1편, 잠명(箴銘) 5편, 상량문(上梁文) 6편, 권7은 축문(祝文) 18편, 제문(祭文) 12편, 행록(行錄) 2편이다. 부록은 세계도(世系圖)·연보(年譜)·행장(行狀)·묘갈명(墓碣銘)·상향축문(常享祝文)·봉안문(奉安文)·상량문(上梁文) 각 1편이다. 권말에는 1865년 경에 작성한 이원조의 발문이 있다.

각 권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에는 광재우가 만년에 머물던 망우정에 오르며 지은 시인 「제망우정(登忘憂亭)」, 문도동과 학적교유를 보여주는 「답문성원(答文聖源)」, 1700년(숙종 26) 3월에 갈암 이현일이 저자가 머물던 창강에 찾아왔을 때 권두경(權斗經) 등과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시인 「이갈암방여우강서(李葛庵訪余于江墅)」, 모친 생전에 저지른 자신의 불효를 반성하며 지은 「감애사(感哀思)」 등이다. 편지는 이현일, 민창도(閔昌道), 최석항(崔錫恒), 권두경 등과 주고받은 편지로 안부인사를 비롯하여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한 편지들이 있다. 답문은 상제례(喪祭禮) 등과 관련하여 문답한 것만 따로 뽑은 것이다. 잡저 가운데 「약허재설(若虛齋說)」은 『논어』에 나오는 '차 있으면서도 비어 있는 듯하다'에서 실(實)과 허(虛)에 대한 설이며, 1702년에 자신의 저서인 『가례집해』에 쓴 서문 등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전체적인 판형 및 지질 등으로 보아 발문의 작성시기로 추정되는 1865년 경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활동한 개인의 일상생활, 학문과 사상, 교유관계 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소희)

핵심어 일암집(一庵集), 신몽삼(辛夢參), 이광정(李光庭), 이상정(李象靖), 신덕종(辛德鍾), 이현일(李玄逸)

일죽유고(一竹遺稿)

KOL000027804

한古朝45-가105

一竹遺稿 : 附別章 / 姜樹(朝鮮) 著

木板本(後刷本)

[發行情地不明] : [發行處不明], 顯宗 4(1663)跋, [後刷]

不分卷1冊(24張) : 遺墨, 四周雙邊 半郭 19.0 × 15.0 cm, 9行12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29.4 × 19.4 cm

跋: 辛丑(1661)...鄭斗卿, 歲癸卯(1663)...金壽恒

1. 개요

조선 중기의 문인 일죽(一竹) 강수(姜樹, 1568~?)의 시를 모은 『일죽유고(一竹遺稿)』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김상건(金尙耆, 1567~1604) 등과 주고받은 시문을 부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강수의 자는 수지(樹之), 호는 일죽이다. 권말의 만옹(漫翁) 황호(黃虯, 1604~1656)가 쓴 지(識)에 의하면, 판결사 하음(河陰) 강공(姜公)의 후손이다. 본서에 나타난 정보 외에는 행적이나 시문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인물이다. 『일죽유고』의 말미에는 외손 조성(趙醒)이 쓴 지(識)가 수록되어 있어, 편찬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다. 외조부에게 하늘이 말미를 주지 않아 많은 글을 남기지 못하고, 있던 것도 산일되어 전해지는 약간의 시편을 수습한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남은 몇 편의 수창시가 있어서 뒤에 부록한다는 내용이다.

3. 구성 및 내용

목록이나 서문 없이 「봉정형주좌전(奉呈兄主座前)」이라는 7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 「희우정백씨(喜雨呈伯氏)」, 「야숙강서현서봉백씨(夜宿江西縣書奉伯氏)」, 「차독석명자운잉정행안(次獨石明字韻仍呈行案)」, 「어천로상(魚川路上)」 2수, 「증시저도(贈詩楮島)」, 「도보현(到普賢)」 2수와 차운한 시 4수, 「송조교리조요서(送趙校理趙遼西)」 2수, 「문조교리과거우음서정(聞趙校理過去偶吟書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 뒤에는 외손인 조성이 쓴 지와, 부록 『별장(別章)』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송일죽사형향산지행(宋一竹詞兄香山之行)」은 강수를 비롯한 친지들이 수창(酬唱) 시를 모아 수록하였다. 김상헌이 서문을 쓰고, 가장 먼저 시를 수록하였다. 시의 말미에는 ‘무술년 추석에 병졸한 청음이 씬[戊戌秋夕日淸陰病拙]’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무술년은 1658년으로, 김상헌의 몰년이 1652년이어서 오류가 있다. 이는 병술년인 1646년의 오각으로 판단된다. 그 뒤에는 추애거사(秋崖居士), 김상헌의 형인 만사(晩沙) 김상건(金尙耆, 1567~1604)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한산후인(韓山後人)이 쓴 「상원가송일죽형유묘향(上院歌送一竹兄遊妙香)」, 김상헌의 「입경도중기강수지산방(入京道中寄姜樹之山房)」, 저도(楮島) 구용(具容, 1569~1601)의 「내원암서시일죽형(內院庵書示一竹兄)」이 수록되어 있다. 채유후(蔡裕後, 1599~1660)가 쓴 지(識), 강수의 외손 조성(趙醒)이 쓴 지와 만옹 황호의

지, 1661년의 정두경(鄭斗卿), 1663년에 김수항(金壽恒)이 쓴 지가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는 ‘일죽집(一竹集)’, 권수제 및 판심제는 모두 ‘일죽유고(一竹遺稿)’이다. 시의 말미에는 ‘무술년 추석에 병졸한 청음이 씌[戊戌秋夕日淸陰病拙]’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무술년은 1658년으로, 김상헌의 몰년이 1652년이어서 오류가 있다. 이는 병술년인 1646년의 오각으로 판단된다. 찬자를 판각한 다음 행에는 아래부터 쌍행으로 ‘포계어수(蒲溪漁叟)’·‘숙도(叔度)’·‘안동(安東)’·‘청음(淸陰)’이라는 글자가 쌍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는 시첩에 각자 시를 적고 본인의 시 뒤에 낙관을 압인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권말에 수록된 정두경과 김수항이 쓴 지는 친필을 그대로 판각하여 수록하였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 일죽 강수의 시와 친지들과의 수창시를 수록한 유고집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자료가 많지 않은 강수라는 인물의 시세계와 교유 인물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청음 김상헌과 교분이 깊었던 인물로, 김상헌의 시문집인 『청음집(淸陰集)』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어 희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권말의 정두경과 김수항의 친필 유묵 또한 서예사 연구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김은슬)

핵심어 일죽유고(一竹遺稿), 일죽(一竹), 수지(樹之), 강수(姜樹),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김상건(金尙耆), 만옹(漫翁) 황호(黃虯), 조성(趙磻), 저도(楮島) 구용(具容)

작성록(作成錄)

KOL000025365

古朝26-60

作成錄 / 正祖(朝鮮) 命編

金屬活字本(韓構字)及木板本(合本)

[漢城] : [奎章閣], [正祖 15-19(1791-1795)]

9卷3冊 : 四周單邊 半郭 21.2 × 14.2 cm, 10行20字, 註雙行, 花口, 上下向二葉花紋魚~尾;
30.0 × 18.4 cm

서명은 表題에 의함

版事項 : 瓊林聞喜錄. 金屬活字本(韓構字). - 正始文程. 金屬活字本(韓構字). - 關東賓興錄.
木板本. - 嶠南賓興錄. 木板本. - 耽羅賓興錄. 金屬活字本(韓構字). - 豐沛賓興錄. 金屬活字本
(韓構字)

印: 奎章之寶

1. 개요

문풍의 진작을 위해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친히 과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좋은 답안을 모아 간행한 책인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 『정시문정(正始文程)』,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 『담라빈흥록(耽羅賓興錄)』, 『풍패빈흥록(豐沛賓興錄)』을 합본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정조는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좋은 과거시험 답안을 모은 빈흥록을 간행하도록 규장각에 명하였다. 정조가 문체반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주력했던 것이 바로 과거시험 모범답안인 빈흥록 확산을 통한 순정한 문체 교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은 『정조실록』의 부록 중 「정조대왕행장(正祖大王行狀)」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왕은 왕위에 오르고부터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올바르게 계도할 방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월강(月講) 순시(旬試) 제도를 실시하여 혹 그 자리에 나가 친히 시험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시제를 나눠주고 각자 재능을 재보기도 했으며, 혹은 경의(經義)를 강론하게 하여 학문의 깊이를 두드려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왕은 그 시권을 직접 살펴보고 대책 내용도 친히 열람한 다음 혹자에게는 급제를 내리기도 하고 혹자에게는 벼슬을 주어 권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공령문(功令文)을 편집 인쇄까지 하기도 했으며 여러 하사품도 많이 내렸고 은총과 영광 또한 전대에 없을 정도였으므로 온 나라 전체가 모두 빈흥(賓興) 대상이 되어 신해년에는 『경림문희록』이 만들어지고 임자년에는 『교남빈흥록』, 계축년에는 『관동빈흥록』, 갑인년에는 『담라빈흥록』, 을묘년에는 『풍패빈흥록』과 『정시문정(正始文程)』, 경신년에는 『관북빈흥록』, 『관서빈흥록』이 각각 있게 되었다.

행장에 기록된 빈흥록 중 경신년의 『관북빈흥록』, 『관서빈흥록』을 제외한 모든 책이 모두 본서에 수록되어 있다. 각 책별로 정조 명찬(命撰) 서문과 전교(傳敎) 혹은 윤음(綸音)이 수록되어 있어, 정조가 문풍의 정확에 큰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책의 간행에서 드러

난다고 할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다음은 각 책별로 수록되어 있는 빈흥록의 서명과 권수, 발행사항 등을 정리한 표이다.

책수	서명	권수	판사항	발행년
제1책	경림문희록	3권	한구자(韓構字)	1791(정조 15)
	정시문정	2권	한구자(韓構字)	1795(정조 19)
제2책	관동빈흥록	3권(권1-3)	목판본(木板本)	1793(정조 17)
	교남빈흥록	3권	목판본(木板本)	1792(정조 16)
	탐라빈흥록	불분권	한구자(韓構字)	1794(정조 18)
	풍패빈흥록	2권	한구자(韓構字)	1795(정조 19)
제3책	관동빈흥록	2권(권4-5)	목판본(木板本)	1793(정조 17)

제1책에 수록된 『경림문희록』은 반관(泮官) 대상 시험과 음관(蔭官)을 취재(取才)했을 때의 답안에서 뽑은 것이다. 이들의 답안을 정조가 직접 성적을 매기고 좋은 답안을 선정하였다.

『정시문정』은 정조 19(1795)년에 규장각의 강제문신(講製文臣)들과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답안 중 좋은 시권(試券) 및 평론을 수록하여 1796년에 간행한 책이다. 『정시문정』이라는 서명은 ‘바르게[正] 시작하는[始] 문원(文苑)의 정식(程式)’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조는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발탁하고, 발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그 글들을 인쇄하여 반포하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나의 고심(苦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관동빈흥록』은 1793년에 강원도 유생 중 과시(科試)를 준비하는 유생인 공령생(功令生)과 경서를 공부하는 유생인 경공생(經工生)을 뽑아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과문(科文) 중 좋은 것을 모아 1794년에 규장각에서 편찬하고 강원도 감영인 원주에서 간행한 책이다. 전후전교(前後傳敎)·도계(道啓)·방목(榜目)·응제시권(應製試券)·어춘당대친시시권(御春塘臺親試試券)·십삼경강의(十三經講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험을 통해 공령생 중 4명을 문과 급제시키고, 경공생 중 3명을 분교관(分敎官)으로 임명하였다.

제2책에 수록된 『교남빈흥록』은 정조 16(1792)년에 영남의 유생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고 급제자의 방목과 과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1792년 3월에 정조가 전교를 내려 각신 이만수(李晩秀)를 시켜 영남 옥산서원(玉山書院)과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도산서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탐라빈흥록』은 정조 18(1794)년에 제주의 유생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고, 급제자의 방목과 과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1793년에 정조가 내린 윤음(綸音)과, 이듬해에 부사과(副司果) 심악수(沈樂洙)를 시켜 제주에서 과거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1794년에 규장각에서 한구자로 간행하였다.

『풍패빈흥록』은 정조 19(1795)년 태조(太祖)의 부친 환조(桓祖)의 고향인 영흥(永興)·함흥(咸興)의 본궁(本宮)에 제향을 지내고, 정조가 환조의 문무(文武)로 시취(試取)한 과문(科文) 중 훌륭한 것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규장각에서 1797년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서명은 표제에 근거하였다. 표제 하단에는 책차가 일(一)·이(二)·삼(三)으로 표기되어 있

다. 서뇌(書腦)에는 총책수가 ‘공삼(共三)’으로 표기되어 있어, 본서가 모두 3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책차 순서로 내용을 배열해보면 제1책: 『경림문희록』-『정시문정』-『관동빈흥록』(권1-3), 제2책 『교남빈흥록』-『탐라빈흥록』-『풍패빈흥록』, 제3책 『관동빈흥록』(권4-5)으로 배열되어 『관동빈흥록』의 내용이 나뉘게 되므로 제2책과 제3책의 책차 표기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앞표지 우측상단에는 책별로 수록된 빈흥록의 제목과 내용이 묵서되어 있다. 제1책 앞면지에는 ‘내사(內賜) 공령제편합부(功令諸篇合附) 제왈작성록(題曰作成錄)’이라는 기록이 있어, 규장각에 명하여 빈흥록을 합부하였으며 그 책의 제명을 작성록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본서와 비슷한 합본 형태를 띠고 있는 책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소장되어 있다. ‘빈흥록(賓興錄)’(청구기호: 奎6232-v.1-3)이라는 표제를 가진 책이며, 순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는 달리 제1책 『경림문희록』-제2책 『관동빈흥록』-제3책 『탐라빈흥록』-『정시문정』-『풍패빈흥록』 순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과시 답안 중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간행한 『경림문희록』-『정시문정』-『관동빈흥록』-『교남빈흥록』-『탐라빈흥록』-『풍패빈흥록』을 합부한 책이다. 제1책 앞면지에는 ‘내사(內賜) 공령제편합부(功令諸篇合附) 제왈작성록(題曰作成錄)’이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 과제문의 문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정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여러 지방에서 시행한 과거시험 답안 중 좋은 것을 모은 빈흥록을 합부하였으며 그 책의 제명을 작성록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1791년부터 1795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목판본으로, 혹은 한구자로 간행하여 정조가 지정한 과제문의 모범답안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답안을 높이 평가하고 그 유생들을 발탁함으로써 문풍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은슬)

핵심어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 정시문정(正始文程),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 풍패빈흥록(豐沛賓興錄)

정수록(正粹錄)

KOL000018449

한古朝56-나66

正粹錄 / 承明周(朝鮮) 編

金屬活字本(整理字體鐵活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11(1874)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3.4 × 17 cm, 10行20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2.1 × 21.2 cm

序: 崇禎紀元後五甲戌(1874)...李秀鳳

序: 上之十一年甲戌(1874)...承命周

後序: 上之十一年甲戌(1874)...尹滋命

跋: 崇禎後五甲戌(1874)...安光默

1. 개요

조선 후기의 유생인 승명주(承命周, 1808~?)가 1866년의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친족 30인과 의병(義兵)을 일으키려 하니 프랑스군이 물러난 사실을 기록하고, 회유문(回諭文) 등 병인양요 관련 문서 및 시문을 함께 편집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를 편찬한 승명주의 생애와 가계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에 편찬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이수봉(李秀鳳)이 쓴 서문에 의하면, 위수(渭叟) 승명주는 서용(西戎, 프랑스군)이 창궐할 때에 충의가 있는 친척 무리를 30명 거느리고 강화도를 호위할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군이 스스로 퇴거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과 함께 석파(石坡) 흥선대원군의 척사 사실을 책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한 책이 완성되지 못하여 자신 가족들의 저술과 우국 충정에 관련된 지인들의 일화, 본인이 지은 시편 등을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

3. 구성 및 내용

권1에는 이수봉(李秀鳳)과 저자의 서문, 권1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병인양요 때 흥선대원군이 신하들에게 맹세한 척사서(斥邪書)와 위정척사비문(衛正斥邪碑文), 척사서찬병소서(斥邪書贊并小序), 위정척사비송병서(衛正斥邪碑頌并序), 척사연구병소서(斥邪聯句并小序)를 수록하였다. 또한 병인양요 때 승씨 가문 30명의 의사(義士)를 모아 프랑스군을 물리치자고 하는 창의문(倡義文)과, 종군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조목인 「행중엄조약(行中嚴條約)」, 백의종군을 위해 공첩(公牒)이 필요하므로 관청에 공첩 발급을 위해 제출한 「정본현문장(呈本縣文狀)」, 「척사론」, 「격의회유문(激義回諭文)」 등이 수록되어 있고, 승씨 가문의 사람 수십 명을 모아 경복궁(景福宮) 중건을 도운 내용인 「부역일기(赴役日記)」, 흥선대원군의 위정척사 업적을 기록한 비석 건립을 제안한 윤유영(尹有榮)의 「정심영문장(呈沁營文狀)」, 지계원(池啓源)의 「정송영문장(呈松營文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1871년 신미양요 때 저자가 위정척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읊은 시인 「중양일

자서칠율(重陽日自敍七律)·「중양시서(重陽詩序)」와 이에 차운한 홍준정(洪俊楨) 외 60명의 친지들의 시와, 「육십일세수일술회칠율(六十一歲晬日述懷七律)」과 이를 차운한 홍재철(洪在喆)·이회영(李晦永)의 시를 수록하였다.

권말에는 윤자명(尹滋命)이 쓴 후서(後序)와 안광묵(安光默)이 쓴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서발문은 모두 1874년에 작성되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 및 권수제·판심제는 모두 ‘정수록(正粹錄)’이다. 조선 후기의 희현당철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한 책이다. 제목행은 한 칸을 내려 적었고, 본문은 채워 적었으며 부록 등은 한 칸 내려 적었다. 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는 행바꿈을 하고 조선이나 궁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는 한 칸을 띄어 적었는데, ‘대원군(大院君)’·‘대원(大院)’ 등 흥선대원군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도 한 칸을 띄어 적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승명주가 편찬한 병인양요 및 대원군의 위정척사에 대한 당시의 사실 및 유생들의 척양(斥洋)에 대한 의견 등을 수록한 책이다. 승명주는 대원군의 양이책(攘夷策)을 지지한 척사론 옹호자로, 본서에는 저자의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고종 집권 초기에 대원군이 시행했던 대외 정책과 외세의 침입에 대항한 지방 유생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정수록(正粹錄), 승명주(承命周), 병인양요(丙寅洋擾),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수봉(李秀鳳), 윤자명(尹滋命), 안광묵(安光默)

정축록(丁丑錄)

KOL200700764

古2153-39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仁祖 19(1641)

木板本

不分卷1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1.3 × 14.8cm, 有界, 9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9 × 17.1cm

版心題: 丁丑錄

被傳者: 金尙容

跋: 崇禎十四年辛巳(1641)...具鳳瑞

魚尾: 內向黑魚尾 混入

1. 개요

본서는 조선후기 문신 김광환(金光煥, 1579~?)이 부친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순절한 경위와 추숭(追崇) 전말 및 관련 기록 등을 수집·편찬하여 1641년(인조 19)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피전자(被傳者)인 김상용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풍계(楓溪). 계옹(溪翁)이다. 1561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조선 중기 문신 김극효(金克孝, 1542~1618), 조부는 김생해(金生海, 1512~1558)이다. 외조부는 정유길(鄭惟吉, 1515~1588)로, 그에게 고문(古文)과 시(詩)를 익혔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형이자, 성훈(成渾, 1535~1598)과 이이(李珣, 1536~1584)의 문인이며,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등과 교유하였다. 1582(선조 15)년 진사시에 입격했고, 1590(선조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병조좌랑(兵曹佐郎),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지제교(知製敎) 등을 지냈으나, 1593년 직무를 두고 충청도로 내려갔다는 사헌부의 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이듬해 이조좌랑(吏曹佐郎), 동부승지(同副承旨), 대사성(大司成), 도승지(都承旨),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우의정(右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강화도에서 사세가 급박해지자 강화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올라 분신(焚身)하여 자결하였다. 1758(영조 34)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문집인 『선원유고(仙源遺稿)』가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서는 1641년 경상도관찰사 구봉서(具鳳瑞, 1597~1644)가 지은 발문을 통해 김상용의 차남 광환이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있으면서 약간의 기록을 모아 1책으로 엮어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은 치제문(致祭文), 김상용의 사후 그에 대한 논의가 담긴 차자(筓子), 전교(傳敎) 등이 시기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1641년 구봉서의 발문이 있다. 본문의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수제 다음에는 『연보(年譜)』에서 발췌한 병자호란 당시 역

사적 사건과 김상용이 남문루에 올라 화약을 쌓고 좌우 사람들을 물린 이후 불을 놓아 스스로 자결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조중려(趙重呂, 1603~1650)가 지은 치제문, 1641년 10월 27일 인조의 전교와 승정원의 회계(回啓), 이후 관련 논의, 30일 승지 이홍망(李弘望) 등의 계와 전교, 11월 1일 박동선(朴東善, 1562~1640)의 차자(劄子)와 인조의 비답(批答),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차자와 인조의 비답, 11월 2일 김광환 등의 상소(上疏)와 인조의 비답, 예조의 계목(啓目)과 처결, 7일 강석기(姜碩期, 1580~1643)의 차자와 비답, 9일 예조의 계와 처결, 10일 경기감사 윤이지(尹履之, 1579~1668)의 상소와 비답, 24일 신경진(申景禎, 1575~1643)과 인조의 논의, 12월 19일 강화유수 신계영(辛啓榮, 1577~1669)의 장계(狀啓)와 처결, 김욱(金旭, 1580~1658)이 지은 치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 중에는 12월 12일 후금(後金)의 침입 소식을 조정에서 접하였으며, 13일 늙고 병든 재신들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과 김상용에 대한 조정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보, 조보, 상소, 계목, 장계, 치제문 등 다양한 기록을 수합하였으므로, 김광환이 폭넓게 기록을 수집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에는 간행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641년 8월 구봉서의 발문으로 미루어 이 무렵 경상도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축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1건씩, 미국 버클리대학교에 1건 등 3건이 확인된다. 이 중 본서와 규장각 소장본을 대조하면, 제1장과 제3장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규장각본은 권수제가 ‘김의정강도정축록(金議政江都丁丑錄)’인 반면에 본서는 ‘정축록’이다. 본문에서는 규장각본은 ‘빈국급양대군 출향강도 공수재병수왕(嬪宮及兩大君 出向江都 公遂載病隨往)’이라는 구절에서 ‘공(公)’ 자(字)가 확인되는 반면에 본서는 해당 글자가 없다. 또 본서는 ‘병이유사현(兵已踰沙峴)’이라는 구절이 있는 반면, 규장각본에는 해당 구절이 없다. 제3장에서는 본서는 ‘제문(祭文)’이라고 제시한 반면에 규장각본은 ‘치제문(致祭文)’으로 되어 있다. 본서의 제1~2행에 수록된 ‘선주벽 적수하륙 어시월변둔적상계방선 일시제도(船走避 賊遂下陸 於是越邊屯賊相繼放船 一時齊渡)’라는 구절은 규장각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본서는 김상용의 순절 시점이 22일 오전이라는 내용으로 마치는 반면, 규장각본은 그 이후 김상용의 아들들이 초혼을 하는 모습과 묘소의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본서가 규장각본보다 먼저 간행된 것이며, 규장각본은 일부 내용에 가감을 거친 뒤 다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본서는 난상(欄上) 및 구봉서의 발문 말미와 뒤표지 이면(裏面)에 옛 소장자의 목서가 확인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5. 종합평가

본서는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김상용과 관련된 기록을 수합한 것으로 17세기 중반 그에게 내려진 치제문과 조정의 관련 논의가 담겨있다. 특히 조정에서 논의된 기록은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해제서는 연대기 사료의 보완적 측면과 김상용 및 조선시대 순국 인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다희)

핵심어 김광환(金光煥), 김상용(金尙容), 추숭(追崇), 순절(殉節), 병자호란(丙子胡亂)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KOL000004640

일산古3644-62

靜軒瀛海處坎錄 / 趙貞喆(朝鮮) 著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發行處不明], 純祖 24(1824)

4卷2冊 : 四周單邊 半廓 21.5 × 14.8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32.5 × 20.6 cm

表題: 靜軒瀛海處坎錄

靜軒瀛海處坎錄序: 崇禎三戊戌(1778)歲除日靜軒書于耽羅祝聖室

靜軒瀛海處坎錄序: 己巳(1809)孟冬杞溪俞漢雋曼倩(1732-1811)序

靜軒瀛海處坎錄序: 甲申(1824)仲夏正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安東權常慎綱好(1759~1824)序

所藏本: 卷1-2(冊1), 卷3-4(冊2)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 학자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이 제주도 유배 당시에 지은 시 모음집으로, 순조 24(1824)년에 전자자로 인출한 책이다. '영해처감록'에서 '영해'는 제주의 바다를, '처감'은 어려움 즉 유배에 처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조정철은 본관이 양주(楊州), 자가 성경(成卿)·태성(台城), 호는 정헌(靜軒)·대릉(大陵)이다.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한 사람인 조태채(趙泰采, 1660~1722)가 그의 증조부이다. 1775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1777년에 강용휘(姜龍輝)와 전흥문(田興文)이 존현각(尊賢閣)을 침범하여 정조를 시해하려고 했던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803년 나주목, 토산현 등으로 이배되었다. 1807년에서야 해배되었고, 이후 동래부사,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여 1811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했다. 벼슬은 형조판서, 지중추원사에 이르렀다.

이 책의 편찬배경은 1778년의 자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제주도의 관리들이 자신에게 경전을 읽는 것을 금하였기에 무료함과 수심을 달래기 위해 시를 짓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영해'를 편명에 드러내어 제주에서의 유배생활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을 통해 이미 저서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언제 편차가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배지에서 풀려난 1809년에 유한준이 이 책을 읽고 서문을 작성했던 점에서 원고 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824년에 형조판서로 재직 중이었던 조정철은 원고를 교정한 후 전자자로 인출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문집 이외에도 부친 조영순의 문집인 『퇴헌집(退軒集)』도 함께 수습하여 인출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두에는 1778년에 쓴 자서(自序), 1809년의 유한준(兪漢雋)의 서문, 1824년의 재종조카 권상신(權常慎)의 서문 및 권별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각

권에 수록된 시는 권1에 106제, 권2에 124제, 권3에 88제, 권4에 103제 등 총 421제에 달한다. 시의 내용은 유배지에 처한 자신의 처지와 심정,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안부와 그리움,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숙부 조관빈(趙觀彬)의 문집에 차운하여 회포를 푸는 내용, 목사와 판관 등 자신을 감시하고 곤액을 당하게 되는 상황, 목사 김시구(金蓄耆)로 인한 어린 기녀 홍윤애(洪允愛)의 죽음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옥중에 갇히게 된 사연과 억울함 등을 토로한 시가 많다. 이 외에도 곳곳에 굴림서원과 충암(沖庵) 김정(金淨)의 유적에 대한 정보, 한라산을 바라보며 지은 시, 비·바람·눈보라와 폭풍우 등 날씨에 대한 묘사, 섬 사람들의 인심, 굴 유자에 대한 품평, 제주도의 노정 등 제주의 날씨·자연·풍속·토산·인심·교육·정치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죽지(竹紙)를 사용하여 매우 정교하게 인출한 전사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한古朝45-가93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서와 동일한 전사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제주지역의 자연, 승경, 기후, 풍속, 인심, 토산 및 정치상황 등을 연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조정철(趙貞喆), 제주(濟州), 유배문학(流配文學)

참고문헌

趙貞喆 著 ; 金益洙 譯, 『靜軒瀛海處坎錄』(2006), 제주문화원.

제반문(諸般文)

KOL000023869

한古朝21-274

諸般文 / [編著者不明]

木板本

陝川 伽倻山 : 海印寺, 肅宗 45(1719)

不分卷1冊(92張): 四周單邊 半郭 19.1 × 17.0 cm, 有界, 8行15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2.4 × 21.5 cm

版心題: 請文

刊記: 康熙五十八年己亥(1719)季春陝川伽倻山海印寺重刊

1. 개요

『제반문(諸般文)』은 사찰에서의 재공의례(齋供儀禮, 부처 및 보살 등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례), 시식의례(施食儀禮, 영혼에서 음식을 공양하면 명복을 비는 의례) 등에 대한 절차 및 진언을 수록한 불교의식집이다.

서명인 『제반문』은 사찰에서 행하는 다양한 의례에 대한 절차 및 의례문(儀禮文)을 수록하였다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제반문』의 편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반문』이라는 서명의 불교의식집들을 계속 간행하지만 수록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편저자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본서의 뒷부분에 수록한 조선 승려 의눌(義訥, 1666~1737)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점안(點眼, 새롭게 불상을 조성하고 나서 마지막 눈을 그려서 신앙의 대상으로써 생명을 불어 넣는 의식) 등의 의례에 대한 절차를 담은 의식집들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닳게 되어 뜻이 있는 승려들이 재물을 모아 새롭게 간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첫부분에는 소위 ‘각배청문(各拜請文)’ 또는 ‘대례왕공(大禮王供)’이라고 불리는 천도재(薦度齋,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의례)를 기본으로 하여 공양(供養)을 올리는 각종 재공의례(齋供儀禮)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는 각종 의식 절차 및 진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약례왕청문(略禮王請文)」, 「나한청문(羅漢請文)」, 「사자청(使者請)」, 「관음청(觀音請)」, 「가사청문(袈裟請文)」, 「제석청문(帝釋請文)」, 「제불보살통청(諸佛菩薩通請)」을 수록하여 공양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식문을 수록하였다. 재공의례와 관련한 의식문 다음에는 시식의례에서 사용하는 「시식문(施食文)」을 수록하였다. 「시식문」 다음에는 점안의례에서 사용하는 「점안문(點眼文)」을 수록하였는데, 첫부분에 소위 ‘불보살상점안문(佛菩薩像點眼文)’을 기본으로 하여 점안의례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는 각종 의식 절차 및 진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나한점안(羅漢點眼)」, 「탑점안문(塔點眼文)」, 「시왕점안문(十王點眼文)」, 「천왕점

안문(天王點眼文)을 수록하여 점안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식문을 수록하였다. 「점안문」 다음에는 「삭발문(削髮文)」, 「성도재문(成道齋文)」, 「다비작법(茶毗作法)」 등 삭발,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의 성도일(成道日,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날), 다비(茶毗, 불교식 장례) 의례에 필요한 의식문을 수록하였다. 그 다음에는 간행 참여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록하였고, 이어서 북두칠성(北斗七星), 현왕(現王, 염라대왕), 지장보살(地藏菩薩), 독성(獨聖, 16나한 중 한명인 나반존자)를 위한 재의문(齋儀文)을 수록하였다. 가장 마지막에는 발문과 간행 관련 기록 및 37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문의 뒷부분에 ‘강희오십팔년기해계춘합천가야산해인사중간(康熙五十八年己亥季春陝川伽倻山海印寺重刊)’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숙종(肅宗) 45(1719)년에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 앞부분에 시주자(施主者) 등 간행 참여자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해인사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시대 사찰의 재공의례, 시식의례, 점안의례 등 각종 의례에 필요한 의식절차 및 진언 등을 수록한 불교의식집으로 조선시대 불교의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또한 다른 불교의식집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조선시대 불교의례의 변화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제반문(諸般文), 불교의례(佛教儀禮), 의식집(儀式集), 해인사(海印寺)

참고문헌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정명희,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제범(帝範)

KOL200400187

古3652-28

帝範 : 附 訓辭 / 李世民 作; 李沖(1568~1619) 編

木板本

全州(完山) : 完山府, 光海君 5(1613)

不分卷1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1.3 × 14.5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
魚尾 : 30.2 × 19.5cm

表題: 帝範

版心題: 帝範

卷末題: 唐太宗帝範

刊記: 萬曆四十一年(1613)正月日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李沖/開刊于完山府

御製序: 賜世子暲父母爲汝思所以教育之非一端…天順二年戊寅(1458)十月初八日親付

唐太宗帝範序: 賜皇太子顧謂曰飭躬闡政之道備在其中…所以披鏡前蹤博覽史籍聚其要言以爲近誠云耳

訓辭後序: 辛巳(1461)十月下澣…成均大司成寧城君臣崔恒(1409~1474)拜手稽首謹叙

跋: 天順二年戊寅(1458)十月日…判司宰監事知禮曹事臣李克堪(1423~1465)奉教謹跋

印: 韓命舟印

1. 개요

『제범(帝範)』은 1613(광해 5)년 이충(李沖, 1568~1619)이 편찬한 책이다. 648년 중국(中國)의 당 태종(唐太宗)이 태자(太子)인 고종(高宗)에게 내려준 제범(帝範)에 1458(세조 4)년 세조가 세자 광(昞)에게 전하는 훈사(訓辭)가 부록으로 더해져 간행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1613년 정월 가선대부(嘉善大夫)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이충이 완산부(完山府)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충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거용(巨容), 호는 칠택(七澤)이다. 세조(世祖)는 당(唐)의 태종(太宗) 『제범(帝範)』을 지어 태자에게 하사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도 이를 받아들여 세자인 광(昞)에게 전하는 『광묘훈사(光廟訓辭)』를 지었다. 세조는 아들에게 전하는 훈사를 최항(崔恒)과 이극감(李克堪)에 맡겨 정리하고 간행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 본 해제 대상은 당 태종 『제범(帝範)』 서문과 본문, 세조의 『광묘훈사(光廟訓辭)』 자서(自序), 최항(崔恒)의 후서(後序), 이극감(李克堪)의 후발문(後跋文)이 혼재되어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 해제서의 1책의 목판본이다. 첫 서문은 세조가 작성한 어제서(御製序)로 『광묘훈사(光廟訓辭)』의 서문과 동일하며, '세자가 자신의 사적(史跡)에 국한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훈사를 내린다.'라고 찬술동기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당태종의 『제범(帝範)』 서문이 있다. 본문은

태종이 648(정관 22)년에 태자 고종(高宗)에게 전한 편목이 기재되어있다. 그 항목은 「군체(君體)」·「건친(建親)」·「구현(求賢)」·「심관(審官)」·「납간(納諫)」·「거참(去讒)」·「계영(誠盈)」·「송검(崇儉)」·「상벌(賞罰)」·「무농(務農)」·「열무(閱武)」·「송문(崇文)」이다. 비교적 짧은 분량이지만, 내용이 매우 간명하고 압축적이다. 각각의 주제는 군주의 수양, 권력의 운용, 인재등용, 관리임용, 충언허용, 참소제거, 사치경계, 절약검소, 상벌제도, 농업경제, 국방정책, 문교정책으로 나눠 구성하였다. 12편의 항목을 끝으로 당태종의 『제범(帝範)』 내용이 끝난다. 다음은 부록으로 『훈사(訓辭)』가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세조가 작성한 『광묘훈사(光廟訓辭)』의 본문과 동일하며 조목은 1조 「항덕(恒德)」, 2조 「경신(敬神)」, 3조 「납간(納諫)」, 4조 「두참(杜讒)」, 5조 「용인(用人)」, 6조 「물치(勿侈)」, 7조 「사환(使宦)」, 8조 「신형(慎刑)」, 9조 「문무(文武)」, 10조 「선술(善述)」로 되어 있다. 조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최항(崔恒)의 후서(後序), 이극감(李克堪)의 후발문(後跋文)이 있다. 최항은 서문에서 소공(召公)의 고사를 빌어 임금의 도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이극감은 당나라 태종이 제범을 지어 태자에게 내린 고사를 빌어 훈사(訓辭)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4. 서지적 특징

본서에 기록된 간기(刊記, 간행 기록)인 ‘만력41년(萬曆四十一年) 정월(正月) 일(日)’과 가선대부(嘉善大夫)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이충(李冲)이 완산부(完山府)에서 개간(開刊)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1613년에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범』(우정古612-3)은 본서보다 늦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 권수면 우측 하단에 답인된 ‘한명주인(韓命舟印)’라는 장서인을 통하여 한명주가 소장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5. 종합평가

세조는 당태종이 『제범』이 지어 고종을 가르쳤던 것처럼 세자에게 『제범』을 내렸고, 후에 직접 지은 『훈사』를 내렸다. 본 문헌에는 중국의 당태종과 조선 세조가 아들에게 전하는 제범(帝範)과 훈사(訓辭)를 모두를 모아 편찬하였다는 것에 가치를 지닌다. 특히 각각의 문헌에 기록했던 서문, 후서, 후발문까지 모두 베껴 적었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이다희)

핵심어 광묘훈사(光廟訓辭), 최항(崔恒), 이극감(李克堪), 당태종제범(唐太宗帝範)

참고문헌

홍승태, 「『治平要覽』에 수록된 『唐鑑』의 史論과 『帝範』」, 『중국사연구』 123, 중국사학회, 2019.

존화록(尊華錄)

KOL000026118

한古朝43-가135

尊華錄 / 宋秉稷 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900

6卷3冊 : 四周單邊 半郭 23.2 × 16.8 cm, 10行23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9 × 22.0 cm

表題: 尊華錄

版心題: 尊華錄

간행참여자명단: 校正 鄭世基 等 18人, 刊板有司 吳奎煥 等 8人, 別有司 柳重龜 等 22人

尊華錄序: 屠維大淵獻(己亥,1899)梧秋下澣月城崔益鉉序, 永曆二百五十四年庚子(1900)梧秋豐山洪承運書, 永曆後五庚子(1900)七月哉生魄海阜李佐承書

記: 崇禎後五庚子(1900)剝之幾望咸豐吳鶴根謹書

跋: 庚子(1900)端陽月幸州奇宇萬謹跋, 永曆五回之上章困敦(始)月下澣坡平尹錫鳳謹書, 崇禎五庚子剝之哉生明德水李復永書

印: 蒼虎軒

1. 개요

본서는 광무 4(1900)년에 송시열의 후손인 송병직(宋秉稷)이 유도(儒道)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적 및 문서들을 모아 엮은 유학서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송병직은 송시열의 9세손으로 자는 순관(舜官), 호는 경암(敬菴)이다. 19세기 대내외적으로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선조 송시열의 뜻을 계승하여 유도를 부흥하고자 힘썼다. 을사조약 이후 김복한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으며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 책의 편찬 배경 및 동기와 관련해서는 최익현, 홍승운, 이좌승의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최익현은 이 책이 ‘유도(儒道)’ 즉 인의예지의 오성(五性)과 부자·군신·부부·장유·붕유의 오상(五常)을 지키기 위해 편찬된 것임을 밝혔고, 홍승운과 이좌승은 이 책이 서양세력을 교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후대에라도 개안자(開眼者)가 나타난다면 다시 유교가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3. 구성 및 내용

권두에는 3편의 서문과 총목록 및 범례가 있다. 서문은 1899년에 최익현(崔益鉉), 1900년에 홍승운(洪承運), 1990년에 이좌승(李佐承)이 작성했다. 각 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은 건학(建學)·문묘(文廟)·학사(學舍)·향사(享祀)·성현위차(聖賢位次)·종사동현(從祀東賢)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중화(中華)의 근본은 태학(太學)에 있으며, 절의를 지키는 선비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문을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김

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도학을 가르키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가장 먼저 수록하였고, 절의를 지킨 선비들을 종사하기 위한 ‘종사동현(從祀東賢)’을 마지막에 두어 후생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권2는 예악의 전말을 기술한 예악(禮樂)·문묘위판(文廟位版)·석전시학(釋奠視學) 등 성균관의 예악 및 의례 등과 유소(儒疏)·유벌(儒罰)·권당(捲堂) 및 선거(選舉) 등이 실려있다. 권3은 문묘의 비기(碑記) 등을 기록한 기적(紀蹟)·명륜당기(明倫堂記)·궐리사적(闕里事蹟) 등이, 권4는 서학을 배척해야 한다는 척사(斥邪), 윤음(綸音), 척화소(斥和所) 등이, 권5는 송근수(宋近洙)가 지은 「변개복소(辨改服疏)」, 송병선(宋秉璿)의 소(疏), 改服(개복)에 대한 유중교(柳重敎)의 설(說), 창의격문(倡義檄文) 및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소(復讐疏) 등이 실려있다. 권6은 이재근(李載崐)이 지은 존성소(尊聖疏), 고종(高宗)의 윤음 등이 실려있다. 권말에는 기우만, 윤석봉, 이복영 등의 발문이 있다. 권말에는 편찬과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그들의 거주지와 함께 실려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자(校正者)로는 정세기(鄭世基) 등 18인이, 간판유사(刊板有司) 오규환(吳奎煥) 등 8인, 별유사(別有司) 유중구(柳重龜) 등 22인 총 48인에 달한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인서체 목활자로 간행한 판본으로, 발문의 내용을 통해 1900년에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古1218-1도 본서와 동일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유학과 관련된 조선의 각종 제도를 이해하고, 조선후기 사회사와 사상사 및 의병활동 연구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희)

핵심어 존화록(尊華錄), 안병직(宋秉稷), 송시열(宋時烈), 기우만(奇宇萬), 척사(斥邪), 의병(義兵)

참고문헌

정옥자, 「19세기 尊華思想의 位相과 歷史的 性格-〈尊華錄〉을 중심으로 -」, 『한국학보』 20권 3호,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 1994.

종덕신편(種德新編)

KOL000024942

한古朝57-나11

種德新編 / 金堉(朝鮮) 集錄

木板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英祖年間(1725~1776)]

3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1.4 × 15.0 cm, 有界, 11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1.2 × 20.5 cm

序: 甲申(1644)...潛谷老人[金堉]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육(金堉, 1580~1658)이 『소학(小學)』을 읽고 이에 감명을 받아서 만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한 여러 고사를 모아서 편찬한 수신서(修身書)이다. 서명인 『종덕신편』에서 ‘종덕’이란 덕을 편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은덕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편’은 새로 편찬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덕신편』이라는 서명은 여러 사람들에게 은덕을 베푼 이야기를 새롭게 편찬하여 간행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인 김육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으로, 자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 또는 회정당(晦靜堂)이다.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선조(宣祖) 13(1580)년에 강릉참봉(康陵參奉)을 지낸 이이(李珣, 1536~1584)의 문인 김흥우(金興宇, 1564~1594)와 한양조씨(漢陽趙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조 38(1605)년 소과(小科, 과거 시험 중 하나로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으나, 광해군(光海君) 1(1609)년에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이황(李滉, 1501~1570)을 문묘(文廟, 공자의 사당)에 배향할 것을 건의한 상소가 문제가 되어 문과(文科, 과거 시험 중 하나로 문관을 뽑는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가평(加平) 잠곡으로 은거하였다. 인조 1(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문과 응시 자격을 회복하였으며 문과에서 장원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납(貢納, 조선 시대의 세금 중 하나로 거주하는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동법(大同法, 공납을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내도록 하는 제도) 실시 및 화폐주조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유원총보(類苑叢寶)』 등이 있다.

본서의 편찬 배경은 김육이 직접 지은 서문(序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문에 의하면 어릴 적 아버지가 주신 『소학』에서 낮은 벼슬의 관원이라도 진실로 만물을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사람들을 반드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 관직에 나아가 보니 진실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백성들이 이로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만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구제한 여러 고사를 모아서 후일 관직에 오를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신서를 편찬하였다고 밝혔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에 김육이 직접 지은 서문과 영조가 지은 「어제문정공김육치제문」을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본문은 전체 139편의 이야기를 3권으로 구분하였다. 권 상에는 춘추시대 초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펼쳤던 손숙오(孫叔敖), 전한(前漢)의 효자 양옹백(楊雍伯), 개과천선하여 덕을 쌓은 후진(後晉)의 두우균(竇禹均, 936~946) 등의 일화 45건을 수록하였고, 권 중에는 춘추시대 오나라의 정치가 오자서(伍子胥, 기원전 559~기원전 484), 당나라 때 어진 정치를 베풀었던 이대량(李大亮, 586~645), 북송(北宋)의 정치가 구양수(歐陽脩, 1007~1072) 등의 일화 55건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인 권 하에는 전한의 왕옹유(王翁孺), 송나라 때 어진 정치를 베풀었던 섭몽득(葉夢得, 1077~1148) 등의 일화 39건을 수록하였으며, 권 하 뒷부분에 역대 재판에 관한 고사를 모은 「석의록(釋疑錄)」을 부록 형태로 수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역대에 만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구제한 관리들에 대한 고사를 수록하였으며, 「석의록」에서는 역대 중국의 지방관들이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고사를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가 언제 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조(英祖, 1694~1776)가 직접 지은 「어제문정공김육치제문(御製文貞公金堉致祭文)」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조 재위 기간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를 장서각 소장 『종덕신편』 등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해보면, 서문 일부 및 발문이 누락되어 있다. 예컨대 본서는 권두에 김육의 자서(自序), 영조가 지은 「어제문정공김육치제문」만을 수록하였는데, 장서각본은 자서, 「어제문정공김육치제문」 외에도 영조가 지은 「어제종덕신편서(御製種德新編序)」가 추가되어 있다. 또한 장서각본은 인조 22(1644)년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지은 「제종덕신편후(題種德新編後)」가 권3말에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는 없다. 이처럼 서발문의 수록 여부는 『종덕신편』의 유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후기 명재상인 김육이 편찬한 수신서로 본래 김육의 개인 저작이었지만, 김육이 세상을 떠난 후 영조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영조의 정치철학 및 서적 간행 정책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조선 후기 수신서의 편찬 및 유통을 엿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종덕신편(種德新編), 김육(金堉), 소학(小學), 수신서(修身書)

참고문헌

김다미, 「英祖의 『小學』類 서적 간행과 의의」, 『漢文學論集』 제58집, 근역한문학회, 2021.

주문작해(朱文酌海)

KOL000018091

한古朝16-23

朱文酌海 / 鄭經世(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6卷8冊(完帙): 四周雙邊 半郭 21.2 × 16.4 cm,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1~3葉花紋魚尾 ; 31.9 × 21.3 cm

表題: 酌海

版心題: 朱文酌海

印: 韓山人李奎恒壽而印

1. 개요

본서는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남송 주희(朱熹)의 문집인 『주자대전(朱子大全)』 중에서 긴요한 부분의 글만을 뽑아 엮은 선본(選本)으로, 16권 8책의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인 정경세는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시호는 문장공(文莊公)이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으로 선조 15(1582)년에 진사에 입격하였고, 선조 19(1586)년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경상감사, 영해부사, 대구부사 등 지방관으로 나아가서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하고 풍습을 교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하면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사론을 조정하며 국정에 깊이 참여하였다.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간에 학술적,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던 시대에 살면서도 퇴계의 학설을 계승하되 율곡계열의 학자들과도 교류하였던 인물이었다. 또한 주자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사계 김장생, 한강 정구 등과 함께 예학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본서의 편찬 배경은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자대전』은 <정집(正集)> 100권, <속집(續集)> 11권, <별집(別集)> 10권의 121권 95책에 달하는 거질(巨帙)의 서적으로, 간본의 유통이 쉽지 않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주자대전』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명종 11년(1556)에 퇴계 이황이 편찬한 『주자서절요』이다. 그러나 이 책은 <봉사(封事)>로부터 <비장(碑狀)>에 이르는 전 영역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서(書)와 소(疏)만을 뽑아 놓았다는 점을 학자들이 아쉽게 여겼다. 이에 광해군 14(1622)년에 정경세가 『주자대전』에서 사(詞), 부(賦), 시(詩)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학문에 관계되고 치국에 절실한 것을 정선(精選)하여 본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권두에 총목록(總目錄)이 있고, 권1-2는 봉사(封事), 권3은 주차(奏

筓), 권4는 의장(議狀), 권4-5는 주장(奏狀), 권5는 신청(申請), 권6은 사면(辭免)과 주장, 권 7-8은 서(書), 권9는 잡저(雜著), 권10은 서(序), 권11은 기(記), 권12는 발(跋), 권13은 명(銘), 잠(箴), 찬(贊), 표(表), 제문(祭文), 권14는 비문(碑文), 묘표(墓表), 묘지명(墓誌銘), 권15-16는 행장(行狀), 권16은 실기(實記), 연보(年譜)로 구성되어 있다.

권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은 임오응소봉사(壬午應詔封事) 등 봉사 4편, 권2는 기유의상 봉사(己酉擬上封事) 등 봉사 2편, 권3은 계미수공주차(癸未垂拱奏筓) 등 주차 16편, 권4는 조묘의장(祧廟議狀) 등 의장 5편, 권5는 걸걸감성자현세전제이장(乞蠲減星子縣稅錢第二狀) 등 주장 8편, 안지태주당중우제일장(按知台州唐仲友第一狀) 등 주장 9편, 논도창창한차자(論都昌創寨筓子) 등 신청 5편, 권6은 사면소명장(辭免召命狀) 등 사면 20편, 걸추환대제직명주장(乞追還待制職名奏狀) 등 주장 6편, 권7은 여황추밀(與黃樞密) 등 서 33편, 권8은 답여자약(答呂子約) 등 서 57편, 권9는 순전상형설(舜典象刑說), 정성설(定性說), 양생생설(養生生說) 등 잡저 21편, 권10은 송진종지서(送陳宗之序) 등 서 15편, 권11은 존재기(存齋記) 등 기 23편, 권12는 발진자옹아형서(跋陳了翁兒兄書) 등 발 36편, 권13은 학고재명(學古齋銘) 등 명 4편, 경재잠(敬齋箴) 등 잠 2편, 역오찬(易五贊)의 찬 1편, 낙직파궁사사표(落職罷宮祠謝表) 등 표 2편, 제적계호선생문(祭籍溪胡先生文) 등 제문 7편, 권14는 소부유공신도비(少傅劉公神道碑) 등 비 5편, 병산선생유공묘표(屏山先生劉公墓表) 등 묘표 5편, 국록위공묘지명(國錄魏公墓誌銘) 등 묘지명 7편, 권15는 태사진공행장(太師陳公行狀)의 행장 1편, 권16은 적계선생호공행장(籍溪先生胡公行狀) 등 행장 4편, 염계선생사실기(濂溪先生事實記)의 실기 1편, 이천선생연보(伊川先生年譜)의 연보 1편이 있다. 이렇듯 방대한 『주자대전』의 내용을 선정하여 종합화함으로써 주자학의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문에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주석과 ‘의(疑)’, ‘의작(疑作)’, ‘당작(當作)’ 등과 같은 편자의 견해가 수록되어 있어, 정경세의 사상과 견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서지적 특성

『주문작해』는 1622년에 편찬한 이후, 1648년에 정경세의 문인인 이만(李曼, 1605~1664)이 경상감영에서 처음 간행했다. 그러나 서문이나 발문이 없다보니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유통되고 있었다. 정경세의 사위인 송준길은 이를 애석하게 여겨 1653년(효종 4)에 발문을 작성하여 이 책의 편자를 밝히는 한편 발문만을 추가하여 다시 인출했다. 이를 초간중인본(初刊重印本)이라고 일컫는다. 이후 200여년 가까이 해당 판본이 유통되다가 1847년에 정경세의 고향인 상주 우산서원(愚山書院)에서 중간하였다.

본서는 송준길의 발문이 없는 초간본으로 추정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우산古3747-335는 초간본에 송준길의 발문만 추가한 초간중인본으로 보인다. 아울러 古3747-326은 1847년에 상주 우산서원에서 간행한 중간본으로, 여기에는 1885년에 진사에 입격한 황의민(黃義民)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는 본관이 장수(長水), 자는 기경(起耕)으로 상주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5. 종합 평가

17세기 조선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복 정경세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고, 이항의 『주자서절요』와 함께 주자서(朱子書) 및 주자학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김소희)

핵심어 주문작해(朱文酌海), 정경세(鄭經世), 송준길(宋浚吉), 주자대전(朱子大全), 우산서원(愚山書院)

참고문헌

권용인, 『愚伏 鄭經世의 「朱文酌海」에 관한 研究』 청주: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권용인, 「朱文酌海」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017.

주문초선(朱文抄選)

KOL000014039

古3747-75

朱文抄選 / 朱熹(宋) 著 ; [宋時烈(朝鮮) 抄選]

金屬活字本(丁酉字)

[漢城] : [校書館], [18世紀]

4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1.4 × 17.3 cm,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4.4 × 21.5 cm

1. 개요

조선의 유학자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가려 뽑은 주희(朱熹)의 글을 4권 2책으로 편차(編次)하여 1683년 숙종에게 진상한 책이다. 본서는 정조(正祖) 연간에 정유자로 간행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송시열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우재(尤齋)·문정(文正)이다. 부친은 강릉(康陵) 참봉(參奉)을 지낸 송갑조(宋甲祚), 모친은 선산곽씨(善山郭氏) 곽자방(郭自防)의 딸로, 곽자방은 임진왜란 때 금산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송시열은 주희와 이이의 학문을 모범으로 삼았다. 존명반청(尊明反淸)을 주장하여 효종대에는 북벌에 동참하고, 현종대에는 고향에 은거하였다. 숙종대 초반에는 예송(禮訟)으로 인한 사화로 유배를 다녀왔고, 숙종 6(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 이후 다시 환로(宦路)에 나왔다. 그러나 숙종 15(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때 사사(賜死)되었다. 본서는 송시열이 경신환국 이후 다시 벼슬길에 나왔을 때 주자의 글을 당시 홍문관(弘文館)의 여러 관리들과 함께 상의하여 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자대전(宋子大全)』의 「연보(年譜)」에 따르면, 1683년에 이항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정경세의 『주문작해(朱文酌海)』 등에서 가려 뽑은 주자의 글을 4권 2책으로 편차하여 숙종에게 진상한 책이다.

3. 구성 및 내용

권1에는 「여위원리서(與魏元履書)」·「여진시랑서(與陳侍郎書)」·「답장경부서(答張敬夫書)」 등 주희가 지인·제자들에게 보낸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임오응조봉사(壬午應詔封事)」·「무신봉사(戊申封事)」 등 2편의 봉사가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기유의상봉사(己酉擬上封事)」·「계미수공주차(癸未垂拱奏筭)」·「무신연화주자(戊申延和奏筭五)」 등의 봉사 및 주차(奏筭)가 수록되어 있다. 권4에는 「산릉의장(山陵議狀)」·「순전상형설(舜典象刑說)」·「무오당의서(戊午讜議序)」·「왕매계문집서(王梅溪文集序)」·「승상이공주의후서(丞相李公奏議後序)」 등 장(狀)·설(說)·서(序)에 해당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주문초선』은 본래 필사본으로 존재하다가, 영조 2(1726)년경 금속활자인 무신자(戊申字)로 한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그 이후인 정조 연간에 금속활자인 정유자로 간행된 것으로

로 보이거나 정확한 연대는 알기 어렵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우암 송시열이 직접 주자의 문장과 글을 뽑아 편차하고 구결을 달아 진상한 책으로, 기사환국 때 사사(賜死)받은 후 복권되기까지 간행되지 못하다가 영조대에 비로소 간행된 책이다. 송시열은 정조대에 이르러 '송자(宋子)'라는 호칭을 받고 정조 11(1787)년에는 『송자대전(宋子大全)』을 간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서 또한 함께 간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 본서는 사화와 당쟁으로 부침(浮沈)을 겪었던 송시열의 주자 관련 서적으로, 정치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김은슬)

핵심어 주문초선(朱文抄選),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주서요류(朱書要類)

KOL000018094

한古朝16-25

朱書要類 / 趙翼(朝鮮) 編

木板本

[大丘] : [慶尙監營], [18世紀]

12卷6冊(完帙) : 四周雙邊 半郭 22.4 × 16.6 cm, 10行18字 註雙行, 內向2~6葉花紋魚尾 ; 34.3 × 22.9 cm

表題: 朱書要類

朱書要類序: 壬午(1632)仲秋豐壤趙翼書

印: 沈宜恒印

欄上 杜註 筆寫

1. 개요

본서는 조익(趙翼, 1579~1655)이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에 수록된 주자(朱子)의 서찰 중에서 학자들에게 더욱 긴요한 내용들을 선별한 다음 이를 주제별로 분류, 정리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조익의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 당호는 존재(存齋),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부친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조영중(趙瑩中)이며 모친은 현감(縣監) 윤춘수(尹春壽)의 딸이다. 서울 창선방(昌善坊)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문장에 뛰어났고 음률, 서, 화, 병법, 점복서 등 여러 서적을 널리 공부하였다. 15세에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에게 잠시 수학하였고, 17세에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에게 문장을 배웠다. 그러나 20세 때부터 문장 공부가 아닌 사서와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고, 경학과 관련한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1602년에 별시병과(別試丙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 사환길에 나아갔다.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으며 좌천과 은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김육(金瑬)과 함께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과거방식과 군정 등 각종 폐단을 개혁하고자 건의하기도 하였다. 1613년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에 반발하여 경기도 광주로 낙향했다가 1618년에 충청도 신창으로 이주하여 1623년에 다시 관직에 몸담기까지 약 10여년간 『대학곤득(大學困得)』, 『중용곤득(中庸困得)』, 『논어천설(論語淺說)』, 『맹자천설(孟子淺說)』 등을 저술하였다. 1637년에는 인조를 호종하지 못한 죄로 파직된 후, 다시 신창으로 내려가 1648년까지 은거하면서 『서경천설(書經淺說)』, 『역상개략(易象概略)』 등을 저술했다. 조익은 성현(聖賢)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희(朱熹)의 저술을 공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자서 중에서도 주희의 서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주자전서(朱子全書)』는 우리나라에 거의 통용되지 못하였고,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내용을 두루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황의 『주자서절요』였고 내용 또한 정밀하여 학자에게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역시 20권에 달하

는 방대한 양이어서 학자들이 숙독하여 실천에 옮기기까지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주자서절요』에 있는 서찰 중 더욱 긴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분량을 줄이고자 하였고, 편지를 내용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재편집함으로써 학자들이 보다 쉽고 분명하게 주자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본서를 편찬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주자서절요』의 내용 가운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주서요류』의 편차 구성은 1627년에 1차로 확정된 후 1642년까지 지속되다가 1652년에 중요한 변화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처음에는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 ‘이기성명(理氣性命)’에 관한 내용 즉, 논이기성명(論理氣性命), 논성정심술(論性情心術), 논도리(論道里) 등을 권1에 두었다가 1652년에는 권9로 이동하였고, 학문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 ‘논위학지방(論爲學之方)’은 권1로 옮긴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본서의 체제는 권1-3에 논학(論學), 권3-4에 독서강의(讀書講義), 권5에 지수천리(持守踐履), 극치(克治), 권6에 분별이리(分別義理), 진퇴사수(進退辭受), 거관처사(居官處事), 권7-8에 사우교제(師友交際), 권9에 이기성명(理氣性命), 성정심술(性情心術), 도리(道理), 권10에 논예제(論禮制), 시무(時務), 권11에 시무(時務), 행사(行事), 권12에 벽이단이론(關異端異論)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배치는 초학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기(理氣)의 근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절실히 요청되는 하학(下學)을 먼저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사서(四書)와 『근사록』을 중시하는 조익의 학문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리를 탐구하고 실천 강조했던 조익의 학문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판심 형태가 상하내향2~4엽화문어미, 상하향7엽화문어미하상향5엽화문어미, 상하향4엽화문어미하상향3엽화문어미 등 어미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모양의 어미가 혼재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서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승정원일기』 영조 21(1745)년 4월 5일 정미조 기사에 그동안 『주서요류』가 간행된 적이 없고, 권질이 5~6권에 불과하여 물력도 많이 들지 않으니 영남에서 간행하기로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759년의 『안영책판목록』과 1796년의 『누판고(鑿板考)』에도 경상감영에 『주서요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1745~1759년 사이인 18세기 중반에 초간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서 역시 이 무렵에 제작한 책판에서 인출한 목판본으로 보인다.

본서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古1252-189는 卷3-4, 卷9-10의 4권2책만 남은 결본인데, 본서와 동일한 책판에서 인출한 목판본이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서인 계열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주희 저술연구서이자, 주자서 정리에 『근사록』의 체제를 적용한 최초의 책으로서 이후 연구들의 선구적 역할을 한 저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항의 『주자서절요』, 정경세의 『주문작해(朱文酌海)』 등과 더불어 조선학자들의 주자서 및 성리학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김소희)

핵심어 주서요류(朱書要類), 조익(趙翼), 주자(朱子), 근사록(近思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주문작해(朱文酌海)

참고문헌

강문식, 「조익의 학문 경향과 <주서요류>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2007.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

KOL000016270

古3747-274

朱書節要集解.1-4 / 鄭重器(朝鮮) 編輯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英祖(1748)序

8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2.4 × 16.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9.0 × 20.0 cm

序: 著雍執徐(戊辰, 1748)...鄭重器

印: 玉礪亭藏

1. 개요

조선의 문신 정중기(鄭重器, 1685~1757)가 퇴계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가운데 어려운 구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기록을 취사(取捨)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여 편찬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정중기의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도옹(道翁), 호는 매산(梅山)이다. 조부는 정시심(鄭時諶), 부친은 정석달(鄭碩達), 모친은 권돈(權墩)의 딸이다. 정만양(鄭萬陽)·정규양(鄭葵陽) 형제 및 이형상(李衡祥)의 문인이다. 경사에 통달하고 전고(典故)와 예제(禮制)에 밝았다.

이황이 편찬한 『주자서절요』는 주희의 『주자대전(朱子大全)』 중 서간문만을 선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그러나 그 서간문은 당시의 일화를 모르면 어렵고, 전거가 있는 부분은 애매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리하여 정중기가 『주자서절요』 가운데 주석이 필요한 단어나 어려운 구절을 표제어로 선록하고, 이재(李裁)·조호익(曹好益) 등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 바로 『주서절요집해』이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에는 정중기가 1748년에 쓴 서문과 범례가 수록되어 있고, 총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범례에서는 제1책 권1에는 『주자서절요』의 서문부터 권1-2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후 주석을 달았다. 제2책 권2에는 『주자서절요』 권3-4까지의 내용, 권3에는 『주자서절요』 권5-7까지의 내용, 권4에는 권8-10권까지의 내용에 대한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 제3책 권5에는 『주자서절요』 권11-13까지의 내용, 권6에는 『주자서절요』 권14-16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4책 권7에는 『주자서절요』 권17-18까지의 내용, 권8에는 『주자서절요』 속집(續集) 권19와 별집(別集) 권20의 내용에 대한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

서간문의 제목을 각괄호로 표시하고, 서간문의 어려운 단어를 표제어로 삼아 수록한 후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주석을 표기하였다.

4. 서지적 특성

표제와 권수제, 판심제는 모두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이다. 표제 하단에는 책차(冊次)가 일(一)·이(二)·삼(三)·사(四)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 우측하단에는 총책수가 ‘공사(共四)’로 표기되어 있어, 본서가 모두 4책으로 구성된 전질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필서체 목활자로 간행한 책으로, 서미(書眉)에는 두주(頭註)가 판각되어 있다. 각책 권수 및 권말에는 정방형의 ‘옥간정장(玉澗亭藏)’이 찍혀 있다.

5. 종합 평가

『주서절요집해』는 『주자서절요』에 수록된 주희의 서간문 중 어려운 단어나 구절에 대한 주해를 모은 책이다. 인본이 드문 편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말에 찍혀 있는 인장의 옥간정(玉澗亭)은 정중기의 스승인 정만양의 호로, 정중기가 정만양에게 증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 정중기(鄭重器),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옥간정(玉澗亭), 이형상(李衡祥), 이재(李裁), 조호익(曹好益)

중향집(衆香集)

KOL000021668

古朝19-35

衆香集 / [呂巖(唐) 著] ; 劉雲(朝鮮) 彙輯, 李根培(朝鮮) 校訂

金屬活字本(全史字)

[漢城] : [發行處不明], 1881

8卷8冊 : 肖像 ; 四周單邊 半郭 21.4 × 14.8 cm, 9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 28.7 × 19.6 cm

序: 處文昌

序: 光緒辛巳(1881)...金昌熙

跋: 年之紅牛(丁丑, ?)月之小春宏教眞人柳守元, 光緒辛巳(1881)冬 溟洲劉雲拜稽謹書

1. 개요

도교(道敎) 중 선음즐교(善陰驚敎)의 도사(道士)인 당(唐) 여암(呂巖)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명주(溟洲, 지금의 강릉) 유운(劉雲)이 편집하고 계림(桂林, 지금의 경주) 이배근(李培根)이 교정한 것을 조선에서 전사자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여암은 당나라의 도사로 알려진 인물로, 중국 팔선(八仙) 중 하나이다, 자는 동빈(洞賓)·도호(道號)·순양자(純陽子) 등이다. 지금의 중국 산서성(山西省) 예성(芮城) 영락진(永樂鎮)인 영락현(永樂縣) 초현리(招賢里) 사람이다. 정화룡진인(鄭火龍眞人)을 만나 검술(劍術)을 전수받고 검선(劍仙)으로 일컬어진다. 팔선 중 한 명인 종리권(鍾離權)에게서 연단술을 전수받아 신선이 되었고, 종남산(終南山)에서 도를 연마하였다. 도교 전진파(全眞派)에서 여조(呂祖)로 불리우게 되었고, 원(元) 무종(武宗)으로부터 부우제군(孚佑帝君)의 칭호를 받았다. 도사가 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다.

『중향집』의 서문을 쓴 김창희(金昌熙, 1844~1890)는 조선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수경(壽敬), 호는 석릉(石菱)·둔재(鈍齋) 등이다. 부친은 예조판서 김정집(金鼎集), 모친은 벽진(碧珍) 이씨(李氏) 이태준(李泰峻)의 딸이다. 고종 1(1864)년 증광문과에 급제했고, 성균관 대사성을 시작으로 병조·이조·형조참판, 공조판서, 홍문관·예문관제학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고종 17(1880)년 한성부좌윤에 재임하고 있을 때 한성시(漢城試)의 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배되었다. 해배 직후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때에는 영접관(迎接官)이 되었다. 저서로 문집인 『석릉집』, 『회흔영(會欣穎)』, 『육입보(六入補)』, 『담설(譚屑)』 등이 있으며, 편서로 『월성가사(月城家史)』, 『김씨분관록(金氏分貫錄)』, 『동묘영접록(東廟迎接錄)』 등이 있다.

김창희가 쓴 서문에는 본서를 간행하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중향(衆香)의 의미와, 여암 부우제군의 글에는 유불도(儒佛道)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담겨 있음을 설파한다.

3. 구성 및 내용

8권8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권은 주역(周易)의 팔괘(八卦)인 건(乾)·태(兌)·이(離)·진(震)·손

(巽)·감(坎)·간(艮)·곤(坤)으로 명명되어 있다. 권수에는 유운이 쓴 것으로 보이는 중향집서(衆香集序)와 김창희가 1881년에 쓴 서문, 중향집총목(衆香集總目), 부우제군의 초상인 성상(聖像), 총론에 해당하는 총의소(總義疏), 본서의 내용과 분류에 대한 해설인 제엽문답(諸葉問答)이 수록되어 있다.

권1 건부(乾部)는 옥화엽(玉華葉)으로, 3권으로 구성된 청미삼품대승도겁진경(淸微三品大乘度劫眞經)과 동묘현미옴경(洞妙玄微五品經)이 수록되어 있다. 권2 태부(兌部)에는 3권으로 구성된 동참경(同參經)과, 성심진경(醒心眞經)·선천일기도인묘경(先天一炁度人妙經)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 이부(離部)에는 황극증진동묘팔품경(皇極證眞洞妙八品經)·연생증성진경(延生證聖眞經)·금옥보경(金玉寶經)·심경(心經)·성덕제품경(聖德諸品經)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4 진부(震部)에는 불단엽(佛檀葉) 도세지귀(道世指歸)·복보지남(福報指南) 등 5편과 선삼엽(仙蔘葉) 약언보전(藥言寶典)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5 손부(巽部)에는 고죽엽(孤竹葉) 구심편(求心篇) 등 2편이, 성소엽(惺蘇葉) 옥전어록(玉詮語錄) 등 8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6 감부(坎部)에는 열백엽(悅栢葉)의 대동옥경서(大洞玉經序) 등 서류(序類) 25편과 부마엽(扶麻葉)의 종남득도기(終南得道記) 등 기류(記類) 4편, 감자엽(甘蔗葉)의 충효고총론(忠孝誥總論) 등 논류(論類) 6편, 향국엽(香菊葉)의 훈세설(訓世說) 등 설류(說類) 6편, 금화엽(錦花葉)의 구자문(求子文) 등 문류(文類) 13편, 요초엽(瑤草葉)의 소류(疏類) 도두소(度斗疏) 1편, 묘과엽(妙果葉)의 삼보심등발(三寶心鐙跋) 등 발류(跋類)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7 간부(艮部)에는 영지엽(靈芝葉)의 고체시(古體詩) 계살가(戒殺歌), 오언절구(五言絕句) 추흥(秋興) 등의 시류(詩類) 358편, 반도엽(蟠桃葉)의 팔선암부(八仙巖賦) 등 부(賦) 5편, 영운엽(英雲葉)의 찬(贊)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8 곤부(坤部)에는 금련엽(金蓮葉)의 자서전(自敍傳)·부제군본전(附帝君本傳), 신시엽(神蓍葉)의 성적기요(聖蹟紀要)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1877년에 쓴 광교진인(宏教眞人) 유수원(柳守元)의 발문과 1881년에 쓴 유운의 발문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지는 현대에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상판구에는 판심제인 ‘중향집(衆香集)’이, 하판구에는 각 권차에 해당하는 ‘건부(乾部)’·‘태부(兌部)’·‘이부(離部)’·‘진부(震部)’·‘손부(巽部)’·‘감부(坎部)’·‘간부(艮部)’·‘곤부(坤部)’가 판각되어 있다.

선음즐교는 삼제군(三帝君)을 받들며 선음즐문(善陰鷲文)을 외우는 민간 도교의 일종이다. 삼제군은 관성제군(關聖帝君) 관우(關羽), 문창제군(文昌帝君), 장아(張亞), 부우제군 여음을 일컫는다. 중국에서는 송대(宋代) 이후 유행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후 관우 신앙을 받아들인 후 조선 후기에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여 조선 말기 고종 때 많은 종류의 선음즐서(善陰鷲書)가 간행되었다. 『중향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2종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의 발문에 의하면, 본서는 여암의 전집이 아닌 일부만을 초록하여 편집한 것이다. 여암의 글은 유불도 삼교(三教)에 정통하여 각 교파의 경전(經典) 관련 내용이 얹혀 있고, 소품체라고 할 수 있는 짧고 운율이 있는 글도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성계집(聖乩集)』(청구기호: 古299.514-Se65)은 고종대

한양에 있는 동관왕묘(東關王廟)·남관왕묘(南關王廟)에서 삼성제군(三聖帝君)이 내린 훈시(訓示) 및 묘당에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필사한 책이다. 여기에는 1876년(광서 2) 10월에 흥인문(興仁門)의 외성묘(外聖廟)에서 『성적도지(聖蹟圖誌)』의 간행을 기념하여 가의대부행용양위호군(嘉義大夫行龍驤衛護軍) 유운(劉雲) 등이 올린 전문(箋文)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유운이 1877년 무렵 행용양위호군으로 흥인문 동관왕묘를 관리하는 직임에 종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고종대에도 삼성제군을 섬기고 관왕묘를 관리하는 직임을 맡아볼 사람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또한 무관 중 꽤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 삼성제군과 관련된 서적을 새로 간행할 정도로 신앙의 확산 범위가 넓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로 보인다. (김은슬)

핵심어 선음즐교(善陰鷲敎), 부우제군(孚佑帝君), 도교(道敎), 관우(關羽), 관성제군(關聖帝君), 삼성제군(三聖帝君), 여암(呂巖), 유운(劉雲), 이배근(李培根)

창녕조씨족보별록(昌寧曹氏族譜別錄)

KOL202200008

古貴2518-71-33

昌寧曹氏族譜別錄 / 曹冕周(朝鮮) ; 曹殿周(朝鮮) ; 曹建(朝鮮) 等編

木板本

海州 : 黃海兵營, 肅宗 19(1693)

2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8.0 × 20.5 cm, 有界, 世別7段, 上下混葉花紋魚尾 ; 37.4 × 24.8 cm

刊記: 癸酉(1693)春三月黃海兵營開刊

舊譜序: 萬曆柔兆敦牂(丙午, 1606)...某(名不傳)

內容: 1/ 曹冕周 等編 -- 2/ 曹冕周 等編

제1책 훼손

1. 개요

1693년(숙종 19) 3월에 창녕조씨(昌寧曹氏) 희천공파(熙川公派) 조면주(曹冕周, 1632~1698)·조전주(曹殿周, 1640~1696), 찬성공파(贊成公派) 조건(曹建, 1641~1698) 등이 황해도 해주목(海州牧) 황해도 병마절도사영(兵馬節度使營)에서 간행한 창녕조씨 집안 족보의 별록(別錄)이다. ‘별록(別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별도로 만든 기록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는 생각되나 가계의 연결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말하는 별파(別派)를 등재한 기록을 말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찬에 도유사(都有司)로 참여한 조면주의 자는 자는 문백(文伯), 호는 송암(松菴)이다. 조신충(曹信忠, ?~?)의 10대손으로, 아버지는 조옥(曹瑬, 1604~1671)이고, 어머니는 이명원(李命遠)의 딸 덕수이씨(德水李氏)이다. 조건의 자는 덕이(德而)이며 1673년(현종 14) 생원시에 합격해 휘릉 참봉(徽陵參奉, 종9품)을 지냈다. 조경수(曹敬修, ?~?)의 8대손으로, 아버지는 조효창(曹孝昌, 1623~1680)이고, 어머니는 윤제(尹濟)의 딸 해평윤씨(海平尹氏, 1620~1707)이다.

조면주와 함께 기존에 편찬된 족보들을 수집한 조전주는 조신충의 10대손으로, 조면주와는 10촌 간이다. 자는 만취(萬聚), 호는 낙재(樂齋)이며, 현종 1(1660)년 진사시에 합격했고 담양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 종3품)를 지냈다. 아버지는 조한영(曹漢英, 1608~1670)이고, 어머니는 이지선(李祇先)의 딸 성주이씨(星州李氏, 1606~1668)이다. 이후 작은아버지 조한상(曹漢相, 1627~1644)에 입양되었다.

책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씨족보서(曹氏族譜序)」에는 “일을 함께 도모하던 여러 젊은이와 함께한 끝에, 조면주·조전주씨가 여러 판본을 수집하고 계보가 적힌 단자를 거두어 서로 비교하고 고찰하여 마침내 이렇게 내용을 바르게 고쳐 수정했다. … 방계(傍系)의 지파(支派)들 중에 별보(別譜)를 사용해 기록해둔 파들은 선계를 상세히 알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遂與其群季謀之諸宗人, 冕周殿周氏, 輯諸本收系單, 以考較而訂定焉. …旁支之用別譜錄者以先系有

難詳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창녕조씨족보별록』은 같은 창녕조씨로는 생각되지만 시조로부터 아래 세대에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과 비교했을 때 갈라져 나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구체적으로 직계의 어느 세대에서 갈라져 나갔는지 밝히기 어려운 파(派)들을 본보(本譜)와는 구별해 따로 등재하기 위해 편찬된 책으로 볼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창녕조씨족보별록』은 권상(卷上), 권하(卷下)의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의 첫머리에는 선조 39(1606)년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이손(耳孫, 7대손) 아무개가 쓴 「창녕조씨족보구서(昌寧曹氏族譜舊序), 범례(凡例)에 해당하는 참고(參攷), 「조씨족보서(曹氏族譜序)」, 시조 조계룡(曹繼龍)으로부터 조계룡의 5대손인 조겸(曹謙)에 이르기까지의 6대의 상계(上系)와 편집자가 옛 족보를 보고 상계에 관해 쓴 의견이 덧붙여져 있다.

본문의 구성은 방계의 지파가 대대로 사는 지역 이름을 쓰고 그 계보를 등재해놓았고, 종종 각 지파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권상에는 경상도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경상도 영천군(永川郡), 경상도 사천현(泗川縣), 경상도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전라도 창평현(昌平縣), 경상도 초계군(草溪郡), 경상도 경주부(慶州府), 경상도 진주목(晉州牧), 경상도 의령현(宜寧縣), 경상도 경산현(慶山縣), 전라도 고창현(高敞縣), 전라도 흥덕현(興德縣), 경상도 하동현(河東縣)의 지파가 각각 수록돼 있고, 권하에는 평안도 평양부(平壤府)의 2개 파, 평안도 박천군(博川郡), 전라도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함경도 고원군(高原郡), 경상도 창녕현(昌寧縣)의 2개 파, 함경도 홍원현(洪原縣), 경상도 대구도호부(大丘都護府), 함경도 북청도호부(北靑都護府), 황해도 곡산도호부(谷山都護府), 충청도 이산현(尼山縣), 충청도 연풍현(延豐縣), 충청도 영춘현(永春縣), 충청도 충주목(忠州牧)의 2개 파, 경기도 가평현(加平縣), 경상도 청도군(淸道郡), 전라도 진도군(珍島郡)의 지파가 각각 수록돼 있다.

권하의 끝에는 족보 수정에 도유사로 참여한 유학(幼學) 조면주, 참봉 조건을 비롯해 태복경공파(太僕卿公派)인 진사(進士) 조창구(曹昌久, 1638~1696)를 비롯한 12명의 별유사(別有司)가 등재돼 있고, 뒷면에 “癸酉(1693)春三月黃海兵營開刊”이라 적혀 있는 간기(刊記)가 있다.

4. 서지적 특성

권하 마지막에 ‘계유춘삼월황해병영개간(癸酉(1693)春三月黃海兵營開刊)’이라는 간기와 족보 수정에 참여한 도유사(都有司), 별유사(別有司) 12명의 명단을 수록해놓아 본서의 간행시기와 간행지역, 간행에 참여한 주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창녕조씨족보별록』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1책과 제2책 모두 표지 안쪽 면에 『전주이씨족보(全州李氏族譜)』가 배접(裱接)돼 있는데, 모두 전주 이씨(全州李氏) 시중공파(侍中公派) 후손 중 일부의 계보이다.

5. 종합 평가

『창녕조씨족보별록』은 간행시기와 간행지역, 간행에 참여한 주체 등이 제2책 권하 마지막에 있는 간기와 도유사·별유사의 명단을 통해 명확히 파악된다. 이를 통해 시조로부터 아래 세대에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통과 연결 관계가 불분명한 별파(別派)를 등재한 족보 별록으로서 국립도서관 소장 『창녕조씨족보별록』의 간행시기가 현재까지는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면에서도 각 지역의 별파를 등재하고 편집자가 이 별파들의 선조를 고증하면서 남긴 의견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직계와 방계, 종파와 별파 등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17세기 말 족보의 편찬 경향이 어땠는지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임미정)

핵심어 조면주(曹冕周), 조전주(曹殿周), 조건(曹建), 창녕조씨(昌寧曹氏), 황해병영(黃海兵營)

참고문헌

창녕조씨희천공파보소, 『창녕조씨희천공파보(昌寧曹氏熙川公派譜)』, 1986.

『창녕조씨찬성공파보(昌寧曹氏贊成公派譜)』

창녕조씨태복경공파보소, 『창녕조씨태복경공파보(昌寧曹氏太僕卿公派譜)』, 1990.

천원발미(天原發微)

KOL000021657

한古朝19-24

天原發微 / 鮑雲龍(宋) 編著 ; 方回(宋) 校正 ; 鮑寧(明) 辨正

金屬活字本(初鑄韓構字)

[刊寫地不明] : [刊寫者不明], [肅宗 33(1707)]

卷首1冊, 5卷5冊, 共6冊 : 四周雙邊 半郭 22.2 × 15.3 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0.8 × 19.3 cm

敍: 天順辛巳(1461)...鮑寧

序: 庚寅(1290)...鮑雲龍

印: 水月山雲, 顯□□, 南原梁氏祐鎮天綏章, 松鶴雲友, 金□□印

1. 개요

『천원발미』는 송말·원초(宋末·元初)의 학자 포운룡(鮑雲龍, 1226~1296)이 역(易)에 대한 선대(先代) 유학자(儒學者)들의 설(說)과 자신의 견해를 모아 엮은 것으로, 1296년에서 1299년 사이에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이후 포영(鮑寧, ?~?)에 의해 개정되어, 1461년 휘주(徽州)의 경독서당(耕讀書堂)에서 간행되었다. 본서는 18세기 초 조선에서 포영의 개정본을 바탕으로 금속활자인 한구자로 간행한 것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의하면, 포운룡은 진(秦)·한(漢) 이래 하늘을 말한 자들이 혹은 술수(術數)에 구애되고, 혹은 공허(空虛)에 빠져서 하늘과 사람의 일에 이르러서 막혀서 밝혀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역(易)』 가운데 여러 큰 절목(節目)을 취해 널리 상고하고 자세하게 연구하여 여러 학자의 학설을 앞에 열거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였는데, 그 항목은 『역대전(易大傳)』의 천수(天數) 25를 본떠서 25편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방회(方回)가 서문을 붙이고 대표원(戴表元)이 발문을 붙여 원나라 원정 연간(元貞年間, 1295~1296)에 정소조(鄭昭祖, 1259~1310)가 간행했다.

이 책은 명나라 초에 이르러 전하는 판본이 드물게 되었고, 전해지는 필사본 또한 오류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포운룡의 친족인 포영이 조방(趙沔, 1319~1369)의 학설에 근거하여 내용을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은 내용 100여 조목과 포운룡과 방회가 이 책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엮은 절요(節要) 1권을 붙이고 편집을 가하여 1491년에 휘주(徽州) 흡현(歙縣)의 경독서당(耕讀書堂)에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권수(卷首) 1책, 본문 5권 5책으로 모두 6책 구성이다. 제1책의 앞머리에 가정(嘉靖) 경술(庚戌, 1550년)에 쓴 윤중도인(允中道人) 주회권(朱懷堦, 1524~1566)의 서문, 천순(天順) 5년(1461)의 포영 변정서(辨正序), 정원(貞元) 2년(1295)의 방회(方回) 서(序), 경인년(庚寅年, 1290)의 포운룡의 서(序), 신묘(辛卯, 1291)의 방회 서 등 5편의 서문, 이어서 총목(總目) 1장,

변정범례(辨正凡例) 2장, 「하도지도(河圖之圖)」, 「낙도지도(洛圖之圖)」, 「복희칙도작역(伏羲則圖作易)」 등 21폭(幅)의 도식(圖式), 포운룡과 방회가 주고받은 서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엮은 문답절요(問答節要) 순으로 되어있다. 제2책부터 제6책까지는 본문에 해당하는 권1~5이 실려 있다. 권5가 끝나는 제6책의 끝에는 원정(元貞) 병신(丙申, 1296)에 조경(曹涇, 1234~1315)이 쓴 발문(跋文)과 대덕(大德) 기해(己亥, 1299)에 대표원(戴表元, 1244~1310)이 쓴 후서(後序), 천순(天順) 신사(辛巳, 1461)년에 포영이 쓴 글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포영의 글 끝에는 ‘구주황문선문경문희영부간(仇川黃文善文敬文希永富刊)’이라는 간행기록이 있는데, 황문선(黃文善), 황문경(黃文敬, 1439~1507), 황문희(黃文希, 1440~1526) 등은 명대 휘주에서 활동하던 전문 각수(刻手)들로 보인다.

4. 서지적 특성

소장본의 도식은 목판으로, 글자는 금속활자인 한구자로 인쇄하였다. 한구자는 숙종 5(1679)년 이전 김석주에 의해 만들어진 활자로, 1695년 국가에서 사들여 각종 책의 인쇄에 활용하다가 1782년과 1858년에 기존의 서체를 바탕으로 재주(再鑄), 삼주(三鑄)가 이루어졌다. 『승정원일기』 숙종 33(1707)년 9월 4일의 기사에 절사(節使)의 행차 때 중국에서 『천원발미』를 구해왔으나 예람과 관상감 관원의 강습(講習)을 위해서는 추가간행이 필요했으므로 간행에 필요한 물력과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판형과 서체 등을 통해 본서는 1707년 경 초주한구자로 간행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책마다 제1장에 수월산운(水月山雲), 락□□(樂□□), ‘남원양씨호진천수장(南原梁氏祐鎮天綏章)’을 포함한 인장 4과(顆), 권말에 송학운우(松鶴雲友) 인장 1과가 답인되어 있다. 제2책의 권두에는 ‘김□□인(金□□印)’이 답인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숙종 시기 중국의 역법인 시헌력의 수용을 위해 관상감 관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서적을 수집하였고, 일부는 한구자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간행하였는데, 본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비슷한 시기 특정 활자를 이용하여 집중적인 간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판본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임미정)

핵심어 포운룡(鮑雲龍), 천원발미(天原發微), 한구자(韓構字)

참고문헌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이유리, 「조선 전기 간행 徽州本의 성격과 수용 양상」, 『한국문화』 9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KOL000055043

古1775-22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 竹菴(高麗) 編纂

木板本

梁山 鷲棲山 : 通度寺, 仁祖 19(1637)

1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5.1 × 20.4 cm, 有界, 7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6.1 × 24.5 cm

版心題: 中

刊記: 崇禎十年丁丑(1637)五月日慶尙道梁山郡地鷲棲山通度寺開刊

1. 개요

본서는 수륙재(水陸齋,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들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불교의식)를 행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기록한 불교 의식집으로,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에 의해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본이다. 서명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하늘과 땅, 드러나고 숨겨진 곳,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수륙재의 의식을 요점만 뽑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례문(中禮文)』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와 관련해서는 명종(明宗) 18(1563)년에 능성(綾城) 쌍봉사(雙峰寺)에서 간행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발문(跋文)에 의해서 고려 충혜왕(忠惠王) 복위 3(1342)년에 고려의 승려 죽암(竹菴)이 편찬하였음이 알려졌다. 죽암에 대해서는 고려의 문인인 이색(李穡, 1328~1396)의 문집에서 그의 행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집에 따르면 그는 판조계사(判曹溪事)라는 승직(僧職)과 개성(開城) 연복사(演福寺)의 주지(住持)를 역임하였고, 고려 왕실의 내원(內院)과 충주(忠州) 역정사(億政寺)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그 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서의 편찬 경위는 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가 드물게 되자,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수륙재의 순서에 따라서 수륙재의 역사와 행하는 목적을 밝히는 설회인유(設會因由)부터 수륙재를 마치고 수륙재를 통해서 쌓은 복덕(福德)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는 보신회향(普伸廻向)까지 총 54편으로 구분하였다. 각 편의 제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편명	순번	편명	순번	편명
1	설회인유(設會因由)	19	출욕참성(出浴參聖)	37	가지멸죄(加持滅罪)
2	엄정팔방(嚴淨八方)	20	천선례성(天仙禮聖)	38	주식현공(呪食現功)
3	주향통서(呪香通序)	21	헌좌안위(獻座安位)	39	고혼수향(孤魂受饗)
4	주향공양(呪香供養)	22	소청하위(召請下位)	40	설시인연(說示因緣)
5	소청사자(召請使者)	23	인예향욕(引詣香浴)	41	원성수은(願聖垂恩)
6	안위공양(安位供養)	24	가지조욕(加持澡浴)	42	청성수계(請聖受戒)
7	봉송사자(奉送使者)	25	가지화의(加持化衣)	43	참제업장(懺除業障)
8	개벽오방(開闢五方)	26	수의복식(授衣服飾)	44	발홍서원(發弘誓願)
9	안위공양(安位供養)	27	출욕참성(出浴參聖)	45	사사감정(捨邪敢正)
10	소청상위(召請上位)	28	고혼례성(孤魂禮聖)	46	석상호지(釋相護持)
11	봉영부욕(奉迎赴浴)	29	수위안좌(受位安座)	47	득계소요(得戒逍遙)
12	찬탄관욕(讚歎灌浴)	30	기성가지(祈聖加持)	48	수성십도(修成十度)
13	인성귀위(引聖歸位)	31	보신배헌(普伸拜獻)	49	의십획과(依十獲果)
14	헌좌안위(獻座安位)	32	공성회향(供聖廻向)	50	관행계찬(觀行偈讚)
15	찬례삼보(讚禮三寶)	33	기성가지(祈聖加持)	51	회향계찬(廻向偈讚)
16	소청중위(召請中位)	34	보신배헌(普伸拜獻)	52	화재수용(化財受用)
17	봉영부욕(奉迎赴浴)	35	공성회향(供聖廻向)	53	경신봉송(敬伸奉送)
18	가지조욕(加持澡浴)	36	선밀가지(宣密加持)	54	보신회향(普伸廻向)

내용은 수록재의 역사와 행하는 목적, 수록재를 행할 단(壇)을 설치하는 방법, 수록재에서 행해야 하는 의식 및 진언(眞言), 청문(淸文, 부처 및 보살 등을 부르는 의례문)과 각종 기물(器物) 들의 배치, 의식을 행해야 하는 시간 등을 수록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권말에 간행 경위가 담긴 발문이 있고, 이어서 주지, 시주자(施主者), 각수(刻手)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서 간행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송정십년정축오월일경상도양산군지취서산통도사개간(崇禎十年丁丑五月日慶尙道梁山郡地鷲棲山通度寺開刊)’의 간기가 남아있어서, 인조 19(1637)년에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적 특징 및 체제가 인수대비에 의해서 간행된 왕실 간행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중종(中宗) 33(1538)년 안동(安東) 광흥사(廣興寺) 판본과 같음으로 본서 또한 왕실 간행본을 번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수록재의 절차를 수록한 의식집으로 조선시대 수록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문의 뒷부분에 수록하고 있는 발문과 시주자 및 각수들의 명단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찰의 경판 간행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죽암(竹菴), 통도사(通度寺), 수록재(水陸齋), 중례문(中禮文)

참고문헌

- 연제영,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실행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書誌學研究』 제43집, 한국서지학회, 2009.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板本考」, 『書誌學報』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청문(淸文)

KOL000023871

한古朝21-276

淸文 / [編著者不明]

木板本

安東 : 鳳停寺, 英祖 45(1769)

不分卷1冊(67張): 四周雙邊 半郭 21.5 × 16.0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8 × 20.0 cm

서명은 表題임

版心題: 淸文, 讖文, 腹藏記, 眞言集, 淸文祝願

附: 眞言集

刊記: 乾隆己丑(1769)季冬慶尙道安東鳳停寺開板

墨書: 관음다라니

1. 개요

『淸문(淸文)』은 사찰에서의 신중(神衆, 불교의 수호신 또는 호법신들), 산신(山神), 조왕(寵王) 등에 대한 재공의례(齋供儀禮, 부처 및 보살 등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례), 시식의례(施食儀禮, 영혼에서 음식을 공양하면 명복을 비는 의례) 등에 대한 절차 및 진언(眞言, 불교에서 사용하는 주문) 등을 수록한 불교의식집이다. 서명인 『淸문』은 사찰에서 행하는 재공의례 등의 다양한 의례에서 부처 또는 보살(菩薩) 등을 부르는 의례문(儀禮文)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淸문』의 편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반문(諸般文)』 또는 『淸문』이라는 서명의 비슷한 의례절차를 수록한 불교의식집들을 계속 간행하지만 수록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편저자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발문(跋文) 등의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편찬 배경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淸문』을 간행한 안동(安東) 봉정사(鳳停寺)에서 영조(英祖) 45(1769)년에 『淸문』을 포함한 15종의 불서를 간행할 때, 가흥대장경(嘉興大藏經, 중국 명나라의 대장경)과 관련이 있는 일부 불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중, 산신, 조왕 등과 관련 있는 의례에 대한 불서를 간행하였기 때문에 신중, 산신, 조왕에 대한 의례를 행할 필요가 생겨서 『淸문』을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에는 「신중작법절차(神衆作法節次)」, 「신중약례절차(神衆畧禮節次)」, 「조모신중작법절차(朝暮神衆作法節次)」, 「신중배송절차(神衆拜送節次)」, 「경신봉송(敬伸奉送)」, 「파불파경파가사소송법(破佛破經破袈裟燒送法)」, 「신중위목(神衆位目)」, 「약례신중위목(畧禮神衆位目)」, 「산신淸문(山神淸文)」, 「산신위목(山神位目)」, 「불설산왕경(佛說山王經)」, 「조왕淸문(寵王淸文)」, 「조왕위목(寵王位目)」, 「불설조왕경(佛說寵王經)」, 「불설환희조왕경(佛說歡喜寵王經)」, 「산신약례의문(山神畧禮儀文)」, 「구병시식문(救病施食文)」, 「구병시식약의(救病施食畧

儀)», 「독성의문(獨聖儀文)」, 「가사이운절차(袈裟移運節次)」, 「참회문(懺悔文)」, 「불상복장소입물목(佛像腹藏所入物目)」 등 다양한 불교의례 특히 신중, 산신, 조왕의 재공의례와 관련 있는 절차 및 의식문 등을 수록하였다. 본문 뒷부분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수록하였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불교의례에서 사용하는 실담자(悉曇字, 인도 문자의 한 종류) 표기법 등 실담자의 활용 방법을 수록한 『진언집(眞言集)』의 일부를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문 중 소제목을 어미(魚尾, 판심 부분에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장식한 문양) 모양으로 구분하였다. 본문의 뒷부분에 ‘건륭기축계동경상도안동봉정사개판(乾隆己丑季冬慶尙道安東鳳停寺開板)’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영조 45(1769)년에 안동 봉정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뒷표지 안쪽에 ‘관음다라니’를 묵서(墨書)로 기록하였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시대 사찰의 재공의례, 시식의례 등 특히 신중, 산신, 조왕에 대한 각종 의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또한 다른 불교 의식집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조선시대 불교의례의 변화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다. 부록으로 수록한 『진언집』을 통해서 조선시대 실담자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청문(請文), 불교의례(佛教儀禮), 의식집(儀式集), 봉정사(鳳停寺)

참고문헌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정명희,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상백, 「조선시대 안동 봉정사의 인쇄 문화에 대한 고찰」, 『奎章閣』 제46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청송시집(靑松詩集)

KOL000027813

한古朝45-가114

靑松詩集 / 鄭子堂(朝鮮) 著

木活字本

[發行處不明] : [發行處不明], 純祖 32(1832)跋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2.1 × 14.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5 × 19.8 cm

序: 上之三十二年壬辰二月(1832)...趙寅永

跋: 歲壬辰(1832)春日...李祖延

跋: 歲重光單闕(1831)之嘉平節...[鄭]淑

跋: 崇禎後四辛卯(1831)春日...[鄭]潞

上下向黑魚尾 混入

印: 權瀟之印

1. 개요

『청송시집(靑松詩集)』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정자당(鄭子堂)이 지은 시문(詩文) 및 여러 글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문집(文集)이다. 본서는 목활자(木活字)로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에서 보이는 연도를 통해서 19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명인 『청송시집』에서 ‘청송’은 정자당의 호이고, ‘시집’은 시문집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청송시집』라는 서명은 청송 정자당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시문집을 의미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청송시집』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정자당이 지은 344편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 저자인 정자당은 조선 전기에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 교서관저작(校書館著作), 음죽현감(陰竹縣監)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자는 승고(升高)이며, 호는 청송이다. 본관은 동래(東萊)로 종사랑(從仕郎)을 지낸 정기(鄭期)와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낸 정초(鄭招, ?~1434)의 딸인 하동정씨(河東鄭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종(成宗) 19(1488)년에 문과(文科, 과거 시험 중 하나로 문관을 뽑는 시험)에 급제하였다. 그 이후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성종 23(1492)년에 형조판서(刑曹判書) 이계동(李季叟, 1450~1506)에게 여진족 토벌의 전황을 기록한 『북정일기(北征日記)』를 함부로 보여주어 국문(鞫問)을 당하였다. 국문 이후 무재(武才, 무신으로써의 재질)를 인정받아서 겸선전관(兼宣傳官)의 관직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교서관저작(校書館著作), 음죽현감(陰竹縣監)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에 일어난 사화로 연산군이 김일손의 사초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삼아 김종직 일파를 숙청한 사건),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 일어난 사화로 연산군이 어머니인 폐비윤씨의 죽음과 관련있는 신하들을 숙청한 사건) 때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광인 행세를 하여 참화를 피하였다. 그 이후로는 관직에 다시 나아가지 않고 직산(稷山,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북부에 있었던 조선시대 행정구역)에서 은거하다

가 80세 즈음에 세상을 떠났다. 시문을 짓는데 능통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해학(諧謔)을 즐겼다고 한다.

『청송시집』의 서문 및 발문에는 『청송시집』 편찬 배경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는데, 서문과 발문에 의하면 과거 정자당의 문집이 간행되었으나, 전란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졌는데 후손인 정숙(鄭淑)의 집안에 정자당의 문집이 하나 남아있어서 정숙과 정로(鄭潞)가 함께 교정하여서 새롭게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과거 정자당의 문집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서문, 권 상, 권 하, 부록(附錄), 발문으로 구분하였다. 서문은 순조(純祖) 32(1832)년에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지었다. 권 상에는 시(詩) 168편을 수록하고 있다. 권 하에는 시 174편, 부(賦) 2편 총 176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부록(附錄)으로 정자당의 행적을 기록한 「청송공유사(靑松公遺事)」를 권하의 뒷부분에 수록하였다. 발문은 순조 32(1832)년에 이조연(李祖延)이 지은 발문, 순조 31(1831)년에 정숙이 지은 발문, 순조 31(1831)년에 정로가 지은 발문 총 3편의 발문을 수록하였다.

수록한 글 가운데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 상에 수록한 「충주청연루(忠州淸燕樓)」는 충주 청연루에 갔을 때 느꼈던 감흥을 적은 시문이고, 「사김백겸괘문어(謝金伯謙饋文魚)」는 조선 전기의 무신인 김백겸(金伯謙, 1429~1506)이 문어를 보내주자 이에 사례하면서 지은 시문이다. 권 하에 수록한 「신해춘이주서시연(辛亥春以注書侍宴)」은 성종 22(1491)년에 열렸던 연회(宴會)에서 지은 시문이다. 부록으로 수록한 청송공유사는 정자당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일부 시문에 ‘결(缺)’이라고 수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정자당의 문집에는 수록하였지만, 정숙과 정로가 다시 문집을 간행할 때는 사라진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표지에 ‘청송집(靑松集)’이라는 서명을 먹으로 써 놓았다. 책의 첫머리에 ‘권축지인(權瀟之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다. 장서인에 등장하는 ‘권축(權瀟)’은 조선 후기의 관인인 권축(權瀟, 1846~1895)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송시집』 가운데 조인영의 서문, 이조연 및 정숙의 발문 부분만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해당 부분만 목판으로 간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서문과 발문의 작성 시기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문집을 목활자로 간행한 이후에 서문과 발문 부분만 별도 목판으로 간행하여 추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책에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서문 및 발문의 작성 시기를 통해서 순조 32(1832)년 이후인 19세기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정자당이 지은 여러 글을 모은 문집으로 수록한 내용을 통해서 조선 전기 문인이었던 정자당의 행적과 교유 관계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부록인 청송공유사의 경우, 정자당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사료라는 점에 정자당의 생애 및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서문과 발문에 과거에 간행했던 문집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중간하였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 가문들의 선조 위선 사업에 살펴볼 수 있다. (옥영정)

핵심어 청송시집(靑松詩集), 정자당(鄭子堂), 문집(文集), 목활자(木活字)

초사변증(楚辭辨證)

KOL200700353

古3716-82

楚辭辨證. 卷上-下 / 朱熹(宋) 撰

木板本(庚子字翻刻)

[密陽] : [密陽府], [端宗 2(1454)]

2卷1冊(完帙) : 四周雙邊 半郭 21.0 × 14.9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中黑口 上下內向
黑魚尾 ; 31.3 × 20.2cm

表題(題簽): 楚辭辨證 (上), (下)

版心題: 辭證

跋文: 歲在癸酉余來□于茲其年季冬監司李相國崇之…李皎然(1413~1475)謹跋

刊記: 甲戌(1454)五月日密陽府開刊

刊行關聯人物記錄(卷末): 都觀察黜陟使…尙州牧使 李崇之 等

1. 개요

『초사변증(楚辭辨證)』은 단종 2(1454)년에 밀양에서 간행한 책으로 주희(朱熹, 1130~1200)가 쓴 『초사(楚辭)』의 「장구(章句)」와 「보주(補注)」의 오류를 정정하여 실은 책이다. 『초사』는 굴원(屈原), 송옥(宋玉) 등 초(楚)나라 문인들의 사(辭)와 한(漢)나라 초기 사람들의 모방작을 모아놓은 것으로, 전한시대 유향(劉向)이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본서는 1421년(세종 3)년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인 경자자(庚子字)로 만든 책을 토대로 번각한 목판본이다. 『초사(楚辭)』는 중국 초(楚)나라의 굴원(屈原)과 그 말류(末流)의 사(辭)를 모은 책, 또는 그 문체의 명칭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주희는 중국 남송(南宋)의 유학자로 주자(朱子), 주부자(朱夫子), 주문공(朱文公) 송태사 휘국문공(宋太師徽國文公)이라는 존칭이나 봉호로도 불린다. 자(字)는 원회(元晦), 중회(仲晦)이다. 호는 회암(晦庵), 회옹(晦翁), 운곡노인(雲谷老人), 창주병수(滄洲病叟), 둔옹(澗翁) 등이 있다.

본서는 중국으로부터 저본이 전래된 이후 경자자로 인출한 인본을 저본으로 삼아 다시 밀양부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책 말미에 수록된 이교연(李皎然)의 발문에 따르면, 이교연이 계유년인 1453(단종 원년)년 밀양부에 부임하였으며, 그 해 겨울에 경상감사 이송지(李崇之)가 밀양부에 내려왔을 때, 이송지가 얻은 책의 주석이 치밀하여 간행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이교연이 밀양부의 물력을 기울여 한 달도 안 되어 판각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상권에는 「목록(目錄)」, 「이소경(離騷經)」, 「구가(九歌)」가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천문(天問)」, 「구장(九章)」, 「원유(遠遊)」, 「복거(卜居)」, 「구변(九辯)」, 「초혼(招魂)」, 「대초(大招)」, 「조록(晁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초사변증』을 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사』에서 없거나 빠진 글들을

추가하고, 후에 기록하여 참고가 되게끔 하겠다고 하며 「장구」에서의 오류를 나열하였다. 『초사변증』 하권에는 「보주」의 오류를 수정하였는데, 그 순서는 「천문(天問)」, 「구장(九章)」, 「원유(遠遊)」, 「복거(卜居)」, 「구변(九辯)」, 「초혼(招魂)」, 「대초(大招)」, 「조록(晁錄)」이며 「보주」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책의 말미에는 이교연의 발문과 밀양부에서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그 명단을 나열하면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가선대부 겸감창안집전수 권농 관학사(嘉善大夫 兼監倉安集 轉輸 勸農 管學事) 제조 형옥 병마공사 겸판상주목사(提調 刑獄 兵馬公事 兼判尙州牧事) 이승지(李崇之), 도사봉직랑(都事奉直郎) 이효(李孝), 교수관통정랑(教授官通德郎) 이운준(李云俊), 감독생원(監督生員) 백소(白昭), 교정진사(校正進士) 김경용(金敬用), 유학(幼學) 박정지(朴楨之), 각가전부사과(刻字前副司直) 이영춘(李英春), 전부사정(前副司正) 김순의(金順義), 중덕(中德) 혜수(惠脩), 대선사(大禪師) 심수(心脩), 학생(學生) 정자제(鄭自濟), 도읍전행수호장(都邑前行首戶長) 정조(正朝) 손중의(孫仲義)와 같다. 권수 목차 끝에 ‘건안우신향택중간지치신유랍월인행(建安虞信亨宅重刊至治辛酉臘月印行)’과 같은 원간본의 구간기도 확인된다.

4. 서지적 특징

본서는 경자자본의 번각본으로, 권말에 ‘갑술오월일 밀양부개간(甲戌五月日 密陽府開刊)’이라는 간행기록을 통해 1454년에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외에 『초사변증』 2종이 더 소장되어 있는데, 한권은 경자자본번각본(우산古3716-97)으로 본서와 동일한 판본이다. 또 다른 한 종은 본서와 다른 형태의 목판본(古3716-19)이며, 형태사항이 달라 다른 시기에 간행된 서적이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간행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발문과 참여 인물, 판각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간행되는 서적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책이다. 또 『초사』 관련 연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도 있다. 1454년 간행 이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인쇄한 초기인본으로 그 전래본이 매우 드문 편이고, 국내에 몇 종의 동일 판본이 알려져 있으나 전존본이 희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다희)

핵심어 이승지(李崇之), 초사집주(楚辭集注), 굴원(屈原), 송옥(宋玉)

참고문헌

魯耀翰, 「고려말~조선초 朱熹 『楚辭集注』, 『楚辭辯證』, 『楚辭後語』의 수입과 간행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90, 동방한문학회, 2022.

초학자훈증집(初學字訓增輯)

KOL000021377

한古朝16-51

初學字訓增輯 / 李植(朝鮮) 編

木板本

全州 : 全羅監營(完營), 顯宗 5(1664)

3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0 x 16.2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4.5 x 20.7 cm

表題: 字訓

版心題: 字訓增輯

初學字訓增輯跋: 崇禎己卯(1639)九月初吉德水李植謹書

初學字訓增輯跋: 崇禎甲辰(1664)二月日恩津宋時烈敘

印: 李氏魯□曾□

1. 개요

본서는 조선후기의 문신인 이식(李植, 1584~1647)이 『성리자훈(性理字訓)』의 단점을 절충하여 한자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아동교재이다. 『성리자훈』은 중국 남송(南宋)의 학자인 몽재(蒙齋) 정정사(程正思, 1143~1191)가 지은 성리학의 기초학습교재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식은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남궁외사(南宮外史)·택구거사(澤癯居士),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용재(容齋) 이행(李荇)의 현손이자, 우의정을 지낸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의 부친이다. 당대 문장으로 뛰어나 신희(申欽), 이정구(李廷龜), 장유(張維)와 함께 한문사대가로 일컬어진다. 본서 이외에 『택당집(澤堂集)』, 『택풍당두시비해(澤風堂杜詩批解)』 등을 저술하였다.

이식이 본서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경서(經書)에 자주 나오는 철학적 용어를 쉽게 풀이해줌으로써 초학자들이 경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주로 참고했던 서적인 『성리자훈』과 북계(北溪) 진순(陳淳)이 지은 『자의(字義)』는 주석에 있어서 전자는 너무 간략했고, 후자는 너무 번잡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두 서적을 절충하고 정자와 주자 등 여러 사람의 서적을 참조하여 글자의 뜻을 설명하였다. 송시열은 발문을 통해 “글이 간략하면서도 고루하지 않고, 해박하면서도 잡되지 않으니, 이야말로 진정 자학(字學)의 요결(要訣)이라”고 평가하였다. 1639년에 편찬했으나 간행하지 못하였다가, 1664년에 편자의 아들 이단하가 전라감사 조귀석의 도움으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상편·중편·하편 3편(篇)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는 없고 권말에 ‘초학자훈증집跋(初學字訓增輯跋)’과 ‘초학자훈증집서(初學字訓增輯叙)’가 수록되어 있다. 발문은 1639년에 편자 이식이 작성하였고, 서문은 1664년에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

상편에는 천(天), 건(乾), 원(元), 형(亨), 이(利), 정(貞), 이(理), 기(氣), 귀신(鬼神), 혼백(魂魄), 명(命), 성(性),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심(心), 정(情), 사단(四端), 칠정(七情) 등 53자에 대한 뜻을 풀이하였다. 중편에는 서두에 해당 편의 수록방침 및 어려운 글자나 쉬운 글자를 가리지 않고 선별했음을 밝혀두었다. 이어서 역(易), 극(極), 의(儀), 상(象), 괘(卦), 효(爻), 점(占), 수(數), 변(變), 화(化) 등 총 58자의 뜻을 설명하였다.

하편에서도 중편과 같이 서두에 이 편의 수록방침 등을 기록했다. 하편은 축자(逐字) 즉 글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기(理氣), 성명(性命), 이의(理義), 도기(道器) 등 초학자들이 의문날 만한 부분 24조항을 설정하여 정자와 주자 등 여러 성현의 글 속에서 해당 조항에 관한 설명을 채록하였다.

각 단어에 대한 기술방식은 용어에 대한 먼저 운(韻)이라 하여 해당 문자의 발음과 구성 상의 뜻을 기술하였다. 이어 훈(訓), 경(經), 전(傳), 주(註), 안(按) 등이 수록되어 있다. 훈은 글자의 뜻을 설명한 것이며, 경은 경에 실려 있는 원전을, 전은 전에 실린 원전을 인용한 것이다. 주는 경전의 주석을 가지고 뜻을 밝힌 것이며, 안은 글자의 뜻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4. 서지적 특성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한古朝17-194, 한古朝17-194 등 2종이 더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있다.

5. 종합 평가

17세기 초학교육의 수준과 교육 방향을 보여주는 서적으로, 당대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 (김소희)

핵심어 초학자훈증집(初學字訓增輯), 이식(李植), 성리자훈(性理字訓), 정단몽(程端蒙), 송시열(宋時烈), 이단하(李端夏), 조귀석(趙龜錫), 전라감영(全羅監營)

충렬록(忠烈錄)

KOL000055808

古152-26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光海君13(1621)序

木板本(訓練都監字翻刻本)

2卷1冊(完帙)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3.8 × 16.2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4.0 × 21.3cm

表題: 忠烈錄

版心題: 忠烈錄

序: 天啓元年(1621)...李廷龜(1564-1635)

序: 天啓元年(1621)...李爾瞻(1560-1623)

進箋: 天啓元年(1621)...朴承宗(1562-1623)等

跋: 萬曆己未(1619)...韓纘男(1560-1623)

金應河將軍忠烈錄

1. 개요

본서는 심하전투에서 전사(戰死)한 김응하(金應河, 1580~1619)를 기리기 위해 간행한 문헌으로, 17세기 중반 이후에 간행된 훈련도감자본(訓練都監字本)의 번각본(翻刻本) 계통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피전자(被傳者)인 김응하는 본관은 안동(安東), 자(字)는 경의(景義)이며, 철원군 출신이다. 부친은 김지사(金地四)로 1580(선조 13)년에 태어났다. 효성이 남달랐다고 하며 임진왜란 중 부모를 여읜 뒤, 병서를 읽으며 무예를 수련하였다고 한다. 김응하는 1604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병조판서(兵曹判書) 박승종(朴承宗, 1562~1623)에 의해 발탁되었다. 이후 삼수군수(三水郡守), 선천군수(宣川郡守) 등을 역임하였으며, 1619년 2월 도원수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을 따라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의 후금 정벌에 나섰다. 이후 심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전사한 뒤, 명(明) 신종(神宗)이 요동백(遼東伯)에 봉하고, 조선에서는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였다. 김응하는 강원도 철원에 소재한 포충사(褒忠祠)에 배향되어 있으며,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았다.

편자 박승종의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효백(孝佰), 호는 퇴우당(退憂堂)으로, 1562(명종 17)년 박안세(朴安世)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들 중 박자흥(朴自興, 1581~1623)은 광해군대의 세자인 이지(李祿, 1608~1623)의 장인이기도 하다. 박승종은 1585(선조 18)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586(선조 1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지제교(知製敎), 우부승지(右副承旨), 대사헌(大司憲), 영의정(領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본 문헌은 이정구의 서문을 통해 심하전투에서 투항한 강홍립(姜弘立, 1560~1627), 김경서(金景瑞, 1564~1624)와 달리 순국한 김응하의 충절을 기리고 표창하기 위하여 편찬 및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문헌은 편자 사항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진전문(進箋文)과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을 참조하였을 때 박승종이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은 김응하의 초상(肖像)과 심하 전투의 모습, 의주에 위치한 사우(祠宇)의 모습을 담은 도상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후 이정구의 서문, 이이첨의 서문, 1621(광해군 13)년 박승종 등이 올린 진전문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상하 2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권상에는 김응하에게 내린 치제문(致祭文), 명 유격관(遊擊官) 교일기(喬一騎)에게 내린 치제문,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찬술한 「제김장군전후(題金將軍傳後)」, 이재영(李再榮, 1553~1623)이 지은 후서(後敘), 박희현(朴希賢, 1566~?)이 지은 「김장군전(金將軍傳)」이 수록되어 있다. 권하에는 이이첨이 찬술한 「애김장군가(哀金將軍歌)」, 심희수(沈喜壽, 1548~1622), 박홍구(朴弘耆, 1552~1624), 조정(趙挺, 1551~1629) 등이 지은 만시(挽詩)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현덕승(玄德升, 1564~1627)의 「추만김장군(追挽金將軍)」, 한찬남(韓纘男, 1560~1623)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징

김응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충렬록』은 크게 4가지 계통으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서는 훈련도감자본의 번각본 계통으로 경상대학교 문천각,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김응하의 유상(遺像)을 중심으로 세 곳에 소장된 동일 판본을 대조하였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유상의 획이 비교적 온전한 점을 보아 경상대학교 문천각이나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보다 앞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서는 원래의 표지와 덧댄 표지가 같이 존재한다. 원래의 표지에는 충렬록이라는 표제(表題)가 기재되어 있다. 난외(欄外)에는 옛 소장자가 기재한 목서가 확인되는데, 이정구의 서문 말미에는 월사(月沙)를 기재하여, 이정구의 호를 표기하였으며, 진전문에는 ‘주상전하(主上殿下)’의 상단에 ‘광해조(光海朝)’를 기재하여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표기하거나, 「제교유격문」에는 교유격 우측에 교유격의 이름이 일기임을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주석을 달아두고, 특정 인물의 이름에 삭제 표기를 해두는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평가

해당 문헌은 김응하를 기리기 위해 편찬된 문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김응하가 활동한 17세기 초반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이 발생한 격변의 시대였으며, 중국에서는 명청교체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김응하는 투항한 강홍립과는 반대로 동일한 전투에서 사망한 인물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현양하여 군왕에 대한 충성을 백성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본 문헌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인물을 현양하기 위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다희)

핵심어 김응하(金應河), 훈련도감(訓練都監), 번각(飜刻)

참고문헌

이송희, 「김응하 『충렬록(忠烈錄)』 판본 변개 과정과 그 의미」, 『유학연구』 4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치군요의(治郡要義)

KOL000021783

한古朝31-427

治郡要義 / 安教翼(朝鮮) 著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909]

1冊(69張): 四周單邊 半郭 20.9 × 15.6 cm, 10行19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1 × 19.9 cm

表題(木版題簽): 治郡要義

版心題: 治郡要義

書治郡要義後: 乙巳(1905)仲秋日嘉善大夫行成均館大司成德殷宋秉瓚書于武陵山中

1. 개요

본서는 조선후기 관북출신의 학자 혼재(渾齋) 안교익(安教翼, 1824~1896)이 저술한 목민서(牧民書)로, 지방관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도 등을 수록해 놓았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안교익은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경여(敬汝), 호는 혼재(渾齋)로, 함경도 홍원(洪原) 풍호리(豐湖里)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안두열(安斗烈), 모친은 이천서씨(利川徐氏) 기창(起昌) 딸이다. 송시열의 8대손인 수종재(守宗齋) 송달수(宋達洙, 1808~1858)와 숙재(肅齋) 조병덕(趙秉惠, 1800~1870),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1811~1876)에게 학문을 배우고, 임석영(林奭榮), 간재(良齋) 전주(田愚), 장석진(張錫軫) 등과 교유하였다. 사승관계와 교유관계를 볼 때 저자는 이이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낙론(洛論) 계열의 학자임을 알 수 있다. 저서로 『혼재집』 12권 6책이 전해진다.

본서는 저자 안교익이 목민관에게 자신이 맡은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도를 깨우쳐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편찬경위는 알 수 없지만, 송병찬의 발문에서 1905년 가을에 함흥지역의 선비이자 저자의 문인인 김현순(金玄淳)이 송병찬을 찾아와 『치군요의』를 보여주며 본서의 발문을 부탁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 무렵 이미 편찬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은 「치군요의」와 부록 및 발문으로 구성된다. 서문은 없지만 「치군요의」 서두에 편찬동기와 취지를 담은 글을 4행에 걸쳐 기술하였다. 「치군요의」는 목민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어』, 『중용』, 『맹자』, 『대학』 등 경전에서 발취하고 선현들의 해석을 부기한 후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논어』 「자장(子張)」편에 나오는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벼슬을 하면서 여가가 있으면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고서 여가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하였다.”를 발취한 후, 해당 글에 대한 주자(朱子)와 남헌장씨(南軒張氏) 및 신안진씨(新安陳氏) 등 선유들의 주석을 부기하였다. 아울러 마지막에 ‘우안(愚按)’이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

「치군요의」 뒤에는 역대 성현들이 시행했던 제도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목민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향교규범(鄕校規範)」, 「백록동원규(白鹿洞院規)」, 「초학자입군학방(招學者入郡學榜)」, 「초거인입백록동자목(招舉人入白鹿洞畵目)」, 「권유교임첩(勸諭校任帖)」, 「입천법(立薦法)」, 「각사리규모(各社里規模)」, 「주자공이(朱子公移)」, 「상재상서(上宰相書)」 등을 수록하였다. 「향교규범」은 문교(文教)를 통한 교화는 향교가 근본이 된다고 여겨 향교의 규칙을 간략히 기술하여 부록으로 수록한 것이다. 또한 『주자대전』에서 「초거인입백록동자목」과 「주자공이」 등을 발췌하였다. 전자는 주자(朱子)가 거인(舉人)을 불러 백록동(白鹿洞)으로 들어 오게 하는 자목(畵目)을 발췌한 것이며, 후자는 주자가 관직에 있을 때 작성했던 공문서를 수록한 것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한 지역을 문명(文明)의 고장으로 만드는 것도 수령에게 영예스러운 일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와 같이 단독으로 간행한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외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충남대학교에 소장된 저자의 문집인 『혼재집』에는 「치군요의」가 합철되어 있다. 두 책은 동일한 목활자로 인출되었으며, 판식의 모양 즉 어미모양, 광곽의 크기, 책 크기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아울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혼재집』에는 권말에 “己酉(1909)暮春藏修新刊”의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문집과 본서가 1905년에 편찬을 마무리한 후 1909년 경에 함께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종합 평가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臨官政要)』, 홍양호(洪良浩)의 『목민대방(牧民大方)』,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등과 아울러 조선후기 목민서의 편찬과 유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소희)

핵심어 치군요의(治郡要義), 안교익(安教翼), 함흥(咸興), 목민서(牧民書), 혼재집(渾齋集)

파주염씨족보(坡州廉氏族譜)

KOL202200011

古貴2518-51-6

坡州廉氏族譜 / 廉就敬(朝鮮) ; 廉汝淸(朝鮮) 等編

木板本

鎭岑(大田 儒城): 松谷村, 肅宗 32(1706)

不分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9.1 × 22.1 cm, 有界, 世別7段, 上下2葉花紋魚尾 ; 37.2 × 26.7 cm

版心題: 廉氏族譜

刊記: 是年孟冬開刊于鎭岑懸松谷村

序: 崇禎紀元後丙戌(1706)...宋相琦

序: 崇禎在丁亥(1647)...廉迪

序: 歲在甲申(1704)...[廉]命五

跋: 崇禎紀元後五十九年丙戌(1706)...廉就敬

1. 개요

1706년(숙종 32) 10월 파주염씨(坡州廉氏) 12세(世) 염여청(廉汝淸, 1627~?), 13세 염취경(廉就敬, 1651~?) 등이 충청도 진잠현(鎭岑縣) 송곡촌(松谷村)에서 간행한 파주염씨 가문의 족보(族譜)이다. 파주염씨 가문에서는 이후 조선시대에 순조 2(1802)년, 헌종 6(1840)년, 헌종 10(1844)년, 헌종 12(1846)년, 철종 13(1862)년, 고종 29(1892)년 등 6차례 이상 족보를 간행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파주염씨족보』의 편찬에 별유사(別有司)로 참여한 염취경은 파주염씨 13세(世)로, 국파공(菊坡公) 염국보(廉國寶, ?~1388)의 11대손이다. 자는 일경(一卿)이고, 아버지는 염여숙(廉汝淑, 1634~?), 어머니는 배중립(裵仲立)의 딸 성주 배씨(星州裵氏, 1630~?)이다. 염여청은 파주염씨 12세로, 국파공 염국보의 10대손이며 염취경의 5촌 당숙부이다. 자는 원정(元淨)·원경(元慶)이며 아버지는 염우생(廉佑生, 1603~1661), 어머니는 이필남(李弼男)의 딸 강릉이씨(江陵李氏, 1601~1649)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냈다.

『파주염씨족보』의 첫머리에 1706년 10월 송상기(宋相琦, 1657~1723)가 쓴 「파주염씨족보서(坡州廉氏族譜序)」에 따르면, 파주염씨는 고려 말 충경공(忠敬公) 염제신(廉悌臣, 1304~1382)과 염국보(廉國寶, ?~1388), 염흥방(廉興邦, ?~1388), 염정수(廉廷秀, ?~1388) 4부자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후에는 세력이 약해져 선조의 업적이 흩어져 버려졌고 후예들 또한 몰락했다. 충경공 염제신의 13대손 염취경은 이렇게 흩어져 버려진 선조의 업적을 수집하고 찾아내어 기록했고, 마침내 재력을 모아 족보 한 질을 간행했다. 염취경은 충경공 염제신과 그 세아들을 비롯한 선조들의 업적을 모아 다시금 기리고, 흩어진 후손들의 행방을 찾아내어 집안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파주염씨족보』를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구성 및 내용

『파주염씨족보』는 권차(卷次)의 구분 없이 1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1706년 10월 송상기가 쓴 「파주염씨족보서」, 명나라 때 문인 송렴(宋濂, 1310~1381)이 쓴 「문정공염공희헌송(文正公廉公希憲頌)」,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쓴 「송염참의치응서(送廉參議致膺序)」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충경공만사(忠敬公挽詞)」, 「인곡성상삼일불음금내음성장구(因曲城喪三日不吟今乃吟成長句)」, 「충경공부인만(忠敬公夫人挽)」, 「염상국파이시견증(廉相菊坡以詩見贈)」, 「차운염낭중시권(次韻廉郎中詩卷)」, 「알염시중인과동정(謁廉侍中因過東亭)」, 「부염정수동상연(赴廉廷秀東床讌)」, 「문곡성부매화개(聞曲城府梅花開)」, 「곡성시중래방서택색승초불부(曲城侍中來訪西宅穉承招不赴)」, 「정월초이일에곡성부견매화척축(正月初二日詣曲城府見梅花躑躅)」, 「하염대언정수(賀廉代言廷秀)」, 「봉정곡성부인좌하(奉呈曲城夫人座下)」, 「정청강염지신사(呈淸江廉知申事)」 등 둔촌(遁村) 이집(李集, 1327~1387)이 쓴 충경공 4부자에 관련한 저술이 실려 있다. 이어서 「염씨사적(廉氏事蹟)」, 「경기감영즉령굴거후개사도행기사(京畿監營卽令掘去後改莎土行紀)」, 염적(廉迪, 1615~1658)이 1647년 8월 초에 쓴 「염씨족보서(廉氏族譜序)」와 염명오(廉命五, 1638~1719)가 1704년 2월 초에 쓴 「염씨족보서」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책의 끝에는 1706년에 『파주염씨족보』의 편자 염취경이 쓴 발문(跋文)이 있다.

족보의 계보로 들어가 보면 시조를 고려 때 재상을 지낸 염현(廉顯)으로 잡고 차례로 염신약(廉信若), 염희헌(廉希憲), 염순언(廉純彦), 염승익(廉承益), 염세충(廉世忠), 염효신(廉孝臣)·염제신 형제를 위에서 아래로 나열했고, 다시 위로 올라가 염제신을 기준으로 잡고 계보를 나열한다. 현재 파주염씨대종회에서는 고려 개국 초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책봉된 염형명(廉邢明)을 시조로 하고 염위(廉位), 염가칭(廉可稱), 염현, 염한(廉漢), 염덕방(廉德方), 염신약, 염극모(廉克髦), 염후(廉翊), 염수장(廉守藏), 염순언, 염승익, 염세충, 염효신·염제신 형제 등으로까지 계보를 나열하는데, 염현과 염신약 사이에 염덕방이 추가되고 염신약과 염순언 사이에 염희헌이 빠지고 염극모와 염후, 염수장 등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염희헌(廉希憲, 1231~1280)은 원나라 때 대신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희로해아(希魯海牙)로 아버지의 관직이 연남제로염방사(燕南諸路廉訪使)였던 데에서 ‘廉’을 성씨로 삼은 것이라 원래 염씨도 아니었고, 출신은 위구르족이었다. 아마도 1706년 족보 편찬 당시에 이에 대한 고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단지 염씨라는 이유로 파주염씨의 선조로 생각한 듯하다. 현재는 고려 때 묘지명을 통해 계대를 명확히 상고할 수 있어 이러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파주염씨족보』에 수록된 세대(世代)는 1세 염제신, 2세 염국보(廉國寶), 3세 염치중(廉致中), 4세 염이(廉怡) 순으로 한 줄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염이의 아들 대에 염순량(廉順良), 염순공(廉順功)으로 나뉘고 염제신으로부터 9세에 있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장이 바뀌고 다시 염제신으로부터 최대 15세의 인물까지 계보가 나열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남양홍씨(南陽洪氏) 등 다른 집안 인물들의 직계 7대 이상을 수록한 것도 『파주염씨족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서지적 특성

책 마지막에 ‘시년맹동개간우진잠현송곡촌(是年孟冬開刊于鎭岑縣松谷村)’이라는 간기(刊記)가 큰 글자로 인출되어 있어 1706년 10월에 충청도 진잠현(鎭岑縣) 송곡촌(松谷村)에서 『파주염씨족보』를 간행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족보의 간행에는 별유사(別有司) 염여청·염취경이 참여하였고, 염취경의 차남인 염효전(廉孝全, 1679~?)이 서사(書寫)를 맡았으며, 김해종(金海

宗)과 승려 종연(宗延)이 글자를 판각했다는 기록이 있어 간행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서는 현존하는 파주염씨 집안 최초의 족보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반)929.1 - 파주염ㅇ)이 『파주염씨족보』와 동일본으로 추정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간행시기와 간행지역이 명확히 파악되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며, 현존하는 판본의 수도 매우 적어 귀중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파주염씨족보』 간행 당시 파주염씨 집안에서 파악한 상계(上系)의 계보와 현재 파주염씨대종회에서 문헌을 통해 고증한 상계의 계보가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1706년 당시 파주염씨 집안에서 파악하고 있던 상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 집안의 직계 7대 이상을 차례로 기재한 점도 특이하다. 이를 통해 18세기 초 족보 편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주염씨족보』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임미정)

핵심어 염취경(廉就敬), 염여청(廉汝淸), 파주염씨(坡州廉氏), 충경공(忠敬公), 염제신(廉悌臣)

팔천군일기(八川君日記)

KOL202200005

古貴3653-182

八川君日記 / [鄭基廣(朝鮮) 撰]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7世紀]

4冊; 22.0 × 14.9 cm

內容: 제1책 丙辰(1616)일기, 제2책 丁巳(1617)~戊午(1618)일기, 제3책 己未(1619), 庚申(1620)上, 제4책 庚申(1620)下, 辛酉(1621), 壬戌(1622)일기

책 크기 다름

1. 개요

광해군 8(1616)년부터 광해군 14(1622)년까지의 일기로, 훗날 인조 18(1640)년 팔천군(八川君)에 봉해진 조선 중기의 문신 정기광(鄭基廣, 1579~1645)의 일기로 추정된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찬자로 추정되는 정기광의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자거(子居), 호는 추재(追齋)·토곡(土谷)이다. 조부는 정종영(鄭宗榮)이고, 부친은 정약(鄭爚)이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611년(광해군 3) 주서가 되었고, 예조좌랑·병조좌랑·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장령·사간·나주목사·동래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인조 9(1631)년 형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삼남(三南) 지방의 양전(量田)을 위해 충청도 양전사(量田使)로 파견되었는데, 양전을 할 때 빠진 결수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더욱 각박하게 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다고 한다. 인조 14(1636)년 우승지에 이르렀다.

본서에는 정기광의 일기라는 기록이 없지만, 4책의 표지에 모두 ‘팔천군(八川君)’ 혹은 ‘팔천군일기(八川君日記)’라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 1640년 4월 27일조에 ‘팔천군(八川君)에 정기광(鄭基廣)을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기의 찬자를 정기광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3. 구성 및 내용

제1책은 ‘병진년정월위시(丙辰年正月爲始)’ ‘초일일임진(初一日壬辰)’으로 시작하여 12월 ‘삼십일병인(三十日丙寅)’으로 끝난다. 병진년은 1616년으로, 광해군 8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일기 내용의 체제는 우선 날씨를 적고, 그날 만난 인물이나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날씨는 ‘맑다가 저물녘에는 흐려지고 밤에는 눈이 흩뿌림’으로 적는 등 상세히 적기도 하고 간략히 적기도 한다. 내용은 정월 1일에 행하는 묘제(墓祭)를 지내고, 경연에 참석하며, 셋째 동생과 함께 어머니(天只)를 뵈는 신변잡기적인 기록이다. 정월 초10일에는 이익신(李益新) 등의 인물이 찾아와 만나는 기록이 있는데,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권10에 의하면 이익신은 선조 25(1602)년생으로, 41세가 된 해인 인조 20(1642)년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7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제2책은 1617년과 1618년의 일기이다. ‘정사년(丁巳年)’ 1617년의 일기는 ‘정월초일일정묘(正月初一日丁卯)’로 시작한다. 윤선도의 상소를 읽거나 는 등의 일상을 기록하였다. 박대항(朴大恒)·박시형(朴時亨)·이대순(李大淳)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무오정월(戊午正月)’로 시작하는 1618년의 일기는 ‘초일일신유(初一日辛酉)’로 시작하여 12월 ‘입구일(廿九日)’로 끝맺는데, 끝으로 갈수록 필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제3책은 1619년(기미년)과 1620년(경신년), 1621년(신유년) 정월 초1일과 2일 이틀치의 일기이다. 1619년의 일기는 ‘기미년정월위시(己未年正月爲始)’, ‘초일일을유(初一日乙酉)’로 시작하고 납월(臘月) 삼십일기묘(三十日己卯)로 끝맺는다. 박대승(朴大升)·이장백(李長白)·이명이(李命伊)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현재의 울진인 평해(平海)에 편지와 물건을 보낸다. 이장백은 현재의 포항인 청하(淸河)의 인물이다. 1620년의 일기의 첫머리에는 경신년과 기미년의 절기가 필사되어 있다. ‘정월초일일경진(正月初一日庚辰)’으로 시작하여 납월 이십구일(二十九日)을 지나 1621년 신유(辛酉) ‘정월초일일계유(正月初一日癸酉)’, ‘초이일갑술(初二日甲戌)’로 끝맺는다. ‘희룡(希龍)’이라는 인물이 곡목(穀木) 2석(石), 속(粟) 2석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제4책은 1620년(경신년) 11월-12월 2개월치의 일기와 1621년(신유년) 1월5일부터 12월까지, 1622년(임술년) 1월-12월, 1623년(계해년) 1월1일부터 2월12일까지의 일기이다. 황해도에 부임해서의 일을 적은 일기로 보인다. 1620년은 ‘기백후양복지월(起白猴陽復之月)’로 시작한다. 백후(白猴)는 경신년이고, 양복지월(陽復之月)은 11월을 가리킨다. 1621년은 ‘정월초일일계유조음청(正月初一日癸酉朝陰晴)’, 1622년은 ‘임술년정월초일일정유(壬戌年正月初一日丁酉)’, 1623년은 ‘계해정월초일일임진(癸亥正月初一日壬辰)’로 시작한다. 권말에는 한 해의 절기 날짜가 적혀 있고, 평산(平山), 장연(長淵), 봉산(鳳山) 등 황해도에 속하는 지명과 종덕(終德), 춘이(春伊) 등의 노비 이름이 필사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책수	장정	행수	표제	작성연대
제1책	4침안 황색표지	12행 내외	병진록 (丙辰錄)	1616년(병진) 1월-12월
제2책	5침안 황색표지	16행 내외	정사무오일과 (丁巳戊午日課)	1617년(정사) 1월-12월 1618년(무오) 1월-12월
제3책	5침안 청색 표지	20행 내외	황양백후 (黃羊白猴)	1619년(기미) 1월-12월 1620년(경신) 1월-12월 1621년(신유) 1월1-2일(이틀치)
제4책	5침안 황색표지	16행 내외	해서일과 (海西日課)	1620년(경신) 11월-12월 1621년(신유) 1월5일-12월 1622년(임술) 1월-12월 1623년(계해) 1월1일-2월12일

제1책의 표제는 ‘병진록(丙辰錄)’이다. 4침안에 황색 표지로 장황되어 있다. 날짜를 적은 행은 첫 칸을 채워 쓰고, 내용은 한 글자 내려 적어 날짜를 찾을 때 용이하도록 했다. 임금의 묘호(廟號)나 임금이 참석하신 경연(經筵) 등, 높여야 하는 대상 앞에는 격자(隔字)를 두었다. 본인의 작은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인 ‘중부(仲父)’ 등 개인적으로 높이고 싶은 대상에도 격자를 두었다. 내용이 바뀌면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을 표시하여 지면을 아꼈다. 제2책의 표제는 ‘정사

무오일과(丁巳戊午日課)'이며, 5침안에 황색 표지로 장황되어 있다. 1행당 하루 일기를 1행으로 적었다.

제3책의 표제는 '황양백후(黃羊白猴)'이며, 기미(己未)·경신(庚申)을 가리킨다. 5침안에 남색 표지로 장황되어 있다. 책지(冊紙)가 얇아 후면에 필사한 내용이 비치고 알아보기 어렵다. 한 행에서 간격을 띄우고 다음 날의 일기를 적기도 한다. 제4책의 표제는 '해서일과(海西日課)'로, 해서는 황해도를 가리킨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 정기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이다. 정기광의 문집은 남아있지 않고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정사(正史) 및 방목의 관력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616년부터 1622년은 정기광에 대한 역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정기광의 친필 일기로 보이는 본서는 정기광의 상세한 생애와 친족관계 및 교유인물은 물론, 당시 지역사회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미시사 연구 자료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김은슬)

핵심어 팔천군(八川君), 정기광(鄭基廣), 초계(草溪)

팔현행록(八賢行錄)

KOL200100249

古2515-69

八賢行錄 / 張憲周...等編

木活字本

羅州 : [發行處不明], [20世紀]

不分卷1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0.6 × 15.6cm, 有界, 10行24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一部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混入) ; 29.1 × 20.1cm

表題: 八賢行錄

版心題: 八賢行錄

被傳者: 竹潭 李惟謹, 野隱 張以吉, 滄洲 鄭詳, 寒泉 柳澍, 三洲 崔希說, 錦崖 李彥詳, 南湖 柳澍, 莎村 崔四勿

八賢行錄序: 崇禎四戊辰(1808)臘月上澣恩津宋穉圭(1759~1838)序

內容: 竹潭李先生[李惟謹], 野隱張先生[張以吉], 滄洲鄭先生[鄭詳], 寒泉柳先生[柳澍], 三洲崔先生[崔希說], 錦崖李先生[李彥詳], 南湖柳先生[柳澍], 莎村崔先生[崔四勿], 附寶山祠遺蹟, 輿地勝覺抄錄, 八先生聯句, 寶山祠禮成告由文(西河 任焞), 春秋享祀文(恩津 宋穉圭), 壇享告由文(高宗乙巳<1905>八月日, 錦城吳繼洙), 祠宇上樑文(西河 任焞), 講堂上樑文(尙質 張憲周), 碑閣上樑文(錦城 吳駿善), 壇享碑文(安東 金福漢 撰)

1. 개요

본서는 장헌주(張憲周, 1777~1867)가 나주(羅州) 초동(草洞)에서 태어난 죽담(竹潭) 이유근(李惟謹), 야은(野隱) 장이길(張以吉) 등 보산팔현(寶山八賢)이라 칭하는 여덟 명 인물들의 언행(言行)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는 장헌주(張憲周, 1777~1867)이다. 그의 자(字)는 유장(幼長), 호(號)는 여력재(餘力齋)이다. 나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과거(科擧)로 관직에 나가 출세하는 것보다 학문에 뜻이 깊어 송치규(宋穉圭, 1759~1838)에 사사(師事)하고, 경전(經典)과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연구에 정진하였다.

금성(錦城) 서쪽으로 21리에 산수(山水)가 이름 난 초동(草洞)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의 나주이다. 그곳에서 가정(嘉靖), 만력년간(萬曆年間)에 죽담(竹潭) 이유근(李惟謹, 1523~1606), 야은(野隱) 장이길(張以吉, 1529~1595), 창주(滄洲) 정상(鄭詳, 1533~1609), 한천(寒泉) 류주(柳澍, 1536~1588), 삼주(三洲) 최희열(崔希說, 1536~1607), 금애(錦崖) 이연상(李彥詳, 1536~1579), 남호(南湖) 류은(柳澍, 1540~1590), 사촌(莎村) 최사물(崔四勿, 1544~1575)이 문과급제(文科及第)하였다. 그들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초동팔문관(草洞八文官)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편자는 그들이 가진 개인별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을 실은 『팔현행록(八賢行錄)』을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팔현행록(八賢行錄)』은 불분권(不分卷) 1책의 목활자본이다. 본문 중 서문은 편자 장헌주에게 사사했던 송치규(宋穉圭, 1759~1838)가 작성하였다. 서문에 송정사무진납월상한은진송치규(崇禎四戊辰(臘月上澣恩津宋穉圭序)라고 기재되어있어 1808(순조 8)년에 서문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여덟 명 문관의 사적(事績)을 기록하였고, 8인의 문관을 배향하기 위해 세워진 사우인 보산사(寶山祠)의 유적(遺蹟) 여지승람초록(輿地勝覽抄錄), 팔선생연구(八先生聯句), 하서(西河) 임욱(任燾, 1774~?)이 지은 보산사예성고유문(寶山祠禮成告由文), 은진(恩津) 송치규(宋穉圭)가 지은 춘추향사문(春秋享祀文), 금성(錦城) 오계수(吳繼洙, 1841~1915)가 지은 단향고유문(壇享告由文), 하서 임욱이 지은 사우사랑문(祠宇上樑文), 상질(尙質) 장헌주(張憲周, 1777~1867)가 지은 강당상량문(講堂上樑文), 금성(錦城) 오준선(吳駿善, 1851~1937)이 지은 비각상량문(碑閣上樑文), 안동(安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이 지은 단향비문(壇享碑文)이 실려 있다.

각 인물별 휘(揮), 자(字), 호(號)를 적고, 비조(鼻祖)부터 사조(四祖)까지 적었다. 또 과거시험에 합격한 날짜 등을 기록하였다. 이유근은 효우(孝友)와 문장(文章), 지방관으로서 선정(善政)을 적었고, 장이길의 생애에서는 관리(官吏)로서의 경력과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을 적었다. 세번째 정상의 생애에서는 학자로서의 면모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와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사실을 기록하였고, 네번째 류주는 지략(智略)있는 선비로서의 모습과 학문적 연원의 정통성을 기록하였다. 다섯번째, 최희열은 혼탁한 현실을 떠난 과감한 은거와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을 기록하였고, 여섯번째, 이언상은 유교의 근본윤리를 강조한 학문수양과 뛰어난 문재(文才)임을 기록하였다. 일곱번째 류은(柳澗)은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뛰어난 제자라는 점과 선계변무사(璿系辨誣使)의 일원으로서 세운 공적을 적었다. 여덟번째 최사물은 학문적 조예와 관리로서 능력을 적었다.

4. 서지적 특징

본서는 서문에 '송정사무진납월상한은진송치규(崇禎四戊辰(臘月上澣恩津宋穉圭序)'라고 기재되어있어 순조 8(1808)년에 서문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실린 고유문(告由文), 상량문(上樑文), 비문(碑文) 등과 판식이나 체제 및 등을 미루어볼 때 통해 20세기초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총 5종의 『팔현행록』이 현존하고 있는데, 전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석판본 『팔현행록』, 원광대학교에 소장되어있는 1868년에 인출한 목활자본 『팔현행록』, 전남대에 소장된 목활자본, 계명대에 소장되어있는 목활자본 『팔현행록』있다.

5. 종합평가

본 문헌은 16세기 나주 초동이라는 한 마을에서 배출된 문과급제자 여덟 인물들의 사적을 모은 것으로, 당시 인물들의 언행을 일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후대에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인 보산사의 상량문과 비문 등과 관련된 기록이 전사(傳寫)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이다희)

핵심어 초동팔문관(草洞八文官), 보산팔현(寶山八賢), 보산사(寶山祠)

참고문헌

권혁명, 「고전 인물 발굴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 나주 초동 팔현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JKC)』, 3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7.

팔효집(八孝集)

KOL000026161

古朝43-가177

八孝集 / 羅漢明(朝鮮) 編

木活字本

龜山: 守怡齋, 1797

3冊 : 四周雙邊 半郭 22.9 × 16.0 cm, 10行18字, 花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31.4 × 20.8 cm

被傳者: 羅安世, 羅安仁, 羅安義, 羅應虛, 羅應參, 羅辰, 羅表, 羅禛

羅氏八孝行錄序: 庚戌(1790)... 閔鍾顯

羅氏八孝子實紀序: 聖上十四年庚戌(1790)... 丁範祖

羅氏八孝行錄後序: 癸丑(1793)... 李秉鼎

羅氏八孝集序: 上之卽祚十八年甲寅(1794)... 洪良浩

羅氏八孝集跋: 聖上十七年癸丑(1793)... 洪檢

八孝集跋: 丙辰(1796)... 徐季修

跋: : 丁巳(1797)... [羅]漢明

刊記: 壬子(1792)仲春始刊于八孝祠堂 丁巳(1797)孟夏訖印于龜山守怡齋

冊1, 卷1, 建溪先生行錄. - 卷2, 耐貧公行錄. - 卷3, 樂善公行錄. - 卷4, 杏亭公行錄. - 卷5, 龜山處士行錄. - 卷6, 杏陰公行錄. - 卷7, 節孝公行錄. - 卷8, 月峯公行錄. - 卷9, 建溪先生遺稿(詩) / (朝鮮)羅安世 著. - 卷10, 耐貧公遺稿(詩) / (朝鮮)羅安仁 著. - 卷11, 杏亭公遺稿(詩) / (朝鮮)羅應虛 著. - 冊2

1. 개요

김제(金堤) 나씨(羅氏) 중 삼세(三世)에 걸친 팔효자(八孝子)인 나안세(羅安世), 나안인(羅安仁), 나안의(羅安義), 나응허(羅應虛), 나응삼(羅應參), 나의(羅辰), 나표(羅表), 나계(羅禛)의 행록(行錄)과 유고(遺稿)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후손인 나한명(羅漢明)이 1797년에 김제(金堤) 구산(龜山)의 수이재(守怡齋)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는 김제 나씨의 후손인 나한명이다. 권말에 수록된 홍검(洪檢)의 발문에 의하면, 김제 나씨 팔효자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도 그 사적이 수록될 정도로 효성이 자자한 집안이다. 홍량호(洪良浩)가 쓴 「나씨팔효집서」에 의하면, 효자로 정문(旌門)을 받은 선대의 행적과 문장이 민멸될 것이 우려되어, 나한명이 이를 수집하여 간행함으로써 천리 밖까지 전하고자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구성 및 내용

모두 22권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 권수에는 민종현(閔鍾顯, 1735~1798)이 1790년에 쓴 서문과 같은 해에 정범조(丁範祖, 1723~1801)가 쓴 서문, 이병정(李秉鼎, 1742~1804)이 1793

년에 쓴 서문,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이 1794년에 쓴 서문, 팔효집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제1책 권1에 『건계선생행록(建溪先生行錄)』, 권2에 『내빈공행록(耐貧公行錄)』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 권3에는 『낙선공행록(樂善公行錄)』, 권4에는 『행정공행록(杏亭公行錄)』, 권5에는 『귀산처사행록(龜山處士行錄)』, 권6에는 『행음공행록(杏陰公行錄)』, 권7에는 『절효공행록(節孝公行錄)』, 권8에는 『월봉공행록(月峯公行錄)』, 권9에는 나안세(羅安世, ?~?)의 유고집인 『건계선생유고(建溪先生遺稿)』 중 시(詩), 권10에는 나안인(羅安仁)의 유고집 『내빈공유고(耐貧公遺稿)』 중 시(詩), 권11에는 나응허(羅應虛)의 『행정공유고』 중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제2책 권12에는 나응삼(羅應參, ?~?)의 유고집인 『귀산처사유고(龜山處士遺稿)』 중 시(詩), 권13에는 나표(羅表, ?~?)의 유고집인 『절효공유고(節孝公遺稿)』가 수록되어 있다. 권14-15에는 『건계선생유고』 중 문(文)이, 권16에는 『내빈공유고』 중 잡저(雜著), 권17에는 다시 나응삼의 『귀산처사유고』 중 문(文)이 수록되어 있다. 제3책 권18에는 『귀산처사유고』 중 잡저(雜著), 권19에는 서(書)가 수록되어 있다. 권20에는 『절효공유고』 중 잡저, 권21에는 나계(羅禔)의 『월봉공유고(月峯公遺稿)』, 권22는 부록으로, 앞에서 누락된 기록들을 모아두었다. 효자 정문(旌門)을 받은 나씨 가문 인물들의 관력과 정문을 하사받은 날짜 등을 기록한 정문기(旌門記), 친지들로부터 받은 축하 편지인 찬축(贊祝), 이신회(李身晦)가 쓴 「건계선생행장」, 이익운(李益運)이 쓴 「나씨팔효사당기(羅氏八孝祠堂記)」, 「도유통문(道儒通文)」 등이 부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홍검(洪檢)이 쓴 「나씨팔효집발(羅氏八孝集跋)」, 서계수(徐季修)가 쓴 「팔효집발(八孝集跋)」과 나한명이 쓴 발문이 있다. 나한명의 발문 뒤에는 1792년에 팔효사당에서 간행을 시작하여 김제 귀산 수이재(守怡齋)에서 간행한다는 간기가 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 하단에는 책차(冊次)가 ‘천(天)’·‘지(地)’·‘인(人)’으로 필사되어 있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서뇌(書腦)에는 총책수가 ‘공삼(共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통의 세고(世稿)와 같이 인물의 유고별로 편집하지 않고, 팔효자의 행록을 모두 수록한 후에 유고 중 시를 우선 수록하고, 뒤에 문을 수록하는 등 특이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김제 나씨 여덟 효자의 행록과 유고를 후손인 나한명이 모아 간행한 책이다. 본서의 간행을 통해 자칫 민멸될 뻔한 효자들의 기록을 후대에까지 남길 수 있었다. 선대의 효행을 기리고 유문(遺文)을 지키고자 하는 후손들의 노력과 가문 의식 또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팔효집(八孝集), 나안세(羅安世), 나안인(羅安仁), 나안의(羅安義), 나응허(羅應虛), 나응삼(羅應參), 나익(羅辰), 나표(羅表), 나계(羅禔), 나한명(羅漢明)

풍거유고(楓渠遺稿)

KOL000027147

古朝46-가1350

楓渠遺稿 /李文規(朝鮮)撰 ; 李源宇(朝鮮)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835

5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0.6 × 16.0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0 × 20.1 cm

序: [李]敦宇

跋: 乙未(1835)...[李]源宇

1. 개요

조선 중기의 학자 이문규(李文規, 1617~1688)의 시문집이다. 헌종 1(1835)년 손자 이원우(李源宇)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이문규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칙(聖則), 호는 풍거(風渠)이다. 효령대군의 7대손이며, 춘성정(春城正) 이담손의 현손이다. 부친은 이국형(李國馨)이고, 외조부는 재간당(在澗堂) 김화(金澣)이다. 사마시에 합격하고, 학행으로 천거되어 재랑(齋郎)이 되었다. 165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675년 학행으로 경기전참봉이 되었다. 그 후 현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 천문학과 지리학·역학 등에 밝았다고 전해진다.

현손인 이원우가 쓴 발문에는 편찬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훌륭한 선조의 글이 후손들의 영세함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원우와 이돈우(李敦宇, 1801~1884)가 함께 이문규의 유문이 민멸될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3. 구성 및 내용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장제부정(長堤副正) 이돈우의 서문과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 권1-2에는 시 216수, 권3에는 소(疏) 2편, 서(書) 2편, 상량문 1편, 묘지 1편, 회문(回文) 2편, 정문(程文)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4에는 서(序) 7편, 기(記) 7편, 발(跋)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의상시폐소(擬上時弊疏)」는 당시 사회제도의 모순을 조목별로 나누어 비판한 글이다. 제2책 권5는 부록으로, 행장·묘갈명·제문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이원우가 1835년에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 영남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도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옥색 표지에 주색(朱色) 책사(冊絲)로 장황되어 있다. 표제는 ‘풍거집(楓渠集)’, 권수제와 판심제는 모두 ‘풍거유고(楓渠遺稿)’이다. 앞표지 우측하단에는 총책수가 ‘공이(共二)’라고 적혀 있

어, 본서가 5권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임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문규의 유문을 후손들이 모아 편집·간행한 책이다. 이문규의 유문이 훌륭하다는 것을 후세에 알리고 작품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후손의 노력이 엿보이는 책이다. (김은슬)

핵심어 풍거유고(楓渠遺稿), 이문규(李文規), 이원우(李源宇), 이돈우(李敦宇)

학천선생집(鶴泉先生集)

KOL000028124

古朝45-가429

鶴泉先生集 / 成汝學(朝鮮) 撰 ; 韓厚明(朝鮮) 編

木板本

大邱: 慶尙監營, 1706 序

2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0.2 × 14.3 cm, 9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0 × 18.5 cm

序: 家弟[李]燧出按嶺南捐俸付之剞劂...崇禎後六十三年丙戌(1706)...李塾

印: 李時稷印

1. 개요

조선 후기의 문신 성여학(成汝學, 1555~?)의 시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한후명(韓厚明)이 유문을 정리하여 편차하고, 이야(李燧, 1648~1719)가 영남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성여학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학안(學顔), 호는 쌍천(雙泉)·학천(鶴泉)이다. 『파문사우록(坡門師友錄)』에 근거하면 성여학이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배웠다는 내용이 있다. 성여학은 나이 50세에 비로소 진사가 되어 변변한 관직을 갖지 못했지만, 시에 출중한 인물이었다. 행적이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은 인물이나,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 그 생몰년을 파악해볼 수 있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7(1615)년 6월조에는 60세가 된 성여학을 시학교관(詩學敎官)으로 임명한 기록이 보인다. 또한 문집에 ‘아배이오년팔십(兒輩以吾年八十)……’이라는 시제가 있어, 이를 통해 그의 졸년이 인조 13(1635)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권수에 수록된 이돈(李塾, ?~1713)의 서문에는 성여학의 시가 훌륭하다고 평가한 여러 인물들의 평어와 『학천선생집』의 편찬 경위가 잘 나타나 있다. 서문 내용에 의하면, 지봉 이수광이 성여학의 시를 좋게 평가하여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언급하였다. 성여학의 외손인 한후명(韓厚明)이 그 유작을 모아 시체별(詩體別)로 편집하고, 서문을 쓴 이돈의 동생인 이야(李燧)가 경상감사를 지내고 있던 1706년에 영남에서 목판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에는 1706년에 이돈이 쓴 서문이 있다.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본문으로 이어진다. 제1책 권1에는 오언절구(五言絶句), 칠언절구(七言絶句), 오언율시(五言律詩), 칠언율시로 나누어 시를 수록하고 있다. 제2책 권2에는 권2에 이어 칠언율시를 먼저 수록하고, 오언배율(五言排律), 칠언배율(七言排律), 오언고시(五言古詩), 칠언고시(七言古詩)가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남색 표지에 갈색 책사(冊絲)로 장황되어 있다. 표제는 ‘학천집(鶴泉集)’으로, 제침(題籤)에 필사되어 있다. 표제 하단에는 책차가 상(上)·하(下)로 매겨져 있다. 판식과 서체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초반에 간행된 책으로 보이며, 현전본이 드문 편이다. 압인된 인장으로 보아 이시직(李時稷)이라는 인물이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비록 늦은 나이에 진사가 되고 가난했지만 맑고 쓸쓸한 시를 지었던 성여학의 시집이다. 이수광과의 문학적 교유를 알 수 있는 「정지봉상공(呈芝峯相公)」·「봉증지봉상공(奉贈芝峯相公)」·「차지봉운(次芝峯韻)」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성여학이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시사하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자칫 민멸될 뻔한 유문을 모아 편찬한 성여학의 시를 담은 책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김은슬)

핵심어 학천선생집(鶴泉先生集), 성여학(成汝學)

한서찬(漢書纂)

KOL0000228076

한古朝50-4

漢書纂 / 班固(後漢) 撰 ; 凌稚隆(明) 校閱

金屬活字本(戊申字)

[發行地不明] : [校書館], [17世紀]

8卷8冊 : 四周雙邊 半郭 24.7 × 17.1 cm, 10行18字 註雙行, 上3葉花紋魚尾下2葉花紋魚尾
(일부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1.8 × 21.1 cm

表題: 漢書纂

漢書纂序: 萬曆癸未(1583)仲冬吳興後學凌稚隆以棟父識

漢書纂序: 楚黃友弟王兆雲頓首

1. 개요

본서는 만력 11(1583)년에 명(明) 능치륜(凌稚隆, 1553~1593)이 편찬한 『한서찬』을 토대로 17세기 후반에 조선에서 금속활자본인 무신자로 인출한 책이다. 『한서찬』은 반고(班固)의 『한서』 100편 가운데 66편을 선별한 후, 해당 편을의 내용을 전체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둔 『한서』 선집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편자인 능치륜의 초명은 우지(遇知)이며, 자(字)는 이동(以棟), 호(號)는 뇌천(磊泉)이다. 명대에 유명했던 출판 지역의 하나인 호주(湖州) 오정(烏程, 현재의 浙江 吳興)에서 태어났다. 능치륜의 집안은 원나라 말기의 혼란을 거쳐 편자의 5대조인 능현(凌賢) 대에 와서 중흥하였고, 증조부인 능부(凌敷)가 오정 지역의 명문가였던 민씨(閔氏)와 혼인하면서 가격(家格)이 더욱 상승하였다. 조부 능진(凌震, 1471~1535)과 부친 능약언(凌約言)을 비롯하여 능치륜에 이르기까지 문징명, 왕세정, 모곤 등 당대 이름난 문장가들과 교류하였다. 능치륜은 이러한 가학과 교류를 토대로 다양한 고문(古文) 관련 서적을 편찬하였다. 그 중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서적으로 『사기평림(史記評林)』, 『사기찬(史記纂)』, 『한서평림(漢書評林)』이 있다.

능치륜은 논평이 방대하여 통독이 어려운 평림본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사기찬』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본서를 편찬함으로써, 한대(漢代)의 역사 및 반고(班固)의 문장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를 이해하기에 앞서 『한서』의 구성체제를 살펴보면, 제기(帝紀) 12편, 표(表) 8편, 지(志) 10편, 열전(列傳) 70편 등 총 100편 120권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제기란 제왕들에 대한 기록, 표는 왕이나 제후 또는 공신 등 주제에 따라 사건의 추이를 도식화한 기록, 지는 역법, 예악, 형법, 지리, 서적 등 국가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한 기록, 열전은 다양한 인물 군상들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제기 7편, 표 5편, 지 7편, 열전 47편 등 66편만을 선정하여 8권의 형태로 재편하였다. 전체 8권 중 권1에 제기, 표, 지를 함께 수록하였고,

나머지 권2~8은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 1편을 제외하면 모두 열전이다.

세부 내용은 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의 <제기>는 『한서』에 있던 혜제(惠帝), 고후(高后), 소제(昭帝), 애제(哀帝), 평제(平帝) 등 5편의 제기는 삭제하였고, 고조(高祖)·문제(文帝)·경제(景帝)·무제(武帝)·선제(宣帝)·원제(元帝)·성제(成帝) 등 7편의 제기만을 수록한 점에서 제왕의 정통성과 그들의 정치적 업적을 고려하여 안배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수록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를 수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나 정치적 사안을 보여주는 조서(詔書)와 반고의 논평에 해당하는 찬(贊)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표>는 이성제후왕표(異姓諸侯王表), 제후왕표(諸侯王表), 고혜고후문공신표(高惠高后文功臣表), 고금인표(古今人表) 등 4편을 선별하되, 도식화된 표는 생략한 채 해당 표에 대한 간략한 서술인 서(序)만을 채기하였다. <지>는 율령지(律曆志), 예악지(禮樂志), 형법지(刑法志), 식화지(殖貨志), 오행지(五行志), 지리지(地理志), 예문지(藝文志) 등 7편을 수록했는데, 이 중 예문지의 경우에는 현전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사지목록(史志目錄, 역사서에 수록된 목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문지의 체제를 보면 맨 앞에 한나라의 장서변천과 교수(校讎)의 원류를 설명하는 대서(大序)가 나오고, 이어서 유가, 도가, 법가, 명가 등 주제별로 세부 서적을 기술한 후 해당 주제의 성립 등과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한서찬』은 대서와 세부 서적목록은 삭제한 후, 주제와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채기하였다.

권2~8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2는 초원왕전(楚元王傳), 괴오강식부전(蒯伍江息夫傳), 가의전(賈山傳), 조조전(鼂錯傳), 가추매노전(賈鄒枚路傳)이, 권3은 두전관한전(竇田灌韓傳), 경십삼왕전(景十三王傳), 이광소건전(李廣蘇建傳), 조충국신경기전(趙充國辛慶忌傳), 동중서전(董仲舒傳),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 공손홍복식예관전(公孫弘卜式兒寬傳), 백관공경표가 있다. 권4는 장탕전(張湯傳), 두주전(杜周傳), 사마천전(司馬遷傳), 무오자전(武五子傳), 엄주오구주보서엄종왕고전(嚴朱毋丘主父徐嚴終王賈傳) 상·하, 동방삭전(東方朔傳)이, 권5는 공손유전(公孫劉田王楊蔡陳鄭傳), 양호주매운전(楊胡朱梅云傳), 곽광김일제전(霍光金日磾傳), 부상정감진단전(傅常鄭甘陳段傳), 준소우설평팽전(雋疏于薛平彭傳), 왕공양공포전(王貢兩龔鮑傳)이다. 권6은 위상병길전(魏相丙吉傳), 수양하후경익이전(眭兩夏侯京翼李傳), 조윤한장양왕전(趙尹韓張兩王傳) 상·하, 갑제갈유정손무장하전(蓋諸葛劉鄭孫毋將何傳), 소망지전(蕭望之傳), 풍봉세전(馮奉世傳), 광장공마전(匡張孔馬傳)이, 권7은 왕상사단부희전(王商史丹傳喜傳), 설선주박전(薛宣朱博傳), 적방진전(翟方進傳), 곡영두업전(谷永杜鄴傳), 양웅전(揚雄傳), 순리전(循吏傳), 흑리전(酷吏傳), 화식전(貨殖傳)이, 권8은 유협전(游俠傳), 영행전(佞幸傳), 흉노전(匈奴傳), 서남이양월조선전(西南夷兩粵朝鮮傳), 서역전(西域傳), 외척전(外戚傳) 상·하, 왕망전(王莽傳), 서전(敘傳)이다.

『한서』의 열전 70편 중 47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내용에 있어서 전편을 모두 수록한 경우와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선별했는지는 총목차에서 편명 하단에 달아놓은 주석을 통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1의 ‘고조기’ 편명 아래에 달린 “即位始末, 求賢詔, 誅伐不義詔”의 주석, ‘이성제후왕표’ 등 각종 표 아래에 달린 “序”라는 주석, ‘율령지’ 등 각종 지 아래에 달린 “略”이라는 주석, ‘초원왕전’ 아래에 달린 “劉向 劉歆 贊”의 주석과 ‘괴오강식부전’ 아래에 달린 “蒯通略, 息夫躬, 贊”이라는 주석 등을 들 수 있다. ‘초원왕전’은 원래 『한서』 권36(열전 제6)에 있던 편으로 초원왕 교(交), 유벽강(劉辟疆), 유향, 유희의 합전(合傳)인데, 『한서찬』에서는 유향과 유희의 전기만 선정했다. 또한 ‘괴오강식부전’은 『한서』 권45(열전 제15)에 있던 편으로 괴통(蒯通), 오피(伍被), 강충(江充), 식부궁(息夫躬)의 합전인데, 이 중 괴통의 일화 일부분과 식부궁의 전기만을 뽑은 후 찬을 첨

부하였다. 이 외에도 전편을 모두 수록한 경우에는 편명 하단에 ‘전(全)’을 주기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로 가의전, 동중서전, 동방삭전, 위상병길전, 설선주박전, 적방진전 등 6편이다. 그러나 가의전의 경우에도 전편을 모두 수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본문을 살펴보면 『한서』에 실려있던 ‘부(賦)’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한 후 ‘운운(云云)’이라고 주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판심의 형태는 주로 위쪽에 3엽화문어미가, 아래쪽에 2엽화문어미가 새겨져 있으며, 일부 상해내향3엽화문어미가 나타나고 있다. 본서는 중국본 『한서찬』을 저본으로 도서관이 1672~1687년 사이에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인출한 책이다. 현전하는 중국본 『한서찬』은 1583년에 능치룡이 자체적으로 간행한 자각본(自刻本)과 명말 간본으로 추정되는 환독재본(還讀齋本)이 있다. 두 간본은 저작역할어의 표시 방식 및 왕조운(王兆雲)의 서문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본서는 능치룡의 자각본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평가

조선에서 간행한 『한서찬』은 무신자본이 유일하며, 조선본 『한서』 선집본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 『한서』의 독서와 이해수준을 보여주는 서적이자, 중국본 서적의 수용과 활용을 보여주는 서적이다. (김소희)

핵심어 한서찬(漢書纂), 한서(漢書), 반고(班固), 능치룡(凌稚隆), 무신자(戊申字)

참고문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한준(漢雋)

KOL000024944

한古朝57-나13

漢雋 / 編者不明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18世紀]

4卷4冊 : 四周雙邊 半廓 21.3 × 15.6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1~3葉花紋魚尾(일부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 33.0 × 21.4 cm

表題: 漢雋

版心題: 漢雋

書根題: 雋

印: 仲輝, 赫洙

1. 개요

본서는 『한서(漢書)』의 「열전」 70편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30편으로 재편집한 책이다. ‘한준’이란 서명은 『한서』 가운데 빼어난 부분을 선별했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 및 편찬경위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편자의 경우에는 정조대 편찬한 전국의 책판 소장 목록집인 『누판고(鏤板考)』에서 “편자는 알 수 없다. 김상헌(金尙憲, 1636~1652)이 편찬했다고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주종(朴周鍾, 1813~1887)의 『동국통지(東國通志)』 「예문지(藝文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예문고(藝文考)」에서는 ‘최립(崔崧, 1539~1612)’의 저서 또는 선집한 책이라고 전해진다. 아울러 『존재집(存齋集)』에 「書漢雋後」가 작성된 점으로 보아 위백규(魏伯珪, 1727~1798)가 지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바탕이 된 『한서』는 경제(景帝) 건초(建初) 연간(76~83)에 반표(班彪), 반고(班固) 등이 한대(漢代)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의 방식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구성 체제는 12편의 기(紀), 8편의 표(表), 10편의 지(志), 70편의 열전(列傳) 등 100편의 주제를 120권에 걸쳐 기술하였다. 본서는 그 중에서도 열전만을 대상으로 총 24편을 선별한 후에, 이를 다시 30편으로 재편하였다. 『한서』의 열전은 1인의 사적만을 기술한 ‘단전(單傳)’과 여러명을 함께 나열한 ‘합전(合傳)’이 혼재되어 있는데, 본서는 원래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합전 가운데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만을 선별하여 ‘단전’ 체제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한서』의 ‘진승항적전’에서 항적의 열전만을 뽑아 ‘항적전’으로 편명을 변경하였고, 형왕(荊王) 유고(劉賈), 연왕(燕王) 유태(劉澤), 오왕(吳王) 유비(劉濞) 등 3인의 열전을 수록한 형연오전(荊燕吳傳) 가운데 오왕비의 열전만을 발췌하여 ‘오왕비전’이라는 편명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한서』 유흥전(游俠傳)에는 주가(朱

家), 전중(田仲), 극맹(劇孟), 곽해(郭解), 우장(萬章), 누호(樓護), 진준(陳遵), 원섭(原涉)의 열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준』에서는 곽해, 진준, 원섭의 열전만을 선별하여 각기 하나의 열전으로 설정했다.

본서는 역사적 귀감이 되거나 문학적 모범이 되는 작품들을 편자의 안목에서 4권 4책 30편으로 재편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권의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項籍傳, 張耳陳餘傳, 吳王濞傳, 陸賈傳, 蒯通傳, 伍被傳, 息夫躬傳, 袁盎傳 등 8편, 권2는 竇田灌韓傳, 李廣蘇建傳, 司馬相如傳, 張湯傳 등 4편, 권3은 嚴助傳, 楊惲傳, 霍光傳, 甘延壽陳湯傳, 兩龔傳(龔勝, 龔舍), 丙吉傳 등 6편, 권4는 趙廣漢傳, 蓋寬饒傳, 孫寶傳, 張禹傳, 史丹傳, 嚴延年傳, 趙皇后傳, 薛宣傳, 朱博傳, 郭解傳, 陳遵傳, 原涉傳 등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한 인물을 간략히 살펴보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 유방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었던 항적으로부터 한대의 사상가인 육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되었던 곽광, 왕을 보필하여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린 병길,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올곧은 지식인의 길을 걸어갔던 두명의 공씨인 공승과 공사, 혹독한 관리로 「혹리전(酷吏傳)」을 대표하는 인물인 엄연년, 황제의 후비와 친정가문에 대한 서술인 「외척전」 가운데 비천한 출신에서 황태후가 되었다가 서인으로 강등되어 자살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조황후 즉 조비연(趙飛燕) 등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일부 판심에 있어서 새겨진 정보와 새긴 방식이 특징적인데, 예를 들어 판심 부분을 파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어미, 판심제, 장차 등만을 음각으로 새겨놓는 경우이다. 또한 상상비(上象鼻)에는 편명과 관련된 인물 정보가 새겨진 경우도 확인된다.

본서와 같이 총목차나 권별목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판본이 유통되고 있어, 간혹 권1에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는 ‘항적전’을 서명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한 『한준』은 본서 이외에도 무구재古2520-44, 무구재古2520-48 등이 있다. 두 종의 무구재본은 목차가 확인되며 판식이 동일하다. 다만 본서와는 판심의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에 최소 2회 이상 『한준』이 판각된 것을 보여준다. 간행시기와 관련해서 『완영책판목록』의 전라도 장성부에 『한준』 책판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책판 목록이 편찬된 1759년 이전에 장성부에서 간행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두 종 중 어떤 판본인지는 알기 어렵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한서』를 선집해 놓은 역대 조선간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주석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서』 텍스트로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서』의 이해와 수용 방식을 살펴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김소희)

핵심어 한준(漢雋), 반고(班固), 한서(漢書), 열전(列傳), 선집본(選集本)

참고문헌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한초(漢草)

KOL000024932

한古朝57-나5

漢草 / 正祖(朝鮮) 御定

金屬活字本(丁酉字)

漢城 : 內閣, [正祖 21(1797)]

1冊(86張): 四周單邊 半廓 24.8 × 17.8 cm,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 34.8 × 21.9 cm

表題: 漢草

書根題: 漢艸

卷末: 鑄字事實

1. 개요

본서는 8권본 『사기영선(史記英選)』 가운데 『한서(漢書)』와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장정(裝幀)해 놓은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사기영선』은 당초 사마천의 『사기』 130권과 반고의 『한서』 120권을 대상으로 선집한 서적이다. 이 책은 정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선별하여 역사적 귀감을 삼게 하고, 문장의 법도를 보여주어 문풍을 쇄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1794년에 처음 편찬 논의를 시작한 후, 편집할 작품을 선정하고 서명(書名)을 결정하며 교정을 진행함으로써 1796년에 금속활자인 정유자로 인출되었다. 당시 편찬과 교정 및 간행에 참여한 사람은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이만수(李晩秀, 1752~1820), 이재학(李在學, 1745~1801), 이익진(李翼晉, 1750~1819),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등 당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당초 『사기영선』은 정조대에 추진했던 『주서백선(朱書百選)』(1794년), 『오경백편(五經百篇)』(1796), 『팔자백선(八字百選)』(1781)과 같이 일련의 선집본(選集本) 제작의 연장선 상에서 백선(百選)으로 기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분량이 많아지면 학자들이 읽지 않을 것을 우려하자, 채제공이 『사기』에서 60~70편을 선정하고, 『한서』에서는 약간만 뽑아 편찬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1796년 11월에는 『사기영선』의 교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마선(班馬選)』, 『사기영선한서부(史記英選漢書附)』와 같은 제목이 논의되었고, 동년 12월에 『사기』에서 본기 1편, 세가 2편, 열전 30편과 <태사공자서>를 선별하고 『한서』의 열전 8편을 첨부하여 초계문신들에게 교정하도록 한 후 8권으로 나누어 주자소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인출한 『사기영선』은 사기에서 34편이 한서에서 8편이 선별된 8권본이나 현전여부는 알 수 없다. 현전하는 8권본은 모두 2종인데, 사기에서 34편이 아닌 27편이 선별된 것으로 사기의 <흉노전>과 <태사공전>의 수록 순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기영선』은 초인(初印) 직후에 정조가 문자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 인출하였고, <흉노전>의 내용과 『한서』의 문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록순서가 변경되고 8권본의 권7~8에 위치하던 『한서』 부분이 제외되는 등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결국 일반적

으로 알려진 6권본 『사기영선』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출했던 권7~8 부분의 『한서』는 별도로 성책되어 본서와 같은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8권본 『사기영선』의 권7~8에 해당하는데, 판심에 인출된 권차(卷次)가 의도적으로 먹으로 지워져있다 원래의 목차에 따라 구성을 살펴보면 권7에는 소무전(蘇武傳), 이릉전(李陵傳), 곽광전(霍光傳), 하후승전(夏侯勝傳)이, 권8에는 위상병길전(魏相丙吉傳), 소망지전(蕭望之傳), 조충국전(趙充國傳), 매복전(梅福傳)이 실려있다. 본서의 구성도 권7~8의 순서와 동일하다. 매복전 뒤에는 갑인자의 주조 및 인본과 관련한 기록인 ‘주자사실(鑄字事實)’이 남아있는데, 서두에 세종조에 주조된 갑인자(甲寅字)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정조가 춘저(春邸) 시절에 제작한 오주갑인자인 임진자(壬辰字), 정조 원년에 제작한 육주갑인자인 정유자(丁酉字)의 주조와 인본 등을 기록하였다. 주자사실은 8권본 『사기영선』의 권말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형태서지적인 특징은 판심 부분에 인쇄되었던 내용이 의도적으로 먹으로 지워져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판심 상단 즉 상상비(上象鼻)에 인쇄된 ‘사기영선’, 어미 바로 아래에 인쇄된 ‘권칠(卷七)’ 또는 ‘권팔(卷八)’ 등 권차(卷次) 정보, 판심 아랫부분에 인쇄되는 ‘장차(張次)’에 대한 정보가 일률적으로 지워져있다.

현재 8권본 『사기영선』 정유자본은 2종이 남아있으며, 두 인본은 『사기』의 ‘흉노전’과 ‘태사공자서’의 유무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인본은 태사공자서가 권6 마지막에 위치하고, 흉노전이 소무전, 이릉전 다음에 나오는데 비하여, 두 번째 인본은 ‘흉노전’이 권6의 마지막으로 변경되고 ‘태사공자서’가 권7의 소무전 앞에 위치하게 된다. 그에 따라 소무전의 장차가 ‘일(一)’에서 ‘구(九)’로 밀려나게 된다.

본서의 처음에 위치한 ‘소무전’의 상상비에 ‘사기영선’이, 장차가 ‘구(九)’자가 새겨졌던 점과 흉노전이 누락되어 있는 점에서 두 번째 인본에서 분리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사기영선』(奎119-3)이다. 본서와 동일한 서적이 한초(漢艸) 또는 한서열전선(漢書列傳選)이란 각기 다른 제목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조선후기 『사기』와 『한서』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과 평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자, 정조대 학문과 문학 및 인쇄문화 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서적이다. 특히 『사기영선』의 편찬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김소희)

핵심어 한초(韓草), 한초(漢艸), 한서열전선(漢書列傳選), 정조(正祖), 사기영선(史記英選), 정유자(丁酉字), 주자사실(鑄字事實)

참고문헌

김소희, 『중국본 『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함벽당선생문집(涵碧堂先生文集)

KOL000027190

古朝46-가1391

涵碧堂先生文集 : 并附錄 / 柳敬時(朝鮮) 撰

木板本

[安東] : [發行處不明], 1818

4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0.5 × 15.7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3 × 20.7 cm

序: 聖上十八年戊寅(1818)...[柳]範休

藏書記: 秋岡軒藏(卷首)

印出記: 癸未(1823)五月日 自佳野印送(卷末)

印: 秋崗(鍾鼎形)

1. 개요

본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 류경시(柳敬時, 1666~1737)의 문집으로, 문인과 후손들이 그의 유문(遺文)을 모아 순조 23(1823)년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류경시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흠약(欽若), 호는 함벽당(涵碧堂)이다. 조부는 류송(柳嵩), 부친은 류동휘(柳東輝), 모친은 한양조씨(漢陽趙氏) 조정형(趙廷珩)의 딸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에 위치한 함벽당에서 성장하였고, 이유장(李惟樟)과 이현일(李玄逸)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숙종 21(1694)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예조좌랑·사헌부장령 등의 내직을 역임했고, 외직으로는 황해도사·평안도사·용강현령·한산군수·양양부사·순천부사 등을 역임했다.

권수에 수록된 류범휴의 서문에는 본서의 편찬 경위가 드러나 있다. 류경시는 본래 저술을 남기는 것을 즐기지 않아서 유문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문과 잡저가 약간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유문은 모두 전아하고 담박한 것들이고, 험괴(險怪)하거나 부염(浮艷)한 것 없이 참으로 인의(仁義)에서 나온 말들이었다. 류경시의 당종질(堂從侄)인 용와(慵窩) 류승현(柳升鉉, 1680~1746)이 류범휴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제1책의 권수에는 류범휴의 서문과 총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시 137수, 애사(哀辭)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소(疏) 4편, 서(書) 14편, 잡저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전(箋) 3편, 서(序)·제문(祭文) 11편, 행장(行狀)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 권4는 부록으로, 류경시 사후 문인과 지인, 후손이 쓴 제문·행장·유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의 표제(表題)는 ‘함벽당집(涵碧堂集)’, 권수제 및 판심제는 ‘함벽당선생문집(涵碧堂先生文

集)’이다. 표제 하단에는 ‘건(乾)·곤(坤)’으로 책차(冊次)가 필사되어 있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서뇌(書腦)에는 총책수 ‘공이(共二)’가 필사되어 있다. 권수에는 ‘추강헌장(秋岡軒藏)’, 권말에는 ‘추강장(秋岡藏)’이라는 장서기(藏書記)가, 각책 권말에는 ‘계미오월일자가야인송(癸未五月日自佳野印送)’이라는 인출기가 묵서되어 있다. 종정형(鍾鼎形) ‘추강(秋崗)’ 인장이 답인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안동의 인물인 함벽당 유경시의 유문을 모은 문집이다. 드물게 남아있는 유경시의 유고를 모은 책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추강헌(秋岡軒)이라는 인물이 소장했다는 기록과, 권말의 인출기 ‘계미오월일자가야인송(癸未五月日自佳野印送)’이라는 인출기를 통해 서문이 작성된 1818년 이후의 계미년인 1823년경 가야(佳野)에서 인출하여 추강헌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속하는 지역이다. 장서기와 인출기가 남아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김은슬)

핵심어 함벽당선생문집(涵碧堂先生文集), 류경시(柳敬時), 류범휴(柳範休)

항해조천록(航海朝天錄)

KOL000029739

古貴2817-1

航海朝天錄 : 花浦西征錄 / [洪翼漢(朝鮮)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705(肅宗 31) 以前]

航海朝天錄·花浦西征錄, 共1冊(57張): 插圖, 24.5 cm × 19.3 cm

1. 개요

조선 후기의 문신인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이 쓴 사행록인 『항해조천록(航海朝天錄)』과, 병자호란 때 평양서윤(平壤庶尹) 부임 길에 쓴 기록인 『화포서정록(花浦西征錄)』을 필사한 책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 홍익한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이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병자호란 삼학사(三學士) 중 한 사람이다. 조부는 홍애(洪礎), 부친은 진사 홍이성(洪以成)이며, 모친은 김림(金琳)의 딸이다. 이정귀(李廷龜)의 문인이며, 광해군 7(1615)년 생원이 되고 인조 2(1624)년 정시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1636년 청(淸)이 사신을 보내어 조선을 모욕한 일이 있었는데, 홍익한이 청의 사신들을 죽여 모욕을 씻자고 상소하였다. 그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두 아들과 사위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인과 며느리 또한 적에게 붙잡혀 자결하였다. 이듬해에 화의가 성립되자 청군(淸軍)의 화를 피하라는 조정의 권유로 평양부 서윤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홍익한은 청과의 화친을 배척한 인물로 지목되어 청나라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였다. 1653년 도승지, 1686년 이조판서, 1705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조선 후기의 문신인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이 동지사 서장관의 신분으로 명(明)에 다녀와서 1624년에 작성한 사행록인 『항해조천록』이 먼저 수록되어 있다. 1624년 4월, 성절 겸 동지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초5일로 끝맺고 있으며, 그 말미에는 4언시가 쓰여 있다. 1593년에 명말(明末)의 무장 이여송(李如松, 1549~1598)이 평양에 주둔할 때의 일을 적은 「제독이여송주문송원문(提督李如松奏聞訟冤文)」이 필사되어 있다. 이 글 뒤에는 ‘이 글이 비록 우리나라의 사실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 문집 안에 첨부한다.’는 문장이 본문과는 다른 필체로 적혀 있다.

그 뒤에는 병자호란 중인 1636년에 평양서윤(平壤庶尹) 부임 도중의 기록인 『화포서정록』이 수록되어 있다. 1636년 12월11일인 ‘병자십이월십일일신사(丙子十二月十一日辛巳)’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우측에는 ‘황명송정구년(皇明崇禎九年)’이라는 기록이 남서(藍書)되어 있다. 정월30일 기사가 마지막으로 필사되어 있고, 권말에 주서로 ‘이월초일일신미 차하결(二月初一日辛未 此下缺)’이 필사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는 '조천록(朝天錄)'이다. 『항해조천록』, 『화포서정록』 모두 계선이 없는 백지에 10행 20자로 필사되어 있고, 주묵(朱墨)·남묵(藍墨)으로 교정되어 있다. 탈자나 교정사항이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빠진 내용을 해당 부분의 우측에 필사하였다.

본서에는 날짜가 바뀔 때 '○'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1709년에 홍우석(洪禹錫)이 지례현(知禮縣)에서 간행한 목판본 『조천항해록』에는 구분 표시나 단락을 바꾸지 않고 이어져 있다. 목판본 『조천항해록』의 마지막 기록이 12월 29일인 것과 달리 5·6·10월중의 기사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10월 초5일에서 끝난다.

목판본 『화포서정록』은 본서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1636년 12월 11일~정월 30일까지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나, 권말의 주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서의 권말에는 '○ 平行下一字', '§ 平行下二字' 등 교정기호에 대한 범례가 적혀 있어 본서가 교정본임을 알 수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병자호란 삼학사 중의 하나인 홍익한의 『항해조천록』과 『화포서정록』을 필사한 책이다. 본서는 교정본으로 추정되며, 교정 내용은 간혹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목판본의 내용이 더 풍부한 것으로 보아 본서를 저본으로 한 판하본(版下本)을 따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천항해록』과 『화포서정록』의 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은슬)

핵심어 홍익한(洪翼漢), 『항해조천록(航海朝天錄)』, 『화포서정록(花浦西征錄)』, 『조천항해록(朝天航海錄)』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KOL000022936

古朝57-가7

海東名將傳 / 洪良浩(1724-1802) 編

木活字本(金陵聚珍字)

漢城: 四宜堂, 純祖 16(1816)

6卷3冊(完帙) : 四周單邊 半郭 22.1 × 15.0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32.3 × 20.0cm

裏題: 海東名將傳

版心題: 名將傳

所藏本: 冊1(卷1-2), 冊2(卷3-4), 冊3(卷5-6)

刊記: (裏題面)丙子新刊 / 四宜堂藏

序: 天下之大業二文與武而已...甲寅(1794)仲春耳溪洪良浩(1724-1802)序

印: (印刷) 大家宰典文衡, 洪良浩印

1. 개요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은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옛 일을 거울삼아 후세의 교훈을 삼고자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 인조대에 이르기까지 명장(名將) 54인의 전기를 골라 모은 후 순조 18(1816)년 목활자(木活字)인 금릉취진자(金陵聚珍字)를 사용하여 간행한 6권 3책의 목활자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홍양호의 처음 이름은 양한(良漢)인데 1777년에 이름을 양호(良浩)로 바꾸었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溪)이며 부친은 홍진보(洪鎭輔)와 모친은 청송심씨(靑松沈氏)이다. 1747년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1752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754년 경시관으로 전라도 지방에 내려갔을 때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을 만나 이로부터 평생 교유했다. 이후 경주부윤, 홍주목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다가 1777년 홍국영의 배척을 받아 경흥부사로 좌천되었다. 1780년 홍국영이 실각한 뒤 조정으로 돌아와 병조참판·공조참판·형조참판·호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1801년 판중추부사로 물러났다가 79세 때인 1802년에 세상을 떠났다. 1806년에 문헌(文獻)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1843년 손자 홍경모(洪敬謨)가 『이계집(耳溪集)』과 『이계외집(耳溪外集)』을 간행하였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영조실록』, 『국조보감』, 『갱장록(羹牆錄)』, 『동문휘고(同文彙考)』를 비롯한 각종 편찬사업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관의 지침서인 『목민대방(牧民大方)』 및 『육서경위(六書經緯)』, 『군서발배(群書發排)』, 『해동명장전』, 『고려대사기(高麗大事記)』, 『흥왕조승(興王肇乘)』, 『북새기략(北塞記略)』, 『향약절중(鄉約折中)』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본서의 서문에서 천하를 운용하는 두 축은 문(文)과 무(武)라고 천명한다. 그리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외적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는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국방을 소홀히 하여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굴욕을 당했다고 개

탄하면서 역대 장수들의 분투(奮鬪) 기록을 널리 전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편찬 의도를 밝히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해동명장전』은 서문과 권1-6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이 책의 간행 배경을 수록해 놓았는데,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하의 대법(大法)은 문(文)과 무(武) 두 가지 뿐으로, 이 중 하나라도 폐할 수는 없다. 몽고군의 침입, 임진왜란 등을 겪으며 팔도가 붕괴된 것은 지나치게 문치(文治)를 앞세우고 무(武)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 일을 거울 삼아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이름난 장수들에 대한 전기를 쓴다고 했다.

본문 권1은 신라편(新羅篇)·고구려(高句麗篇)·백제편(百濟篇)과 고려편(高麗篇)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권2에서 권3까지는 고려편이고, 권4는 고려편과 조선편(朝鮮篇)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권5부터 권6까지는 조선편이다.

권1에 수록된 신라의 장수는 김유신(金庾信)·장보고(張保臯)·정년(鄭年)·심나(沈那), 고구려의 장수는 부분노(扶芬奴)·을지문덕(乙支文德)·안시성주(安市城主), 백제의 장수는 흑치상지(黑齒常之), 고려의 장수는 유금필(庾黔弼)·강감찬(姜邯瓚)·양규(楊規)·윤관(尹瓘)이다. 권2부터 권4까지 수록된 고려 장수는 오정용(吳廷龍)·김부식(金富軾)·조충(趙冲)·김취려(金就礪)·박서(朴犀)·송문부(宋文胄)·김경손(金慶孫)·이자성(李子晟)·김방경(金方慶)·한희유(韓希愈)·원충신(元冲甲)·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정세운(鄭世雲)·정지(鄭地)·최영(崔瑩) 등이다. 권4부터 권6에 수록된 조선 장수는 곽재우(郭再祐)·정문부(鄭文孚)·황진(黃進)·휴정(休靜)·유정(惟政)·영규(靈圭)·김시민(金時敏)·이정(李廷)·임중량(林仲樑)·김덕령(金德齡)·정충신(鄭忠信)·김응하(金應河)·김응해(金應海)·임경업(林慶業)·정봉수(鄭鳳壽)·유림(柳琳) 등이다.

수록된 인물들은 관리를 비롯하여 의병장과 승병(僧兵)도 포함되어 있다. 서술방법은 해당 인물의 자호(字號)를 서두에 밝히고, 조상의 내력, 평소의 행적 및 전공을 기술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본문 및 후반부에는 당시의 정치상황을 설명하거나 작자의 평가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홍양호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관찬(官撰) 사서(史書)를 비롯하여 사찬(私撰) 사서, 개인 문집, 실기(實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문에 『삼국사기(三國史記)』, 『동국통감(東國通鑑)』,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의 서적이 인용된다는 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4. 서지적 특징

『해동명장전』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면(裏題面)에는 이제(裏題)와 간기[丙子新刊] 그리고 책판의 소장처인 사의당장(四宜堂藏)이 인쇄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병자년(丙子年)인 1816년에 본서를 간행한 다음 사의당(四宜堂)에 책판(冊板)을 보관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권수면(卷首面)에는 홍양호가 1794년 쓴 서문 있는데, 서문 말미에 ‘홍양호인(洪良浩印)’, ‘대가장전문형(大家章典文衡)’이라는 목각인기(木刻印記)가 있다. 1816년 간행한 『해동명장전』은 국내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해외의 경우 일본 동양문고,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책을 간행하는데 사용된 취진자(聚珍字)는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1815년경 중자(中字)와 소자(小字) 크기의 목활자로 만든 것이다. 한편 ‘취진자’라는 명칭에 대한 여러 이견(異見) 있어서 ‘금릉집자(金陵集字)’, ‘취진목활자(聚珍木活字)’, ‘금릉필서체자(聚珍筆書體字)’, ‘금릉취진자金陵聚珍字’ 등으로 지칭되어 졌다. 취진자는 대략 20여년간 사용되었는

데, 현재까지 알려진 인본(印本)으로는 1815년 이 활자를 사용하여 가장 먼저 남공철의 문집인 『금릉집(金陵集)』이 간행되었고, 이후 1816년 『해동명장전』, 1832년 홍현주(洪顯周, ?~1865)의 『하해거재시초(海居齋詩鈔)』와 이봉환(李鳳煥, ?~1770)의 『우념재시초(雨念齋詩鈔)』, 1834년 남공철의 『귀은당집(歸恩堂集)』 그리고 1838년 서명은(徐命膺, 1716~1787)의 『보한재집(保晩齋集)』이 마지막으로 간행이 되었다.

5. 종합평가

조선은 개국 초부터 숭문(崇文) 정책을 실시하여 무신(武臣)보다는 문신들을 우대하였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문(文)과 무(武)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적 가운데 오로지 무장(武將)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傳記)를 선집(選集)한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임영현)

핵심어 홍양호(洪良浩), 이계(耳溪), 금릉취진자(金陵聚珍字), 목활자(木活字)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KOL000023772

한古朝21-172

現行西方經 / 元岳(高麗) 錄

木板本

河東 : 雙磎寺, 肅宗 35(1709)

不分卷1冊(47張):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0.1 × 14.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4 × 19.3 cm

表題: 現行經

版心題: 現行懺, 現行經

刊記: 康熙己丑(1709)冬嶺南江右河東雙磎寺開刊

跋: 崇禎後甲午(1654)一菴萬廻

跋: 皇明正統十三年戊辰(1448)正月日禪判都大禪師少言

1. 개요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은 고려 충렬왕(忠烈王) 24(1298)년에 고려의 승려 원참(元岳)이 편찬한 정토(淨土)신앙 및 밀교(密敎, 불교의 종파 중 하나로 진언, 수인, 만다라 등의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현재 몸으로 부처가 된다는 즉,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종파)와 관련 있는 불서(佛書)로 대표적인 위경(僞經, 인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짓 경전)이다. 원참이 영천(永川) 거조사(居祖寺)에서 신승(神僧, 신이한 승려) 낙서(樂西)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모아 놓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서명인 『현행서방경』에서 ‘현행’은 현행법(現行法) 즉 현재의 육체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밀교 수행법을, ‘서방’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있다는 극락(極樂)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서방경』이라는 서명의 의미는 극락정토(極樂淨土)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밀교 수행법을 담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현행서방경』은 원참이 고려 충렬왕 24(1298)년 1월 어느날 밤에 영천 거조사에서 만난 신승 낙서와 나눈 대화를 모아서 편찬했다고 알려진 책이다. 『현행서방경』을 편찬한 원참을 고려 충렬왕 대에 활동하였던 승려로 영천 거조사에서 머물렀다는 행적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승려이다. 다만 지눌(知訥, 1158~1210)이 활동하였던 영천 거조사에 머물렀다는 점, 『현행서방경』 내용 중에 선종(禪宗, 불교의 종파 중 하나로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통해서 선종과 관련 있는 승려로 추정하기도 한다.

본서의 뒷부분에 수록한 조선 승려 초언(少言)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24(1298)년 1월 어느날 밤 영천 거조사에서 염불수행 중이던 원참의 앞에 신승 낙서가 홀연히 나타나서 현행법을 전해주고 사라졌는데, 이에 원참이 낙서와 나눈 대화와 현행법을 기록하여 『현행서방경』을 편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3. 구성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에는 원참과 신승 낙서가 거조사에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변상도(變相圖)와 조선 승려 명안(明眼, 1646~1710)이 현행법과 관련한 의식을 정리한 「현행법회에참의식(現行法會禮懺儀式)」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본문은 「불설아미타본심미묘진언(佛說阿彌陀本心微妙眞言)」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점찰(占察, 불교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기 위해 자신이 지은 선악의 업보를 점치는 의식)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점찰에는 ‘나무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 재문어이즉왕생 여제중성동유희 여래대지복덕해 일시분부송지자(南無阿彌陀佛 本心微妙眞言 才聞於耳卽往生 興諸衆聖同遊戲 如來大智福德海 一時分付誦持者)’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글자를 나무로 만든 패에 적은 후 섞은 다음 무작위로 뽑는 형태로 점찰을 시행하였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간행 관련 기록 및 시주자(施主者) 등 간행 참여자 명단, 효종(孝宗) 5(1654)년에 만회(萬廻)가 쓴 발문, 세종(世宗) 30(1448)년에 초언이 쓴 발문, 역대 『현행서방경』 간행 연혁을 순서대로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불설아미타본심미묘진언」의 공덕과 ‘나무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 재문어이즉왕생 여제중성동유희 여래대지복덕해 일시분부송지자’가 적힌 표찰을 뽑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점괘 및 과보를 수록하였다.

4. 서지적 특성

본문의 뒷부분에 ‘강희기축동영남강우하동쌍계사개간(康熙己丑冬嶺南江右河東雙溪寺開刊)’이라는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숙종(肅宗) 35(1709)년에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행 관련 기록 앞부분에 시주자 등 간행 참여자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서 쌍계사 간행 불사 참여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로 본서의 가장 뒷부분에 역대 『현행서방경』 간행 연혁을 수록하고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자신의 과보를 점치는 점찰 의식과 연관이 있는 불서로써 조선시대 사찰에서 행해졌던 점찰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정토신앙과 밀교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불서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후기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영정)

핵심어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정토신앙(淨土信仰), 점찰(占察), 원참(元昞)

참고문헌

남동신, 「麗末鮮初의 僞經 研究 : 『現行西方經』의 分析을 中心으로」, 『韓國思想史學』 제24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라정숙, 「고려후기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찬술과 아미타정토신앙」, 『韓國思想史學』 제5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8.

현헌선생화도시(玄軒先生和陶詩)

KOL200600017

古3644-524

玄軒先生和陶詩 / 申欽(朝鮮) 著 ; 李命俊(朝鮮) 重刊

木板本

江陵 : 江陵府, 仁祖7(1629)

不分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2 × 13.3 cm, 有界, 8行16字, 無魚尾 ; 25.6 × 17.2 cm

序: 萬曆歲丁巳(1617)...玄翁

[跋]: 翊聖

1. 개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신희(申欽, 1566~1628)의 시문집으로 『상촌선생집(象村先生集)』 권21에 수록된 화도시(和陶詩)만을 뽑아 1629년 이명준(李命俊, 1572~1630)이 강릉(江陵)에서 간행한 1책의 목판본(木板本)이다. 서명의 ‘현헌(玄軒)’은 신희의 호이다. ‘화도시(和陶詩)’의 ‘도(陶)’는 중국 고대 시인 도연명(陶淵明)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도시는 도연명의 시에 화답한다는 뜻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신희의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이다. 상촌(象村)·현옹(玄翁)으로 불리기도 하며 문정(文貞)이라는 시호(諡號, 사망 후 공덕을 칭송하여 임금이 내린 이름)를 받았다. 부친은 신승서(申承緒), 모친은 은진송씨(恩津宋氏)로 송기수(宋麒壽)의 딸이다. 송인수(宋麟壽)와 이제민(李濟民)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1586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병조좌랑(兵曹佐郎), 지제교(知製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발문을 쓴 아들 신익상이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하자 동부승지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저자인 신희가 1617년에 작성한 서문(序文)과 아들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작성한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신익성은 발문에서 ‘잠와 이공이 명주에서 복각하였다(潛窩李公復刻於溟州)’라 하였는데, 잠와 이공은 이명준으로 신희의 처남이며, 명주는 현재의 강원도 강릉이다. 이명준의 문집 『잠와유고(潛窩遺稿)』에 의하면 1629년에 본서를 간행하였다고 되어있다(己巳崇禎二季...刊玄軒和陶詩).

신희는 본서를 비롯하여 문집 『상촌선생문집(象村先生文集)』과 『야언(野言)』, 『낙민루기(樂民樓記)』, 『고려태사장절신공충렬비문(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碑文)』 등을 남겼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저자인 신희는 서문, 본문, 신익성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신희가 쓴 것이고 발문은 쓴 신익성은 신희의 아들이다. 본문은 4언시(言詩)와 5언시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는데 여러 편의 시가 같은 제목인 경우 시문을 구분하지 않고 줄글로 이어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언시는 ‘정운(停雲)’ 4편, ‘시운(時運)’ 4편, ‘답방참군(答龐參軍)’ 6편, ‘권농(勸農)’ 6편으로 총 20편이 수록되어 있다. 5언시는 ‘형증영(形贈影)’, ‘영답형(影答形)’, ‘신석(神釋)’, ‘구일한거(九日閑居)’, ‘귀전원거(歸田園居)’ 6편, ‘유산천(遊斜川)’, ‘시주연(示周掾)’, ‘걸식(乞食)’, ‘원시초조시방참등치중(怨詩楚調示龐參軍鄧治中)’, ‘답방참군’, ‘화대주부(和戴主簿)’, ‘화련우역구유(和連雨憶舊遊)’, ‘이거(移居)’ 2편, ‘화유시상(和劉柴桑)’, ‘수유시상(酬劉柴桑)’, ‘화곽주부(和郭主簿)’ 2편, ‘송객(送客)’, ‘여은진안별(與殷晉安別)’, ‘증양장사(贈羊長史)’, ‘화장상시(和張常侍)’, ‘화호서조(和胡西曹)’, ‘시작진군참군경곡아(始作鎮軍參軍經曲阿)’, ‘강릉야행도중(江陵夜行途中)’, ‘회고전사(懷古田舍)’ 2편, ‘을사세삼월(乙巳歲三月)’, ‘환구거(還舊居)’, ‘기유구월구일(己酉九月九日)’, ‘경술구월중어서원확조도(庚戌九月中於西園穫早稻)’, ‘병진팔월중어하손전사확(丙辰八月申於下澗田舍穫)’, ‘음주(飲酒)’ 20편, ‘의고(擬古)’ 9편, ‘잡시(雜詩)’ 11편, ‘빈사(貧士)’ 7편, ‘형가(荊軻)’, ‘독산해경(讀山海經)’ 13편, ‘지주(止酒)’, ‘귀거래사(歸去來辭)’로 모두 100편이다. 4언시와 달리 5언시에는 제목 아래에 ‘육수(六首)’와 같이 수록된 시의 편수를 기재하였고 다른 시가 시작될 때마다 행(行)을 바꾸어 기재하였다. 본서에는 ‘독산해경’ 다음에 ‘지주(止酒)’가 수록되어 있지만 『상촌선생문집』에는 ‘의고’ 다음에 ‘지주’가 수록되어 있어 수록 순서에 차이가 있다.

4. 서지적 특성

책의 표지에는 ‘화도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에 기재된 서명은 ‘현헌선생화도시’이다. 서문의 첫 번째 면 하단과 발문의 마지막 면 하단에 인장이 답인되어 있는데 먹으로 지워 확인할 수 없다. 글자체가 독특하며 이체자(異體字)를 다수 사용하였고, 마치 붓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판심(版心, 책장을 접어 양면으로 나눌 때 접힌 부분)에는 ‘화도시’라 적고 아래에는 면장수를 한자로 기재하였다. 면장수의 경우, 5언시를 시작하는 면부터 다시 ‘일(一)’로 시작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신희의 문집 『상촌선생문집』 가운데 권21에 수록된 ‘화도시’만으로 만든 책이다. 서명은 신희의 호를 붙여 ‘현헌선생화도시’라고 하였으며, 본문의 독특한 서체가 흥미롭다. 이는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신희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신희가 서문에 의하면 그는 조정에서 두 번째 축출되어 책을 읽으며 지내는 중에 소식이 도연명의 시에 화답한 시를 보고 감흥이 일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본서의 간행은 신희의 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의 막내 남동생인 이명준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신희와 이명준은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신희가 쓴 서문 내용과 평소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 온 처남 이명준에 의하여 유독 ‘화도시’만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한 것을 미루어 보면 ‘화도시’에 대한 신희의 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임영현)

핵심어 신희(申欽), 신익성(申翊聖), 이명준(李命俊), 화도시(和陶詩), 도연명(陶淵明), 상촌선생문집(象村先生文集)

협길통의(協吉通義)

KOL000021634

한古朝19-2

協吉通義 : (并)附錄 / 閔鍾顯(朝鮮)...等奉勅編

木板本

漢城: 雲觀(觀象監), 正祖 19(1795)

22卷10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1.2 × 14.7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 33.3 × 21.8 cm

奉教纂輯閔鍾顯等諸臣職名(卷首)

序: 上之十九年(1795)...徐有防

1. 개요

『협길통의』는 정조(正祖) 19(1795)년에 민종현(閔鍾顯, 1735~1798), 심이지(沈頤之, 1735~1795), 서유방(徐有防, 1741~1798) 등이 왕명으로 일상생활에서 길흉을 가리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중국의 『상길통서(象吉通書)』와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 등을 참고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다. 서명의 ‘협길(協吉)’은 이 두 책에서 각각 따온 것이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는 국가와 백성의 대사(大事)를 정하는데 참고할 통서(通書)를 편찬하라는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국초부터 국가의 중요 행사와 개인의 일상에 택일을 중요시하였고, 세조 때에는 이순지가 『선택요략(選擇要略)』을 편찬하여 택일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시(時)와 일(日)의 선택에 대한 새로운 택일서 편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러 저술 가운데 위감(魏鑑)의 『상길통서』와 매곡성(梅穀成)의 『협기변방서』가 가장 조리를 갖춘 책이라고 하며 민종현 등에게 이 두 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한 책의 편찬을 지시하였다. 정조 19(1795)년 서운관(書雲觀, 조선 시대 천문(天文)·지리(地理)·역수(曆數)·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22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은 첫머리에 서문, 범례(凡例), 총목 및 권1~2 본원(本原), 제2책과 3책에는 권3~7 의례(義例), 제4책에는 권8~9 공규(公規)와 권10~11 용사(用事), 제5책부터 7책까지는 권12 의기(宜忌), 권13~14 입성(立成), 권15~18 이용(利用), 제8책부터 10책까지는 권19 총론(總論), 권20 변위(辨僞), 권21~22 부록(附錄)이 수록되어 있다. 택일(擇日)의 기본원리와 방법에 대해 수록하고 있는 본서는 체제와 내용에 있어 『협기변방서』와 『상길통서』 뿐만 아니라 『천기대요』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4. 서지적 특성

판심의 상단에는 서명이, 중앙에는 권차와 편명이 새겨져 있다. 본문에 하도(河圖), 낙서(洛

書), 선천팔괘(先天八卦) 등의 삽도가 있다. 범례(凡例) 다음에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로 본서의 찬집(纂輯)을 책임진 민종현(閔鍾顯)을 비롯하여 교정(校正)을 맡은 심이지(沈頤之)와 서유방(徐有防), 휘편(彙編)과 감인(監印)을 담당한 지일빈(池日賓), 지경철(池景喆), 지경필(池景泌), 전종주(全宗周) 등 편찬에 참여한 관원 15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협길통의』는 중국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797년부터 명과학의 시강(試講) 과목으로 채택되어 활용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택일은 당시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선 시대 생활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임미정)

핵심어 협길통의(協吉通義), 상길통서(象吉通書),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

참고문헌

전용훈, 「정조대의 曆法과 術數學 지식: 『千歲曆』과 『協吉通義』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4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혼계선생언행록(渾溪先生言行錄)

KOL000024497

한古朝57-가105

渾溪先生言行錄 / 李廷實(朝鮮) 編

金屬活字本(整理字體鐵活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哲宗 1(1850)序

2卷1冊: 世系圖, 四周單邊 半廓 24.4 × 17.1 cm, 10行20字, 注雙行, 下上向2葉花紋魚尾 ; 34.2 × 21.9 cm

表題: 渾溪言行錄(全)

版心題: 渾溪先生言行錄

被傳者: 李瑄(1518~1577)

序: 上之元年庚戌(1850)...許傳

跋: 李廷斗

1. 개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혼계(渾溪) 이관(李瑄, 1518~1577)의 언행과 유사(遺事)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8세손 이정실(李廷實, 1802~?)이 역사 기록 및 가승(家乘)에서 그 기록을 수집하고 문인들이 교감하여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저자인 이관의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혼계(渾溪)이다. 세종의 아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璿)의 증손이다. 부친은 희안군(喜安君)이며, 모친은 남원윤씨(南原尹氏) 윤운(尹雲)의 딸이다. 순천군(順天君)에 봉해졌다. 『소학』·『가례』에 따라 부모의 상례를 행하는 등 예학에 근거한 삶을 실천하였다. 1559년(명종 14) 경연관 박응남(朴應男)이 그의 효행과 학문을 높이 평가하여 천거하여 엮고 상례부정(부정)을 제수받았다. 그 뒤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상례에 참여하였다.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소학』·『가례』·『논어』를 통하여 학문의 기초를 삼게 하였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3. 구성 및 내용

권수에는 1850년에 허전(許傳, 1797~1886)이 쓴 서문과 혼계선생세계도(渾溪先生世系圖),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이관이 직접 작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례홀기(祭禮笏記)」가 수록되어 있다. 세세한 절목과 찬품(饌品), 진설도(陳設圖)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2에는 「향당이효행실적정예조문(鄉黨以孝行實蹟呈禮曹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관의 평소 효행에 관련된 행실을 적어 효자에 정려해줄 것 것을 예조에 알리는 문서로,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인 권반(權盼)이 1612년에 작성하였다. 「훈도방주자동지입전(薰陶防鑄字洞志立傳)」은 봉작(封爵)과 정려를 내려달라는 글로, 1577년에 남악(南岳)이 쓰고 박승종(朴承宗, 1562~1623)이 서문을, 김질(金絰+父)이 발문을 작성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자도(孝子圖) 중에 있는 「순천효우(順川孝友)」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관

에 대한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과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성호선생설(星湖先生說)』에서 이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을 수록하고 있다. 그 뒤에는 1576년에 문인(門人) 정숙도(鄭淑度) 등이 쓴 「혼계선생묘갈명(渾溪先生墓碣銘)」과 『문인록』에 수록된 이관에 대한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1850년에 이관의 8세손인 이정두가 쓴 발문이 있다.

4. 서지적 특성

표제는 ‘혼계언행록(渾溪言行錄)’, 권수제 및 판심제는 모두 ‘혼계선생언행록(渾溪先生言行錄)’이다. 어미의 형태는 하상향2엽화문어미(下上向2葉花紋魚尾)인데, 이는 판심제가 길기 때문에 상어미를 넣을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 전기의 문신인 혼계 이관의 언행록을 후대에 간행한 것이다. 후대 간본이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이 많이 민멸된 상황에서 선조의 언행에 대한 기록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동유사우록』 등에서 찾아 수록하고 상세히 주석을 달아 내용을 보충하였다. 임진왜란 이전 인물인 혼계 이관에 대한 정보와 그 인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 (김은슬)

핵심어 혼계선생언행록(渾溪先生言行錄), 이관(李瑄), 효자(孝子),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화동효열록(華東孝烈錄)

KOL000022925

한古朝57-3

木活字本

華東孝烈錄 / 崔鍾和 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908

5卷3冊 : 四周單邊 半郭 22.5 × 15.3 cm, 10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8.7 × 18.9 cm

跋: 戊申(1908)...宋炳俊

序: 疆圉協洽(1907)...田愚

印: 金魯東印, 聖九, 永嘉, 明窓馮几

1. 개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최종화(崔鍾和, 1859~1918)가 효자와 열녀의 행적을 중국편(中國編)과 동국편(東國編)으로 나누어 편찬한 책이다. 본서는 1908년경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화동효열록』을 편찬한 최종화의 자는 봉여(鳳汝), 호는 송암(松菴), 본관은 강화(江華)이다. 부친은 최한교(崔翰教), 모친은 전주최씨(全州崔氏) 최태형(崔台衡)의 딸이다. 1859에 충남 연기 동리(桐里)에서 태어났다. 1891년경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하생이 되었다. 저술로는 『도통록(道統錄)』, 『화동충의록(華東忠義錄)』, 『화동효열록(華東孝烈錄)』 등의 간행본과, 『사례문해(四禮問解)』, 『사우록(師友錄)』, 『안증합편(顔曾合編)』, 『유고(遺稿)』 등이 있다.

최종화의 스승인 전우(田愚)가 1907년에 쓴 서문에는 이 책의 편찬 경위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성현들이 입교(立教)의 근본이라고 여겼던 충효(忠孝)와 절열(節烈)의 행적이 있었던 인물의 일화를 수집하여 편찬하였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계도하려는 목적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을 간행하기 이전인 1905년에 최종화가 편집·간행한 『화동충의록』과 같은 형식으로 편집하고, 최종화의 동지인 최덕기(崔德基), 조종율(趙鍾律), 류익열(劉益烈)이 사비를 들여 간행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제1책 권수에는 1907년에 간재 전우가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권수제 하단에는 ‘화산최종화봉여편집(華山崔鍾和鳳汝編輯)’이라는 저작자와 역할어가 기재되어 있다. 권1은 중국의 효자편으로, 유우(有虞)부터 명대(明代)에 이르기까지의 효자 91인을 수록하고 있다. 권2는 동국의 효자편으로,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효자 205인을 수록하였다. 제2책 권3은 조선조의 효자 251인을 수록하였다. 제3책 권4는 중국의 열녀편으로, 유우부터 대명까지의 열녀 61인을 수록하였다. 권5는 동국의 열녀편으로,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열녀 170인을 수록하고 있다. 인물이 바뀔 때 단락을 나누고 원점 ‘○’을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인물에 대한 설명 뒤에 ‘중화왈(鍾和曰)’·‘중화찬왈(鍾和贊曰)’ 등으로 시작하는 편자의 안설(案

說)은 단락을 나누고 한 글자 낮추어 기록하였다. 권말에는 송병준(宋炳俊)이 1908년에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백색의 만자문(卍字紋) 표지로 장황하였다. 표제 및 권수제, 판심제는 모두 ‘화동효열록(華東孝烈錄)’이다. 표제 하단에는 책차(冊次)가 ‘천(天)·지(地)·인(人)’으로 필사되어 있다. 표지 우측상단에는 편제(篇題)가, 서뇌(書腦)에는 총책수가 ‘공삼(共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각 책 권수면에는 이전 소장자의 장서인을 도려내고 다른 종이를 덧댄 흔적이 있다. 그 위에 ‘김노동인(金魯東印)’, ‘성구(聖九)’, ‘영가(永嘉)’ 인장이 답인되어 있다. 권말에는 ‘명창빙궤(明窓馮几)’ 인장이 답인되어 있다.

5. 종합 평가

본서는 조선의 초학자들에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물 중 충효(忠孝) 및 절조(節操)·열행(烈行)의 행적을 알리고자 편찬한 책이다. 최종화가 1905년에 편집하여 봉성(鳳城)에서 간행한 『화동충의록』에서 먼저 충효에 관련된 인물을 언급하였다. 1908년에 간행한 『화동효열록』은 그 후속편에 해당하는 책이다. 대한제국기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간행된 책으로, 그 교육사적 의미가 충분하다. (김은슬)

핵심어 화동효열록(華東孝烈錄), 화동충의록(華東忠義錄), 최종화(崔鍾和)

참고문헌

성봉현, 「日帝時期 文集刊行과 出版檢閱 - 『松菴集』을 中心으로」, 『서지학보』 31, 한국서지학회, 2007.

황명조령(皇明詔令)

KOL000025788

한古朝31-19

皇明詔令 / 傅鳳翱(明) 編

金屬活字本(再鑄整理字)

漢城 : [發行處不明], 19世紀

21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22.8 × 16.2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32.3 × 20.8 cm

表題(題簽): 皇明詔令

版心題: 皇明詔令

印: 集玉齋

1. 개요

본서는 홍무(洪武) 1(1368)년부터 가정(嘉靖) 18(1539)년까지의 명나라 황제들의 조령집(詔令集)을 모아 편찬한 책을 조선에서 다시 재판하여 고종 3(1866)년에 금속활자인 재주정리자로 인출하였다. 천자의 명령은 조(詔)라 하고 제후·황후·태자의 명령은 령(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황명조령』은 명나라 천자와 제후·황후·태자 등이 내린 명령을 모아놓은 책임을 알 수 있다.

2. 저자사항 및 편찬경위

본서의 편자와 관련해서는 장부(張溥, 1602~1641)라는 설과 부봉상(傅鳳翱, 1487~1551)이라는 설이 있다. 대체로 국내의 서지기록에는 장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알 수 없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편자를 알 수 없으나 가정연간(1522~1566)의 인물로 추정하였고, 『중국선본서제요(中國善本書提要)』에서는 다양한 문헌을 근거로 부봉상이 편찬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참고한 문헌은 황신(黃臣)의 서(序), 『응산현지(應山縣志)』, 『징헌록(徵獻錄)』, 『절강통지(浙江通志)』, 『국조열경기(國朝列卿記)』 등이다.

편자로 추정되는 부봉상은 명대 정치가로 자가 덕휘(德輝), 호가 응태(應台) 또는 인태(印台)로, 호광(湖廣) 덕안부(德安府) 수주(隨州) 응산현(應山縣) 사람이다. 1523년에 진사가 되어 채현(蔡縣)의 지현(知縣)이 되었다. 1528년(가정 7)에 복건도(福建道) 시감찰어사(試監察御史)를 거쳐 1539년에 절강(浙江) 순안어사(巡按御史)에서 복건(福建) 안찰사부사사(按察使司副使)로 승진하였다. 1550년에 공부(工部)와 호부(戶部)의 우시랑(右侍郎) 등을 거쳐 1551년에 협리경영(協理京營戎政)에 이르렀다.

서발문이 없어 편찬경위는 알기 어렵다. 다만 편찬시기와 관련해서는 본서의 권19~21에 ‘금성상황제(今聖上皇帝)’라고 판각한 점과 마지막 조령인 「선유승천부백성(宣諭承天府百姓)」이 1539년 3월에 반포된 점으로 보아 1539년부터 ‘금성상’ 즉 세종이 사망한 1567년 이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내용

본서의 구성은 1368~1539년에 반포한 조령 460편을 황제순으로 권차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황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3은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 때의 조령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유중원격(諭中原檄)」, 「우변성궁지(遇變省躬旨)」, 「등극조(登極詔)」 89편을 수록했다. 권4~6은 성조문황제(成祖文皇帝)의 조령으로 상은 「즉위조(即位詔)」, 봉상공신제(封賞功臣制) 등 66편, 권7은 인종소황제(仁宗昭皇帝)의 조령으로 「사표청즉위령(辭表請即位令)」, 재사표청즉위령(再辭表請即位令) 등 15편, 권8~9은 선종장황제(宣宗章皇帝)의 조령으로 「사청즉위령(辭請即位令)」, 「유예부택일구즉위의령(諭禮部擇日具即位儀令)」 등 63편이다. 권10~11은 영종예황제(英宗睿皇帝)의 조령으로 「사청즉위령(辭請即位令)」, 「재사청즉위령(再辭請即位令)」 등 49편, 권12는 경황제(景皇帝)의 조령으로 「태후유성왕감국칙(太后諭廢王監國勅)」 등 19편, 권13~14는 복위한 영종예황제의 조령으로 「복등극대사초(復登極大赦詔)」 등 34편이다. 권15~16은 헌종순황제(憲宗純皇帝)의 조령으로 「등극개원대사조(登極改元大赦詔)」 등 63편, 권17은 효종경황제(孝宗敬皇帝)의 조령으로 「사청즉위령(辭請即位令)」 등 22편, 권18은 무종의황제(武宗毅皇帝)의 조령으로 「즉위대사조(即位大赦詔)」, 「존시조(尊諡詔)」 등 19편, 권19~21은 금성상황제 즉 세종숙황제(世宗肅皇帝)의 조령으로 「즉위대사조」 등 21편이다. 권두에 있는 총목차에는 해당 조령명 아래에 반포한 날짜를 소자로 기재하고 있다.

4. 서지적 특성

본서는 1858년에 새로 주조한 재주정리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으로,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集玉齋)’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서의 인출시기는 오사카 부립도서관 소장본에 “光武二年(1898)八月日 弘文館學士尹宇善內賜皇明詔令一件命除謝恩秘書院卿臣李[手決]”의 내사기가 보이는 점에서 1858년에서 1898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본서 이외에도 재주정리자본인 일산古6022-44와 古616-5가 소장되어 있다. 전자는 권17-18만 남은 영본(零本)이며, 후자는 21권10책의 완질본으로 ‘흠문지보(欽文之寶)’가 날인된 내사본이다.

5. 종합 평가

『항명조령』은 『명실록(明實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조서가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더욱 상세하여 명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선에서 간행한 본서는 중국본의 조령명을 번개하고 선별적으로 수록했다는 점에서 명대사의 조선 인식과 함께 중국본의 활용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서적라고 할 수 있다. (김소희)

핵심어 항명조령(皇明詔令), 부봉상(傅鳳翔), 장부(張溥), 명실록(明實錄), 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 집옥재(集玉齋), 내사(內賜), 중국본(中國本)

참고문헌

王重民, 『中國善本書提要』, 上海古籍出版社, 1983.






장서인 목록

1. 관인






印文				
	判讀 書名	宣賜之記 『聖學輯要』	奎章之寶 『作成錄』	奎章之寶 『梁大司馬實記』
印文				
	判讀 書名	集玉齋 『皇明詔令』	春宮 『尉繚子直解』	學部圖書 『萬國略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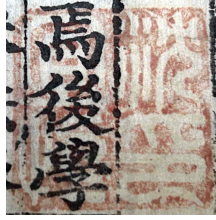

2. 사인(私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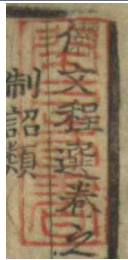




人物	正祖 (1752~1800)		韓龍雲 (1879~1944)	權瀟 (1846~1895)	吳炳武
印文					
判讀	萬機	弘齋	韓龍雲寄贈本	權瀟之印	藏書吳炳武
書名	『釋氏源流』		『妙法蓮華經』	『青松詩集』	『四禮便覽』

人物	李鼎命(1642~1700)		未詳	未詳	韓命舟(英祖代)
印文					
判讀	完山	李鼎命印	□□	顯	韓命舟印
書名	『史漢一統』			『襄陽耆舊錄』	『帝範』

人物	李顯謨(1685~1731)			宋時烈(1607~1689)	
印文					
判讀	文若	完山	李顯謨印	恩津宋時烈印	蘇湖莊
書名	『經國大典註解』			『經國大典』	

人物	未詳	安秉善(純祖代)		未詳	未詳
印文					
判讀	松軒	安秉善	安秉善	由□之章	□□
書名	『喪祭儀輯錄』	『史漢一統』	『常變通攷』		『李太白文集』

人物	未詳	洪良浩(1742~1802)	李奎恒(1707~?)	沈宜恒(1795~?)	李尙奎(正祖代)
印文					
判讀	大家幸典文衡	洪良浩印	韓山人李奎恒壽而印	沈宜恒印	臨瀛李尙奎章
書名	『海東名將傳』		『朱文酌海』	『朱書要類』	『讀書錄』

人物	未詳			
印文				
判讀	士心氏	月城世家	菊邨	閑戶看書
印文				
判讀	至樂莫如教子孫	□養□	月□□氏□養□□	人之能為人 惟腹有詩書
書名	『儷文程選』			

人物	金炳日(高宗代)	未詳	未詳	未詳	
印文					
判讀	安東	金炳日	□明遺□	世仙	志孝家法
書名	『讀禮隨鈔』				






人物	梁祐鎮[19世紀]	未詳			
印文					
判讀	南原梁氏祐鎮天綏章	松鶴雲友	水月山雲	金□□印	顯□□
書名	『天原發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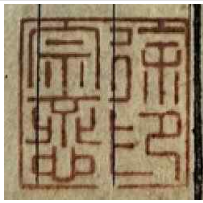




人物	未詳	洪善養(1727~1798)	鄭萬陽(1664~1730)	閔應洙(1684~1750)	
印文					
判讀	秋崗	洪善養	土浩	玉礪亭藏	驪興人閔應朱聲甫章
書名	『涵碧堂先生文集』	『水村集』	『朱書節要集解』	『楊山世稿』	






人物	鄭致述(19世紀)	宋煥箕(1728~1807)	李時稷(1572~1637)	洪直弼(1776~1852)	
印文					
判讀	鄭致述藏	松阜居士	恩津宋煥箕印	李時稷印	洪氏直弼伯應
書名	『家禮或問』	『石灘先生文集』	『鶴泉先生集』	『性理管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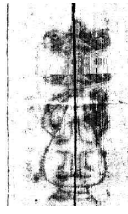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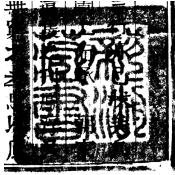
人物	鄭□愚	李雲承[19世紀]		孫秉周(1781~?)	
印文					
判讀	鄭□愚	溫城	李雲承	韓山	孫秉周字穉
書名	『詩宗』				『菊圃先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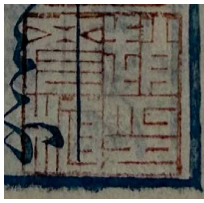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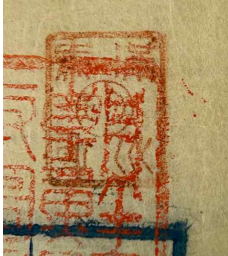

人物	李夏坤(1677~1724)		李光普(1675~?)		
印文					
判讀	李夏坤印	李夏坤印	完山	李光普	德章
書名	『樊川集』	『新修自警編』	『楊子法言』		

人物	未詳	安日濬	安瀾(1867~?)	未詳	趙能夏(1787~?)
印文					
判讀	耕讀齋	安日濬	順興安瀾敬儀	李氏魯□曾□	趙能夏印
書名		『方山集』		『初學字訓增輯』	『文史咀英』

人物	徐宗愈(1672~1720)		未詳		未詳
印文					
判讀	徐宗愈印	師孟	仲輝	赫洙	完山李蘭(?)家藏
書名	『詩選』		『漢雋』		『文選』

人物	金魯東(1839~?)			未詳	未詳
印文					
判讀	金魯東印	聖九	永嘉	明窓馮几	蒼虎軒
書名	『華東孝烈錄』				『尊華錄』

人物	未詳	崔弘海[18世紀]		徐文永[17世紀末]		宋近洙 (1818~1903)
印文						
判讀	[外仁齋]	[仁海人]	完山崔弘海印	徐文永氏	大丘	龍湖藏書
書名		『歷代臣鑒』		『刪補文苑植橘』		『聾翁遺稿』

人物	趙彥植(1855~?)				
印文					
判讀	漢陽	趙彥植印	趙彥植印	窓外遲日	博人
印文					
判讀	文叔	吉羊[祥]	滿川明□□	趙彥植藏書	
書名	『乙卯同庚帖』				

연구참여자

연구책임자: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공동연구원: 김소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은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임영현 (예천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병구 (고문헌관리학전공 문학박사)
 이다희 (고문헌관리학전공 문학박사)

연구보조원: 백성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
 임미정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해제집(2023)

인 쇄 2023년 9월 24일

발 행 2022년 9월 24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503, Fax: 02-590-0712 <https://nl.go.kr>

연구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250-01

ISBN 979-11-6513-358-0 (비매품)

※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정리·해제 연구 용역사업으로 제작되었음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해제집